

나에게
인생을
물었다.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자서전 쓰기 모음집



나에게
인생을 묻는다.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자서전 쓰기모음집

본 자서전 쓰기 모음집은 해당 저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원문의 일정 부분을 발췌하여 엮은 것입니다. 자서전마다 길고 짧은 분량이 다양하여 부득이하게 원문의 일정 분량만을 발췌하여 실음으로써 더욱 많은 참가자들의 자서전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본 모음집에 실린 자서전의 온전한 원문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인생을 묻는다.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자서전 쓰기 모음집

목차

006 발간에 즈음하여

I . 일대기 : 인생-사계(四季)

010 봄

062 여름

108 가을

144 겨울

II . 일화 :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170 일과 나의 삶

224 사람, 그리고 사랑

296 내 삶의 즐거움, 나의 비타민



III. 구술 : 아들 딸이 쓴 우리의 이야기

- 334 01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 342 02 노을이 그린 그림
- 350 03 파란만장 인생기
- 358 04 도박과 여행의 아들
- 364 05 인천에서 목포까지
- 370 06 두 번 가장이 된 나
- 376 07 20년 된 글러브에 담긴 이야기
- 382 08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 390 09 수없이 쓰러져도 일어서는 오뎅이처럼

- 395 편집후기

생활공간에 즙음하여

이 책은 2016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서 진행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의 성과물로써 나온 총 160편의 원고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가려 뽑아 따로 모은 모음집입니다. 2016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서는 국민 모두가 생활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을 통해 보다 쉽고 친숙하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행했습니다.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은 전국 12개 도서관에서 약 3백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자서전 쓰기’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그 속에서 스스로 인문적 성찰과 생각의 기회를 갖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나누고 그 속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들을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생각들은 다시 글쓰기로 이어져 각자 자신의 자서전으로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은 바로 현재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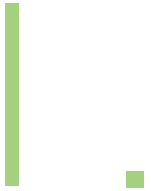
스스로가 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에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노년층 뿐 아니라 중장년층 그리고 청소년까지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부모님의 인생을 대신 자서전으로 써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부모님의 삶을 자녀들의 시각에서 이해해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우려되고 있는 요즘의 세태에서 자녀의 손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듣고 생각하며 이해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또 하나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이제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소소하고 소박한 이야기이지만 바로 우리 주변의 일상과 나와 함께 한 시간들을 담담하게 적어낸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잠시 짬을 내어 각자 삶의 의미와 행복을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는 공간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서관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좋은 인문학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자서전쓰기' 사업에 참여하여 20주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참여자들과 호흡을 함께 하며 이들의 서툰 글 솜씨를 다듬어 온전한 자서전으로 엮어 내는데 지도와 도움을 주신 강사님들과 사서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수고에 감사드리며, 본 사업의 기획과 심사뿐만 아니라 성과물 편집 등에서 160여 편의 글을 일일이 읽고 어여쁜 단행본으로 엮어주신 우웅순 기획위원님과 이영남 교수님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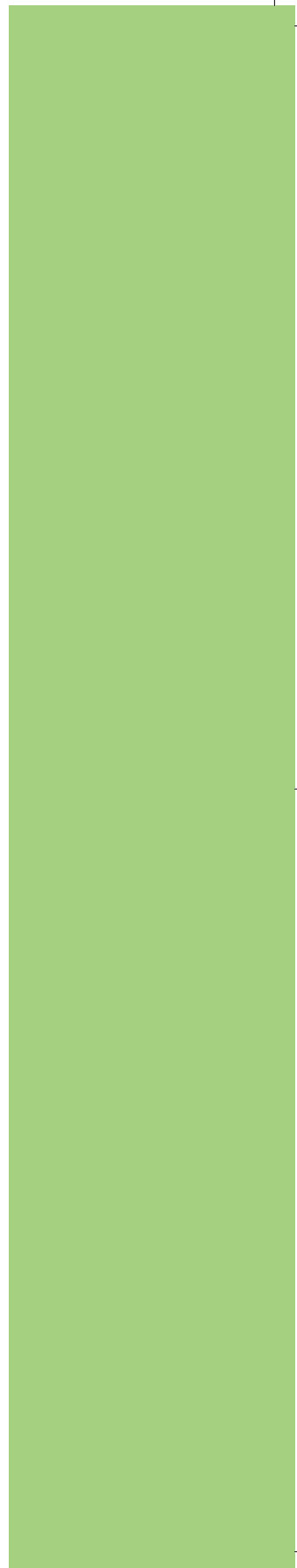
2016. 12. 31.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본부



나에게 인생을 묻는다.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자서전 쓰기 모임집



일대기 : 인생-사계(四季)

봄

여름

가을

겨울

01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봄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내가 살아온 길

이재은 | 강남도서관_서울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

해방되던 해 1학년만 14명이 논두렁길로 7킬로미터가 되는 면 소재지에 있는 소성국민학교에 다닐 때다. 입학식 이후 14명은 결석하는 사람도 없고 지각하지 않으려고 줄지어 앞만 보고 잘 다녔다. 한 달 쯤 지나면서는 날씨도 풀려 개구리도 눈에 보이고 냇가에 물고기도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한 아이가 개구리를 잡아서 멀리 던지니까 너도 나도 개구리를 잡아서 던지는 일을 하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학교 앞 언덕 위에 올라가서 보니 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여서서 조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보고 급히 뛰어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지금 가면 지각했다고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가지 말자고 한다. 그 말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합의가 되었다. 단, 집에 돌아가서 절대 말하지 않기로 단단히 약속을 하였다. 되돌아오면서 산에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도 하고, 편을 갈라 씨름을 하는 등 시

간을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생각이 난다. 집에 돌아 와서 약속을 잘 지켰는지 그 뒤의 일은 기억이 없다.

해방이 되어 타면(他面)이지만 보다 가깝고 다니기 좋은 입암초등학교에 다시 입학하였다. 1학기 담임선생님은 6학년을 맡았던 선생님이신데 좀 무뚝뚝한 편이어서 다른 건 별 기억에 없는데 학기말 통지표에 과목별 성적이 대부분 갑(甲)인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잘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학기 때 새로 오신 담임선생님은 자상하시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셔서 교실 분위기가 활기찼다. 선생님께 서는 맨 앞에 앉아 있는 나를 가끔씩 번쩍 들어 안아 한 바퀴 돌린 다음 내려 주시기도 하고, 말대답을 잘 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니 나는 학교생활이 즐거운 하루하루였다. 학년말이 되어 담임선생님께서 우리반에서 우등생이 6명인데 첫째 줄에 한 명, 둘째 줄엔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앉은 줄에는 두 명이라고 하셔서 나는 나하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해 했다. 드디어 종업식 날 운동장에서 우등상을 받는 학생을 1학년 1반부터 6학년 끝 반까지 연이어 부르는데 내 이름은 없었다. 나는 그때 너무 기대에 어긋나 혼자 많이 속상해 했다.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 학년말이 되어도 운동장에서 우등생 이름을 불러 주는 일은 없고 다만 통지표에 우등이라는 고무인만 찍어 줄 뿐 상장도 없었다. 그래서 더욱 1학년 때의 섭섭함이 오래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3학년에 올라와서 일제고사를 보았다. 선생님께서 채점한 시험지를 들고 들어오셨다. 그러시더니 성적이 가장 높은 남, 여 한 사람씩 불러 교탁 바로 앞의 책상에 함께 앉힌다. 나는 부끄럽기도 하면서 한편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옆 자리 여학생의 이름은 이순옥이다. 보아하니 머리도 단발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차림도 깨끗하였다. 나는 연필 두 자루를 책갈피에 끼

운 채 교과서와 공책 몇 권을 보자기에 말아서 허리춤에 묶고 학교 오갈 때 뛰어다니는 것이 일 쉼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가지런히 깎아진 연필과 지우개 등이 보기 좋게 필통 안에 들어 있었고 책가방을 짊어지고 다녔다. 나는 신이 나서 공부도 열심히 하니 공부시간도 더 재미있었다. 그런 즐거움도 잠깐. 옆 반에 형제간이 같이 있는 학생을 떼어 놓는다며 옆 반 반장인 형과 나를 맞바꾸면서 나는 그 여학생하고는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도 3학년 때부터는 체구가 작지만 성적을 중시하여 부반장을 시켜주어 덩치 큰 아이들로부터 무시당하지는 안 했다.

6·25전쟁으로 5학년 말에 읍내 학교로 편입학하여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웃집과는 널빤지로 성글게 울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말소리는 들린다. 뒷집 아이가 몇 학년인 줄은 모르는데 엄마가 공부하지 않고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고 야단치는 말을 들었다. 나는 집에서 아이한테 공부하라는 말은 처음 들었기에 좀 의아했다. 농촌에서는 아이한테 공부하라는 말은 아예 없다. 논, 밭에 가서 할 일도 많고 집에서 도와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것 자체를 호강으로 생각한다. 이런 환경적 차이로 인한 주눅도 드는 것 같았다. 키도 작고 옷매무새도 내가 보아도 촌놈 티가 나고, 모두가 기초가 잘 닦여 있어 보이는 학생들 속에서 긴장 속에 수업을 받는데 마침 수학시간이다. 주산으로 곱셈법을 배우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누구 나와서 해볼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내가 나가서 구구단을 외면서 칠판 위의 커 다란 주판알을 올렸다 내렸다하면서 마쳤더니 선생님께서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그 뒤로 힘을 얻어 잘 적응해 갔다.

6학년이 되어 전교 주변을 맡게 되었다. 전교 주변은 월요일 운동장 조화가 있는 날 각 교실을 돌아다니며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빨리 내보내는 일을 한다. 어느 날 5학년 반을 들어 갔는데 거기에 순옥이가 있지 않는가! 나는 반갑고 너무 놀랐다. 달려가서 손을 붙잡고 어찌된 일이나고 물어 보진 못했지만 그 이상의 설렘과 희망찬 방망이가 가슴을 두드린다. 그 뒤로 몇 번 주변 완장을 차고 그 반을 가보았지만 이미 운동장에 나가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내가 겪은 6·25전쟁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할 때 나는 입암초등학교 5학년생이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어느 날부터 휴교령이 내려졌고 한 달 남짓 지났을 때 학교에서 학생들 등교하라는 연락을 받고 학교에 갔더니, 벌써 태극기가 걸렸던 곳에 북한 공산당기가 걸려 있었고 공연단이 와서 연극을 하였는데 내용은 공산당 찬양이었다. 연극이 끝나고 학생들은 북한 인민공화국 국가부터 배웠다. 어느 정도 부를 수 있게 되자 돌아가서 동네 주민을 모아놓고 가르치라는 과제를 받고 하교하였다. 그 뒤로 며칠 동안은 빨치산 노래 등을 배워서 동네에 보급하는 게 우리의 일과였다. 그 후에는 학교에서 배웠던 책을 수집하는 일이 전개되었다. 1학년 교과서부터 가지고 있는 책을 몽땅 거두어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인민군이 학교를 점령하고 있어서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다.

동네에서는 경찰로 지냈던 사람들이 잡혀가고 머슴으로 살던 사람이 주인집에 들어가 가구를 함부로 꺼내오기도 하고 낯선 사람이 동네에 들어

와 사람을 찾더니 그 동안 고생 많이 했다면서 악수를 청하는 것도 기이하게 보였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은 차츰 좌익과 우익으로 양분 되어 갔다. 경찰 가족이었거나 잘 살았던 사람들은 우익으로, 숨어 지냈던 사람의 가족이나 가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좌익으로 말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갈수록 좌익 세력이 커져서 소위 우익이라는 사람들은 눈치나 보고 숨죽이고 살아간다.

아버님과 큰형님은 동네에서 계속 지내시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정읍 읍내 작은 아버지 댁으로 가셨다. 9.28수복 이후 이기 때문에 시내나 면소재지가 있는 곳은 조금씩 치안이 되어 가고 있었지만 우리 마을 처럼 관청에서 먼 곳은 더욱 치안이 나빠지고 있었다. 좌익 세력이 드세지고 세력을 키우기 위해 사람을 끌어 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형님을 찾아오라고 날마다 집에 와서 어머니를 못 살게 구니까 나를 시켜 읍내 다녀오라고 하셨다. 읍내 작은 아버지 댁을 찾아 가서 내용을 말씀 드렸더니 네가 돌아가서 얘기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너도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신다. 읍내도 밤이 되면 빨치산들이 경찰서 가까이 와서 교전을 벌이는 일이 간간이 있었다. 총알이 바로 귓가로 스치고 달아나는 발자국 소리를 부엌 낮은 바닥에 엎드려 숨죽이고 30분가량 듣고 있으면 잠잠해지는 일이 몇 차례 있었고, 가장 심했던 것은 경찰서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탈취하려고 정읍여고 담을 넘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읍여고 2층에서 경찰이 지키고 있다가 담을 넘는 빨치산 부대 7명을 사살시켰던 사건이다. 작은 집이 경찰서 가까이 위치해 있었기에 어린 나도 이런 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었다.

인민군이 머물러 있던 기간은 불과 3개월이었지만 어린 나에게도 북한 공산당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인민에게 어떻게 사상교육을 시키며 어떤 방법으로 한 곳으로 몰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다.

동네는 더욱 지내기가 어려워져 11월엔 작은 집 식구, 우리 집 식구가 모두 읍내 작은 집으로 모여 들어 20명의 식구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입암초등학교는 주둔하고 있던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불을 질러 학교건물이 완전히 소실되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학 서류도 떼려 갈 수 없게 되었다. 작은 아버지께서 나와 동생을 데리고 정읍서 국민학교 교장실로 찾아가 사실 설명을 하시고 편입학 말씀을 하시니까 교장님께서 선생님 한 분을 불러 간단한 테스트를 해 보라고 하신다. 수학 몇 문제를 내주시고 국어 읽기를 시켜 보시더니 선생님께서는 6학년으로 들어가도 되겠다고 칭찬까지 해주신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집은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경찰관으로 계셨던 첫 번째 작은 아버지께서 학살됨으로써 작은 집 식구가 갈 데도 없고 살아갈 방도가 없게 되어 같이 고생을 하며 지내게 되었고, 매형이 전사하시어 누님께서는 딸 하나 데리고 평생을 고생하시며 사시게 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나에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읍내로 피난 온 덕으로 읍내 학교로 편입학함으로써 학교 건물이 소실되어 한 해 학교를 다니지 못할 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봄이 되어 농사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식구는 시골집으로 들어가셨는데 큰형님 내외분과 바로 위 형과 나는 새집을 구하여 그대로 남아 학교에 다니게 되어 읍내 중학교 입학도 순조로웠다.

▶ 이 글은 이재은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에게 인생을 묻는다.



02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봄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별을 따는 남자

문순동 | 강서구립우장산숲속도서관_서울

내 고향 '지금대'

배산임수. 내 고향은 마을 뒤로는 필봉산 준령이 임금처럼 허리를 젖혀 앉아 있고 마을 앞으로는 낙동강 상류인 감천내가 유유히 흐르는 그야말로 하늘만 빼꼼히 보이는 첩첩산중 산골마을 '지금대'이다. 어릴 때는 동네이름이 너무 촌스러워 괜히 부끄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불러 봐도 싫증나지 않고 감칠맛 나는 이름이다. 감천 시내에서 거창방면으로 40여리 떨어진 작은 산골마을에는 캄캄한 밤이면 집집마다 호롱불이 창호지에 흔들거리고 어머니들의 다듬이질 방망이 소리가 토닥토닥 들렸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총총 빛났는데 들마루에 드러누워 하늘을 보면 북극성이 유난히 빛났고, 어린 우리는 전설 가득한 북두칠성을 유난히 좋아 했다.

개사디, 먹어바꿀, 소름산, 비른날, 도롱골, 토골, 딱반날... 수많은 골짜기의 이름이다. 골짜기마다 뜻은 알 수 없지만 정겨운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골짜기마다 도랑이 흐르고 맑은 물에는 가재, 증태기, 붕어, 미꾸라지, 개구리가 굴에서, 돌 밑에서, 수초사이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살아가는 곳. 사람들은 다랑이 논밭에서 나락이며 보리, 밀, 강냉이, 감자, 고구마, 콩을 심고 논두렁에는 감나무와 뽕나무가 무척이나 많았다. 산에는 소나무, 낙엽송, 오리나무, 아카시아, 참나무가 골짜기마다 군락을 이루고 봄에는 특히 진달래와 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그야말로 짙레꽃이 붉게 피는 정든 내 고향이다.

4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나는 할머니부터 나까지 대식구 속에서 가난하지만 정겨운 그런 가족들 속에서 자라났다. 집집마다 감꽃이 피어 떨어지면 아이들은 감꽃 잎을 벗짚에 줄줄이 꿰어 예쁜 목걸이와 팔찌로 만들어 제일 좋아하는 여자 친구에게 걸어주곤 했다.

가족 묘에서 바라본 마을 정경



마을규모는 30여 가구 되는데 대부분 문씨 집성촌이고 연안 이씨가 다섯 가구 있었다. 초가집에는 하얀 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어떤 집은 박의 무게로 금세 쓰러질 것 같았다. 또 처마가 낮아서 뜨락에 올라서면 어른들은 허리를 굽혀야 하고 마루도 없어 바로 디딤돌을 이용해서 방으로 드나들었다. 방문의 창호지는 어린애들이 밖을 보기 위해 손가락에 침을 발라 온통 구멍을 뚫어 놓았다. 작은 동네지만 큰뜸, 건너뜸, 새뜸으로 나누어져 있고 산비탈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건너뜸은 우리 집 마루에서 보면 살아가는 모습이 훤히 보였다.

마을 앞을 흐르는 감천내는 낙동강 상류로 제법 물이 많은 김천 시민의 젖줄이다. 냇가에는 수양버들과 모래사장이 평화로운 동네 풍경을 더해주고 어린 우리에게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다. 내를 건너는 다리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서 사람들을 아슬아슬하게 만들었다. 비가 많이 오면 다리를 건널 때 어지러워 엉금 엉금 기어서 건너가기도 하고 그래도 무서우면 물을 보지 않기 위해 먼 산을 보면서 힘껏 달려서 건너 다녔다. 더 큰 물이 흐르면 다리는 속절없이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데 물이 줄어들 때까지 도로로 나가지 못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고립되었다. 이 때문에 큰 비가 내리는 날은 학생들을 신나게 만들었다. 학생들은 동네 편에 서고 선생님은 도로에 서서 출석을 부르면 공식적인 휴일이 되는 것이다.

추억의 내 고향은 해맑은 자연과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들과 온갖 가족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복잡복잡 살아가는 정다운 이름 ‘지금대’ 다.

‘지금대’에서의 어린 시절

보리밭이 파릇파릇 해지면 어른들은 호미로 보리밭을 매고 동무들 과 나는 보리줄기를 꺾어서 피리를 불면서 해가 저물도록 놀았다. 보리가 누렇게 익으면 낫으로 베어 묶어 마당에서 장골들이 삼베옷 입고 도리깨질로 타작을 한다. 알곡은 지게를 새끼줄에 묶어 세우고 체를 거꾸로 얹어놓고 한 사람이 타작한 알곡을 땅으로 떨어뜨리면 아버지가 돛자리를 양쪽에 잡고 바람을 부쳐 알곡과 보리수염과 검불을 분리한다. 보리수염은 까칠까칠해서 어린 나는 몸에 묻을까 두려워 멀리서만 구경했는데 보리 탈곡을 할 때쯤이면 배고프고 고단한 보릿고개가 끝났다.

지금은 과수원이 된 논과 밭



보리농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 되는데 우선 논 갈기로 벼농사가 시작된다. 소에다 멩에를 엮고 쟁기를 걸어서 논을 갈 면 힘든 소는 허연거품을 내면서 거친숨을 토해낸다. 처음 일을 하는 소나 익숙하게 훈련이 되지 않은 소는 어린아이들이 고삐를 쥐고 소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 때마침 장마로 비가 오면 물을 가두고 준비해 둔 거름을 뿌리고 가래로 논을 잘 고른다. 모내기는 집집마다 돌아가며 품앗이를 하여 공동으로 하는데 못자리에 서 모를 찌서 못줄을 대고 많은 인원이 일렬로 서서 모내기를 한다. 한 줄은 좌에서 우로 심고 한 줄은 우에서 좌로 심으면서 움직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모심기가 서툴면 옆 사람 몫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마을 사람 모두 엄청난 모내기 숙련공이었다. 어린 아이들은 못줄을 대기도 하고 모를 공급하는 일도 했는데 하나같이 무척이나 고단한 작업이다. 어머니와 형수님이 새참을 이고 오면 오랜만에 갈치나 고등어 찜 등이 찬으로 나오고 나무 그늘에 빙 둘러앉아 어른들은 막걸리를 곁들여서 새참을 먹는데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모를 심고 나면 할머니는 논두렁마다 나무 송곳으로 땅을 찔러서 땅에다 구멍을 내고 구멍마다 두 알 세 알씩 콩을 심었다. 소가 많이 다니는 논두렁에는 깨를 심었는데 소가 콩을 좋아해 걸어가면서 눈 깜짝할 사이 혀로 감아 뜯어먹기 때문에 소가 싫어하는 깨를 심었던 것이다. 심은 콩을 새가 파먹지 못하도록 논두렁마다 허수아비를 세워 놓곤 했는데, 새가 허수아비에 앉아 노는 모습을 보면 어린 나의 눈에는 '새의 눈에도 허수아비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가뭄이 심한 해는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하고 벼 대신 수수를 심는데 그해에는 온 가족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냇가에 보를 막아 물을 대서 가물어도 모내기를 하는 건너 마을과는 달리 다락논에 천 수답뿐인 우리 동네의 설움이 묻어난다. 그런 해에는 쌀에 수수를 많이 섞어서 밥을 하는데 어린 내 입맛에도 감촉이 까칠까칠하고 맛이 없어 철없이 투정을 부리곤 했다.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면 어린아이들은 빈 사이다병을 들고 논두렁으로 나가서 메뚜기 사냥을 나간다. 나락 줄기에 혼자 있는 놈, 다른 놈에게 업혀 있는 놈이 무수히 붙어 있는데 우리는 빨리 많이 잡을 욕심에 업혀 있는 쌍둥이만 잡아서 빈병 가득히 잡아오면 어머니는 날개를 제거하고 잘 볶아서 찬으로 내어 놓거나 형님과 누나 들 도시락 반찬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지금도 입안에 살아있는 것 같다.

늦가을 햇볕이 좋은 날을 골라서 남자들은 낮으로 나락을 베는데 한 사람이 다섯줄정도 베어 나가면서 벼를 가지런히 베어 놓으면 다음 사람이 베어 나간다. 벼 베기는 벼를 잡는 손이 무척 아프고 벼가 살갓에 스쳐 매우 따가워서 토시를 해야 하고 또한 허리를 굽히기 때문에 허리가 무척 아프다. 논바닥에 가지런히 베어 놓은 벼는 며칠간 햇볕에 잘 말리고, 그 후 여자들이 벼짚으로 묶어 단을 만들어 중간을 접어서 세워 또다시 햇볕에 말린다.

잘 건조된 벼단은 어른들이 지게나 소달구지로 집으로 날라 탈곡기를 발로 밟으면서 타작을 한다. 다 탈곡된 나락은 보리와 같이 검불을 제거하고 명석에 잘 말려서 뒤주에 보관한다. 집에 쌀이 떨어지거나 쌀을 팔기 위해서 아버지는 소달구지에 나락을 실어다 정미소에서 쌀로 도정을 한다. 쌀겨는 소죽을 쓸 때 넣어서 소를 살찌우는 데 소중하게 사용되고 껍질은 소 마구간에 넣어서 농사짓는 거름으로 사용하게 된다. 어린 우리 형제들은 추수가 끝난 논에서 벼 이삭을 줍는데 다른 애들이 먼저 주워가지 않게 이른 아침 서리 내린

논을 누비고 다녔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이삭을 주워 제출하라는 숙제도 있었고 곡식을 쥐가 먹지 못하도록 쥐약을 놓아서 쥐의 꼬리를 3개씩 잘라 제출하라는 숙제도 있었으니 당시의 가난을 말해 준다.

▶ 이 글은 문순동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3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봄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우물 안 개구리의 삶

엄영순 | 강남도서관_서울

나의 어린 시절

6·25 동란으로 우리는 읍 화평동에다 집을 한 채 구입하여 두 집 살림을 시작했다. 집 가까이엔 꽤 긴 냇물이 흐르고 양옆으로는 크고 작은 빨래판 같은 널찍한 돌들이 길게 줄을 지어 놓여있어서 빨래도 하고 여름이면 낮은 곳에 선 떡도 하고 머리도 감고 노는 아이들도 많았다. 시냇물 중간쯤엔 양쪽을 건너는 다리가 놓여있어 아이들이 다리 밑에서 물장구치고 떠들며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다리를 건널 땐 부럽기만 했다.

읍에 있는 집 살림은 할머니가 하시면서 장날이면 꼭 학교 끝난 후 들리러 하여 가면 허약하고 편도가 아파 힘들어하는 날 위해 복어탕을 맛있게 끓여 놓고 먹이셨다. 여러 해 동안…… 할머니의 오랜 사랑과 보살핌으로 지금까지 편도선으로 아파 고생한 기억이 없다. 그래 누가 편도가 부어 병원 이야기 하면 나는 꼭 복어를 권 한다. (할머니 사랑을 얘기하면서)

내 생각엔 그때부터 엄마는 몸이 조금씩 좋지 않아 자주 아파하셨다. 회복 되시는 듯하다가 다시 아프고, 전쟁 중이라 약과 병원 치료도 쉽지 않았다. 다행히 완쾌되어 가는 듯했는데 욕심에 그만 돌 파리의 껌에 혹하시어 할머니와 아버지 몰래 출처 모르는 민간약을 드시고 악화되셨다. 빨치산은 밤마다 찾아와 식량과 약과 의복, 신발, 다 가져가기를 6학년 때까지 계속되었다.

6학년- 여름방학 때면〈하계 경찰학교〉라 하여 경찰과 함께 동호해수욕장에 가서 방학을 즐기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여름학교에 뽑히려면 성적이 6학년 전체 20% 안에 들어야 했다. 내 땀엔 식은 땀을 흘리며 노력하여 가게 되어 기뻐 뛰었다. 방학하고 며칠 후 설렘으로 준비물을 배낭에 챙기는데 엄마가 내방으로 왔다. “꼭 가야겠느냐”고 물으셨다. 난 놀라고 이상하여 고개 들어 쳐다보았다. 엄마 얼굴은 창백하고 이상했다. “응, 난 가고 싶어! 가지 말라면 안 갈게.” 하면서도 눈물이 비오듯 흘렸다. 그날 오전에 엄마는 정신을 잃었다. 읍에서 할머니 언니 오빠 아버지 달려오시고 정신이 들으셨을 때 아버지가 먹고 싶은 걸 물으시니 가슴이 답답하다며 시원한 수박이 먹고 싶다하시어 수박을 사 배달되었다.

밤이 무서워 다 읍으로 돌아가시고 엄마와 일꾼들과 두 동생과 아주머니들과 나만 남았다. 그날 저녁 각 방에서 자는데 나는 해수욕장에서 뛰놀며 지낼 친구들을 생각하며 울다 늦게 잠이 들었다.

아침에 귀머거리 아주머니가 자꾸 깨웠다. 어서 엄마한테 가보라고 손짓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엄마는 누워계시며 나에게 건너 방에 가서 바늘과 실과 하얀 천 그리고 가위를 가져 오라하셨다. 말씀대로 준비하여 가져가니 천을 오려 엄마가 입고 누워 계시는 속 바지에 주머니를 만들라 하신다. 나는 놀라고 떨렸다. 바늘이 엄마 살을 찌를까 겁도 나고 마음에 안 들으셨는지 야단도 치셨다. 어렵게 다 완성했다. 엄마는 요 밑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끄

집어내라 해서 보니 많은 돈이 보자기에 쌓여있었다. 그중 지폐 100환을 내게 주시고 많은 돈은 내가 달아드린 속바지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를 꿰매라 하셨다.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한 후 100환을 들고 방을 나와 지금쯤 동호해수욕장에 도착하여 신나게 뛰어놀 친구들을 생각하며 울기도 하고 한숨도 쉬었다.

긴 여름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엄마는 혼자서 주무시고 나는 내 방에서 많은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다. 아침이 어수선하다. 머슴들은 이리 저리 사실을 알리려 달려가고, 할머니 아버지 언니 오빠도 오시고, 아주머니들은 울며 “어쩌냐!, 어쩌냐! 어린 새끼 다섯을 두고 어찌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그때 죽음을 처음 보았다.

나는 슬프지도 믿어지지도 않았다. 엄마 방에 들어갔다. 아랫목에서 옆으로 누워 편안히 주무시는 것 같았다. 집안 풍습대로 (그때는 남자는 9일장 여자는 5일장) 우리 다섯은 누런 삼베옷과 머리띠와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하루에 몇 차례씩 곡을 하라 하셨다. 찌는 삼복더위에 5일장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기에 집안 곳곳과 시신에 알콜 소독으로 위생에 만전을 기울이다보니 엄마의 온 몸은 비에 젖은 것 같고, 내가 애써 달아드린 주머니 속의 두둑한 푸른색 돈은 다 젖어 보이게 됐다. 그 모습을 본 집안 어른들과 많은 분들은 또 울으시며 “노자돈 안 넣어 줄까봐 돈까지 많이도 준비하셨다”며 통곡.

꽃가마 만들어 타시고 집과 동네의 잘 다니시던 곳을 만사지에 쌓여 한 바퀴 돌며 작별 인사드린 후 집에서 가까운 뒷산에 무덤이란 집에 누워 계신다. 그날이 음력으로 1954년 7월 초하룻날이다. (엄마의 예쁜 꽃상여는 동네 상여 집에 넣어놓고 동네에서 사용하는 줄 알고 있다) 지금은 상여집도 상여도 역사 속 뒤안길에 있으리라.

엄마가 생존해 계실 때는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여 할머니를 따랐다. 하지만 엄마가 뒷산에 계시면서부터는 아침 낮 달 밝은 밤이든 가리지 않고 시시때때로 내 발걸음은 엄마를 향하여가고 그 곳에서 공부도 노래도 이야기도 하며 놀면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살아온 집, 화평동 집, 관사 세 곳 다 내게는 추억이 많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오래 머물며 노래 부르고 울고 웃고 잠자고 책 보고 공부하던 곳은 내 방 다음으로는 엄마 무덤과 들녘이 떠올려지고 그리워진다.

지금도 가끔 궁금해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으셔서 날 세상에 보내 주셨으며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나를 잉태하였을 때 누가 무슨 꿈을 꾸셨을까? 얼핏 듣기엔 할머니가 꾸셨는데 아들 꿈이 아닌 딸 같아서 서운하여 엄마한테 말도 안하고 그냥 떨쳐 버리고 잊고 사셨단다. 내가 커서 물어 봤을 때에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그지 없이 궁금하고 섭섭하다.

아들 손 귀한 엄씨 가문, 서둘러서 어린 아버지 14살 어머니 17 살에 혼례 치루고 아버지 21살에 첫아들 낳아 잔치, 잔치 후 외갓 집 다녀온 얼마 뒤 홍역하다 첫아들 잃고 집은 초상집. 22살에 아들 아닌 딸 낳아 엄마는 죄인. 집안은 실의에 차 낙담 근심에 차 있던 어느 날 집에 스님이 시주받으러 오셔서 할머니 시주 들고 나가니 스님께서 할머니 얼굴을 한참 뚫어지게 보시더니 이 가정에 손이 귀한데 딸이라고 서운하게 여기면 자손이 끊긴다 하셨단다. 외가에 다녀온 뒤 첫 아들 잃었다 하여 나는 태어나서 외가에 한 번 도 가본 기억이 없다. 아니 보내 주지 않았다.

스님이 다녀간 후 우리 언니는 보물중 보물이요, 재산 일호가 되었다. 읍내 5일장에는 아버지 위하여 가기보다도 언니 좋아하는 고기 사러 갈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그 덕으로 언니 별명은 드림통, 물렁이, 내 보기엔 지금도 마마 곶(?) 같다.

초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겁이 없고 대견스럽기도 하다. 단기 4276년 2월 15일(서기1943년 그때는 단기사용) 태어났을 때 나는 집안에 큰 기쁨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 위로 딸 아들인데도 은근히 아들이기를 내심 기다리셨다니 3살 터울로 태어난 내 동생도 또 딸이었다. 두 이레가 지나도 아버지는 여동생을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으셔서 할머니는 며느리 볼 면목이 없었던다. 아침에 식사를 하실 때 아기를 아버지 무릎에 안겨주며 딸이라도 이목구비가 별나게 예쁘다며 할머니께서 안겨드렸단다. 한번 슬쩍 보시더니 한참 후 다시 보고 안아 주시며 “예쁘긴 하네요.” 하신 뒤로 아버지의 섭섭함도 어머니의 미안함도 차츰 사라졌다고 한다.

나는 자라면서 유독 편식이 심하고 투정이 많았나 보다. 오남매 중 돌연변이인 듯 약하고 왜소하고 잘 울고 허약 자체다. 또 나에겐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누구나 한 번은 꼭 한다는 홍역을 안 한 채 이 나이 되도록 지내고 있다. 죽어서도 한데... (동네 이웃집 아이가 홍역을 곱게 치루었다고 전송 떡을 하면 제일 먼저 가져다 먹이곤 하여도 효과가 없었던다.) 또 하나는 치아다. 남들은 사랑니가 날 때 아파하곤 한데 나는 지금까지도 나올 기

미가 없다. 그런 내가 떼쟁이로 떼를 써 학교에 들어가고 또 입학식 날 교회도 가게 되어 곱의 축복으로 흥이 솟았다.(추운 겨울 학교 오가는 길에 손발이 쪼뼛 얼어서 힘도 들었지만) 연필에 침을 발라가며 숫자, 글자 쓰고 책 읽고 공부하는 것도 좋았다. 또한 동무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예쁜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 따뜻한 선생님께서 내 불편함을 챙겨 주며 가르쳐 주시고 함께 놀아주시는 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김하열 선생님, 김보하 선생님, 김창식 선생님, 백 선생님) 또 1학년 4반 때 한반으로 만나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이었고 지금까지 우정을 이어 오는 희자, 태희, 경현, 민환, 선애랑이 있어 고맙다,

눈 내리는 추운 일요일, 셋길로 뛰다시피 교회에 가면 목장갑 끼고 교회 마당 눈 치우시던 목사님께서 쪼뼛 언 내 손 감싸고 교회 안 난로 곁으로 가 녹여 주시던 인자하신 그 모습!

크리스마스 때면 캐럴송 부른다고 어른들 따라다니면 초가집 처마에다 남포 불, 호롱불 켜 놓고 부부가 나와 맞아준다. 두 손 모아 기도드리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끝나면 우리들을 방으로 안내한 뒤 따끈한 생강차와 엿을 내놓으신다.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맛을 알 수 없다. 교회로 돌아오면 예배드리기 위해 흔들여 깨울 때까지 우리들은 예배당 마루바닥 난로 주위에서 뚫어 떨어져 잤다.

6·25 전쟁이라는 남과 북의 비극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많은 사연과 힘들고 불편한 과정 과정을 견디면서도 추억은 쌓여 져갔다. 어린 우리들은 고사리 손으로 국군 아저씨께 손수건 한쪽 에 수를 놓고 위문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빨치산으로 밤이 불 안하여 읍에다 집을 사, 두 집 살림이 시작되었다. 나는 명절 때마다(추석, 설, 대보름) 언제나 읍에 있는 집에서 할머니가 준비해 놓고 가신 음식과 시루떡 과일을 먹으며 혼자서 집을 본다. 밤

엔 무서워 읊에 사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떡을 시루 채 놓고 먹으며 둥근 달이 크게 떠오르면 우리끼리 동화 속 연극놀이를 하곤 했다.(왕, 공주, 왕자, 시녀, 마녀, 귀신놀이, 콩주 팔쥐 놀이 등)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친구들은 시골 우리 집으로 몰려온다. 그때는 또 어김없이 하는 행사가 있다. 우리 집엔 위 아래채집에 문이 많았다. 그 많은 문짝의 창호지를 다 뜯어내고 새 창호지를 바르는데 뜯는 작업은 친구들과 과 내 담당이다. 힘이 들었을 텐데 그저 즐겁고 재미있기만 했다.

요즈음도 가끔 어릴 적 연극놀이, 창호지 뜯던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다. 동네 친구가 없는 내겐 학교친구가 제일 소중하고 큰 재산이다.

엄마는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았다. 나는 6학년이 되었다. 여름방학 때면 동호해수욕장에서 하계 경찰학교가 열린다. 성적이 6학년 전체에서 20% 안에 들어야 했기 때문에 등에 식은땀을 흘리며 노력하여 뽑혔는데 참가하지 못하여 슬퍼서 울었던 일! 엄마는 그날 밤이 당신이 이승에서 마지막 임을 알고 꼭 해수욕장 가겠냐고 물으셨을까?

그날 철없이 고집 부려 해수욕장에 갔다면? 평생 마음 아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끔찍하기만 하다.(음력 1954년 7월 1일 12살 때 엄마를 잃었다) 죄인의 상복을 입고 허리띠를 매고 머리엔 죄인의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시시때때로 곡을 5일간 시키는 대로 했다. 철이 없어서일까? 부족함이 없어서일까? 엄마는 아프신 날이 많았고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에 할머니를 더 따르고 좋아해서 었을까? 당시엔 슬프긴 했지만 간절함을 몰랐던 것 같다.

무덤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뼈 속까지 사무치게 엄마가 그리고 한이 서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 입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 고창군은 읍이 하나, 면이 14개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안에 여학교는 하나뿐인 걸로 기억된다. 그러니까 중학교에 가려면 입시준비를 하기 위해서 <새공부>란 공과를 가지고 머리를 뿔아 메고 매달려야 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한 친구도 있지만 14개면에서 모이기에 긴장이 되었다.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과외공부하고 2키로가 넘는 캄캄한 신작로 길을 혼자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농촌에서는 음력 정월 대보름이면 강통에다 숯불을 담아 끈을 달아 뱅뱅 돌려 가며 눈두렁 받두렁을 태우는 쥐불놀이를 한다. 이상하게도 눈이 와 쌓였다가도 불놀이에 태운 자리가 먼저 녹는다. 눈 내려 하얀데 녹은 그 자리는 검어 꼭 사람처럼 보인다. 온몸엔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으로 다리가 떨리며 힘이 없어진다.

어린 그때부터 나는 어둠속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알았다. 약하고 겁이 많은 나로서는 중학교 가기 전 쓰러져 죽을 것 같았다. 체력에 한계가 와 읍에 있는 할머니 곁으로 갔다.

시험 성적을 염려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열손가락 안에 들었으니) 허나 기뻐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당연하다는 반응에 섭섭하고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왔다.

졸업식 날! 다른 친구들은 엄마랑 아빠 친지들이 오셨는데 무슨 사정인지 아버지도 안보이고 외로웠다. 눈물이... 기가 죽어 있었는데 친구 엄마 세 분이 오셔서 내가 순이 엄마로 왔다면 축하선물도 주시고 두 팔로 감싸 안아주셨다.

엄마가 돌아가신지 6개월 되었는데 아버지 재혼 준비로 온 신경이 집중되었다는 걸 늦게야 알게 되었다.

동네 분들은 부러워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남녀 14명이 입학하였는데 형편상 중도에 다 그만두고 여자인 나 하나만 졸업하고 중학교에도 나 하나만 진학하니... 그분들 마음에 어려운 형편이 얼 마나 한스러웠을까?

아주 어릴 적 나랑 함께 놀이할 또래가 없어 심심함 빼곤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다. 떼쓰고 어리광으로 귀한 대접을 받아도 보았고, 학교에선 친구 사랑, 선생님 사랑과 관심도 받았다. 소풍, 운동회 날이면 지나치리만큼 준비하여 나눠주시며 좋아하시던 어머니. 제일 약한 나를 강하게 키우려고 산으로 데리고 다니셨고, 3~4 학년 때부터 정구 라켓을 손에 들려 데리고 다니신 아버지. 때로는 그런 부모님의 속을 상하게 하여 울리기도 했으니...

초등학교 때 나는 기쁨과 슬픔과 번뇌 무서움 외로움을 다 겪고 맛 본 것 같다.

▶ 이 글은 엄영순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4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봄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지나온 흔적들

김정임 | 울산과학대학교 도서관_울산

소녀 가장

지금도 물론 나는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에게서 생겼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1975년 2월에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식구 모두 밥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이었다. “앞으로 내가 울산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식구들이 갈 집이 없으니 당분간 누군가가 엄마를 도와서 함께 1년 동안 구내식당에서 장사해서 식구들의 의식주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하셨다. 그러자마자 나는 그냥 자신있게 아버지께 당당하게 말을 했다. “제가 휴학을 하고 어머니를 도와 이곳에서 장사를 1년 하면 아버지께선 울산에 가서서 사업 하셔서 얼른 자리를 잡으세요”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할 뿐이다. 그때 당시 나는 아버지가 성공하실 것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큰 희망을 가슴에 뿔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딱 맞을 1년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 대학은 당연히 가고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

빛 희망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말 그대로 나는 하루하루를 이를 악물고 살아갔다. 그러나 일 년은 생각한 것보다 길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험난하고 고달프기 짝이 없었다. 그 일 년 동안 내가 보고 경험하고 겪었던 일은 내가 직장 퇴직 후 시간을 내서라도 상세히 적어보고 싶다.

근 1년이 나는 열심히 엄마 대신 장을 보고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식당을 운영하였다. 정말 죽지 못해 나는 하루하루 견디며 다시 고등학교에 복학하는 날만 기다렸다. 그런데 1년 후 우리 집 상황은 그리 호전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복학을 했지만 나는 자취할 방조차 얻지 못해서, 친구네 집에 3개월 얹혀살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나는 2학년년을 겨우 마치고 여러 번 이사해가면서 자취생활을 근근이 유지했다. 그러다가 나는 3학년도 채 마치기 전에 대학시험만 겨우 치르고 나서 서울로 오가다가, 2월에 되어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다. 서울에는 취직해서 회사에 다니던 언니가 녹번동에 방을 얻어 살았다. 졸업후 나는 언니가 사는 자취집에 같이 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지난 1여 년간 춘천에서 배를 주리며 혼자 차가운 방이나 친구 집에 얹혀살거나 사글세 집을 전전공궁했다. 나는 정말 나의 온몸에서 아픔으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특히 나는 고등학교 1년을 겨우 다니고 휴학해서 장사할 때 저녁마다 별들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때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나는 밤마다 별들을 보며 위로 삼았다. 그러면 내 희망은 주위의 물체를 삼켜버린 어둠에서 찾아보았다.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이 내 소망을 응답해주었다. 특히 어둠에서 유난히도 반짝이는 별들 속에서 어느 별인지 몰라도 나는 보이는 대로 희망의 화살을 당겼다. 그리고 나면 나는 또다시 내일을 기다려 보았다. 나는 살며시 밤공기의 입에 물고 돌아다니는 내 희망에 속삭여 보았다. 그러면 어느새 내 눈은 하늘에 펼쳐지는 별들의 잔치에 초대되어 춤을 추고 있다. 내 별들이 너도나도 나에게 다가와서 하루의 고달픔을 위로해 주러 몰려온다. 주위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마저 주변의 모든 물

체를 꼴딱 삼켜버리고 별들과의 나만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어느새 하늘의 별들과 친구가 되어 속삭여 본다. 나는 수많은 별 중에서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별을 애타게 찾아본다. 어느새 별 하나가 나를 향해 유난히도 반짝이면서 웃는다. 나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는 내일을 위해 잠자리 간다.

이처럼 나는 밤과 별들에게서 위로를 받아 가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내 가슴은 이미 저 별들에게 맡겨 놓은 채 나는 2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 또다시 춘천으로 홀로 내려갔다. 남은 2년의 고등학교 생활은 또 다른 고통과 외로움으로 메워졌다. 그래도 나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슴에 간직한 채 2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견뎠다. 드디어 나는 복학을 했고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을 위해 치른 희생은 아주 컸다. 왜냐하면 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서 1년을 반납하였다. 이처럼 나는 아주 많은 댓가를 치르기까지 했는데도 사정은 낮기는커녕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을 곧장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내 목표는 대학, 그것도 언니가 졸업한 당시 명문여자 대학교였다. 나랑 같이 입시를 위해 다녔던 대성학원 친구들은 서울의 명문대 등을 당당히 들어갔던 것이었다. 나는 분명히 반드시 대학을 간다고 다짐했다. 더군다나 나는 노동자들 틈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잡지도 놓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나는 앞만 보고 마음속으로 꼭 좋은 대학 가서 보상을 받고 출세할 것이라고 나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휴학한 것을 후회한 적도 없었다. 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2달 뒤 1978년 4월 8일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서 나는 대학 진학의 꿈은 일단 접어야 했다. 하여간 당장 먹고 사는 일부터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내 인생의 고통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어찌 인생을 우리가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니까 굴러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볼일이다.

▶ 이 글은 김정임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5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봄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오늘이 끝이야

김주연 | 울산과학대학교 도서관_울산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1979년 3학년)

새벽 5시 전에 시장을 가야하는 엄마는 나와 아버지를 위해 밥을 해놓고 가셨는데 끼니마다 꼬박 밥을 챙겨 먹으면 저녁밥이 부족할 때가 있다. 아버지가 밥을 하셔서 나를 챙기는 날도 있고, 오후에 술을 드시면 저녁을 안 드시고 누워계시거나 저녁시간에 술을 마시러 나가시면 나 혼자 무엇이든 먹을 것을 찾아 먹거나 물로 배를 채우곤 했다. 3학년 봄쯤 아버지는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고 나는 스스로 밥이라도 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밥을 하시는 걸 봤을 때 별거 아니었거든. 양은 냄비에 쌀을 씻어 물을 붓고 연탄불에 올렸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밥물이 자꾸 넘쳐 뚜껑을 닫아 둘 수 없어 열어뒀다. 밥물이 다 말랐는데 쌀은 그대로여서 물을 더 붓고 또 붓고 또 부었다. 밥 타는 냄새는 나는데 흰 쌀이 그대로였다. 맛있는 밥이 될 때까지 물을 조금씩 더 부으면서 기다리면 되겠지. 그런데 냄비가 까맣게

변하고 탄내는 너무 많이 나는데 쌀은 그대로 하얗게 밥이 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손가락으로 손잡이를 걸어 올리려는데 엄마가 들어오셨다.

“어마야~ 이게 웬 난리냐.”

양은냄비는 바닥이 구멍이 날 정도로 타서 버려야 했고 집안은 온통 연기가 자욱했다. 나는 밥에만 신경 쓰느라 연기가 그렇게 찬 줄도 몰랐다. 냄비를 못쓰게 했고 쌀도 태우고 불이 날뻔 했으니 난 죽었구나 싶었다.

“엄마, 내가 밥을 해 먹어 보라고 했는데,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엄마는 울음이 터진 나를 옆으로 밀면서 말씀하셨다.

“뭘 알고 해야지.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뻔 했노. 이그 쫓쫓.”

야단은 커녕 쌀을 씻는 방법, 물을 재는 방법, 연탄 불 조절 방법을 설명해주셨다. 죽도록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큰 야단도 치지 않는 엄마가 너무 고맙고 죄송해서 영영 울었다. 엄마랑 나는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술마시고 잠들어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많이 미웠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 (1981년 5학년)

울산에 전학 와서는 나는 늘 혼자였다. 어머니는 새벽 5시가 안되어서 장사하러 나가시고 아버지는 누워계시거나 혼자 밥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우시거나 술을 드시는 등 자신을 위한 움직임만 할 뿐 등교해야 하는 나를 챙기진 않으셨다. 큰 언니도 있고 작은 언니도 있는데 한사코 나를 먼저 데리고 온 아버지가 알밋고 원망스러웠다. 술심부름을 잘 했던 어린 시절의 나를 스스로 원망했다. 큰 소리가 나는 게 싫어서 술심부름을 하는 5학년의 나도 미웠다. 그렇게 아버지와 술 그리고 나 모두가 싫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늘 상상했

다. 아버지와 술 그리고 내가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어떤 상황을...

엄마가 야채 장사를 할 땐 풀 냄새가 역겨웠다.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할 땐 생선 비린내가 역겨웠다. 엄마가 조개 장사를 할 땐 조개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팠다. 엄마가 장사를 할 땐 장사하는 품목에 한해서 가족들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유독 나는 엄마가 장사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거부반응이 일어났었다. 엄마가 조개 장사를 제일 오래 하셨는데 그 동안에는 된장찌개를 끓여도 해산물은 하나도 넣지 못했다. 해산물 냄새만 나도 내가 머리가 아프다며 짜증을 냈기 때문이다. 큰언니는 나와 반대로 엄마가 장사하는 품목마다 제일 잘 먹었었다. 나의 이런 별난 거부반응 때문에 집에서 같이 먹는 동안에 큰언니는 먹고 싶은 해산물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다. 나는 25세쯤 되어서야 두통없이 해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엄마가 장사하는 해산물을 먹지는 못했지만 학교를 마치면 시장에 가서 엄마 자리에 앉아 조개를 까곤 했다. 하루 종일 조개를 까서 팔아야 하는 엄마의 손은 늘 통통 붙어 있었고, 손 여기저기 조개껍질과 칼에 의한 상처들로 성하지 않았다.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조개라도 까주고 집에 가면 뭔가 할 일을 한 거 같았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딱 한번만(1985년 중3)

중3이 시작되자마자 고등학교 진학 상담이 있었다. 늘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법도 몰랐고 생각해본 적이 없이 중3이 되었다. 공책 한 권도 편하게 사본적이 없었다. 공책을 한 권 사면 표지 바깥쪽, 인쪽, 내지 모두 필기하면서 썼다. 교실바닥에 떨어진 지우개라도 주우면 몰래 주머니에 챙겨서 집에 갖고 가서 언니가 썼던 공책을 지우는데 사용했다. 내가

다시 쓰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고등학교와 꼭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생겼다. 얼핏 듣기로는 현대여고는 시설도 좋고 현대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라서 혜택이 많다고 했다. 담임선생님은 중앙여고나 학성여고도 겨우 갈 정도의 성적이라며 현대여고는 어렵도 없다고 했다. 아버지는 어디든 가고 싶은데 가고 갈 수 있는데 가라고 했다. 아버지는 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지만 나는 무책임한 아버지라고만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울산여상을 가서 최대한 빨리 취업해주길 원하셨다.

“큰언니는 현대여고 가게 됐으면서 왜 나는 반대해! 나도 갈거야.”

담임선생님은 떨어질게 뻔해 원서를 써 줄 수 없다고 하셨고, 중앙여고, 학성여고도 갈 수 없는 성적이라고 하셨다. 하도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나에게

“그럼 엄마를 모셔와. 엄마가 떨어져도 괜찮으니 원서 써주세요 라고 하면 써줄게.”

“뻔히 장사하느라 자리 뜰 새 없다는 거 알면서 모시고 오라는 건 무슨 속셈이야? 포기하라는 거지? 두고 봐.”

담임선생님의 말씀은 나를 약을 오르게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모시고 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다.

“엄마, 학교 선생님이 오래. 고등학교 갈려면 엄마 모시고 오래. 딱 한 번만 학교에 가 주세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학교 갈일 없을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장사중인 엄마를 박매월 할매 뒤를 쫓으면서 준비물 챙겨달라고 징징대던 실력으로 무조건 뒹달해서 조개껍질 부스러기가 잔뜩 묻어있고 어패류 냄새가 진동하는 전대를 걸친 그대로 엄마를 모시고 학교로 갔다. 가는 내내 엄마를 들볶았다.

“엄마는 무조건 선희가 원하는 대로 원서 써주세요. 라고 말만해요.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원서 써달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엄마의 간절한 부탁과 떨어져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차

확인하신 담임선생님은 현대여고 원서를 써주시겠노라 약속하셨다. 이제 합격 불합격은 내 손에 달렸다. 공부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무조건 교과서를 외우는 것으로 공부를 했다. 학교 문이 열리는 6시 30분에 등교를 해서 혼자 교실에 앉아 아이들이 올 때까지 교과서를 읽고 쓰고 외웠다. 학교 문을 닫을 때까지 혼자 앉아 교과서를 읽고 쓰고 외웠다. 이해할 시간도 없이 무조건 외웠다. 그러다보면 순간 이해되는 부분이 생기고 물꼬가 트이기도 했다. 점점 성적이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점수였다.

단풍이 들고 조바심이 생길 때 쯤 어느 날 살짝 비가 오는 아침에 학교에도 착했는데 육중한 철로 된 교문이 닫혀있었다. 자물쇠는 풀려있었다.

‘내가 밀어 열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끼이이이익~’

철문을 미는 순간 빗물에 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철문 접히는 곳으로 순식간에 들어갔다. 철문은 힘을 받은 상태라서 알아서 접히고 있었고 내 손가락은 그 속에서 짓눌리면서 으스러지고 있었다.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는데 당직 선생님이 발견하고 달려 오셨고 수습을 하고 병원치료를 받게 해주셨다. 모양은 조금 눌렸지만 티 안날 정도로 잘 아문 네 번째 손가락은 목표를 위해 무조건 열심히 하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 여기있어요 (1987년 고2)

집이 있는 반구동에서 현대여고를 통학할 수 있는 버스는 5번, 5-1번 두 대 뿐이었다. 중공업과 자동차를 다니는 아저씨들의 회색빛 근무복은 술 냄새, 땀 냄새, 담배냄새, 해장국냄새와 같은 불쾌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다.

7시에 버스를 타면 출퇴근시간과 겹쳐서 버스 안이 짹짹 미어터질 듯 했다. 그래서 3년 동안 5시30분 첫 차로 등교하고 밤 11시 20분 막차로 하교했다.

현대여고를 가면 혜택이 많을 것이라 알았던 것은 현대가족이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대중공업 노동일이라도 하려고 애쓰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괜한 원망만 커졌다. 공납금은 한 번도 제때 낸 적이 없어서 항상 교내 공개방송으로 이름이 불리어지고 행정실에 가면 빨리 안한다고 혼이 났다. 공납금을 제때 못내는 것에 대해 부모님에게 불만은 없었다. 어차피 내가 선택한 인문계였기 때문이다.

항상 '연희 동생'이라고 나를 불렀던 황경섭 체육선생님께서 교내 매점 알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다. 쉬는 시간마다 5층 매점까지 나보다 먼저 번개처럼 뛰어 올라가 빨리 문을 열지 않는다고 성화를 부리는 아이들이 미웠다. 아니 사실은 부러웠나보다. 매 쉬는 시간마다 5층 매점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숫자가 줄지도 않았다. 점심시간은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친구들이 점심 해결을 위해 먼저 오기 때문에 점심 도시락을 먹고 올 수 없었다. 항상 매점 알바 친구랑 번갈아가며 도시락을 번갯불에 콩 볶듯 매점 안에서 먹는 등 마는 등 했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1~2분은 항상 늦게 들어갔다. 황경섭 선생님은 학교 바로 앞 목재공장에 알바 자리도 연결해 주셨다. 여름 방학 때 학교 앞에서 버스를 내리면 친구들은 학교로 들어가고 나는 길 건너 공장으로 알바하러 들어갔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속상했지만 나중에는 열심히 알바하는 내 자신이 기특하게 생각되었다. 알바생중에 고등학생은 나뿐이었다. 대학생들보다 열심히 잘 한다는 평가 덕분에 저녁 연장 알바도 했고, 겨울 알바도 자연스럽게 먼저 요청받았다. 교내 매점 알바와 방학 공장 알바는 등록금 해결에 도움이 되었고 황경섭 선생님은 내가 고등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인이셨다. 그런 분이 여름 방학 동안 돌아가셨다는 기합할 소식을 개학 후 학교에 가서 듣게 되었다. 그것도 모르고 개학 후 감사 인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한심스러웠다. 힘들 때 기댈 수 있었던 선생님을 잃었다는 좌절감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고 화가 났다. 그러던 중 여름 방학 동안 알바한 급여를 받아서 집에 들어간 날 어머니는 슬 드신 아버지랑 다툼이 있었다.

“남편이라고 맨날 술이나 먹고 도움이라고는 될 줄 모르니 자식새끼도 지들 좋은 것만 하지. 여상 가서 취업 나가면 돈도 빨리 벌고 같이 벌어서 덜 힘들텐데. 내말은 하나도 안 듣지.”

“돈! 돈! 돈! 그 놈의 돈, 돈, 돈!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여기있어요.”

“꼭!”

돈 봉투가 바닥에 첩퍼덕 소리를 내며 떨어지면서 지폐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는 놀라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시고 아버지는 별떡 일어나서 내게 소리치셨다.

“니가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행동을 해! 이게 엄마한테 할 짓이야?”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상황은 아니시죠. 엄마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누군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눈에 불뚱이 튀고 아버지는 휘청거리셨다.

“엄마가 돈, 돈 하게 만든 게 아버지잖아요. 저를 때릴 자격도 없다고요.”

서로 분노에 찬 아버지와 나는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멧살을 맞잡고 서로 우격다짐을 했다. 그때 엄마가 나섰고 당연히 뜯어 말리겠구나 싶었는데 내 등짝을 후려쳤다.

“아무리 못나도 네 아버진데 어디서 딸이 아버지 멧살을 잡아. 하늘아래 이런 일은 없다.”

기둥 같던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난 누구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했다. 그 슬픔과 반항심은 나를 고3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매일 밤 베개에 수건을 깔고 울면서 잠들게 했다.

▶ 이 글은 김주연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6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봄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도서관, 나를 성장시켰다

이애란 | 울산과학대학교 도서관_울산

여자 편견

아버지의 말은 큰 상처가 되었다. 1976년도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나의 귀에 대못을 박은 말은 ‘식잖은 계집애’였다.

“여자가 대학은 무슨”

“하라는 놈은 공부 안 하고”

“식잖은 계집애는 공부하려고 하고”

“너는 여상(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을 가”

“여상은 나오면 은행에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돈 모아 시집가야지”

이 말씀은 아버지에게 대한 반항감을 처음 갖게 된 것으로 기억된다. 왜 남자는 공부해야 하고, 여자는 공부하면 안 되는 거지? 초등학교 저학년 때와는 달리 공부를 꽤 잘한 나는 대학 진학 후 취직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버지

는 큰아들이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이후,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것이 큰 상처로 남았든지, 한사코 내가 대학 진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리고 지나치리만큼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내가 여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 진학 자체를 거부하는 듯했다. 아버지의 여자에 대한 교육 편력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이런 생각이 서물서물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의 성적은 대구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나 가장 우수한 여자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점수였다. 당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도회지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이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반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대구에 있는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나 대구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였다.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대구에 있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우수한 여자상업고등학교(제일여상과 대구여상)로 10여 명 내외로 진학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학생들은 대구나 고령에 있는 여자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통례였다.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시기에 아버지도 재취업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있었다. 이윽고 아버지는 수년간의 농촌 생활을 청산하고 대구에 소재하는 달서고등학교에 출근하게 되었다. 집안의 장남인 오빠도 한국전력에 입사하여 예천에 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정생활도 좀 나아진 듯 느껴졌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실업계 고교 진학을 하지 않기로 내심 마음먹었다. 꼭 인문계여야 한다는 오기까지 발동했다. 그 어느 날 이를 악물고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나의 뜻을 말씀드렸다. “저는 인문계 진학할 거예요.” 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날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다. 거의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을 하였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주눅 든 딸의 모습이 안쓰럽기라도 했던지. 분명, 그분의 말씀을 거역했음에 불호령이 떨어

어지고도 남을법한데 야단친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

시험 통과만 남았다. 대학 입시를 치르는 날은 방송국에서 알려주는 일기 예보를 듣지 않더라도 알 수 있었다. 즉, 포근하던 날씨가 입시일만 되면 한파가 몰아닥쳤기 때문이다. 그 해도 예외 없이 냉기가 전국에 퍼졌던 날,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렀다. 성적이 좋았으니 합격은 큰 실수가 없으면 따 놓은 당상이었다. 수많은 학부모가 시험장소에 함께 왔지만 나는 홀로 시험장을 찾았었다. 인문계고교 시험을 칠 수 있다는 승낙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행복에 겨워 있었다. 이런 산고 끝에 드디어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뽕뽕이 3회차. 주침이 된 고등학교는 대구 칠성동에 있는 경명여자고등학교였다.

아버지와 나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사는 큰이모 집에 자취방 한 개를 급히 마련했다. 아버지는 달서고등학교에 출근하고 나는 경명여고에 다니기 위해서였다. 농촌에 있는 집과 전답이 쉽게 팔리지 않아 급히 아버지와 나만 이모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집은 옷과 이불을 넣을 수 있는 천으로 만든 옷장과 책상 그리고 책상 위에 얹는 낮은 서가와 부엌가구 몇 개가 살림의 전부였다.

이모가 사는 집에는 세 가구가 이미 살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갔으니 네 가구가 되었다. 이모네와 우리 집 부엌은 한 공간에 있었다. 편리한 점이 많았다. 방마다 연탄 아궁이가 붙어 있었는데 연탄불을 갈거나 흰 신발을 연탄불 곁에 두고 말릴 때 알아서 갈거나 말려 주셨다. 부엌살림이 처음인 나는 여러 가지로 서툴렀다. 무엇보다도 겨울이면 연탄불 조정을 못하여 불을 죽이는 횟수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연탄을 우리 집 꺼진 연탄 아궁이에 넣어 주셨다. 이모 손은 때론 마술이라도 부리는 듯했다. 무겁고 시커먼 연탄이 이모 손을 거치면 빨갱게 활활 타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탄

불이 타고난 후 재를 버리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도와주셨다. 연탄 재는 겨울에 도로가 얼면 그 재를 깨어 깔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이모는 펍 깔끔한 성격이셨다. 그 시절 대부분 학생은 끈을 메는 운동화를 신었다. 그러므로 1주일에 한 번은 깨끗이 빨아 신어야 했다. 날씨가 화창하면 햇빛에 말리면 되었지만, 겨울이나 여름 우기에 말리는 곳은 연탄아궁이만 한 곳도 없었다. 연탄불 아궁이를 닫고 그 주변에 신발을 두기만 해도 바삭 마르곤 했다. 때로는 너무 오래두어 뜨거운 열기로 누렇게 탄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날 제습기보다 빨리 수분을 잡아먹었다.

이모를 통해 나의 어머니에게 볼 수 없는 가사생활의 여러 면을 배울 수 있었다. 한 핏줄을 나눈 여형제였지만 성격도 꽤 달랐다. 엄마와 달리 이모는 정리정돈을 잘하셨다. 물론, 10평 정도 되는 집의 세간과 농촌 300평 이상 되는 집의 세간 정리와 비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지만, 여하간 정리정돈에 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깔끔한 성품이었다. 항상 자녀들의 신발과 옷들은 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빨아 빨랫줄에 널었었다. 몇 가구의 옷들이 일정한 자리를 정해 널려 있곤 했었는데 이모네 옷은 금방 식별이 될 정도로 눈에 띄었다. 그중 새하얀 옷은 풀을 먹여 뺏뺏하게 다림질하여 입혔었다. 그리고 부엌의 살림살이인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스틸 소재 그릇들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빛이 반사될 정도였다. 이런 혜택을 받는 이종사촌들이 너무 부러웠다. 챙겨주는 따뜻한 식사며 옷가지며, 비록 남의 집에 도지를 살고 있었지만 참 행복한 가정으로 보였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처음 시험을 쳤다. 나의 성적은 학급에서 중간밖에 되질 않았다. 중학교 시절과 비교하면 큰 충격이었다. 도시 놈과 촌놈의 차이인가. 나는 꽤 긴장되었다. 그 이후 시험에서는 상위권 언저리에 진입했다.

마음이 좀 놓였다. 이 정도의 페이스를 유지하면 되겠다 싶었다. 오래달리기 경기를 하듯, 상위권 주변을 맴돌다 막판에 속도를 내면 될 것 같았다.

이즈음, 우리 가족은 농촌생활을 정리하고, 흩어졌던 식구들이 모이면서 새 보금자리를 찾게 되었다. 아버지와 나는 이모네 집을 나와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에 전셋집을 구했다. 아버지와 엄마,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나 5명이 살 집이었다. 방 2개와 부엌이 딸린 양옥집이었다. 소득으로 보면 농촌에 살 때보다 나아진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엄마는 늘 부업을 손에서 놓질 못했다. 쥐꼬리만 한 아버지의 봉급에만 의존하기에 도시생활은 농촌생활보다 더 각박했다. 그러니 엄마는 초, 중, 고교에 줄줄이 다니는 자녀들을 위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내가 학교 다니던 그 시절 집 주변의 전봇대나 담벼락에는 부업 전단이 많이 부착되어 있었다. 엄마는 이것을 보거나 이웃의 추천을 받아 부업 일거리를 따 왔다. 한동안은 옛날에 고기 찌주던 누런색 종이를 많이 가져왔다. 이 종이를 접고 부치기를 거듭하면 음식을 담은 봉투가 딱딱 만들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인형을 가져와서 바느질하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양말을 수백 켤레 가져와서 뒤집기를 하기도 했었다. 또한, 밤 깎기도 잊을 수 없다. 생밤을 가져와 작은 칼로 껍질을 깎았다. 엄청난 양을 밤을 새하얗게 세면서 작업을 이어 나갔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런 종류의 부업은 큰돈이 되질 않았다는 점이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수입이 짝절한 막노동관에 뜻을 빼로 나갔다. 꽤 높은 일당을 쳐 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면서 내가 대학을 진학하는 것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았다. 이제까지의 꿈이었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싶어졌다.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으니 끝없이 대학진학 포기 쪽으로만 생각이 치달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적을 오래달

리기처럼 성적관리를 하며 대학을 진학하겠다는 나의 아무진 생각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성적은 기복이 심해졌고, 공부에 대한 흥미조차 잃어가고 있었다. 교복 입고 학교 갔다 수업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꼭 패종시계의 추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학교만 왔다 갔다 했다. 급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웠다.

당시 많은 농촌 가정에서 여자들은 학비가 부담되어 대학 진학 대신에 도시로 옮겨 와 공장일을 하여 번 돈으로 집안의 생계를 돕거나 오빠나 동생들 학비를 보태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나는 용감하게 배척했었는데, 정작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할 시기에 취직 고민만 거듭하고 있었다. 성적은 끝없이 추락했다.

이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제야 인문계 진학을 고집한 결정이 후회스러웠다. 만약 대구에서 제일 좋은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갔더라면, 지금쯤 은행원이 되어 있을 텐데..... 때는 이미 늦었다. 누구에게 원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며 고교 마지막 1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있었다. 어느 하루,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취업을 앞둔 고향 친구를 찾아갔다. 그 친구는 대구 경북여상에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3학년 2학기가 되면 수업이 거의 없어 취업할 거라고 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남자친구 이야기도 했다. 친구에게 나의 뉘두리를 하러 갔다가 열 받는 이야기만 잔뜩 듣고 돌아왔다. 나 자신이 한심하기까지 했다. 한참 꿈 많은 여고 시절 고향 친구처럼 연애도 못해 봤고, 공부도 시들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누구하고 어떻게 친했었는지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아마도 기억이 없다는 것은 나 스스로 그 시기를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우연

히 고교 시절의 친구 2명을 만났다. 그들과 만날 때마다 지나간 여고 시절 이야기를 들추어 내 보긴 했지만, 초등학교처럼 허물없이 이야기가 이어지질 않았다.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꿈 많던 여고 시절’은 그냥 무덤에 넣어 두고 싶은 심정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그 시대를 돌이켜 보면 아픔이 아려 온다. 아버지가 학교에 정년까지 다니셨다면 나는 고교시절을 굴곡 없이 잘 다녔을 텐데,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못난 자식이 내 뺨는 투정 정도일까. 나는 화가 나면 이따금 그렇게 내뺨었다. 누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호래자식이라 할 것이다.

나 스스로 선택한 처음의 진로 결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선택에도 신경이 곤두서곤 했었다. 고교 친구들은 100미터 경주를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있는데 나는 70미터 지점에서 힘이 축 처져 있었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보내지 못함으로써 좋은 대학을 진학할 수 없었다. 자신감에 찻던 성격도 기가 많이 죽었다. 내 인생 최악의 시기는 고등학교 시절로 생각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이다. 무엇보다 청년기에 내가 가진 끼를 충분히 발산하지 못했으므로.... 더 속이 탔는지도 모른다. 특히, 공부나 예체능 분야에서 상장의 한 구절처럼 ‘타의 모범’이 되었었는데.....

시간은 쉼 없이 흘러, 고교 졸업시즌이 되었고, 대부분 학생은 자신의 성적에 따라 대학을 결정하고 진학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진로상담을 한 국어담임선생님은 나에게 도서관과를 진학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어려운 가정형편이더라도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 꼭 취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었다.

▶ 이 글은 이애란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7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봄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사랑과 용서의 또락을 걸으며

소은 | 전주시립완산도서관_전북

사랑과 용서의 또락을 걸으며

내가 떠오르는 첫 기억은 6살 때다. 우리 집은 대밭이 둘러있었다. 집 옆으로 있는 산 아래에는 옹달샘이 있었다. 큰 언니를 따라 샘에 갔다. 언니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나는 옆에서 바가지로 샘물을 떠올리다 미끄러져서 그만 샘에 빠져 버렸다. 그때 솟아오르는 나를 언니가 용케도 건져 올렸다. 물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는지 뜨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도 생생하다. 샘에 빠졌던 생각만 하면 무섭다. 언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니 저녁때였다. 옷감을 펼쳐놓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검정색과 하얀 색 천이었는데,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입고 갈 옷을 만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고향 집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금마산이 나란히 보였다. 고조선이 망할 때 준왕이 망명하여 금마산에서 마한을 세

왔다는 전설이 있다고 들었다. 마당이 무척 넓은 집이었다. 대지가 300평이라고 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있고, 대문 옆을 지나면 큰아버지네 집이다. 돌단을 높이 쌓은 뜰에 큰집이 있었다. 집이 여러 채 있고, 사랑채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옆에 화단에는 진분홍빛 해당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가 진동했다. 채송화도 피어있고, 대밭에는 웅달샘이 있었다. 대밭에서 흐르는 맑은 물은 연못을 지나 우리 집화단 뒤로 사시사철 줄줄줄 흘렀다. 내 방은 아주 긴 마루를 지나 화단이 보이는 방이었다. 잠자리에 들면 개울이 흘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적막을 깨뜨렸고, 그 규칙적인 물의 리듬을 들으며 나는 곧히 잠을 자곤 했다.

육이오 사변이 일어났을 때였다. 빨강색 비행기가 방으로 내려앉을 듯이 굉음을 내며 날라 다녔다. 그럴 때면, 우리 집 식구들은 대밭에다 파놓은 굴속으로 숨으러 갔다. 그때 그 비행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자지러지게 놀라는 나를 큰언니가 등에 업고 대밭으로 도망하다 발에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그 몸서리쳐지는 비행기 소리를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평생 잊어지지 않는다. 전쟁은 참혹하고 소름 끼친다. 나는 요즘도 어디에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혹시 전쟁이 일어났나 싶어 가슴이 철렁해진다.

햇살이 따스한 봄날이었다. 나는 검정색 멜방 치마에 하얀색 상의를 입었다. 엄마는 옥색 치마를 입으시고는 내 손을 잡고 입학식에 갔다. 여섯살 때였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이 별로 손 들어라고 하면 내 나이는 나밖에 없었다. 동네친구들은 아무도 입학 하지 않았는데 나만 그렇게 혼자 학교에 갔다. 나는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골방으로 숨기도 했다. 그런 나를 아침마다 집으로 데리러오는 선생님이 있었다. 양 선생님은 우리 할아버지

친구 손자였다. 얼마나 신신 당부를 했는지, 양 선생님은 비가 오는 날도 어김없이 나를 데리러 오셔서 내 손을 잡고 우산을 받쳐주며 학교로 데리고 갔다. 참, 친절하게 해주신 선생님이셨다. 한번은 공부하다말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양 선생님이 다가오셔서 왜 우냐고 물어보셨다. 앞에 앉은 애가 냄새 나서 운다고 했다. 선선히 자리를 바꿔 주셨다. 그 일이 아련히 떠오른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었다. 옆 친구한테와 양 선생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든다. 참으로 천천난만한 어린 시절이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싱그러운 어느 봄날이다. 4월인가 5월쯤에 엄마는 나를 두고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에 대한 동경은 끝이 없다. 어머니의 체온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잠이 들곤 했다. 엄마가 병석에 누워 계실 때 나는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다. 철없는 나는 보랏빛 자운영 꽃이 활짝 핀 논바닥에서 친구 설자와 뒹굴며 놀았다. 그러다가 앉아 누워계신 어머니 곁에서 책을 펴놓고 글자를 물어보곤 했다. 엄마는 아프면서도 누워서 글을 가르쳐주시곤 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엄마가 돌아가신 거였다. 어머니는 익산군 용안면 중실리 임씨 가문에서 만석꾼 부잣집의 딸로 태어나셨다. 어느 날 갑자기 호열자로 온가족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 후 어머니는 양반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시집을 오게 된 것이다. 어머니는 부엌일을 잘 못하셔서 옆집에 사는 대양떡 할머니가 일을 돌봐 주셨다. 나는 그 할머니만 보면 좋아했다. 할머니는 어머니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 할머니한테 가면 그리운 엄마 이야기를 실컷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자주 놀러갔다. 어머니의 유품으로 화려한 함 속에 보물들이 들어있었다. 빨강색 공단에 수놓은 수젓집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요즘도 한옥마을에 가면 고풍스런 물건들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이끌린다. 어디서

많이 보던 물건같이 느껴진다.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친구 엄마가 칭찬해주며, 반겨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러웠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무던히도 슬펐다. 내 유년 시절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 나날들이었다. 나도 모르게 하늘을 자주 바라보았다. 낮부터 떠있는 낮달도 보고 상현달, 하현달과 쟁반 같이 둥근 보름달도 보았다. 시골의 밤하늘의 별들은 검은 빛 우단에 보석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나는 별과 달을 보며 혼자서 달 노래를 가만가만 불러보기도 했다.

산새소리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치는 바람소리, 봄이 되면 빠꾸기 소리, 눈에서 들려오는 뜰 북이 소리, 5월이면 노란빛 옷을 입은 피꼬리가 깨죽 나무 위에서 우리 집을 보며 노래했다. 참 듣기가 좋은 소리였다. 아버지가 계셔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채울 수가 없었다. 위로 언니 세 분, 오빠 한 분이 있었지만, 나는 늘 외로웠다. 이유 없이 몸이 자주 아파서 학교에 결석하는 날이 잦았다. 학교가지 못하는 날은 집으로 친구(선영이, 영자, 은심, 화국, 순규, 홍자, 문영, 유희, 설자)들이 찾아왔다. 그중에도 설자와 순규 와 나는 친했다. 셋은 집에 오는 방향이 같아서 늘 붙어 다녔다. 순규는 교회 장로님 딸이었다. 한번은 순규가 예쁜 그림 카드를 보여 주며 전도를 했다. 예수님 가슴에 십자가가 있고 밖에는 나쁜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그림이었다. 교회에 오면 선물도 준다는 말에 설자와 나는 순규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옛날 교회는 종을 쳐서 예배당에 오라고 알리곤 했다. 초종을 치면 준비하고 재종을 치면 예배가 시작되었다. 교회에 들어서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다.

나는 수다스럽게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세월이 흘러 소녀가 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밖에 잘 나가지 않았다. 내가 자라는 동안 언니들은 한 명씩 시집을 갔다. 나는 마음이 더욱 외롭고 허전했다. 나를 두고 결혼한 언

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지금이야 짐작해 본다. 둘째 언니는 여러 번 선을 보더니 지금의 형부와 서로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해서 서울로 갔다. 그 언니 집에 가면 책이 많았다. 형부는 좋은 분이셨다. 교육청에 근무하시다가 나중에 중양청 문공위원장으로 계셨다. 서예화가이시고 소설을 쓰셔서 집에는 책이 무척 많았다. 형부는 불량도서를 보는 아이들에게는 책을 빼앗고, 대신 다른 책을 사서 보라고 돈을 주시기도 했다. 나는 한 번씩 언니네 집에 가면 오랫동안 머물렀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자주 아팠다. 그렇게 아프면 고향집으로 내려왔다. 형부는 편지를 보내 주시곤 했다.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 이야기도 써서 보내주시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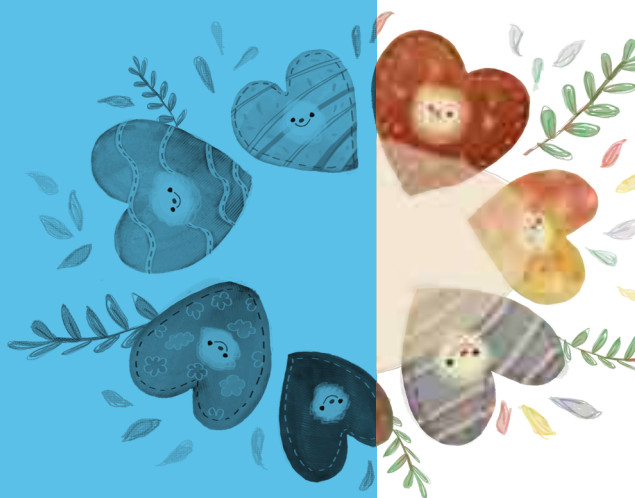
세월이 흘러 내가 회갑이 될 무렵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부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내 마음은 몹시 슬펐다. 의지했던 형부께서 떠나신 뒤,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결혼하여 약국을 하던 언니네 딸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줄초상을 겪었던 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게는 엄마같은 언니의 마음을 떠올리니, 지금도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 이 글은 소은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여름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아름다운 추억! 행복한 미래

조영남 | 울주옹기종기도서관_울산

20대 시절 이야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기는 쉽지 않았다. 학교에는 입시 준비하는 반이 없었고 취업을 위한 과목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혼자 공부하고 시험을 쳤지만 점수는 좋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교육대학교가 아니면 대학을 보내줄 수가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결국 재수를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우리 집 경제사정으로는 재수를 절대 시켜줄 수 없었다. 셋째, 넷째오빠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마침 둘째 오빠가 딸 쌍둥이를 낳아 새언니 혼자 키울 수 없는 형편이었다. 나는 20살에 질녀를 돌보는 보모가 되었다. 질녀를 키우면서 틈틈이 책 읽고 입시학원을 다니며 입시 공부를 했다. 하지만 또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러다 취직을 했지만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직장을 다니면서 통신대학을 다녔다.

직장생활 하면서 대학을 2년쯤 다니다 결혼하게 되었고 아이가 생기면서 결국 공부를 중단했다. 나 자신보다는 남편과 아이가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한우리 수업을 한창 하던 40대 후반 사이버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했다. 아내, 엄마, 일, 학생 1인 4역이 힘겨워 1년 정도 하다가 휴학하고 말았다. 그리고 몇 번이나 공부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건강에 무리가 갈 것 같아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나에게 대학은 아직도 끝내지 못한 숙제 같은 것이다. 이력서를 낼 때마다 가장 힘든 부분이 학력이다.

자격증과 경력은 충분한데 혹시 학력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늘 마음 쓰인다. 지금도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인문계 고등학교 갔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른다. 그렇다고 지금의 삶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나름대로 나의 능력을 개발하여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행복하다. 단지 대학이라는 숙제를 다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 대학교 친구

황윤경, 윤호연

직장 생활

내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하느라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돈이 없어 힘들어했고 나의 무능함에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많이 괴로워했던 시기로 일기장 제목에 “이 순간은 정말 괴로웠다”라고 적었다.

1986년 4월 22일 드디어 부산에 있는 범아공사라는 수출입검수회사에 취직을 했다. 수출입서류를 처리하는 타이피스트가 되었다. 처음에는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CY라고 부르는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1년 남짓 근무했다. 남자직원 5명에 여자 직원 2명이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개조한 곳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다 중앙동 본사 영업부로 옮겨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여자 직원 8~10명에 차대리님, 박과장님, 그리고 남자직원 1명이 있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총무부, 입구에는 노조 위원장님이 같은 건물에 있었다. 여자들이 많다보니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가 있어 처음에는 좀 낄끄러웠다. 특히 나의 입장이 참 곤란했다. 영업부에는 나와 나이는 같지만 선배인 여사원이 2명 있었다. 초등학교에 9살에 입학했으니 나이는 같아도 선배여서 언니라고 불러야 하는 요상한 현실. 좀 억울했지만 입사도 졸업도 늦으니 어쩔 수 없었다.

일이 없는 시간이면 주로 책을 많이 읽었다. 직속상관이었던 박과장님은 독서하는 모습을 아주 좋아해서 여직원 생일 때 잡지나 책을 선물해주었다. 사무실이 있던 중앙동은 그 당시 부산에서 제법 변화가였기에 지하상가에 코오롱과 롯데상가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코오롱 상가에는 문방구 겸 서점이 있었는데 단골손님이 될 만큼 책을 많이 구입해서 읽었다. 월급의 30퍼센트가 책값으로 나갈 정도였다. 그 인연으로 서점 주인이 내가 결혼할 때 선물로 앨범도 선물해 주기도 했다.

범아공사 첫 월급은 126,810원 이었다. 월급은 박하지만 근무조건은 아주 좋았다. 9시까지 출근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었다. “점심시간에는 대통령이 와도 업무를 봐주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철저히 자유 시간이었다. 그래서 상가에 내려가 점심을 먹고 공연도 보고 쇼핑도 즐기다가

1시에 맞추어 사무실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후 6시면 정확하게 퇴근했다. 또 여사원을 위한 복지도 잘 되어 있었다. 한달에 하루 생리휴가가 있었고, 문화생활을 위한 연극, 영화표지원, 요리, 사군자, 등공예 등도 배울 수 있도록 학원과 협약해서 지원해 주었다. 그때 만든 등공예 거울은 25년이 넘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회사 내에는 산악회가 있어 한 달에 1~2회는 등산을 다녔다.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금정산, 송광사, 쌍계사, 천황산, 대둔산 등 전국의 명산을 다녔다. 때로는 회사의 이사님, 계장님, 과장님과 같이 때로는 우리 영업부서끼리, 때로는 여사원들만 참 많이도 다녔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등산은 속리산이다. 1989년 8월 19일 여사원 3명이 1박 2일로 속리산으로 등산을 갔다.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속리산 마을에 도착하니 캄캄한 밤이었다. 그때는 인터넷으로 숙소가 예약되지 않아 현지에서 도착해서 숙소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버스에서 내리니 숙소주인들의 호객행위가 한창이었다. 감나무집이라고 외치는 소리에 주인을 따라 가려고 하니 남자 2명이 같은 숙소에 간다고 승용차를 타라고 했다. 그때 ‘인신매매’라는 말이 뉴스에 종종 나올 때였다.

“우린 인신매매단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라는 농담도 하며 감나무집이라는 숙소에서 머물렀고 함께 속리산 정상까지 등산했고, 그 남자들의 차를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편하게 왔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시간에 날씨가 변덕을 얼마나 부렸는데 무지개를 몇 번이나 보고 쌍무지개까지 보았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 후 그 남자들과의 인연은 대둔산으로 이어졌고 대둔산 산행 때는 충남 청원군 입장에서 거봉농장을 하는 남자가 거봉을 가져와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다음 산행도 약속하고 몇 번의 편지도 주고받았다.

1986년 4월 22일 입사해서 1990년 11월 10일까지 약 5년 정도 다니던 직장은 결혼을 하면서 퇴사하게 되었다.

자취생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잠시 언니 집에 얹혀 살다가 취직을 하면서 자취를 했다. 처음에는 부산시 진구 가야3동에서 친구 미옥이와 둘이서 자취생활을 시작 했다. 적은 월급으로도 살 수 있는 집. 리어카도 들어가지 못하고 짐을 일일이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골목골목을 돌아 작고 초라한 방을 구했다. 도시살림에 서툴러 조립식 옷장을 사서 조립을 못해 며칠 동안 옷을 쌓아 두었고, 연탄을 사용한 적이 없어 연탄 불구멍 맞추는 것이 어려워 친구 미옥이가 거의 연탄을 갈았다. 우리 방 옆에는 작고 더러운 도랑이 있었는데 수시로 부엌에 쥐가 들어와서 캄캄캄캄 놀라곤 했다.

또 옆방에 세 들어 사는 신혼부부는 자주 싸웠던 기억이 난다. 열악한 환경의 자취집에서 2개월 20일을 살다가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하게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연탄가스 때문이었다. 5월 어느 날밤, 미옥이는 일찍 잠을 자고 나는 책을 읽는데 조금씩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하고 책을 덮고 잠을 잤다. 자다가 배가 너무 아파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부엌에서 쓰러져 구역질 하는 소리에 친구 미옥이가 일어나 부엌에 나와 함께 쓰러졌다. 그러고 얼마 후 우리는 알았다. 연탄가스라는 것을. 그래서 정신을 차려 겨우 주인 할머니를 찾아갔으나 그날따라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다. 우리는 할머니방 앞마루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아침이 오도록 기다렸다. 다음날은 회사를 결석 할 만큼 심

하게 가스를 마셨다. 고향에 가서 연탄가스 마신 이야기를 했더니 “다 큰 딸 일갈뿐 했네”하시며 당장 이사 하라고 하셨다. 한 달 만에 어렵게 새로 구한 집, 부암동으로 이사를 해서 친구들(미옥, 영미)과 3명이 함께 자취하게 되었다. 1년 남짓 살다가 미옥이 언니 집에서 3명이 함께 계속 자취를 했다. 그러다 영미는 마산으로 떠나고 미옥이는 언니집 근처에서 나는 6촌 동생 영미와도 1년 정도 자취했다. 그리고 6촌 동생 영미도 동생 영만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영만이와 같이 자취한다고 떠나고 나는 같은 회사 동생 문지옥이와도 자취를 했다. 자취를 할 때 열쇠도 없이 살았으며 친구들이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도록 살 때도 있었고, 꼭꼭 열쇠로 문단속을 잘 하고 다녀야 할 때도 있었다. 열쇠 없이 생활할 때는 도둑을 맞은 적이 없었는데 열쇠로 문단속을 잘 해두었는데 도둑이 들어 썸뜩했던 기억도 있다. 부산시 진구 연자동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서 6촌동생 영미와 자취생활 할 때였다. 그 집에는 많은 세입자가 살았다. 옥상에 빨래를 널어두면 가끔 없어지기도 해서 모두들 출근할 때는 꼭꼭 문단속을 하고 나갔다.

1988년 10월 17일 월요일. 문을 꼭 잠그고 출근했다 돌아오니 자물통이 빠져 있었다. 순간 머리카락이 바짝 서고 등골이 오싹 했다. 방안은 깨끗했고 재산목록 1호인 카세트만 없어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가 다치지 않았고 카세트만 가져갔다는 사실을 위로해야만 했다. 항상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을 들어야 잠을 잤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어났다. 카세트라디오는 알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아 거금 84,000원을 주고 새로 구입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 새로운 집을 구해 자취를 했다. 자취방 구하는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퇴근 후엔 주말을 이용해 골목골목 붙어있는 셋방 전단지를 보며 우리 형편에 맞는 셋방을 찾기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사 또한 힘들었다. 조금 멀면 용달차를 빌려 이사했

고, 큰길까지는 용달차가 들어가도 골목길은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했다. 가까운 거리는 최대한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 리어카를 빌려서 이사를 했다. 자취하면서 연탄불은 난방으로 곤로는 밥하고 반찬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아침, 저녁 밥해먹고 직장 다니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시골에서 자란 우리는 밥심으로 산다고 자취하면서도 꼬박꼬박 아침 챙겨먹고 외식보다는 집에서 반찬 만들어 밥은 잘 챙겨먹었다. 부모님은 늘 바빠서 자취방에 한 번도 와 본적이 없었고, 반찬도 직접 만들어 먹었고, 김치까지 담가 먹었다. 친구 미옥이는 감자 된장찌개를 잘 만들었고, 6촌 동생 영미는 카레를 잘 만들어 전기밥솥에 가득 만들어 두었다가 이틀씩 먹기도 했다. 직장 다니면서 친구, 6촌 동생, 회사 동생 등 여러 사람들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취하던 시간들은 힘들었지만 살림을 배우고 맘껏 자유를 누렸다.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갔고 애환도 많았던 5년 남짓한 자취생활도 결혼을 하면서 끝났다.

휴일과 여가시간

오전근무 마친 토요일 오후에는 밀린 빨래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났다. 일요일은 등산을 가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책을 읽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고향에 갔다. 농번기에는 월차(생리휴가)까지 받아 고향 가서 보리 베고 모내기하고 가을 추수를 도왔다. 시골에서 하루 종일 모내기를 하거나 벼베기를 한날은 2층이던 사무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다리가 아파서 며칠을 고생하기도 했다.

1990년 6월 24일은 형제 7남매가 모두가 모였다. 오빠4명, 올케언니 4명, 언니, 형부, 동생, 조카8명 까지 모두가 와서 모내기를 거들었다. 그때 엄마, 아버지는 아주 기분 좋아하셨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등 멀리 떨어져 생활하기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날은 다 모여서 모내기를 했다. 농번기가 되면 고향에 일도와 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 버스도 엄청 복잡했다.

한창 볼링과 탁구가 유행할 때라 시간이 나면 자주 치러 다녔다. 볼링은 워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예약 해두었다가 늦은 밤 11시 12시에 가서 친 적도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이지만 자취의 매력이 바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등산도 자주 다녔다. 회사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또는 친구들과끼리. 등산은 일주일의 스트레스 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충전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밤하늘을 잊을 수 없는 산행이 있었다. 1989년 10월 8일 토요일,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 광자와 단둘이서 지리산으로 1박 2일 등산을 갔다.

산장에 묵을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텐트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 산장에서 묵지 못하고 야간 산행하는 사람들을 따라 무작정 걸었다. 칼바위를 지나 점점 어둠은 짙어지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밤하늘의 별은 빛났다.

시골에서 자라서 은하수도 많이 보았고 별도 많이 보았지만 그때만큼 많은 별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수많은 별들. 하늘에 금빛보석이라도 박힌 듯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수없이 감탄했다.

잠자리 걱정도 잊고 밤하늘의 아름다움에 빠져 마냥 행복하게 산을 올랐다. “산을 찾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다”라고 했던가? 다행히 대우조선에 다니는 젊은 총각 2명이 우리에게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해주어 무사히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용감하게 남자들의 2인용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지리산 정상 천왕봉을 찍고 내려와 진주 축석루에서 함께 놀았다. 그 후 함께 찍은 사진도 받았다. 겁없는 젊음의 도전이었고, 잊지 못할 지리산의 아름다운 밤하늘이었다.

▶ 이 글은 조영남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2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여름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새 출발을 위한 삶의 자화상

이성구 | 광진정보도서관_서울

맛있게 먹었던 '짬밥'

유신독재체제의 소용돌이 속에 휴강과 휴교가 반복되면서 대학 2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의미 없는 시간의 흐름에 회의를 느끼고 2학년을 마치 고 군 입대를 결심하였다. 1973년 3월 2일 조치원에 있는 보충대 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되었다.

태어나서 처음 격리된 시설에서 고된 훈련을 받으며 생활하다보니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되었다. 군대에서 주는 밥을 비하해서 '짬밥'이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맛이 없어 못 먹겠다고 했다. 그래서 배식으로 주는 밥을 먹지 못하고 군대 매점에 가서 사서 먹었다. 그러나 나는 고달프고 어려운 자취 생활을 하다 와서 그런지 뜨거운 밥과 국물이 너무나 맛있어 세끼를 꼬박꼬박 모두 먹었다. 그래도 부족해서 추가로 더 먹으려 했으나 떨어져서 못 먹을 때는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했다. 오히려

사회에서보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골고루 제때 먹으니까 말랐던 얼굴에 살이 붙어 동안(童顔)이 되어 있었다. 군 생활은 어려움이 없이 잘 적응하며 생활하였다. 다만 사격훈련 때 사격 성적이 저조하여 힘든 기합을 많이 받았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위해 의정부에 있는 보충대에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보충교육을 받으면서 일요일이면 점심 준비를 위해 식당으로 가서 라면 봉지를 뚫는 일을 했다. 그런데 식사시간에 국물에 라면 스프를 넣어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었다. 이를 위해 라면에 있는 스프를 몰래 훔쳐서 통일화 발아래에 넣었다. 이를 눈치 챌 감시병이 휴대폰 검사를 하여 스프를 빼겨서 먹지도 못하고 죽도록 기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5분 대기조로 주변 순찰을 나가 별판의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다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었다. 그래서 외출하면 호주머니에 고추를 몰래 따 넣어 가지고 와서 식사시간에 동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면 매우 고맙고 즐거워했다.

영창 갈 뻔한 위기의 순간들

회식하는 날의 보초근무

군대 생활은 행정병으로 편안히 근무했다. 기억이 생생한 이야기로는 6군단 시설처에서 근무했을 때인데 일이 너무 많아 매일 야근할 정도로 고된 일과를 보냈다. 이를 위로해 주기 위해 일요일 밤늦게 야근이 끝나면 막걸리와 돼지고기를 사다가 회식을 시켜주었다. 이러한 환경은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군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회식이 있던 어느 날 보초 근무가 새벽에 배치되었던 나는 마음 놓고 술과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한참 회식이 진행되던 11시쯤 고참 선배가 보초 근무로 호출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가장 졸병인 나에게 대신 먼저 보초를 서면 자신이 새벽에 서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먹다 말고 보초 근무를 나갔다.

행정병인 나는 비밀 취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로 CP막사나 통신실 같이 중요한 보안시설에 배치되어 보초근무를 섰다. 이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비몽사몽간에 CP 보초를 섰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참을 수가 없었다. 졸음을 참으며 서 있다가 일직사령이 잠자리에 드는 것을 확인하고 꽃밭 옆에 있는 바위에 앉아 잠깐 눈을 감는다는 것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

일직사령은 잠이 오지 않았는지 막사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펴보다 보초가 잠자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직사령은 본부중대 일직사관을 호출하여 조인트를 때리면서 크게 혼냈다. 그래서 혼을 맞은 일직사관은 모든 중대원을 기상시켜 침상위에 부동자세로 세워 놓고 기압을 주면서 나를 불러내어 실신할 정도로 매를 때렸다. 그리고 중대원들은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과 막사 주위를 맴도는 단체기합을 받았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나는 본부중대 사무실에서 영창을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눈앞이 캄캄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별별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근무 부서인 시설처장이 이 소식을 듣고 일직사령이었던 작전처장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내가 열심히 일을 잘 했고, 자대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부서회식이 있는 날이었으니 선처해 주길 건의하셨다. 건의는 받아들여져서 영창은 면하게 되었으나 그 죄 값으로 예하부대인 야전 공병 대대에 전출되었다.



이런 연유로 말단 소총분대에
서 눈물나는 훈련과 일을 하게
되었다. 훈련도 고달팠지만 훈
련이 없을 때는 참호 수리나 도
로건설에 참여하여 밤낮없이
고달픈 생활로 팔자에 없는 귀
양살이를 했던 가슴아픈 추억
도 있다.

고단한 소대생활이 6개월 정
도 지났을 때 대대 작전정보과
에 행정병이 필요했다. 이를 보
충하기 위해 내가 차출돼서 발
령을 받게 되었다. 작전정보과

교육계로 근무하면서도 매일 작전과 교육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상급부대에 보고하기 위해 거의 날밤을 세워가며 차트를 만드는 일이 계
속되었다. 그래도 육체적으로 고달픈 군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편안하게 행
정을 보는 행운을 얻은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여기서 얻은 교훈으로 평생 머리를 땀도는 말이 있는데 ‘한번 실수가 10
년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평생의 운명을 좌
우할 수 있다는 말에 공감이가는 중요한 경험을 하였다.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

군 제대 1년 정도를 남겨두고 새로 창설된 3군사령부의 군사편찬을 위한 군사편찬위원회에 차출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본청 본부중대에 파견되어 말년에 어색하고 어정쩡하게 생활하게 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본청에는 수시로 장군들이 돌아다녀 될 수 있으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숨바꼭질하면서 피해 다녔던 생활이 생각난다. 군기가 너무 세서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고참 표시가 나는 허름한 복장을 신병과 같이 새것으로 받아서 갈아입었다. 새롭게 다시 신병 생활을 시작하는 것같이 군사편찬에 참여하는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롭게 시집살이를 하는 파견 생활에 불만도 많았다.

특히 사령부에는 여군 중대가 있어 함께 근무하고 있었는데 군사편찬위원회에도 여군 중사가 타자수로 배속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여군 중사가 나에게 타자기를 들고 본청으로 따라오도록 지시를 하였다. 제대 말년에 고생하고 있는데 타자기를 들고 따라갈 수는 없다는 알뜰한 자존심으로 이를 거부하고 졸병에게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이에 분개한 여군 중사가 중대장에게 명령 불복종으로 직접 보고하겠다고 말하였다.

부대 안에서 여군에게 불복종하거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군대 영창에 가도록 되어 있었다. 제대 말년에 파견 와서 또다시 군대 영창에 갈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정말 한심하였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군사편찬위원장의 중재와 배려로 잘못을 사과하고 일을 마무리 지었다. 이 일도 잊지 못할 사건으로 머리에 오래 남아있다.

▶ 이 글은 이성구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3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여름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희망 놀이터 남부시장

진소희 | 강남도서관_서울

남부시장 상인이 되다

지금부터 40년 전이다. “장사를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며 동업을 하자고 권했다. 호떡은 눈을 감고도 만들 수 있을 만큼 달인이 되었지만, 돈은 되지 않았다. 그 당시 6남매 중 큰딸은 18살, 막내는 6살이었다. 그때는 하루 벌어 하루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일 교통비, 학비, 책값, 육성회비를 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동네 사랑방이었던 호떡 장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처음 호떡 장사를 시작할 때도 호떡 굽는 기계를 파는 곳에서 호떡 굽는 방법을 구두로 배웠다.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1주일 만에 마스터를 했기 때문이다. 자본은 광주리 한 개와 종잣돈 5천원으로 시작했다. 첫 날은 도매상에서 딸기를 사서 팔았다. 햇별은 내리 쬐고 머리는 무거운 함박 때문에 발걸음이 휘청거린

다. 나와 함께 장사를 했던 성미는 “딸기 사세요~~~ 딸기~~ 딸기 사세요~~ 맛있는 딸기가 왔어요~~”라고 소리친다. 딸기를 사야만 하는 애절한 목소리다. 그러나 나는 처음이라 부끄럽고 창피했다. 말을 하는데 머리에서만 땀들고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가끔 “딸기 사세요! 딸기. 딸기 사세요!”라고 했다. 미성이는 “언니 무서워서 딸기 사러 오다 도망치고 달아나겠어”라고 말한다. 성미는 딸기를 팔아 광주리는 가볍다. 그러나 나는 광주리의 딸기는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마, 하루 종일 걸은 것 같다. 다행히 딸기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다.

2년 후 도매상에게 물건을 사는 대신 직접 시골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사서 팔았다. 도매에서 사서 파는 것 보다는 마진이 더 좋을 것 같았다.

리어카와 장승백이

모두가 잠든 새벽. 어둠이 거치기도 전에 시장 놀이는 시작된다. 발걸음도 빨라진다. 스쳐가는 바람을 의식할 여유도 없다. 남부 시장은 분주하다. 진안, 장수, 무주, 임실 등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실은 화물차가 즐비하게 서있다. 따뜻한 커피향기를 뿜으며 커피를 파는 아줌마들도 보인다. 물건을 사가려는 1톤 화물차의 기적소리도 아름답다. 하차를 도와주는 사람,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 경매에 참여 하는 상인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하다. 남부 시장은 전주의 3대 시장중 하나이며 규모가 가장 크다.

2층 건물로 되어 있는 새마을 시장 1층에서 경매는 시작 된다. 적절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상인들의 열손가락은 춤을 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사람들은 나를 키다리 아줌마로 부른다. 사람들의 키는 내

어깨 또는 목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경매할 때도 유리하다. 경매인의 눈에 내 손은 잘 띄기 때문이다. 경매 받는 나만의 원칙이 있다. 가격도 중요하지 만, 상품의 질을 우선하여 경매를 받는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과 또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경매를 통해 받은 물건을 리어카에 가득 싣는다.

나의 주 고객은 평화동 장승백이다. 리어카를 끌고 약 40분정도 가면 동네가 있다. 동네이름의 유래는 사방목신으로 세워졌던 곳은 동쪽으로는 현재의 우아동인 소리개재, 서쪽으로는 중화산동인 가마귀골, 남쪽으로는 서서학동인 난전 미륵대이, 북쪽으로는 덕진동의 추천교 자리중 남쪽인 서서학동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의 표지목을 꽂았던 곳이다. 이들 장승은 잡귀를 액땀의 풋말로 먼 길을 떠나는 길손이 도적을 만나지 않고, 우환이 없이 잘 다녀오도록 무사를 비는 사방목신(四方木神)으로 공대했다.

장승백이를 가기 위해서는 오르막길을 넘어 가야 한다. 채소와 야채 그리고 과일도 가득 싣고 하루 팔 것을 가득하다. 여자 혼자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어 등줄기에서 땀이 주르르 흐른다. 그 오르막길을 넘으면 예그린 아파트가 있다. 배추, 무, 오이, 가지 갖가지 채소와 야채 그리고 복숭아, 수박등 과일을 가지고 평화동으로 간다. 내가 아파트에 도착했음을 알린다. “수박~ 왔어요..수박~~ 고창 수박이 왔어요~~” 사람들이 한 두명씩 모여 들기 시작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장승백이 고개를 넘는다. 중학생 딸이 쉬는 일요일이나 방학은 그나마 리어카를 밀어 주기 때문에 덜 힘들다.

어느 봄날이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그린 아파트에 도착했다. 딸기를 팔려고 보니 딸기가 조금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황당했다. 그 비싼 딸기를 두 딸이 리어카를 밀고 따라오면서 딸기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 먹어 팔 수 있는 딸기가 바닥을 보인 것이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딸기를 실컷 먹이고 싶었다.

다음날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딸기를 3kg 남겨 갔다. 아이들의 눈이 빛난다. 6명이 빙 둘러서 먹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된다. 하나는 죄책감과 기쁨이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먹지 못한다.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하루 종일 팔다가 남은 것을 가지고 올 때 맛을 본다. 기쁨은 원처럼 빙 둘러앉아 먹는 모습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다. 마음껏 사주지 못한 죄책감, 안타까움, 그리고 기쁜 마음이 교차한다. 안타까운 것은 한창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먹이지 못한 안타까움과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이지 못한 죄책감이 마음 한곳에서 나를 슬프게 한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농사지은 것을 직접 팔기 위해 보따리에 싸서 버스에 실고 시장으로 나왔다. 교통도, 유통도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팔려 온 물건을 상인들은 서로 사서 팔기 위해 버스가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라 있는 힘껏 뛰어 가서 줄을 선다. 버스가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다. 왜냐하면 굶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이다. 긴장한 남자들의 팔꿈치에 치이기도 하고, 때론 서로 물건 하나로 쟁탈전이 벌어져 입에 담지 못할 심한 xx라는 욕도 듣는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날 팔아야 할 잡곡이나, 채소를 사지 못하면 하루 장사를 못하고 공치는 날이다. 남부 터미널이나, 전동 터미널 정류장 옆에 한 평 남짓한 장소를 짊어고 좌판을 했다.

그렇게 몇 년 장사를 했다. 생계가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함께 장사한 언니와 동생들에게 제안했다. “이렇게 물건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것보다 아예 시골을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사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아침마다 임실, 진안, 장수 등을 새벽마다 버스를 타고 함께 갔다.

3일장이나 5일장에도 쟁탈전은 전주에서의 동일한 상황은 벌어진다. 그러나 3명이 1팀이 되어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전주에서보다 훨씬 물건도 많이 사고, 가격도 싸게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사온 물건을 전주에 있는 상인들에게 팔았다.

서울에서 해남까지

몇 년이 지나 소매장사에서 중간 유통 도매상으로 업을 변경했다. 그만큼 장사에 자신감이 생겼고 종자돈도 어느 정도 모아졌다. 3명이 함께 움직였다. 1명은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2명은 물건을 가서 보고 흥정하고 현지에서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다듬고 묶음 작업을 한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닌다. 경상도로 전라도로 땅끝 마을인 해남까지도 특산물을 사기 위한 탐방을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움직인다. 배추밭, 무밭, 고추밭, 양파 등 제철에 돈이 되는 될 수 있는 것은 가리지 않았다. 8톤 트럭이나 5톤 화물차에 작업한 농산물을 싣고 남부시장 경매시장에 내놓는다. 그날에 어떤 가격으로 경매가격이 결정되냐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경매 시간이 가장 긴장 된다. 가격을 원하는 만큼 잘 받아야 한다. 만약에 비가 오는 날이거나, 공급이 많아 버리면 물건 값은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와 그대로 차에 상차해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그런 날은 손해를 아주 많이 본다. 주로 배추밭과 고추를 사러 다녔다. 하루는 땅끝 해남 배추가 맛있다고 하여 6시간 걸려 해남에 도착했다. 제일 먼저 이장님댁을 찾아 간다. 현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배추밭을 샀다. 현지에서 작업자를 구한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먼저 배추를 뽑은 후 다듬는다. 그런 후 크기를 상·중·하로 구분한 후 묶음 작업을 한다. 경매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짧게는 3일~4일 정도 걸린다. 배추 구입비, 작업비, 운반비를 합한 1포기 원가가 2,800원이다. 작업을 한 것을 상차하려고 하는데 소낙비가 하늘에서 폭포처럼 내린다. 작업자는 비닐로 배추를 덮었다. 이제 상차만 하면 되는데 하늘도 무심했다. 우리는 비가 그치기만 기다렸다.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다. 상차 작업을 멈추고 배추를 비닐로 덮었다. 우린 다

음날 경매를 하기 위해 올라 왔다. 배추는 비가 맞아 물이 주루룩 흘러내린다. 예상대로다. 선택받지 못한 배추군단은 다시 적재함에 옮겨졌고 전주교 옆에 차를 세워 놓고 배추를 내려놓고 장사를 한다. 다른 두 사람은 차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배추를 팔러 다녔다. 다행히 큰 손해는 보지 않았다. 현지에서 작업을 할 때는 동네 이장과 동네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 날씨와 수요공급을 예측해야 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만약에 냉장 창고가 있다면 팔리지 않은 농수산물을 보관 할 수 있으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시설이 없다 보니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익을 볼 때가 있었지만, 그전보다는 수입이 좋았다.

나만의 상인 철학

장사 역사가 47년이다. 나만의 철학이 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은 욕심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나의 철학이 있었기에 누구를 만나도 웃을 수 있는 것 같다. 나만의 철학은 네 가지다. 첫째는 신뢰, 둘째는 품질보장, 셋째는 관계, 넷째는 감사다.

첫째, 고객과의 신뢰 관계다. 고객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산품이라고 하고, 중국산을 사서 끼어 놓는 일은 절대 없다. 주문 받은 농산물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맞춰 준다. 등산을 할 때 걸어서 정상을 등반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우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것 보다 더 쉽고 한순간이기 때문이다.

둘째, 품질을 보장한다.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음식점에 몇 년간 양념이 되는 고추, 참깨, 들깨, 참기름, 들기름을 공급했다. 도소매를 하는

유통 상인으로부터 주문을 받는다. 준다. 예를 들어 사과를 박스로 살 경우, 밑에 상하려고 한 사과가 2개가 있듯이, 포장된 상품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 맛을 볼 수가 없다. 그런 경우 다시 추가로 보내주거나 가격을 할인해 준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작업을 할 때 미리 확인하기 때문이다.

셋째, 관계를 소중히 한다. 도소매 유통 상인과 단골 고객의 집안 대소사는 다 챙긴다. 특히, 병원에 입원했거나, 장례식에는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직접 방문한다. 하루에 결혼식이 3군데가 될 때도 있다. 그럴 경우는 축하금을 미리 전달하기도 한다. 남부시장 사람들과 모임이 5개는 된다. 회원은 작게는 7명에서 많게는 25명이 된다. 모임의 목적은 친목이다. 그날은 직장인들이 회식을 하듯이 우리들도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껏 웃고 떠들면서 회포를 푸는 날이다.

넷째, 감사한다. 우리집에 경사가 있는 날이면, 상인들에게 커피를 돌리거나, 식사를 대접한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의 결혼식, 취직, 승진 시험 합격, 사법고시 합격 등 축하 할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커피나 식사를 대접한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나와 함께 남부시장이란 놀이터에서 농산물을 사고팔면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노상에서 자리를 펴고 장사를 하는 상인, 가게를 가지고 도소매를 하는 상인, 경매를 하는 중간 도매인, 시장의 콩나물 밥집, 순대국집, 정육점, 슈퍼, 커피를 파는 아줌마, 급전을 빌려주는 일수 아줌마, 물건을 배달하는 라이더, 물건을 하차해주는 사람, 모두가 친구이고 고맙고 감사할 사람들이다.

▶ 이 글은 진소희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4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여름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오늘이 끝이야

김주연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_울산

조연해도 주연되는 김주연되다 (2009년 3월 39살)

우연이 반복되면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 20살 때 그림전시회장에서 만난 스님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살님, 인상이 참 곱습니다. 혹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알려드린 이름과 생년월일을 들으시고는 “보살님에게는 이름이 좋지 않으니 도움이 되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셨다.

22살 전시회장에서 만난 여자분도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더니 개명을 권했다. 혹시 돈 별 심산인가 싶어 좋은 곳을 알려 달랬더니 자신은 개명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며 두루 살펴보고 마음이 끌리는 곳에 가라고 했다.

2008년 혜원이가 초등5학년일 때 부모교육 들으러 간 교육장에서 옆자리 앉은 여자 분이랑 인사를 나누고 쉬는 시간에 사담을 나누다가 또 엄마는 건강해야 한다면서 내 이름이 아이들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개명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잊고 있었던 20대의 일이 생각났고 정말 개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두 아이의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 꼭 해야 할 것으로 ‘개명’을 선택했다.

개명의 이유가 참 비현실적이며 어이없지만 간절한 나의 바람을 수용해 준 남편과 며느리의 개명을 허락해주신 시부모님께 감사했다. “어차피 좋으라고 개명한 이름 많이 불러줘야지”라며 적극 불러준 친정엄마와 언니들도 감사했다. 선희를 기억하고 선희와 추억이 있는 여고 동기들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 한 걸음 물러나있는 듯 느낌이 들어 아쉽고 미안하다.

결국 누구를 위한 개명인가. 작명소에서 연락이 왔다. 좋은 이름 지어보으니 선택하러 오라는 것이었다.

“세 개의 이름 모두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각각 강한 영향을 주는 방향이 다르니 선택하세요. 이름에 어떤 힘이 실리기를 원하는지. 돈? 건강?”

“음... 남편과 사이가 좋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데 힘이 되는 이름을 주세요.”

그렇게 나는 조연해도 주연으로 사는 ‘김주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원래 개명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엄마, 힘이 되는 엄마’였는데, 부부 사이가 좋을 이름으로 선택하고 말았다.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없다. 남편은 개명 이후에 한 번씩 말하곤 했다.

“여보, 사실 김선희로 살았어도 잘 살았을 거야. 그치? 선희야~ 가방을
왜 싸니~노래 부르는 재미도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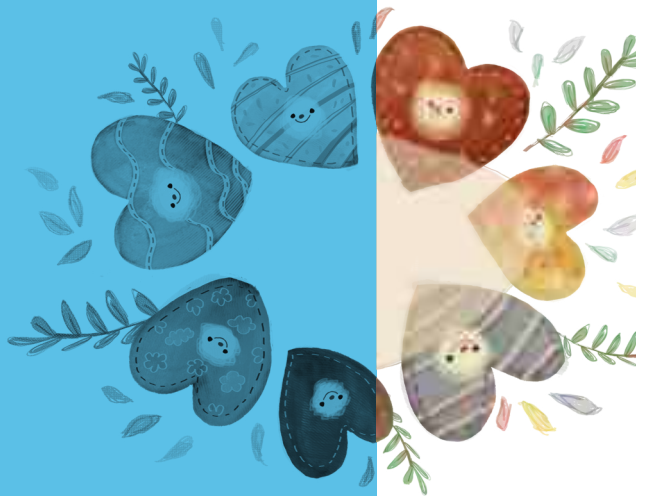
▶ 이 글은 김주연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5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여름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사회생활 아름다웠던 날들 20대 초반

권민정 | 울주옹기종기 도서관_울산

사회생활 아름다웠던 날들 20대 초반

중고등학교 6년 자취생활을 청산하였다. 나이가 과년한 딸 집 밖에 둘 수 없다는 부모님의 지론이었다.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았기에 내게는 취업이라는 문을 두들겨야만 하였다. 하나의 꿈이 꺾였다고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만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었다. 동네 친구들 중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하고 다들 공장으로 미장원으로 일 하러가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도 부모님에게 감사하여야 하는데 언제까지 부모님만 원망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20년 때문에 왕자마냥 살아가는 사촌오빠와 너무나 비교 되기에 투정도 더 세계 부렸는지 모른다.

오빠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동생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다. 나는 경주군청에 근무하게 되었다. 공장으로 일하러 가는 것은 부모님은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에 몇 개월을 집에서 쉬었다. 어쩔 돈이라는 것을 받아만 쓰



다가 내가 별어서 쓰는 것 이었다. 엄마에게 돈을 주어 계돈을 조금 봉고는 신발도 맞추어 신고 옷도 맞추어 입고하였다. 학교 다닐 때도 타지 않았던 통학버스를 타고 그렇게 5년을 경주군청에 다녔다. 풋내기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하지만 주어질 일에는 최선을 다한 것 같다.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웃으면서 민원인을 맞이했다.

1894년 10월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들으면서 경주 시내를 배회하였다. 순영이, 연숙이, 영미, 강일이 이렇게 모여 지금도 사진 찍기를 좋아하지만 그때도 그렇게 사진 찍기를 좋아하였다. 명절이면 친구 집에 가기를 좋아하고 우리들의 약속에 충실하며 그렇게 추억을 만들었다. 어쩔 경주를 사랑하며 그때부터 경주를 즐겼는지 모른다. 경주역 앞에서 분황사 황룡사 절터를 지나 안압지 쪽으로 하염없이 걷는다. 안압지에 들려 박물관을 구경하고 반월성을 지나 계림 숲을 걷는다. 첨성대를 지나 천마총 돌담길을 돌아 쪽샘 골목 썸밥집에 앉아 밥을 먹을 때 시장이 반찬이라고 했던가? 그렇게 꿀맛처럼 맛있 수가 없었다. 우리는 스스로 경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이렇게 걸어야만 제맛 이라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겨 놀았다.

지금도 즐겁게 놀았다. 불국사를 사진을 찍고 안압지를 찾고 예전에 즐겨 찾던 곳 새로 생긴 곳들을 배회하며 경주사랑놀이를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다.

여름이면 쪽샘 골목 끝자락에 있는 명륜당을 찾았다. 명심보감 명륜보감을 배우며 유교문화를 지켜워하였지만 나도 그 일원임을 부정할 수도 없다. “使仁人으로 各有期仁하여 行天之 大道하고 立天下地 正立하여 得期得자는여민유지하고여 如民有之하고 不得知자는 독신기신하여 위무에 불굴하고 빈천에 불아하며 시 대장부지 처세야라” 지금은 다 기억나지 않는 이 문구를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대청마루에 앉아 토요일 오후면 옛날 사대부집 자제들이 하듯 글 읽기를 흥내내며 유교를 공부하였다. 여자였지만 남자들의 세계가 더 동경하는 사람이었다. 다행이 군청에는 도서관이 있었다. 책을 대출해서 읽었다. 공부하는 꿈은 접했지만 자유로운 영혼이 숨쉬기를 멈춘 것은 아니었다. 남자 직원들이 풍수를 하며 책을 복사하여 풍수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하고 주역 책을 보기도 하며 동양철학에 심취하였다.

도가의 노장사상, 우리민족의 선도 등 중고등학교 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분야에 열을 올렸다. 내 마음속에 숨은 열정 살림 살아가는 아낙의 길이 아닌 선비의 도를 배우고 익혔다. 백부님은 좋아하셨다. 오빠들은 관심이 없는 유교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고와서 얘기하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길이 아니면 행하지를 말고 내 말이 뱉어지면 바로 실행에 옮기며 남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아내자가 되기보다는 대장부의 처세술에 더 열중하였는지 모른다. 허난설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나인지도 모른다.

24살 되던해의 가을 군청의 여직원 12명이 강원도에 있는 노인봉과 소금강을 중주하는 산행을 갔다. 내가 총무였는데 나이 많은 언니들은 가지를 얹어서 내가 통솔하여야했다. 강릉까지 가는 기차표를 예매하고 노인봉으로 향하는 길은 순조로웠다. 숙소에서 잠을 자고 아침 9시부터 길을

걸었다. 햇볕은 따가웠지만 평탄한 오르막길이라 12명의 청춘은 즐겁기만 하였다. 하지만 여행 준비되지 않은 산행 즐거움은 끝나가고 있었다. 소금강으로 내려가는 경사가 심하고 길이 험하였다.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 언니가 소금강 계곡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같이 떠난 여행 함께 하산을 하여야 했다. 포항에서 산행 온 남자 분들에게 부탁을 하였다.

20kg도 넘는 등산 배낭을 대신 내가 지고 쓰러진 일행을 산 아래까지 좀 내려달라고 같은 고향사람들이라고 승낙을 하여주었다. 내 배낭만 해도 짐이 버거운데 텐트까지 넣은 남자의 무거운 배낭이 힘에 버거웠다. 하지만 져야만 했다. 9시 밤 열차표를 예매해 놓았는데 그 시간은 맞출 수가 없었다. 아마 져 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걷고 또 걸어서 저녁 10시가 다되어 강릉역에 도착을 하였다. 표는 환불받았지만 70%만 환불 받을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떠나는 기차표를 예매하고 강릉에 살고 있는 이모 집에 전화를 하였다. 마침 이모 집 식구는 주문진에 가고 열쇠 있는 자리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일행 12명과 우리 때문에 기차를 놓친 포항에서 온 두 분의 남자 등 14명은 이모 집에서 지친 몸을 쉬었다. 경비를 넉넉하게 가져가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모 집에 민폐를 끼치고 입석기차에 몸을 싣고 집으로 오는 길 우리는 정말이지 앓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앉아서 눈을 붙이며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었다. 내가 나약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내 몸속에는 강인하고도 강한 열정과 책임감이 있음을 몸소 체험한 여행이었다.

공무원생활이란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지 일을 창조적으로 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을지훈련을 하는 여름이며 매년 을지훈련을 하고 해마다 같은 계절 작년에 제출한 통계를 보고 올해 또 맞추어 내면 되고 내 맘속에 존재하는 열정을 태우고 성취욕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데

미안, 실락원 복락원, 독서는 잡식을 하였다. 어느 날은 셰익스피어를 읽고
어느 날은 정신분석학 어느 날은 만화책 탐정소설 하이틴 소설 무협지 가
리는 것이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글귀는 어느 구도자의 노래

청산은 나를 보고 묵묵히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욕심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하네

내가 좋아하는 글귀였기에 인쇄소에 가서 메모지 마다 프린터 한 나만의
낙서 장을 가지고 있었다. 읽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쓰는 것을 좋아하였다.
3권의 책은 되었음직 한테 지금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던 내게도 변화가 왔다. 26살 결혼을 하라고 했다. 결혼 배우자의 조
건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만이면 되지를 않았다. 지차이고 사람 아무지고
직장이 든든하면 된다고 하였다. 정말이지 그런 사람이 우리 남편이다. 엄
마 아버지가 선을 보고 눈이 날카롭고 차남이며 울산에서 직장이 든든한
신랑감을 고른 것이다. 선을 보고 일주일 만에 어른들이 결혼 날짜를 잡아
서 한 달 안에 결혼을 하였다. 나의 결혼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에 항상 아
쉬움은 남는다. 내가 직장 다니던 때 여자가 직업이 뚜렷하면 남자는 백수
가 많던 때였다. 애들 키우면서 생겨도 챙기며 직장 생활하는 선배들이 좋
은 것만 같지 않았다. 결혼하기 1주일 전 1989년 12월 31일 사표라는 것을
내고 일주일 남은 결혼준비를 하였다.

이렇게 나의 처녀시대는 일 막 일장 막을 내린다.

▶ 이 글은 권민정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6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여름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마음의 문을 열고

지니 | 전주시립완산도서관_전북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큰 역경은 부모를 떠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때부터였다. 결혼과 출산은 나에게 인생에게 가장 큰 변화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그 점이 중요하다고 믿고 선택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다. 결혼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남편, 아기가 생기면서 내가 별어서 내 삶을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가족까지 부양하며 직장일도 해야 하고 살림도 꾸리고 아이도 돌봐야 했다. 결혼 후에야 비로소 내가 부모님의 노력과 희생을 먹고 자랐고 그 덕분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더 큰 시련은 남편이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게 하면서 시작되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그리 쉽지 않은 길이었다. 부모 밑에서 편하게 살아온 나는 내 가족의

삶을 내 어깨에 전부 짊어지고 버텨내야 했던 시간들은 나에게 너무도 힘들고 가혹한 시간들이었다. 정신적으로 버텨내야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가슴 깊이 사무치는 힘겨움에 눈물로 밤을 보낸 적이 많았었다.

내가 온전히 혼자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깨가 왜 무거운지, 어떻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인지 그때 알 수 있었다. 6년간의 힘겨운 세월에 나는 많이 지치고 위축 되었다. 그 생활을 끝내고 나니 왜 일찍 끝내지 못했을까 너무 후회스러웠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똑같이 그 일을 겪으라고 한다면 도저히 그때의 삶을 살아나갈 용기가 없다. 아마도 내 마음을 비우고 바꾸고 살지 않는다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 당시, 남편을 사랑하면 서도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걱정할까봐 친정이나 시댁 어디에도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살았다. 하지만 나는 가족과 나를 위해 그 모든 시간을 감당하고 버텨냈다. 나에게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고 말해 주고 싶다. 그런 나를 꼭 안아 주고 싶다.

지금은 노쇠해진 아버지를 떠올려 본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하셨다가 저녁에는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오셨다. 평상시 자식들에게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과묵한 분이셨다. 어쩌다가 조금 일찍 들어오시는 날이면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엄마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내 코를 가끔씩 만지셨다. 그때 나는 잠이 깨기도 하였지만 자는 척 하곤 했다. 그때는 아빠가 왜 내 코를 자꾸 만지시는지 몰랐다. 내가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후에 알게 되었다.

그것은 평상시 무뚝뚝한 아버지가 술을 드셨을 때 비로소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행동은 내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 뒤에서 아버지가 든든하게 지켜봐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중학교 1학년 때였다.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조금 일찍 집에 들어오셔서 는 우리 형제자매 4명을 한방에 불러 모아 동그랗게 둘러 앉혀 놓고 말씀 하셨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께서 홀로 힘든 농사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중학교도 못 갈 뻔 했지만 결국 전북대 수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하셨다. 그날, 아버지는 당신이 가지 못한 서울대를 자녀 중에 한명이라도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은 편하고 좋은 환경인데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많이 속상하시다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평소 별다른 말씀도 없으시고 큰 산만 같던 분이 그날 조용히 흘리는 눈물을 보고 우리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아버지는 당뇨병으로 고생하셨던 상황이었다. 몸은 힘들지만,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이겨내시던 중이었다. 꾸준히 직장을 다니면서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사셨던 것을 알고 있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가진 사랑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아버지의 소원은 이루어 드리지 못했다. 그나마 공부를 제일 잘하는 언니가 약학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지금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의 뿌리를 더듬어 본다. 아마도 그날, 자식에 대한 염려와 사랑을 담은 채 소리 없이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 때문일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임실에서 전주로 전학을 왔다. 금암동 모래내 시장 근처 주택에서 2년 정도 살다가 인근에 새로 지은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새로 지은 집이라 깨끗하고 시설이 아주 좋았다. 옥상이 있고 집안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마당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는 근사한 집이었다. 마당이 있고 마당 앞쪽으로 꽤나 넓은 정원이 있었다. 지하실도 있고 마당 한쪽 대문 쪽에는 옥외화장실이 있었다. 그 집에는 우리 집과 본체에 붙어 있는 전셋집과 단독으로 지어진 전셋집이 있었다. 한 대

문 안에 세가구의 집이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 정원에는 대추나무, 감나무 두 그루, 그 외 몇 가지 작은 나무들 그리고 화초들과 돌나물이 잘 자라고 있었다. 안방에 누워서 창문을 바라보면 대붕시가 빨갭게 익어가고 하늘은 푸르고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 있는 그 모습을 바라 볼 때면 마음이 한 없이 편안하고 태평스럽고 좋았다. 나는 지금도 안방에 누워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그때를 떠올리면 기분이 참 좋다. 그리고 지금도 공원이든 거실이든 방이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우리 식구는 부모님과 2남 2녀의 형제자매가 살았다. 나에게서는 오빠와 언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다. 우리는 마당에서 두 명씩 번갈아가면서 재미 있게 배드민턴을 하곤 했다. 공을 힘껏 높이 띄우다 보면 옥외화장실 옥상으로 공이 올라가기도 하고 담을 넘어서 옆집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여름에는 지하실에 들어가면 약간 습한 기운도 있었지만 서늘하고 시원했다.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돛자리를 펴고 누워서 별도 바라보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시원한 저녁을 보냈었다. 옥상에서 보면 다른 집들 옥상들이 잘 보였다. 그리고 다른 집들 옥상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집들이 많아서 다른 집으로 건너 갈 수도 있었다.

나는 언니와 방을 같이 썼다. 우리 방에는 언니와 내 책상 2개가 창가 쪽으로 나란히 놓여 있었다. 책상에 앉으면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남동생이 입학하게 되어서 어린 동생을 손을 꼭 잡고 학교에 데리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

남동생은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개구쟁이였다. 동네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벽에 그대로 전속력으로 부딪쳐서 턱이 찢어져서 봉합 수술을 받기도 했다. 한번은 길을 잃어버려 경찰서에서 짜장면을 먹고 잠을 자고 있던 동생을 찾아오기도 했었다. 오락실을 많이

다녀 엄마에서 많이 두들겨 맞곤 했던 남동생은 지금은 결혼해서 반듯한 직장을 성실히 잘 다니고 있다. 참 대견하다.

그 집에서 열 살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5년 정도를 살았다. 대문 앞에는 우리 집만의 골목도 있었다. 골목길 가운데는 시멘트였고 양쪽은 흙으로 남겨두어 케일 등 여러 가지 야채를 심어 먹기도 했고 맨드라미, 사루비아, 꽃창포 등 예쁜 꽃들을 심어 가꾸기도 했다. 이따금 사루비아 꽃잎을 따서 꿀을 빨아 먹는 재미도 있었다. 그때는 참으로 행복했었다. 그 집, 그 골목길, 그 동네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시절이 그림자다.

학창시절 선생님들 중에서 6학년 담임이셨던 유영중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은 30대 초반쯤 되셨던 거 같다. 그렇다면 지금은 33년이 지났으니 아마도 정년퇴직을 하셨을 것이다. 처음에 6학년 1반에 배정되었다가 4월초에 학급을 재편성하면서 각 반에서 대여섯 명씩 뽑아서 6학년 11반을 새로 구성했다. 교실은 건물 제일 가장 자리로 복도까지 교실로 사용하던 공간이 넓은 반이었다.

선생님은 보이스카우트 지도 선생님이로 보통 남자들 보다 약간 긴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니셨고 아주 진한 눈썹에 강한 인상을 주는 분이셨다. 선생님은 자주 활짝 웃으셨다. 가르치시는 실력이 매우 뛰어나시고 욕심도 많으셔서 우리 반은 일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과목 중에 특히 수학을 굉장히 중요시하셨고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 자기능력을 발휘해서 최고로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분이셨다.

나는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반에서 그럭저럭 공부하면서 성적은 중간 정도 따라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아이였다. 그 시절에 책상을 두 줄씩 붙여서 4개 분단으로 배치하여 아이들을 일등부터 꼴등까지 성적순으로 자리에 앉게 하셨다. 자리 배치만 가지고도 아이들의 성적을 알

수 있는 교실 형태로 수업을 하셨다. 공부 잘하는 2개의 분단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나머지 2개 분단 아이들보다 우대해주면서 구별하여 지도하셨다. 나는 그때부터 선생님이 무서워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었다. 수업 시간에는 물론 하교 후에 인근 시립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니 의외로 공부가 재미있기도 했다. 노력에 따라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반에서 1,2등으로 성적이 향상 되었다. 더군다나 선생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수학 과목이 재미있고 좋아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선생님 때문에 상처 받은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그나마 잘해서 혼날 일이 거의 없었지만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의 막대기 봉으로 머리를 맞곤 했었다. 그리고 복도 끝에 간이 그물 침대에 누워 쉬시면서 흰머리도 뽑게 하셨던 일들이 기억난다. 선생님은 그런 특이한 분이셨지만 정말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아 부으시는 마음 따뜻한 그런 분이셨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지난번보다 성적이 떨어진 학생을 남겨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는 거였다. 내가 때리는 것도 상대방이 나를 때리는 것도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그때는 체벌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다. 체벌의 효과가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혹했던 방법이었다.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내 안에 숨어 있는 열정과 노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된 시기였다.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그때 내가 가지게 되었던 공부에 대한 계기와 열정이 바탕이 되어서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선생님 생신 때 몇몇의 아이들과 떡으로 찾아간 적이 있다. 선물을 드리고 사모님도 뵈고 왔던 기억이 있다.

선생님의 방식은 물론, 잘못 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그 당시 많은 아이들에게 성실과 열정의 불을 지피게 했다. 살아가다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 요즘에 나는 선생님을 떠올려 본다. 매사에 열정의 불꽃을 피어 올리게 했던 선생님이 내게 흐뭇한 미소를 보내오고 있는 듯하다.

대학을 진학하고 참으로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간이 내게 주워졌다. 하루에 수업 4시간 정도면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동아리도 가고 커피숍에서도 가면서 수다 떨고 놀았다.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몸이 피곤하면 집에 일찍 와서 쉬기도 했다. 한창 때여서, 몸이 고단하고 아프다가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금방 나아졌다.

대학 1, 2학년 시절에는 걱정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었다. 참으로 인생의 휴식기이면서 자유로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때 이성애 대해서 첫 사랑이라는 감정도 느껴보고 그리워 해보고 또, 가슴 아프기도 했다. 순수하고 풋풋한 시기였다.

1994년 대학 졸업한 내 나이 23살에도 나는 여전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대학 친구 2명은 이미 4학년 때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졸업 후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학교도서관, 시립도서관, 독서실 어디를 가든 졸업생과 대학생들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모두 나와 같은 공부를 하는 경쟁자들뿐이었다. 그때 나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7급은 못하더라도 9급 지방직은 가기 싫었다. 적어도 9급 국가직 공무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 했었다. 내가 치를 시험의 경쟁률은 전라남북도 광주권으로 경쟁률이 217:1 이었고 선발인원은 20명이었다. 주위에 온통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20명안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상상도 안 되고 숨도 턱하니 막혔다. 졸업을 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도 시험을 포기하고 적당한데 취업을 하면서 하나 둘 떠나갔다. 같이 공부할 친

구가 있었을 때는 의지도 되고 잠깐 쉴 때 이야기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나는 홀로 시험 준비를 하면서 너무도 불안하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면서 공부를 해야 했다.

드디어 시험 당일이 되었다. 시험은 7과목 과목당 20문제로 1문제당 50초, 2시간 안에 풀어야 했다. 지금까지의 투자한 모든 노력과 시간이 2시간에 평가되어 내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겨우 140문제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성의 없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도 더 많고 시간도 더 많이 들여 인재를 제대로 뽑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시험에 투자한 내 열정과 노력이 두 시간 안에 평가받는 것은 너무나 씁쓸한 노릇이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그 순간에는 허탈하기만 하였다.

2달 정도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1차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왔다. 새벽 0시 자정이 되는 시간에 ARS자동응답기에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전화를 들고 버튼으로 내 수험번호를 누르고 멘트를 기다리는 동안, 수화기 너머에서 어떤 멘트가 흘러나올지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축하합니다”라고 할 것일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올지 숨이 막혔다. 마침내 전화기에서는 경쾌한 음악소리와 함께 ‘축하합니다’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때 그 순간을 어찌 말도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내가 2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수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합격했다니, 정말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었다.

합격으로 인해 그 동안의 모든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은 매순간 모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변해 있었다. 또 석 달 정도를 기다려야 2차 면접

이 있었다. 시험은 4월에, 최종합격자는 10월 정도에 발표했던 것 같다. 장장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끝이 나는 것이었다. 1차 합격자 발표 후 2차 면접을 기다리면서 풍남여중에서 한 달 남짓 기간제교사로 일하기도 하였다. 전공을 살리자면 임용고시를 보아서 교사가 되어야 하지만 전북에서는 뽑지도 않고 경기도 권에서 겨우 몇 명 뽑는 식이어서 일찌감치 포기했다.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취업준비를 했던 것이었다. 호남권 20명 모집에 1차에서 동점자가 6명이 나와 25명이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면접에서 5명이 탈락되는 것이었다. 면접에 관한 책도 사보고 면접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

엄마와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까지 가서 면접을 보았다. 면접시험장에는 5명 정도 되는 시험관이 돌아가면서 개인적인 의견 같은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나는 소신 있고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했다. 어떤 지면접관들은 나에게 자꾸 내 생각이 틀렸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였다. 10분 정도 면접을 봤는데, 나는 기진맥진해서 시험장을 나왔다. 내가 나온 뒤 2~3분도 채 되지 않아 내 뒤 번호의 한 남자가 면접을 끝내고 나오는 거였다. 그 남자는 “면접관들이 나보고 근무 잘하라고 했어”라며 활짝 웃었다. 그때 나는 ‘내가 떨어졌구나. 이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동점자 중에서 합격자가 결정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너무 허탈했고 심하게 낙담했다.

그 뒤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하여 다시 한 번 더 도전했다.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갔는데 나는 지난해와 똑같은 점수를 받았고, 낙방하고 말았다. 그 이후 나는 2, 3개월 공부를 해서 닥치는 대로 시험을 봤지만 줄곧 떨어졌다. 너무나 낙심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는 시험과목이 바뀌게 되었고 국가 직에 세 번째 도전하기 위해서는 생소한 행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고시학원에 다녀야만 했다. 그러다가 전

에는 눈에도 들어오기 않았던 다른 직종에 시험을 봤다. 학원생 중에 몇 안되는 사람이 합격을 했고 내 명단도 그곳에 있었다. 학원에서는 축하를 기념하는 플랜카드도 걸어주었다. 나는 사실 하나도 기쁘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 놓였다. 그렇게 합격한 뒤 연수를 받고 결국 이것이 나의 기나긴 인생길인 직장이 된 것이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오게 된 직장이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직장을 19년 동안, 정말 충실하게 다녔다. 국가 직에 최종 합격하지 못해 다른 길로 오게 되었지만 첫 합격 때 내가 느꼈던 성취감과 기쁨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때의 그 가슴 벅차오름을 잊을 수가 없다. 나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취직 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다니던 영어회화 학원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 1996년 10월이었다. 그 때 남편은 대학교 3학년생이었다. 수업 중에 둘 씩 파트너가 되어 영어회화를 하던 중 탁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게 인연이 되어 밖에서 따로 만나서 탁구를 치게 되면서 사귀게 되었다.

처음으로 남편을 본 것은 그 전이었다. 학원에서 스쳐가듯 봤는데, 문에 기댄 채 외국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첫눈에 호감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만날수록 남편의 장점이 돋보였다. 웃는 얼굴이 아주 밝고 환했다. 매사에 긍정적이며 낙천적인 면이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1997년에 발령을 받아서 첫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4월인 내 생일 날이었다. 그러니까 만난 지 6개월쯤 되던 날이었다. 한 살 연하이고, 학생인 남편과 직장인인 내가 어설픈 데이트를 시작하고 있었다. 남편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아르바이트로 막노동을 했다. 그렇게 번 돈을 마련하여 시내 보석가게에서 내 마음에 드는 목걸이를 사주었다.

진한 청색 다섯 장의 꽃잎 모양의 목걸이다. 지금도 이것만큼 마음에 드는 목걸이는 없다.

꽃잎 모양의 목걸이는 20년 전 당시에 십 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직장을 다니는 나에게는 아주 큰돈은 아니었겠지만, 당시 학생인 남편 입장에서는 달랠 수 없었다. 나에게 꽤나 비싼 선물을 해 준 것이었다.

나는 보석에 그리 많은 관심과 욕심을 갖는 성향이 아니다.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십여 년 동안 거의 청 꽃잎 목걸이만 주로 하고 다녔다. 결혼 때 받은 예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값은 덜 나가지만, 남편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줬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정이 많이 가고 좋다. 아마도 내가 죽는 날까지 즐겨하고 다닐 것 같다.

작년에 남편과 딸아이가 함께 돈을 모아서 내 생일 때 순금 2돈의 목걸이를 선물해 주었다. 순금이라 더 값나가고 색깔도 훨씬 예쁘게 빛나지만, 나는 여전히 청 꽃잎 목걸이가 더 마음에 든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나를 무척이나 좋아해 주었다. 한창 연애 하던 시절에 남편은 그저 평범한 나를 진심으로 소중하고 예쁘고 한없이 귀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었다. 그 시절에 나의 행복감과 자존감은 내 인생에서 최대치였던 것 같다. 청 꽃잎 목걸이는 바로, 남편으로 인해 느꼈던 한결같은, 무한한 사랑의 의미이다.

남편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꾸준하게 나를 무척이나 좋아해주고 애끼고 사랑한다. 그동안 속도 많이 썩게 하고 마음고생도 시키기도 한 적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지만, 여전히 나만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남편이 한없이 고맙다.

▶ 이 글은 지니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가을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회피avoid 하지 않으면 해피happy 해진다

송은섭 | 강서구립우장산숲속도서관_서울

전반전이 끝나고 나를 분석하다

내 인생의 전/후반전은 지금 아내를 만나기전과 지금 아내를 만난 이후로 구분되어진다. 전반전에서 나는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제대로 몰랐다. 그러나 시련의 3년은 철저하게 나를 분석하는 시간을 제공해주었고 더불어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수 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신만의 반응양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만의 반응양식은 일정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다. 인생의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우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린 시절부터 반복되어 표현되

거나 만들어지는 ‘상황패턴은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한다. 이는 한 사람의 성격과 행동양식을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원리에서 찾는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은 모두 아는 평범한 진리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짧은 말속에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세 살 버릇이 형성되기까지 부모와나, 형제들간, 또래 집단의 친구들과 주고 받은 교감이 세 살 버릇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버릇은 커가면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좀 더 자라면 다시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통틀어서 그 사람의 인격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로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는 시기와 원인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좀더 쉽게 극복할 수 있을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역술인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원인과 대책을 묻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 자서전을 써가면서 느낀 점인데, 지나고 나서 객관적 입장으로 바라보면 위기가 어떻게 다가왔고,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가정이 무너지고 20년간 천직으로 생각하던 직장을 그만두는 결심까지 하게 되는 두 가지 위기를 겪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예견하고 대비할 수는 없었는가?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하지 못해서 위기를 초래했는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되돌아 보는 과정이 필요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위기는 3년이라는 시련을 주었으며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분석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 결국 회피하는 습관과 무기력감을 반복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회피하는 습관은 특정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행동양식을 보였었다. 아프카니스탄을 선택한 것도 결국에는 일종의 도피처로 생각했고, 현실을

회피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J와의 결혼을 후회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가정에서 느끼는 무기력감은 모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직장에서 역시 무기력감으로 관계의 기술을 해치고 있었지만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나에게 닥친 두 가지 위기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나 자신의 책임이었다. 회피의 습관과 반복적인 무기력감을 치유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였던 것이다. 당시 나는 무기력감에 시달리다보니 어떤 일도 열정적으로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감정고통에 시달리기 싫어서 회피위주로 대응하는 습관이 생겼던 것이다.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싫었다. 이 두 가지가 위기를 초래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나의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이다.

반복되는 위기! 그 패턴에 습관이 있었다.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고통 받은 느낌은 현실의 위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특별한 원칙을 발견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회피와 무기력감은 다른 이름으로 이미 나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유년기와 소년기의 나는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해 종종 방치되듯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었다. 부모님은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되다보니 어린 나에게 적당한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셨다. 예를 들어 숙제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해야 했고 공부방법도 특별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알아서 해야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모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부 분량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규칙적으로 공부

분량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했다. 대신 내가 필요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습관은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지게 만들었다. 여기서 특권의식이란 내 존재의 특별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해낸다. 그러니 지금 내가 놀고 있어도 나의 존재만큼은 특별하다. 뭐 이런 정도의 잘못된 의식이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 2학년 내내 놀다가 3학년이 되어 목표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목표를 달성한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1, 2등은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역시 1, 2학년 동안 공부와는 답을 쌓았다가 3학년때 뒤늦게 공부에 뛰어들어서 제한된 목표만 달성하게 된 것도 잘못된 습관의 한계였다. 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달성해나가는 습관을 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단편적인 사안에 매달리게 되고 넓고 크게 보는 시각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

남이 보기에 좋아보여야 하고 남을 의식해서 무엇을 해야하는 생활은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했으며 끝내는 무기력감에 빠져들도록 만들었다. 한 가지 목표를 어렵게 달성하고 나면 바로 지쳐서 다음 목표를 보지 못하고 일정기간 무기력감에 빠져드는 현상도 나타났다. 고등학교 때 그룹사운드를 만들어서 공연을 한 것을 두고 지금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도 회피의 성향을 분석 할 수 있었다. 고3때 우리 8남매는 모두 뽀뽀이 흩어져서 살았었다. 물론 대부분 결혼을 하고 작은 형과 나만 남았지만 작은형은 군대를 갔고 집에는 나만 있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셨고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전부였다. 당시에 나는 부정(父情)결핍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아버지가 근엄하면 서도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부러

왔다. 그래서 나는 내면에서 나오는 결핍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는 가면을 썼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슈가 되는 사건의 중심이 되어야 했고, 그 이슈를 만든 것 중의 하나가 그룹사운드였다. 결핍의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기 보다는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이것 역시 아버지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회피의 방법이었다. 정면으로 맞서서 문제해결을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두 가지 무기력과 회피의 문제는 이후 내 삶에서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고 문제가 발생할 때면 항상 그 속에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회피(avoid)하지 않으면 해피(happy)해지는 원리를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시련의 3년 동안 나는 내 인생을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를 성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면서 실패라는 느낌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실패라고 느꼈던 것은 나를 왜곡되게 평가한 결과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나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다. 최상은 아니지만 최하도 아닌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적어도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둘째, 가정은 무너졌지만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가 있었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셋째, 나는 회피와 무기력감이라는 나쁜 습관

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습관을 내 삶의 영역에서 도려냈다. 비슷한 상황에서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항상 정면 돌파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기력감이 들라치면 책과 사색, 운동을 통해 적절히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스럽고 현명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성공할 모든 요건을 갖춘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가장 하고 싶으면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독서와 사색을 통해 나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찾게 되었다. 우선 나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으므로 5급 군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 목표를 이루었다. 이후 나의 후반전 인생설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먼저 안정적인 군무원 생활을 토대로 매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연구와 자질을 갖추는데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다. 5년 동안 어느 정도 해당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본격적으로 활동할 준비를 하고 더욱 심화과정으로 몰입하는데 다시 5년을 계획했다. 즉 10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준비기간 10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직업군인으로 20년, 군무원으로 10년, 이 두 기간은 연금으로 합산될 수 있는 숫자이다. 따라서 총 30년의 공직생활에 대한 연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이다. 이후부터는 준비된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나 혼자만의 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아내와 항상 상의했다. 아내 역시 내 꿈과 도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내가 지치고 힘들어하면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이제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양상이 달라졌다. 전반전에는 크게 2골을 먹었는데 후반전에는 선수교체와 더불어 비

장의 무기를 투입한 것이다. 여기서 비장의 무기는 '나를 넘어선 나'이다. 나를 제대로 분석하니 나를 넘을 수 있는 것이다. 전반전과 똑같이 싸우면 후반전의 역전은 없다.

▶ 이 글은 송은섭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2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가을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나는 저 별이다

이현자 | 전주시립완산도서관_전북

나는 저 별이다

내가 56세, 남편이 58세인 때, 2003년 또 나는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이 험난한 일을 했다. 사료 값만 해도 한 달에 몇 천 만원 들었다. 고추농장도 임실에서 제일 먼저 비닐을 씌우는 농법으로 시작했고 수확량이 월등하게 좋았다. 그렇게 내가 하니, 주위에 다들 내가 쓰는 방법으로 고추 농사를 짓곤 했다. 사실, 그 당시 나는 두려움이 별로 없었다. 해낸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시작하면 마침내 해내곤 했다. 나에게서는 늘 용기가 있었다. 망하는 것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인부는 모두 세 명이 있었는데 중국인도 한 명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관리나 세세한 일거리는 내가 도맡아 해야 했다. 가족들은 밤에 새끼를 많이 낳았다. 잠 한숨 못자고 새끼 낳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하루에도 잠을 서너 시간도 채 못 자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일을 했다.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낸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2002년 12월 20일로 기억한다. 그 날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이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내가 뱅글뱅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게 도는 거였다. 혼자서 터미널 근처에 있는 중앙 병원을 찾아갔다. 무조건 링거를 좀 놔달라고 사정을 했다. 초조하고 힘이 없었다. 아마도 여러 날 누적된 피로 탓에 일어난 일이었을 것이다. 그날,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혼자서 운전해서 돌아왔다. 그리고 또 훌훌 털어버리고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 나는 고등 검정고시를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수업을 다 마치고 학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 차 앞을 막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아서 나는 속절없이 기다려야 했다. 이윽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 어떤 사람이 와서 차를 빼내주어서 예정보다 늦은 시간에 서둘러서 집에 왔다. 그리고 그 날은 돼지를 출하하는 날이라서 그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벌써 하루해가 저물었다. 그렇게 어둑해져서 집에 왔는데 그 다음 날,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남편이 맨홀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그 사건 이후, 이상하게도 집이 무서워졌다. 너무나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가족농장을 하느라 애썼던 모든 것들이 거의 날려 보내 다시피 처분을 했다. 남편의 사망일은 2003년 2월 25일이다.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이었다. 나라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에 있던 그날, 남편은 관 안에 들어가 있었다. 나는 속으로 1988년에 했던 역학 공부를 토대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 내 남편은 병술년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주와 흡사했다.

하지만 극과 극이 통한다고, 남편은 사망했지만 노대통령은 최고의 영예를 지니게 된 것이었다. 물론 그 뒤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말이다. 게다가 남편은 그 당시 군의원에 출마했었다. 누구나 다 남편이 될 줄 알았

다. 연설문을 작성해서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눈빛을 빛내던 남편을 기억한다. 선거 운동을 하며 도와주는 많은 분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막상 선거일이 되자 우리 쪽 참모가 단 한명도 모이지 않았다. 다 된 것처럼 얘기하던 그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 경쟁하던 후보들 중에 예전부터 군 의원을 했던 사람이 마침내 당선이 되었다. 그것도 불과 이십 육 표의 차이로. 남편은 그 뒤에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선거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고, 그 것을 녹음하고 거기에 일어난 비리들을 모아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말렸다. 이미 그렇게 벌어진 것을 어찌겠냐고 했다. 내가 그에게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분명 소송에 휘말려서 곤란을 겪었을 터였다. 그나저나 그러고 나서 십 개월 후에 돌아가신 것이다. 역학 공부를 하던 이에게 들은 바로는 오히려 낫다는 거였다. 군의원에 낙선하고 돌아가신 것이 다행이라는 것이다. 공무에 임해서 감투를 쓴 채 사망한다는 것보다 그렇지 않는 편이 돌아가신 분이나 남아있는 사람한테 낫다는 말로 알아들었다.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 버린 이후, 나는 그 집에서 도통 잠을 잘 수 없었다. 두렵고 무서운 느낌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대로 있다가는 무슨 변괴라도 당할 것만 같았다.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지, 돈은 다 필요 없었다.

2005년에 농장을 다 처분하고 정리했다. 황급하게 팔다보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할 수 없었다. 땅까지 다 처분한 뒤 나는 전주로 주거지를 옮겼다. 예정대로라면 사흘 후 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날인데, 남편이 그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험을 치지 못 했다.

그 뒤, 검정고시를 쳐서 합격했다. 나는 원래 시골의 땅을 활용해서 사회 사업을 하려고 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지어서 소외된 계층과 더불어 살고 싶었다. 물론, 터전을 사라졌지만 그런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기에 대학의 문을 두드릴 때, 자연스럽게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탓에 지냈던 한을 풀고 싶었다. 배우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 감사했다.

내가 잘 따라가지 못해서 더듬거리더라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던 서러움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하나 들씩 내 힘으로 극복해가게 되었다. 그동안 일 구덩이 속에서 빠져 살았다. 나 자신을 그 구덩이에 처박아 놓았던 거였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삶에서 나는 스스로 나를 칭찬하고 싶다. 그 무수한 어렵고 힘든 일을 다 해내면서 살아왔던 거였다. 공부에 대한 잠자고 있던 열정이 되살아나게 된 것은 아마도 1985년, 이박 삼일로 산업공단에서 하는 새마을 연수교육에 참가하면서 부터였을 것이다. 그때, 강의실 의자에 앉 아있으면서 나는 내 마음이 들뜨는 것을 느꼈다. 다함께 집단 토의를 했을 때도 나는 주도적으로 대화에 참가해서 집단을 이끌었다. 뭔가를 배우고 행한다는 것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였다.

그 이후 공부를 계속해야겠다는 것이 내 삶의 신조가 되었다. 아니, 내 삶의 유일한 보람이었다.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나에게 주는 큰 선물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서해대학의 문을 두드렸다. 2005년, 내 나이 58세였다. 학교생활을 할 때는 학교 아래 방을 얻어 살았다. 나이는 들었지만, 어엿한 대학생이었다.

나는 학교를 무척 즐겁게 다녔고, 신나게 공부했다. 결국 2007년 2월 13일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였다. 동시에 케어복지사 1급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졸업식에는 주위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오겠다고 했지만, 다들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애만 태우다가 결국 나 혼자서 졸업식에 참석했다. 휴대폰으로 몇 장의 사진은 찍었지만, 휴대폰을 분실하는 바람에 기껏 몇 장 찍은 사진조차 사라졌다.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의 못 다 이루고 있었던 과제 같은 것을 제대로 해낸 기분이었다.

졸업한 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주로 이사를 왔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 집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쌍다리 천변이 있다. 오십 미터 올라가면 어은교가 있고 중화산을 넘어가는 굴다리도 보인다. 다리 밑에는 깨끗한 물에만 산다는 쉼리가 살고 천변으로는 갈대숲이 하늘거리며 운치를 더해준다. 부드럽게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 물에 오리와 물새들이 자주 놀러온다.

나는 여행을 즐기지만, 자주 떠나지는 못했다. 2003년 음력 4월 27일이 기억난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비행기를 타고 언니와 함께 제주도를 갔다. 산과 들이 내려다보이는 창공에서는 강줄기만 보였고 바다를 지나갈 때 드문드문 섬들이 보였다. 남편을 보내고 나서 너무나 울적해있던 나를 달래기 위해 기분 전환으로 언니가 마련한 여행이다. 제주도에 도착해 해변가에 걸으며 느꼈던 시원한 바람은 영원히 잊지 못할 바람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나는 젊은 시절 동안 지긋지긋하게 일을 했다.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고생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남편은 일만 저지르고 내가 뒤통다끼리를 하느라 늘 바빴다. 한 번은 전염병이 돌아서 새끼들이 죽어갔다. 그런 일을 두 번 정도 당하기도 했다. 역학을 공부

했던 것은 1988년인데, 누구의 권유도 없이 혼자서 찾아갔다. 국립역학 학원인데, 서울의 용산에 있었다.

그 당시, 나는 간절하게 나를 알고 싶었다. 그러니까, 내가 역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나를 알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 생각이 든 것은, 1985년 한국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때였다. 이박 삼일의 일정으로 교육이 끝난 날에는 주제 발표 노래자랑 장기자랑 만담 등의 경연이 있었는데 우리 방에 18명이 전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우리 팀원들과 함께 방에서 좌담회를 했는데, 발표를 하면서 강하게 내 머리를 치는 것이 있었다.

나도 모르는 운명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나를 알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열리는 법이다. 어느 날, 우연히 식사하러 온 손님 중에 남녀 두 분이 식탁에서 열심히 무엇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었다. 음식을 다 드신 뒤에 혹시 철학 공부하시냐고 물어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디에서 공부를 배울 수 있느냐며 알려달라고 했다. 그렇게 메모를 해 두고, 뒤에 시간이 났을 때 찾아가 공부했다.

내 생애 이런 좋은 공부를 하게 된 걸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공부는 천운이 있어야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중하고 행복하다. 역학은 음, 양, 오행의 학문이다. 우주 공부이며, 인간 공부이고, 자연 공부이며 수리 공부이기도 하고 과학 공부다. 세상 보는 안목이 밝아지고 넓어지고 응용 학문이라 지식이 생긴다. 무엇보다 내가 성숙해진다. 새로운 관심이 생겼고 지금도 문득 깨달음으로 연결 되는 것이 많다. 제일 먼저 나부터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음이 밝아지며 내 자신이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끼며 도우려는 생각이 동시에 일어

나게 되었다. 내가 안전해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항상 내 마음에 진실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이치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그렇게 초급, 중급, 고급반까지 총 12개월을 다녔다. 그렇게 사주명리를 십 개월, 주역과 관상을 이 개월 공부했었다. 참 잘 배웠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 대한 사명감을 알게 되었으며 폭넓은 인생길을 가보겠다 다짐하게 했던 공부였다. 처음 시작할 때 명리학문을 배우려면 한문을 공부해야 했다. 한문학원에 등록하고 열심히 하면서 양쪽으로 다니다보니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났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동기생들과 나란히 가야하는 길을 뒤쳐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거였다. 그때 같이 공부한 동기생 중에 변호사가 있었는데, 자신은 법 공부가 쉽지 역학이 이렇게 어려운 공부인줄 몰랐다고 했다.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도 난 이해력은 있어서 조금씩 따라갔다. 운명적 굴레에 걸쳐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공부에 기쁨을 느꼈다. 공부를 하고 나 자신을 깨닫는 순간에는 몇 시간을 멈추지 않고 울기도 했다. 묵었던 마음의 벽을 크게 허물어 버렸었다.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쯤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니 그 당시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잘 했던 것 같다. 단순히 급급한 대로 자식이 필요하다고 마음을 동동 굴러가면서 병원이나 쫓아다니느라 마냥 시간을 보냈다면, 지금의 나는 생각해볼 수가 없을 것이다.

공부는 언제나 내게 큰 힘을 주었다. 내가 글을 쓰는 방법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희망찬 길로 가고 있는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나는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자랑스러운 그날까지 홍익인간이 되고자 꿈꾸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와

애국가를 사랑한다. 아침 4시 50분이면 텔레비전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
를 듣는다. 그렇게 하루의 시작을 애국가와 함께 한다. 그런데 국경일에 보
면, 특히 아파트에 태극기를 달린 집을 못 봤다. 국민의식이 애국하는 마음
으로 바뀌게 되기를 기원한다.

나는 그동안 세상에 대한 안목이 없었다. 거기에 눈을 뜰 뿐만아니라 미
래까지 내다보게 되었다. 홍익인간 사상과 단군의 역사를 접하면서 민족
애를 고취시킬 수 있었다. 국가관과 민족관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했다. 게
다가 내 인생을 스스로 존중하고 감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큰 사람, 성인(聖人)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갈고 닦는 공부였다. 그 이후
기 공부를 했다. 금산사 앞에 기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웠
다. 그것도 우연히 미용실에 가서 잡지책을 보다가 눈에 띄어서 연락하고
찾아가 게 된 것이다.

그렇게 나는 무엇인가 배우고 싶으면, 길이 멀다하지 않고 쫓아가서 배
웠다. 기 공부를 하면서 무엇보다 주위의 종교들을 훑어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했다. 함께하는 수련생들 중에서 내가 가장 빨랐다. 삼 일 정도
하는데 기가 내 몸에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부드럽게 쉬는 호흡이 중요
하다는 것도 알았다. 그 당시는 농장을 하느라 배운 대로 잘 행하지는 못했
다. 하지만 두 가지는 늘 지켰다. 입을 벌리고 호흡하지 않고, 코로만 호흡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분히 상식적인 호흡법이지만,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 코로
호흡하는 것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것이다. 그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했던 말이지만, 부정적인 말
이 결국 좋지 않은 기를 흐르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동안 “죽겠
다, 지친다”는 말 대신 그냥 견뎌왔던 술한 나날들이 있었다. 그래서 크게

아프지 않고 버텨왔던 것 같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

지금도 나는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언제까지 더 이런 마음이 들게 될 것인지는 나도 알 수가 없다. 앞으로는 미술도 하고 서예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가다듬고 싶다. 그래서 무릎이 아파도 무서워하면서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아픔을 즐기면서 여러 인문학 강좌에 다니고 있다. 스스로 터득하는 용기로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 그래야 용기가 솟는다. 한 사년 전쯤에 무릎이 심하게 꺾인 적이 있었다.

찾길을 건너다가 꺾인 것이다. 그 다음부터 아픔이 시작되었다. 병원에 가지 않다가 최근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니 연골이 닳았다고 했다. 그동안 일을 많이 한 결과였다. 무릎의 통증이 심하기에 내 생각에는 관절염이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였다. 오래 걷지 않도록 주의를 들었는데도 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직 수술까지 권유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안심이 되었다. 이제는 슬슬 내 몸을 아끼고 다스려가며 살려고 한다. 일 년 전에 수지침을 일 년 간 배웠다. 지부에서 시험을 쳐서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수지침을 배우기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

1989년, 기사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600평 땅에 배추를 심어 출하를 할 때이다. 무게가 나가는 배추들을 직접 들어다가 나르는 일을 하루 종일 했다. 지나친 과로가 쌓인 채 저녁에 쉬어야 하는데 쉬지도 못했다. 긴 시간 동안 집에 온 손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갔다. 찾아온 손님 세 명을 데려다 준다고 남편은 집을 나갔던 시간이었다. 다른 손님은 다가고, 나와 떠 동갑인 연하의 한 여자만 남았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일어나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응접실로 나와서는 그만 의식 잃고 말았다.

얼마 뒤에 내가 들어오지 않아 손님이 나와서 보니 진열장에 상체만 기댄 채 고관절 밑으로 하체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 뒤로 꺾어져 있는 나를 발견했던 것이다. 나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여자 손님더러 방의 서랍 속에 바늘이 있으니 찾아 달라 부탁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시어머니하고 둘이서 등을 뒤고 당기며 발을 앞으로 돌려 서서히 바늘을 찔렀다. 마비가 된 상태라 아픈 줄 모르고 마구 찔렀다. 왼쪽은 심육 분쯤 지나니 살아났다. 그리고 있으니 남편이 돌아왔다. 병원에 가자는 것을 놔두라고 했다. 나를 방에 들여서 눕혀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청심환을 사오라고 했다. 그것을 먹고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바늘을 계속 찔렀다. 어지럽기는 했지만, 병원에 가자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견뎠다. 오른쪽 발은 한 시간 반쯤 지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에도 계속 찔러 댔다. 날이 밝아 임실에 있는 한의원에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했다. 내 증세를 자세하게 하고 약을 지어달라고 해서 삼일을 달여 먹고 쉬었다. 그렇게 현기증과 마비 증상은 끝이 났다. 참, 신기한 것은 그 당시 나는 침을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바늘로 내 몸의 부분부분을 찌를 생각을 했던 것일까. 그때 내가 찔렀던 곳은 나중에 알고 보니 경혈자리였다. 전문가가 들으면 놀라면서 만류하겠지만, 그 당시 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내 몸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내도 모르는 잠재되어 있는 치유의 힘이 솟아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그 뒤에 당장 수지침을 배우고 싶었지만 양돈 사업을 시작한 뒤라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못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로부터 26년 만인, 2015년 서금요법사 자격증과 수지침사 자격증 두 가지를 습득했다.

▶ 이 글은 이현자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3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가을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내 삶의 강줄기를 내려다보며

최해동 | 전주시립완산도서관_전북

내 삶의 강줄기를 내려다보며

힘들게 군 생활을 마치고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만 삼 년이란 내 젊음의 공 백을 어떻게 보충해야 할지 갈등이 생겼다. 고등학교 선배의 애인이 여자를 소개하여 주었다. 부산 서면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녀는 아담한 키에 매우 청순한 이미지를 풍겼다. 전주와 부산을 오가며 우리는 점점 사랑의 감정으로 빠져들어 갔다. 그러나 나는 바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그녀에게 이별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 고뇌는 일평생 나를 괴롭히는 죄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이별의 이유가 너무 무책임하고 유치하며 졸렬하였다. 제대 후 남자에게 여자가 생긴다는 것은 결혼을 앞둔다는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다. 여자 측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것을 당연시한다. 제대 후 학교 졸업이나 직장 문제, 경제적 측면에서 백수 상태라서 결혼문제는 중압감이 되어 나를 괴롭혔던 것이다.

지금의 아내는 당시 서울 중앙 농협에서 근무하다 당시 전라북도 농협도 지회 자재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군에 가기 전에 가끔 데이트만 하고 지냈는데 제대 후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처가 집을 드나들면서 결혼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일단 저지르고 봤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놈이 결혼을 한다고 하자 아버지는 몹시 실망하셨다. 큰 자식 결혼 때도 무척 실망하셨는데 목표를 세워 공부를 계속한다던 아들이 느닷없이 결혼부터 한다고 하니 그 실망 감이 무척 크셨나 보다. 이동휘 전홍교회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나의 하객들은 대개가 호남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자칭 ‘호남의 백수’들이 공짜 점심이나 떡자고 몰려온 사람들이었다. 시골에서는 친척과 아버지 친구 몇 분만이 올라오셨다. 반면 아내의 손님들이 주를 이루었다.

일단 결혼은 했지만 생계를 위하여 아내는 계속 직장을 다녀야 했다. 나는 공부에 집중도 못하면서 고시 낭인이 되어 이리저리 어울려 다니면서 백수 노릇을 하고 있었다. 큰 애가 생겨서 농협에서는 시택이 있는 남원농협으로 발령을 내주었다. 농협 도지회에서 근무하다 남원농협으로 와서 근무하면서 아내는 몹시 힘들어했다. 여름 어느 날 몸이 약한 아내가 임신한 몸으로 사무실의 에어컨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시골집으로 실려 왔다. 참으로 내 처지가 한심스럽고 난감했다. 더 이상 공부한답시고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절박감은 나를 현실적으로 변화시켰다. 고시를 포기하고 감사직과 세무직을 기웃거렸다. 과목에 적응도 잘 안된 상태에서 낙방은 당연했다. 안전기획부 해외과건 요원 선발시험에 도전하여 1차 시험에 전라북도에서 두 명이 합격했는데 내가 속해 있었다. 이어 3차 면접까지 치른 후 최종적인 합격자는 전주시 경찰서 수사계장 한 명이었다.

아내는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인후동 셋집에서 큰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6개월 후 가을,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직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하였다. 60대 1의 경쟁으로 10명이 합격하였던 것이다. 그 이듬해 1984년 7월 1일에 임실군청으로 초임 발령을 받았다. 33세의 나이였지만 현실이 급한 나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임실군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고시를 합격한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비교하면 열등감도 생겼지만 열심히 일에 몰두하여 극복해 나갔다. 임실군에서 몇 년을 근무하다가 소양 고시를 쳐서 전라북도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고시를 포기하고 공직에 뛰어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나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시낭인으로 전락하여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의 '사는 거야 어디서 살지'라는 작품에서 작가의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평생 살았던 삶을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 이렇게 내 삶을 글로 풀어내면서 나 스스로 내 삶의 아픔을 보듬어 볼 수 있는 힘을 갖기를 기대해본다.

늦게 공직에 입문하였지만 관련 분야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청렴·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공직 수행의 기본으로 삼았다. 내가 공직에 있는 동안 소신을 굽히지 않아 세 번의 교체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공직자로서 청렴과 공정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다시 중요 업무를 맡곤 했다.

한 예로, 임실군 상공운수계에서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하여 당시 서슬 퍼런 양창식 국회의원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순위에서 가장 가까운 청응면 젊은이를 선정하였다. 도에서는 이를 모범사례로 시군운수담당들 교육 때 홍보하기도 했지만 나는 국회의원과 군수 부군수의 미움을 받아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소신이 있었다. 어느 하찮은 업무를 맡는다 해도 최선을 다하여 그 업무를 추진한다

는 자세다. 그것이 앞으로 내 공직생활에 도움이 되리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다. 맡은 업무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그 업무를 연구하고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임실군 신평면 롯데부지 옆에 농공단지를 설립하여 주민 설득과 공장유치 활동을 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도에 전입하여 감사과 조사계에서 근무 할 때는 진안군 정천면 골짜기에서 불법 벌목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려고 계획했다. 이튿날 조사계 직원들과 지적과 측량 팀을 구성하여 사흘간 불법 벌목현장을 조사하였다. 부산 동해펄프 회사가 허가 받은 면적보다 무려 12ha의 넓은 면적을 불법 벌목하고 있었다.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기관에서 의법처리토록 조치하였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감사업무 활동은 하나의 모범사례로 남았지만 그 후 피해자들의 협박과 원망은 나를 많이 괴롭혔다. 그러던 중 청와대에서 새마을 업무 우수사례를 발표까지 했던 한 이장이 교통사고로 죽는 일까지 일어났다. 감사과 업무에 대한 회의가 일기도 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 업무 추진 시, 기존의 장애 종류별 시설 설치에서 장애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하는 시설을 전국 최초로 허가했다. 이 업무 담당자가 시설 허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했다. 기존 사례가 없는 통합 장애인시설에 대한 허가업무였기에 나는 차 한 잔 마시지 않고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 준비된 허가 관련 서류가 풀더 몇 개나 되었다. 그 후 중앙부서에서도 감사를 할 때에 감사관은 내가 했던 시설 관련 허가서류를 기준으로 시설 허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고 후임자가 전해주었다.

사무관 이전까지 나는 개인택시, 주유소, 에너지, 농지전용, 사회복지시설 등 주로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했다. 공직에 처음 발 디딜 때에 다짐했던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청렴·공정을 신조로 하였기에 내가 처리한 업무에 대한 항의 민원도 비교적 없었고 감사에 크게 지적당하는 일도 없었다.

그 후 2000년 사무관 승진 후 남원시에서 왕정동장, 고향인 산동면장을 하다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기획담당으로 다시 도에 돌아왔다. '2014 동계올림픽 '무주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뛰었던 일, 문화예술과 에서 '토요마당'확대 운영, 오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당시 시인이었던 양해완 차석의 아이디어로 '신나는 예술버스'를 기획하기도 했다. 시군 문화 행사 날이나 오지 마을에 가서 예술 활동과 영화 상영을 하였다. 출정식 때 도지사가 가장 잘된 기획이라고 칭찬도 해주었다.

문화예술국 주무계장으로 있을 때는 국장과 함께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활동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지원 활동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다. 수레가 잘 굴러가려면 여·야의 수레바퀴가 두 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서는 산·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하는데 행정과 협의체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산 활동을 위해서는 낙후지역 발전 지원이라는 정치논리보다 예산주기 3년 사이클과 연계한 사업추진 3년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절차 준비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원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지역 도의원들이 머리띠 두르고 서울까지 마라톤을 한다든지 국회 앞에서 농성하기 보다는 사업계획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도청 인사방침은 사무관 승진하면 일단 시군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다. 나도 2000년 밀레니엄 사무관이 되면서 남원시로 내려갔다. 왕정동장을 거쳐 고향 면인 산동면장으로 근무한 지 십개월이 지났을 때, 도 인사 계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팀에 발탁되었다고 했다. 고향 면장으로 좀 더 재직하여 고향발전을 위한 일을 하면서 퇴직 후 일을 고려하면서 면민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다고 거절했으나 도에서는 박수칠 때 떠나는 게 좋다고 인사발령을 낸다고 하였다. 도 인사 발령에 따라 3년여 만에 도로 돌아왔다.

처음 신설되는 기구라서 직원도 사무실도 없었다. 체육지원과 옆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이 배치될 때까지 나 혼자 있었다. 일주일 내로 직원을 배치해 주겠다고 인사과장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직원이 한 명 두 명 배치될 때 종자 씨앗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다.

무척 힘들었던 초창기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자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체로 만들고 사무실도 구 경찰청 건물로 확장 이전하였다. 한계수 정무부지시를 정점으로 2개과 30여 명의 직원이 유치위원회 실무를 맡았다.

무주에서 90년대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한 경험을 살려 2010년도에 유치를 시도하였으나 강원도가 뛰어난 바람에 2014년에는 전북이 유치를 추진한다는 각서를 받고 강원도에 양보하였다. 그런데 강원도는 결국 2010 동계올림픽유치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전북도 강현욱 지사가 다시 2014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나는 기획운영팀장을 맡아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업무계획, 예산지원, 의회보고 등 지원업무를 맡게 되었다. 올림픽 관련 기구에는 국제올림픽위

원회(IOC)가 있고 국내에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있다. 이 두 기구를 상대로 유치활동을 벌여야 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한 일은 세계 각국이 유치경쟁을 벌이는 힘든 일이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서로 유치를 위하여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강원도는 2010년 때 각서를 써 주었지만 시설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두 도간 올림픽 시설 설치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각서 내용도 전북의 시설이 조건을 충족할 때라고 주장했다. 각서를 받을 당시 전북도의 2010년 유치위원회 책임자의 무능과 각서 속에 숨어있는 강원도의 책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덩석 각서를 받아온 전북도의 행태가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무주 김세웅 군수의 무주에서 강원 도청 정문까지 도보 행군은 강원도에 대한 일종의 시위였다. 국가 올림픽 위원들의 애경사나 행사가 있을 때는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서울을 오갔다. 하루에도 두 번씩 갔다 와야 하는 일도 많았다. 서울에서 밤늦게 올 때 앞좌석에서 졸다가 눈을 떠보면 시속 160km로 달리고 있었다. 이러다가 내가 도로에서 죽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강원도에서는 전북 무주의 남자 활강 코스를 계속 물고 늘어졌다. 결국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중재로 두 지역에 대한 시설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전북은 무주 덕유산의 남자활강코스 부지를 다시 찾아야 했다. 남덕유산 정상에서 활강 코스를 찾았으나 국제 심사위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현지에서 내려서 정상에서부터 산을 걸어 내려오면서 예상지역을 면밀히 점검했다. 그 결과 전북의 대체 코스가 남자 활강코스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치를 위한 전북도와 강원도의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고 말았다. 강원도에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과 강원도의 로비가 느껴졌다.

2014년의 동계올림픽이 무산되고 전북은 세계 태권도 공원을 무주에 조

성하기로 했으나 배후도시가 없는 산속에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지역의 경쟁력이 세계의 경쟁력이 된 오늘날 지자체는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다. 행사 유치를 위해서는 좋은 인력이 배치되고 그에 대한 예산지원도 원활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 유치업무가 힘들니 기존 부서에서 일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오기를 꺼린다. 따라서 시군에서 도로 전입하는 공무원이나 중앙 부서에서 내려오는 인사를 유치팀에 배치시키고 있는데 이는 실패를 전제로 미리 웅크리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조직을 강원도와 비교해 보면 대학생과 초등학교 학생의 싸움이었던 것을 느꼈다. 인사는 만사다.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던 전라북도의 한계를 여러 곳에서 느꼈다.

2009년 11월, 내 나이 57세 때, 나는 사무관에서 서기관급으로 승진했다. 그 당시 경쟁이 무척 치열했다. 각국에서 한 명 정도 승진시키려고 국장이 인사위원회에서 고성이가 오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도 많았다. 자기 국에서 승진 하나 시키지 못하면 그 국장에 대한 무능한 이미지와 그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인사 래프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

당시 나는 문화예술과국 주무계장으로 있었다. 아마 도 역사상 국 주무계장을 두 번을 하고도 승진을 못 한다면 이 또한 도 인사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었다. 같은 과에서 나와 승진 대상이 되었던 계장 한 사람은 언론사 사장의 처남이었다. 인사 로비에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 두 명 모두 승진 서열 5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였다. 당시 도의회에는 교육복지 전문위원이 공석이였다. 도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인사 견제를 받지 않는 별정 4급 공무원으로 임용을 원하였다. 별정 4급 전문위원은 집행부의 감사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 눈치를 보는 일 없이 소신

껏 집행부 견제를 할 수 있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 당하는 일이 없어서 4급 승진 대상 공무원들이나 고참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 자리는 도의회 의장이 원하는 인물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자리였다.

우여곡절 끝에 경쟁자를 제치고 의회 의장의 승인이 떨어져 당시 명칭으로 교육복지 전문위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다. 교육복지 위원장도 의장의 결정에 선선히 응하였다. 그 후 의회에 교육복지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어 교육청 소관은 교육복지 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그에 따라 명칭도 '환경복지위원회'로 변경되었다. 내가 교육복지전문위원으로 왔을 때 위원회 소관 집행부 분야는 교육청, 복지국, 환경국 및 국 소관 사업소가 대상이었다. 예산 심의 및 관련 분야 조례 개정, 제정, 업무보고 및 감사가 주된 업무였다.

의회 전문위원은 해당 상임위원장의 업무보조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모든 공적 문서에 대한 검토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나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올 때를 기다려 의회 의원들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에 들어간다.

전문위원 시절 집행부의 각종 문서를 검토할 때 공무원들이 국어 어법사용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국어 공부와 글쓰기 연습의 중요성을 느꼈다. 집행부 시절 지사의 각종 인사말이나 기획안을 작성하였지만 제대로 된 문장을 쓰고 싶었다.

2012년 6월 30일. 드디어 정년을 맞이했다.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싶은 일이 비로소 보였다.

▶ 이 글은 최해동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4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가을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인생! 하루 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안은옥 | 강서구립우장산숲속도서관_서울

내 생애에 가장 추웠던 날

아파트를 구입하고 약간의 빚도 있거니와, 혼자 살기에는 현재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 생활이 불편함이 없기에, 내 명의로 산 아파트를 전세금 받고, 전세를 주었다. 2001년 2억 전세금으로 약간의 빚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예금이율이 높은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오천만 원씩 분산해서 엄마와 내 명의로 예금을 했다. 거치기간을 1년씩 계속 연장을 시켰다. 세입자가 2년 계약 이기에 여차하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엄마가 위독하시면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예금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서 엄마 이름으로 했던 예금을 내 명의로 바꾸었다. 계속 연장함으로서 재예치하는데 여러 은행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많은 시간소비가 아까워 한곳의 저축은행에 내 명의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환선인 오천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1억5천만 원을 한 입에 몽창 털구었다. 몇 년 동안 거래했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안심했었

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연말이었다. 아침 뉴스시간에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고객들이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내귀를 의심했다. 때 시간별 뉴스를 다시 듣고서야 내가 예금한 저축은행이 파산된 것을 확인했다. 하늘이 노랗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 나가면서 주저앉았다. 기염을 토할 일이었다. 그 돈이 어떤 돈인가? 물론 다들 힘들게 벌은 돈이긴 하지만, 미용 일을 하면서, 하루종일 서서 일하고, 고객들한테 업신여겨 가면서 땀과 피로 물든 단순 육체적이며, 많은 감정노동으로 이루어진 나에게는 값진 노동 댓가로 이룬 것이다. 너무나 귀하게 벌은 돈이기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옷도 안 사고, 안 쓰는 초절약생활로 전철했다. 백화점 가본지도 오래 되었다. 나에게는 그런 애지중지한 돈이었다.

또한 과거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가졌을 때와는 상황이 달랐다. 나이도 많지 않아 젊기도 해 많은 돈 벌 기회가 많았고, 경제적 관념이 없이 돈의 크기를 자세히 알 수 없기에 지금처럼 크게 힘이 들지는 않았다. 또한 가족도 옆에 있고 엄마도 있어 마음의 위로를 느꼈지만, 이번에는 홀로 나이도 많아 떠안는 부담은 실로 막중했다.

내가 24살때 둘째오빠는 홀로 미국에 기술자로 가서 많은 돈을 서울에 있는 둘째 올케한테 송금했다. 둘째 올케는 아파트로 돈을 벌어 보겠다고, 나의 돈을 꾸었다. 그 당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놓아던 나의 전재산, 그 당시 아파트 한 채에 맞먹는 금액이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는데, 이자도 꼬박 꼬박 주었고 오빠부인인 가족이라서 아무런 생각없이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나로 인해 돈을 벌수있으면 서로 윈윈효과를 볼 수 있다란 생각에서 몇년을 걸치니 전재산을 꾸어주게 되었다. 내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2학년 여름방학때 영국 영어 연수를 가려고 올케한테 돈을 일부 달라고 했다. 하지만 차일피일 하루하루를 계속 미뤘다. 그러던 어느날 올케가 말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막내딸이 아직 어린 5

살을 남겨두고 위로 딸들이 2명있는데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렇게 어린 세 딸을 남긴채 사라졌다. 둘째오빠는 올케를 전국으로 찾아 다녔다. 하지만 숨어버린 사람을 찾기란 모래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어려웠다. 둘째 올케는 동네사람들에 의하면 부동산하던 남정네랑 바람이 났다라는 소문도 돌았다. 나중 오빠는 칼까지 들고다니며 미친 듯 나죽고, 너죽고 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었다. 엄마는 그 길로 둘째오빠 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을 떠맡았다. 그 나이드신 늙은 노모가 당신 몸도 건사하기 힘들었던 나이다. 그 당시 오빠가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반지하에서 살았다. 노모는 반지하에서 힘들어 하셨다.

아이들도 불쌍했고, 오빠도 안타까웠지만 원망도 스러웠다. 왜 이지경이 되도록 가정을 소홀히 했는가? 라고 물으니 난 돈만 열심히 벌어진 죄뿐이 없다고 했다. 어디서 내 돈을 받을것인가? 공중에 떠버린 사람한테 소리 칠 수도 없고, 난감한 지경이다. 사실 내 나이가 돈이란 감이 오지를 않았다. 그 돈으로 경제적 가치를 경험하지 못해 그때는 그렇게 까지는 심하게 하늘이 노랗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나이도 많아서 더욱 더 취업도 힘들어지고, 돈 벌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없는 작금에 나의 두번째 경제적 손실인 전재산을 잃었다는 생각에 미치지 않은게 다행이었다. 하늘을 우리러 하느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스런 형벌을 두 번씩이나 가하실까? 왜 나일까? 하는 질문을 수없이 허공에대고 소리질렀다. 우리나라 정부한테도 따지고 싶었다. 이런 경제적 사태를 미연해 방지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 저축은행의 부실한 경영을 현 정부가 방관한 경제적 책임을 고스란히서민이 떠안은 거였다.

과거에도 뉴스에서 저축은행 사태가 났었을 때 남의 일로만 알았다. 그리고 예금할 때도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리란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고, 한낱 꿈이려니 싶었다. 그리고는 어김

없이 시간이 지나 새해가 밝아지고 있었다.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고, 일도 머리도 엉망진창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첫째 첫날 새벽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고, 최하의 기온을 기록하는 엄동설한으로 너무 추워 온 세상이 얼어붙었고, 거리에 사람구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는 조용했다. 마치 숨을 고르는 것처럼 온 도시가 정지된듯했다. 나는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할지를 몰랐다.

아침 일찍 북한산을 향했다. 북한산은 쉬는 날이면 자주 갔었던 평상시 즐기던 나의 힐링 장소였다. 그곳에서 산 위를 걸으면서, 사유도 하고, 머리가 아프면 뇌를 비우기도 하는 무념무상의 상태를 즐긴다. 산 위에 올라가 물이 흐르는 계곡에 앉아, 물에서 나오는 음이온을 내 몸이 받으면 머리가 맑아져서, 현재의 문제의식인 고민을 많이 다각도로 생각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어 좋고, 앞으로의 미래를 구상도 할 수 있는 나만의 장소였다. 그래서 그렇게 혹한으로 춥고, 눈도 많이 쌓여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산을 눈바람이 세차게 불고 입김이 나오자마자 고드름으로 변하는 강추위를 맞아가며 산을 걷고 또 걸었다. 가슴은 오히려 강한 눈바람으로 시원하게 느껴졌다. 막혀 있던 가슴이 뻥뚫린 느낌이다. 산위의 풍경은 온통 하얀 눈세상이다. 모든 것을 덮어 버렸다. 온통 하얀색인 백지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힘들게 몇시간을 걸어 산위를 오르면서 내린 결론은 그래! 아직 몸은 건강하잖아! 돈은 또 다시 벌면 되지만 만약 건강을 잃었다면 회복조차 힘들었을텐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몸이 아프면 병든 몸으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병원비로 돈도 날리고 허무하게 죽지만, 사지가 멀쩡하게 건강하니 다행이다라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 산한테, 자연의힘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힘을 받았고, 자연이 주는 정확하게 산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함과 마음의 위로 힐링은 무한하여 새삼 감사하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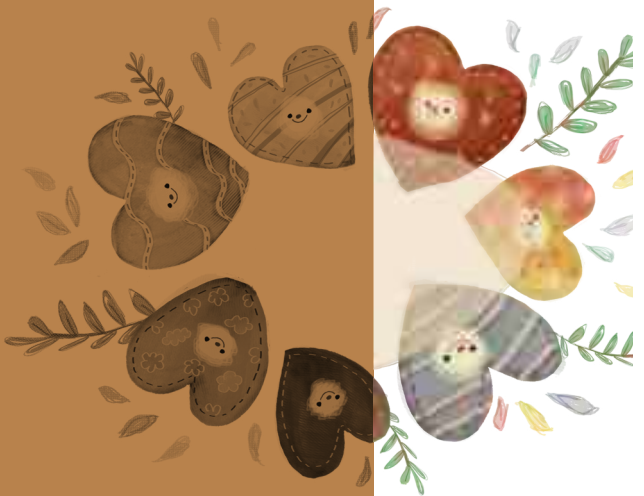
그렇게 내 생애 경제적 손실의 아픔을 두 번씩이나 크게 치렀다. 값비싼 교환인 것이다. 일련의 저축은행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원망했다. 저축은행의 부도는 정치적 개입도 있었고, 얼마나 부실하고 안일하게 행정심사를 허술하게 해서 그것을 서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생각하니 억울했다. 정치인들의 놀음에 서민이 놀아나고 있었다. 결국 나라는 개개인의 국민의 책임은 안지면서, 의무만을 크게 부각시킨다. 몇 년 전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감금되어 힘든 상황에서도 구해내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나라가 국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충격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민을 구했다. 물론 국력의 힘인 것을 부인하진 않지만,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에서는 서민을 울리는 일을 만들지는 말아야 하지 않는가? 물론 내 잘못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은 안다. 결국 나라는 국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이익추구만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들의 잔치에 그저 우리 서민들은 놀아나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피해의식을 느끼며 살고 있다. 작년에 베스트 셀러였던 장강명 소설 '한국이 싫어서'란 제목에 확장겨지는 끌림이 있어 읽게 되었다. 요즈음 헬조선이니 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체제에 환멸을 느낀 젊은이의 사태를 묘사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꿈을 이룰 수 없는 아득함에 호주행을 떠나면서 행복을 꿈꾸는 한국의 젊은이를 표현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국민조차도 살기가 힘들다. 젊은이들은 꿈조차 펼칠 일 자리조차 허락치 못하는 아쉬움에 가슴 아프다. 나는 외국에 사는 것을 매우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았었다. 왜냐하면 외국에 살면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되며, native 영어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는 세상이 글로벌화 되어짐이 현실로 피부에 와닿았다. 가까운 친구들이 미국, 캐나다로 이민가고 중국, 베트남으로 가서 사는 것을 보고 또한 친구 자녀들이 외국에 살고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더욱 더 세계가 가까워짐을 피부로 느꼈다.

▶ 이 글은 안은옥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겨울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내가 살아온 길

이재은 | 강남도서관_서울

외손자 돌보기

외손자는 금년 초등학교 4학년이다. 입학할 무렵 그 밑의 외손녀가 젖먹이어서 어머니가 학교에 데리고 다니기가 힘들 것 같아 내가 데리고 다니는 일을 맡았다. 나에겐 있는 게 시간인지라 내가 나선 것이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20분, 지하철 타고 30분, 내려서 15분 걸어가면 딸네 집에 당도한다. 입학식날 외손자 손을 잡고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서 긴 시간 떨고 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입학하여 2주 동안은 등교시간에 맞춰 나도 부지런을 떨었다. 그 이후로는 혼자 다닐 수 있다고 하여 나는 학교에 갈 일이 없어졌다.

그 해 10월 어느 날 나는 외손자가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나 궁금하여 학교를 찾았다.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니까 담임선생님 만 교실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교실 안에 외손자가 눈에 띄었다. 나하고 눈이

마주쳤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 나를 밀어 내는 것이었다. 알아 보니 숙제를 해 오지 않아 담임선생님께서 숙제를 하고 가라고 하여 벌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나는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대충 학교생활을 듣고 외손자를 데리고 정신없이 집으로 갔다. 어미를 불러 야단을 치고 외손자에게도 타이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2학년이 되어서는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받아쓰기 시험이 있었다. 미리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공부를 해 오도록 하여 시험을 치루는 데도 집에서 하지 않는 외손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 내가 안달이 되어 준비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엄마, 아빠는 애 공부에 대해서는 완전 방임주의자들이다. 숙제가 있든, 시험이 있든 그것은 자신의 몫이지 부모가 관여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글썸 그것도 좋은 교육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외손자 공부는 결국 내가 맡게 되고 만 것이다. 사위나 딸은 나를 달갑게 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감히 직접적으로 탓하지는 못하는 걸로 안다.

나는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불가피하게 못 가는 날이 생기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기도 한다. 숙제든 시험공부든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걸로 외손자는 생각한다. 내가 가야 책가방을 비로소 열고 숙제할 생각을 한다. 나는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도 하고 그 밖에 예습 복습을 하게 한다. 3학년 때부터 영어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도 같이 하게 되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영어공부가 도움이 된다.

초등학교 교과서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아주 훌륭하게 제작되어 있다. 전에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등 주지 교과서가 단권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국어는 읽기책과 말하기, 듣기, 쓰기책으로 나누어져 있다. 산수는 수학으로 바뀌고 익힘책이라 하는 문제집이 따로 있는데 자습

용으로 잘 엮어 졌다. 사회는 교과서 외에 자기 고장의 사회책이 행정 구청 별로 만들어졌다. 자연은 과학으로 바뀌어 실험, 관찰 내용을 별책으로 묶어 각 교과서가 두 권 씩으로 분리 되어 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 외손자 돌보는 일이라 생각한다. 여행할 때도 제일 아쉬운 게 이 일을 못하는 것이다. 어떤 부모가 나한테 자식을 맡기겠는가? 누가 나한테 공부하겠다고 한 시간, 두 시간 앉아 있겠는가? 내 딸이고 내 외손자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일이라면 의무도 따르지만 일정한 보수도 있기 마련인데 나에게겐 보수는 없다. 오히려 갈 때마다 과자 값이 들어간다.

여섯 살 난 외손녀는 지가 심심할 때는 내 신발을 감추고 가지 말라고 붙잡지만 아빠가 퇴근하여 저와 놀아주고 오빠랑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고 싶을 때면 밖이 캄캄해졌다고 살짝 와서 속삭이는 것이 얼마나 예쁜지 나로 하여금 또 안 보고는 못 견디게 만든다.

나는 외손자에게 집에 돌아오는 대로 숙제부터 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실천은 안 되고 있다. 외손자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면 내 일은 끝날지 모른다. 아직까지 내 말대로 하지않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숙제는 제가 알아서 하더라도 대학에 들어 갈 때까지는 돌보아 주고 싶은 게 내 욕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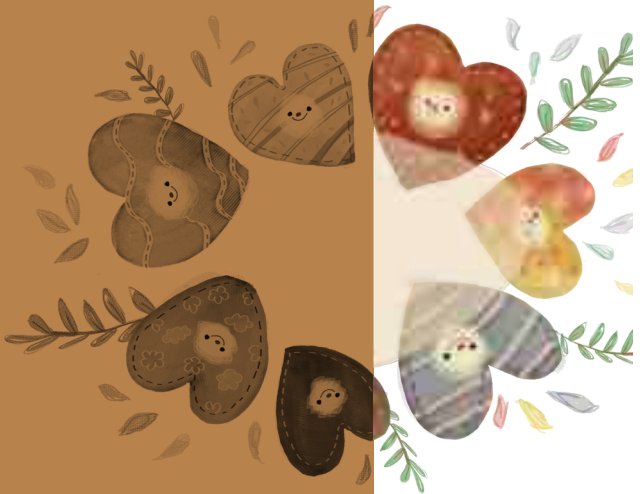
은퇴 후의 세월을 여가로만 보낸다면 그것은 너무 지루할 것이다. 가장 조화로운 삶이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나 교육, 일, 여가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진 삶이 아닌가 싶다. 다행히 우리 복지관에서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켜 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각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즐겁게 해 주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외손자 돌보는 일이 있는 나로서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이 생활이 혹여 깨질까 두려워하며 감사한다.

▶ 이 글은 이재은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2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겨울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내 인생의 곡선

강두석 | 광진정보도서관_서울

부모님과의 이별

일생을 오로지 농사일에 바치신 부모님의 존함은 강신용, 이오레이시다. 부모님의 장자로 태어난 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 부모님은 결혼 10년 만에 빈농가를 중농가로 가산을 늘려서 가난을 극복했다. 아버지는 빈농가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학업에 접근할 형편이 못되었다.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한 자식 교육열이 대단하셨다. 사범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학까지 졸업시켜주셨다. 부모님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칭송이 대단했다. 부모님의 지인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네 부모님의 은덕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유능한 사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격려해주셨다. 그때마다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 은덕에 보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다.

사춘기에도 오직 공부에만 올인 하다보니 누구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았다. 오직 책과 싸우는 것 밖에 몰랐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이른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논밭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노동일에만 헌신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자랐기 때문이다.

소천하신 뒤 수년간은 앞에 걸어가는 내 부모님과 비슷한 모습의 노인을 보면 혹 내 부모님이 아닌가 하고 순간 착각하는 때가 수 차례 있었다. 부모님 생전에 못 다한 효 때문에 맺힌 한이 너무 커서 그렇다. 지금도 그 한을 못 다 풀어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내 눈에 이슬이 맺힌 모습을 본 아내는 나에게 “그때는 나라 경제사정이 안 좋아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위로해준다. 특히 요즈음 자서전을 쓰면서 부모님 모셨을 때를 회고해보면 더욱 그랬다. 이제 후회해서 무슨 소용 있겠는가. 그래도 혼자서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려 버리면 다소 위로가 될 때도 있다.

부모님의 죽음이 나에게 미친 영향

후손에게 실천적 효의 생활교육으로 부모사별 후 후회 없이 살도록 해야겠고 가족 화목과 내 형제자매간 부모님의 어록을 기리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겠다. 기대수명 예측 불가능에 관한 인식 제고로 평소 효 실천을 미루지 말고 생활화 하면서 후손에게 덕불고(德不孤) ‘덕을 많이 베풀면 외롭지 않다’는 배려와 겸손의 정신교육 함양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죽음에 대한 생각

장년까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여유가 없었다. 주어진 일 때문에 앞만 보고 살았다. 가족과 친인척이 함께 내 고희기념 행사를 하고 나서는 마음이 확연히 달라졌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며 죽음과 관련된 책도 읽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러 가지 언론매체와 사회명사들의 유인물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다. 선배와 지인들의 부음을 듣고 장례에 참석하면서부터는 의식변화가 확연히 일어났다. 죽음이 두렵기도 하지만 ‘인생은 필멸’이란 말에 공감이 되고 ‘공수래공수거’가 실감되기도 했다. 나도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라고 스스로의 마음다짐을 하게 된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 종교 가르침에 의지하고 따른다. 나의 묘비명에는 ‘꿈을 실현시킨 강인한 의지의 사나이’라 붙이고 싶다.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준 명언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 : 척박한 산간벽지 농가에서 태어나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과정에는 표현하기 곤란한 험로가 많았다. 나의 인생 돛단배가 무변대해에서 노도와 같은 파도를 헤쳐 넘어 육지에 상륙하기까지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이 아니었다면 도중에 수몰되었을 것이다.

미리 써 보는 유언장

내 인생도 어느덧 작렬했던 정오의 태양이 일몰직전의 석양이 되었구나. 벌써 80세가 되어보니 기대수명을 예측할 수 없어 미리 유언장을 남긴다. 죽음 앞에서 가는 세월이 아쉽기는 하지만 인생필멸의 자연법칙을 역행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다. 내 인생의 역정(歷程)을 회고 하면서 아쉬운 점은,

- *가족을 더 알뜰히 챙기지 못한 점
- *여유로운 마음으로 덕을 더 많이 쌓지 못한 점
- *인생을 즐기면서 살지 못한 점
- *너희들에게 남겨줄 재산이 여유롭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재복은 천복’이란단다.

이상과 같이 내가 아쉽다고 지적한 것은 너희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무엇보다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지 말고 형제자매가 화목하며 덕 쌓기에 게을리 말기를 바란다.

항상 도전적인 자세로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자신 있게 살아라.

아내에게

당신의 기대에 못 미친 나를 이해 해주기를 바라오.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오. 딸 며느리로서 대가족 생활로 수십 년간 고생해온 당신의 희생적인 노력은 내세에서도 잊지 않겠소. 평소에 자식들과 친인척으로부터 입은 은덕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베풀고 살기를 부탁하고 싶소. 우리 형제자매 6남매와도 항상 화목하기를 부탁하오.

사랑하는 세 딸들이 있고 친손주와 외손주가 곁에 있으니 즐겁게 사세요.
당신이 잔병이 많아 걱정이 되지만 무엇보다 먼저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소. 안녕.

아들 동훈이, 며느리 수진에게

너희는 6대종손 우리 가문의 기둥이다. 세 누나들과 항상 화목하고 두 숙부 가족들과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 특히 장손 며느리 수진아, 형제 자매 그리고 대소가 어른들과 화합의 여건 조성에 유념하고 살기 바란다.

지영이, 지욱이, 황 서방, 그리고 지선에게

사랑하는 딸들아, 그리고 항상 믿음직한 사위 황철비 너희들을 믿고 간다. 굳건히 잘 살기 바란다. 평소에 늘 건강관리에 소홀히 말고 형제자매간 항상 화목하게 살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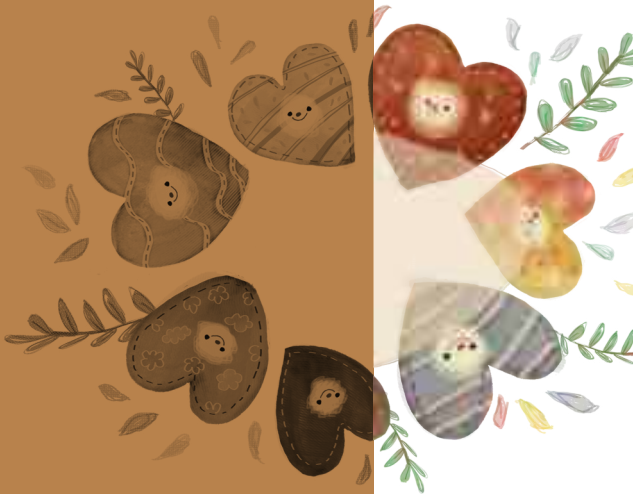
▶ 이 글은 강두석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3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겨울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걸어온 길 위에서 또 다른 출발선에 서다

진주순 | 광진정보도서관_서울

미리 쓰는 유언장

항상 배움에 목말라 하고 무언가 배우려고 했는데 실컷 배우다가 가게 되어 속이 후련하다. 그동안 길동생태공원의 봉사일은 내 자신의 마음 받 을 기쁨지게 하는 일이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들어가는 길에서 마음을 넓게 가지자고 다짐하던 일들이 떠오른다. 산림지구는 작은 원시림이라며 좋아했지. 처음 보았던 쇠딱따구리의 물결모양의 날개무늬를 보고 기뻐했 고 진박새, 물총새를 보면서 즐거워했다. 흰뺨검둥오리와 청둥오리가 새 끼들을 데리고 저수지를 가로지를 때에는 숨을 죽이며 보았었지. 쇠물닭 의 빨간 이마관을 보았을 때는 신대륙을 발견한 듯 한 기쁨이었다.

2016년 여름 무더위로 힘들 때 산호랑나비, 사향제비나비 애벌레들의 출현은 가뭄의 단비였지. 이렇게 길동생태공원은 나의 제 2의 인생과 함께 시작되었구나. 공원 덕분에 나의 삶은 풍부해졌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

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자연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겸손함도 배웠지. 처음에는 질색하던 너희들도 조금은 자연의 맛을 아는 것 같아 다행이다. 엄마가 생각나면 가끔 찾아가 보렴. 처음과는 다르게 많이 변했겠지만 그래도 자연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공원이란다. 우리 손주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자연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렴.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너희도 각박한 생활 속에서 잠시 짬을 내어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봉사는 결국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민정아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항상 나보고 자신보다 하루만 더 살라고 하더니 앞으로 건강에 힘쓰길 바랍니다. 당뇨 때문에 힘들어 하고 짜증도 내는데, 운동도 하고 식이조절에 더 많이 신경 쓰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아졌다는 말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내 말 들어서 손해나는 것 없었죠? 그동안 허리 아픈 아내와 함께 사느라 고생했어요. 말로는 툭툭대도 매번 분리수거하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음식물쓰레기 말없이 버려 주어서 고맙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애들보다 먼저 약 사오고 죽 사오던 자상한 마음 알고 있었어요. 젊어서 육하던 마음, 조금 누그러뜨리면 얼마나 좋아요. 혼자서도 잘 다니니 걱정은 안 되지만 젊은 애들 귀찮게 하지 말고 조금 놀다가 얼른 오시구려. 그렇게도 원하던 깔끔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해서 안타깝군요. 나 역시, 나 없을 때 내 물건이 여기저기 뒹구는 것은 싫으니 찬찬히 정리 했으면 좋았을 것을 시간이 없네요.

항상 엄마 곁이 고팠던 민정아. 엄마가 그 마음 다 알면서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구나. 여린 마음이란 약한 체력, 많은 것들이 나랑 닮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야단도 쳤단다. 그래도 뒤끝 없고 착한 너는 곧 엄마 곁을 찾아서 파고들곤 했지. 고맙다. 부족한 엄마를 언제나 좋아해서. 네 말대로 엄마가 손주들에게 동화도 들려주

어야 하는데, 좀 더 많이 놀아주고 와야 할 텐데 같이 있지 못해서 아쉽구나. 적어도 너희들 결혼하여 가정 꾸리는 것을 보아야 할 텐데 너무 일찍 헤어지게 되었구나. 김치찌개 만드는 비법도 전수를 해야 하고, 손주들에게 내 손으로 예쁜 옷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냥 가야하다니 목이 멘다. 애들은 건강과 사람 됨됨이가 우선이니 엄마인 네가 좀 더 많이 생각하면서 키우도록 해라.

민희야 외국 가서 하루하루 보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있는데, 이대로 헤어진다니 말이 안 된다. 엄마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 옆에서 힘이 되어주던 민희는 친구 같은 딸이었단다. 열 아들 부럽지 않았지. 그래서 너는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네 걱정은 안한다. 이런 말이 너한테는 부담이 되겠지만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꼼꼼하고 사람들과 친화적인 너를 보면 안심이 된단다. 네가 아이 낳을 때가 엄마는 걱정이 많이 된다. 항상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던 네가 갑자기 몸이 불어날까봐 걱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너는 좀 독할 정도로 자제를 하여 건강한 모습이라 생각한다. 너 닮은 손주를 보고 싶었는데 아쉽구나.

엄마가 좀 더 젊고 건강했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오히려 너희들에게 걱정만 끼치다 가는구나. 엄마 물건들은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다. 너무 일찍 버리지 말고 조금 갖고 있다가 책은 필요한 곳에 기증하렴. 책, 서랍, 옷가지 사이를 꼼꼼하게 살펴보아라.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자세한 것은 따로 적어 정리해 놓겠다.

당장 떠난다 해도 다른 것들에는 미련은 없지만 너희 둘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짝 없이 그냥 두고 가게 되어 마음이 미어지는구나. 아들처럼 든든한 사위도 보고 싶었는데 어찌면 좋으니...

항상 마음을 밝게 가지렴. 살다 보니 별 것 없더라.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것도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길이 보인다. 힘차게 갈 길을 가길 바란다!

-2016년 9월 30일 씬

나의 미래에 대한 생활설계

내가 살고 싶은 삶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사망 시의 모습)

요즘 희망 Diary가 유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일기처럼 적는 것인데, 그렇게 원하는 것을 적다 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생활설계와 같은 맥락인 것 같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어떤 모습일까? 20대는 물론 3~40대의 경우, 10년, 20년 후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50넘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어떻게 나이를 먹는지가 중요한 일인 것 같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것일까?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고 싶은 것일까? 나의 미래에 대한 생활설계는 노후설계와 중복이 되는 것 같다.

5년 후 62세

방송대 평생대학원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하고 싶었던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방송대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즐겁게 놀기나하지 무슨 공부냐고 하지만 나에게 공부란 즐거움인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으나, 금요음악회를 다니면

서 봉사를 하여 틈틈이 일도 익히고 얼굴도 익힌 덕분에 수월하게 지내고 있다.

그동안 힘들었던 나에게 상을 주는 의미로 작은 딸과 함께 유럽여행을 하고 싶다.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작은 딸과 함께 결혼 전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고, 나에게 앞으로도 힘내라고 상을 주고 싶다.

10년 후 67세

건강에 주의하고 운동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과 식품위생에 관계된 일을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고 있다. 매주 오전에 보건소의 댄스 스포츠와 구민자치센터의 차밍댄스를 배우러 가고, 보건소의 식품위생관련 일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건강은 운동을 열심히 해왔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나물 뜯으러 가는데도 같이 가는 등 자연을 가까이 한 덕분인지 오히려 전보다 더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

20년 후 77세

마음은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은데 건강 때문에 육체적인 활동은 조심하는 편이다. 가장 성공적인 일은 남편과 같이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다. 60 중반까지만 해도 저녁에 같이 걷자고 해도 안 걷더니 요즘은 가끔 같이 걷는다. 요즘도 구민회관의 음악회를 들으러가는 것이 큰 낙이며,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남편도 함께 간다. 눈도 조금만 무리하면 금방 피로해지고 충혈 되어, 책도 조금씩만 보게 된다. 대학원 공부할 때 인터넷 강의 보느라고 매일 오른쪽 눈이 빨갛게 되어 다니던 것이 생각난다. 아직도 영어와 일어는 꾸준히 하고있다. 해 온 시간만큼 유창하게 하면 좋겠지만, 잊

지 않도록 유지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망 시의 모습

본인보다 꼭 1년만 더 살라고 하던 남편이 떠난 지 3년이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부모보다 아프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자란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철없는 엄마를 이해하며 친구가 되어준 작은 딸 고맙고, 가족관계 일을 한다면서도 모녀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해 마음 아프게 했던 큰 딸 미안하다. 그래도 옆에서 항상 신경을 써주어서 지금까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사위들도 아들 못지않게 자상하고 믿음직스럽게 대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예쁜 손주들은 할머니가 많이 돌보아 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며 활동적인 신식할머니라고 좋아한다. 항상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마음이 들끓더니, 요즘은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온 덕분인지 마음이 평온하다. 항상 부족한 듯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이, 이제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실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가는 일이 아쉽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지내다 친정어머니처럼 남아있는 가족들 고생하지 않게 좋은 날에 가고 싶다.

이렇게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의 생활을 설계해야 할까? 시간 관리를 잘 하기 위하여 나의 시간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좀 더 계획성 있는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재무, 직업, 여가 등 나의 미래에 대하여 생활설계를 해보자.

2010년 <생활설계> 과목의 리포트 중 일부이다. 그 당시에 적었던 5년, 10년, 20년 후의 설계와 사망 시의 모습과 지금 다시 쓴, 미리 쓰는 유연장과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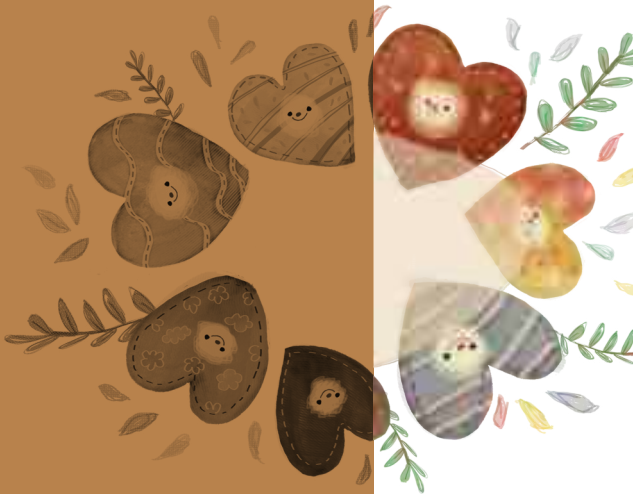
▶ 이 글은 진주순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4

I.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겨울



1. 일대기: 인생-사계(四季)

은혜위에 은혜로다

이경자 | 구로주민전용도서관_서울

퇴직 후 이야기

미국으로

2000년에 퇴직하고도 계속 공부만 했다. 원어 성경연구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만 나오는데 월·화·목·금 4일 동안 나가서 공부했다. 함께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신학석사공부를 하고 개혁학술원에서 공부하여 전문인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2003년 11월 12일 수요일 목사 안수를 받았다. 23년 다니던 화성교회에서 여자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쫓아냈다. 무식한 목사들에게 한 마디도 대항 않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조용히 나왔다. 원어성경공부하는 교회는 아빠가 싫어해서 나만 그 교회를 나가고, 아빠는 내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이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고 나를 불쌍해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고 해도 그건 더욱 싫다고 한다. 옛날 안동 의성 양반들을 겨냥해서 들

어은 선교사들의 선교를 받아서 교회를 창립하신 시할아버지 때보다 훨씬 조건이 낫다고 해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못하게 했다. 나 죽고 난 뒤에 하라고 했다. 나는 겁이나서 그러면 우리 이혼합시다. 했더니 이혼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느냐? 고 혼이 났다. 나는 자기가 죽거든 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했다. 미드웨스트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박영재 목사님 효성교회로 갔다. 오후에 성경을 가르치고 한번도 단 위에는 세워주지 않았다. 침례교회라 여기도 여성 안수는 안 되고 장로도 선출하지 않는 교회인데 우리아빠가 가서 호칭장로를 7명 세웠다.

미국 가기 전에 나의 퇴직금으로 미국있는 아들에게 일본 혼다 회사의 오딧세이 밴을 사주었다. 우리가 둘, 아들네 가족이 네명 도합 여섯 명이니 작은 차에 다 못타니까. 7인승 밴을 샀다. 2005년 3월에 아빠와 나는 미국에 아들네 집으로 갔다. 아들은 수의학 박사과정, 며느리도 수의학 인턴공부 중이니까 둘째 손자 지수를 봐 주러 갔다. 2003년 12월 24일에 난 지수를 지수 외할머니가 봐 주시다가 6개월이 되어서 한국에 오시고 우리가 교대하러 갔다. 집은 좁고, 현수는 지수와 싸우고 지수는 칭얼대고 울었다. 아빠는 그 아이들을 너무나 잘 봐주신다. 서울에서도 큰 애 현수는 외가가 가까이 있는 봄빛산부인과에서 낳아서 우리 집에 한 번씩 오면 울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빨리 얘기 데리고 가라고만 하였다.

예쁜 딸의 딸

2001년도에 외손녀 유진이가 날 때는 은영의 친구 산부인과에서 잘 치료 받고 새벽에 6시에 병원에 간다하더니 7시에 아기 낳았다고 연락이 왔다. 예쁜 딸은 딸도 수월하게 낳아서 효도하는 것 같아 더 예쁘다.

아빠 닮아 예쁜 짓만 한다. 아빠와 내가 매일 출근해서 아이를 길렀다.

말이 그렇지 나는 공부하러 다니고 아빠 혼자 다 길렀다.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0순위, 저의 엄마가 1순위 저의 아빠가 2순위 이모가 3순위, 저의 고모가 4순위였다. 나는 항상 꼴지. 그래도 울지 않으니까 너무 예쁘다. 경주 큰 집에 데리고 가도 울거나 보채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서운하고 답답하다. 이런 유진이를 보다가 칭얼거리는 지수를 보기가 너무 힘들었다. 아이가 자꾸 우니 모두들 피곤하고 짜증이 났다. 종민 내외도, 저희끼리 곧잘 다툰다. 종민이가 “입 다물어 하니까, 니나 입 다물어” 한다. 어느날은 아빠가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갈 때도 있었다. 내가 아빠의 머리를 깎아 준다는 것이 아주 행기 띠비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겁나서 숨어 있었다. 종민이가 아빠 모시고 한국 미장원에 가서 예쁘게 깎아왔다. 다시는 가족들 이발 할 일 없으리라. 종민이가 뭐라고 나한테 짜증내고 불손하게 말하니까 아빠가 아들을 앉혀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렇게 대하는 것 나는 못 본다”고 처음으로 아들을 나무라는 아빠를 보고 나는 행복을 느꼈다. 그러나 이제는 옆에 없고 내 안에만 계시니 싸울 사람도 없어 너무나 외롭고 가슴이 쓰라린다.

보이스피싱

2014년 6월 17일 아침에 집 전화 벨이 울렸다. 받아보니 “전화비가 42만원 밀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매월 국민은행에 자동이체로 넣는데 말도 안된다” “그러면 0번으로 확인해 보세요”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0번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잡아야 되니까, 경찰, 형사를 바꾸어 줄테니 자세히 말하세요” “저는 형사계 누구입니다” “금융 감독원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 아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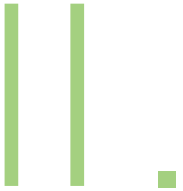
입니다” “통장번호를 말하십시오”해서 말했더니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잘 보관하도록 이동 조치해야 하니까 우리은행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핸드폰을, 끄지 마시고 우리은행에 가서 이 돈을 1,500만원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해서, 핸드폰을 끄지 않고 그대로 가서 물었더니 대출이 안 된다고 했다. 그 은행원 앞에서 “대출은 안 된다고 합니다” 했더니, 주택청약부금 통장을 보더니 이 통장으로는 2,800만원까지 된다고 했다. 그러면 빨리 밖으로 나와서 다른 우리은행에 가서 2,800만원을 대출받으라고 한다. 나는 속으로 ‘대출도 안된다니 안전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나는 더 많은 액수를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택시타고 구로경찰서 앞에 있는 우리은행에 갔다. 가서 대출 신청을 했더니 아무의심 없이 2,8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 사람이 주는 계좌번호대로 송금하라고 했다. 우체국에 1,800만원, 국민은행에 1,000만원을 보냈다. 또 택시를 타고 국민은행에 가서 다른 우체국 통장으로 보내라고 해서 그대로 하였다. 나는 무엇에 홀린 듯 이성을 잃고 순식간에 그 아까운 내 돈을 다 날린 것이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불안했다. 그런데도 다른 수협통장에 있는 돈을 말할까 말까를 생각했다. 다시 전화가 왔다.

“다른 통장에서 1,500만원을 대출 받아야 되니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오후에 만나서 그 돈을 도로 주겠다고 했다. 말 할 수 없는 허전함이 몰려왔다. 허전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나서 “내 돈”하면서 나는 우체국으로 뛰어갔다. 우체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직원이 조회해 본 결과 돈이 다 빠져 나갔다고 한다. 우체국장이 ‘보이스피싱이다’ 라고 말했다. 그 때 그놈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금 집에 있느냐고 물었다. 우체국장은 바로 옆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경찰 두명을 데리고 왔다. 경찰은 A4 용지에 ‘계속 전화’를 하라고 썼다.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

다. 경찰들은 녹음도 하지않고 속수무책으로 서 있다. 그러다가 끊으라고 하더니 나를 경찰차에 태우고 구로경찰서 지능 수사계에 데려다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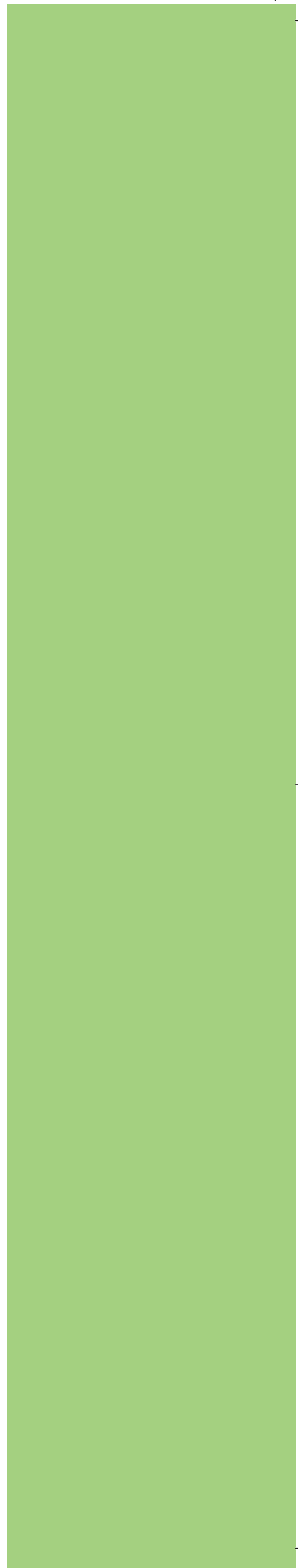
아침도 먹지 않고 택시타고 돈 2,800만원 금쪽같은 돈을 날리고 나니 세상 살 맛이 나지 않고 창피해서 죽고 싶다. 똑똑한게 문제다. 똑똑하기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내가 무엇에 홀린 듯 어처구니 없는 짓을 당했으니 아이들 보기도 민망하고, 앞으로 몇 십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이런 어리석은 일을 안 저지른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 살 소망이 없다, 아니 살 가치가 없다, 라고 생각했다. 대성통곡을 하는 나에게 형사들은 위로한답시고 “할머니 보다 더 똑똑한 판사들도 당하고, 의사들도 당하니까 너무 자책을 마세요” 한다. “그런 사람들이 당했다고 해서 나도 당해도 괜찮다는 거야? 뭐야?” 라고 소리 치고 싶었다. 우리 딸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혹시라도 더 어리석은 짓을 할까 봐. 나는 딸의 변호를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저지른 잘못은 내가 책임지니까 자식들한테 알려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우리 아빠가 있었으면 이런 짓은 안 당할 텐데... 아들이 수 만리 떨어진 미국에서 와서 강요하고 받은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봉투째 주면, 딸이 용돈으로 쓰라고 준 돈을, 맛있는 것 한번 안 사 먹고, 다리 아프고 피곤해도 택시 한 번 안 타고, 아껴서 돈이 모이는 재미로 외로운 인생을 참고 견디며 살았다.

▶ 이 글은 이경자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에게 인생을 묻는다.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자서전 쓰기 모음집



일화 :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일과 나의 삶

사람, 그리고 사랑

내 삶의 즐거움, 나의 비타민

01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일과 나의 삶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내가 지상에서 머물던 시간

우진숙 | 울산과학대학교 도서관_울산

소망을 위해 선택한 직장

일벌레로 살다

첫 발령받은 일터인 교육청은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었다. 3년 후인 1978년에 교육청 청사는 복산동에서 신정동으로 옮겨졌고, 1980년 9월 1일 나는 7급으로 승진되어 울산중앙여고로 발령 나서 학교에 부임하니 공무원시험 공채동기였던 남자동료가 먼저 근무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군대에 갔다 와서 복직하면서 서부경남에서 울산으로 넘어온 나보다 직급이 낮은 나의 부하였던 셈이었다. 그래도 학교 근무는 선배여서 내가 오히려 그에게서 일머리를 배우고 도움을 받았고, 이전에 방송통신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던 학우여서 우린 친해졌다. 같은 학교에는 처녀총각 선생님도 많아 서로가 잘 어울려 다녔는데, 그 동기도 내게 넌지시 장난을 걸어왔지만 난 아예 말도 못 붙이게 했다. 당시 한 직장에서 연애하는 것은 큰 흥이었

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 동기는 다시 도교육청으로 발령 받아 창원으로 직장을 옮겨갔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다보면 교사들과 자잘한 다툼도 생기기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생기지만 행정실 식구들끼리는 가족처럼 잘 지냈다. 1982년 9월 승진하면서 중앙여고로 임관해온 박영수 사무관은 나이도 그리 많지 않았고 성실 근면한 분으로 일에 대해서도 매우 해박한 분이셨다. 그때의 인연으로 그 분과는 내 업무의 멘토가 되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편하게 의견을 구했고 많은 도움도 주셨다. 그 분이 퇴직을 하신 이후로는 자주 연락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보면 잊어버린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울산중앙여고는 내가 1980년 최초로 근무한 학교라서 많은 애정이 남아 있는 학교인데, 2006년도에 다시 그 학교에 가게 되었다. 여러 교육기관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으로 근무한 학교가 공교롭게도 울산중앙여고여서 감회가 남달랐다. 마지막 학교에서 겨우 1년밖에 근무하지는 못했지만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숙원사업이지만 난관에 부딪혀 덮어둔 것을 내가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건의를 드렸다. 그 동안 교육청에선 다른 긴급한 일과 정책사업에 밀려 학교의 사소한 사업은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차례 집단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울산중앙여고 급식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전체 교실배치와 급식소 설치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 학교 본관 뒤쪽에 흩어진 가설급식소, 창고, 사택 등의 부속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교실을 중축하는 청사진을 만들어 교육청에 사업을 요구하였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교육위원회와 학부모였던 시의원계도 직접 설명과 협조를 구하며 거뜬히 새해 예산에 반영시키고 나니, 나 자신도 큰 보람을 느끼며 학교를 떠나올 수 있었다.

1980년 9월부터 근무하던 중앙여고에서 전보기간을 훌쩍 넘긴 1984년 12월 느닷없이 양산 관내 조그만 시골학교인 원동중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을 냈다. 교실에는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전체 조례시간에는 애국가를 틀어줄 카세트도 하나 없는 가난한 학교였다. 한 달 운영비가 100만원 남짓하여 공공요금과 직원들의 출장비, 인쇄용품을 사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오히려 채무까지 떠안고 있었다. 그런 학교에 연말에 부임하고 보니 갇아야 할 빛까지 남아 있어 속이 답답하였다. 즉시 교육청에 들어가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하며 연말에 쓰고 남은 예산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달라고 요청한 결과 자투리 예산을 받아서 가장 먼저 깜깜했던 교실에 전기불이 들어오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때 난 울산에서 양산으로 첫새벽에 집을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힘든 통근생활을 하다가 일 년 만에 인사부서에 찾아가 아무 연고도 없는 근무지에서 생활근거지로 보내 달라고 간청을 드렸으나 거절을 당했다. 하지만 얼마 후 기적처럼 내가 희망하던 대로 울산으로 그것도 울산여고로 발령을 받았다. 그것도 마침 동기가 인사 업무를 맡고 있었던 차에 나의 딱한 사정을 잘 대변해 주었던 것이었다. 나는 공직이란 늘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리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의 직분과 부여된 사명감을 갖고 있었으며, 맡겨진 과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했다. 7급 공무원으로 울산 중앙여고에서 4년, 경남 원동중학교에서 1년, 울산여고에서 3년을 보내었고, 울산남고 재직 시 6급으로 승진했다. 명덕여중에서 3년, 신정초등학교에서 2년, 태화여중에서 5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드디어 본청으로 입성하였다.

1997년 7월 15일 울산이 광역시로 출범하면서 도시 전체는 물론 공직사회도 한동안 술렁거렸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 조직이 확장되면서 기구증설로 인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고, 다른 지역의 사람을 영입하여 어느 정도 자리는 메꾸었으나 상위 직책에 부족한 인력은 승진시험을 치러 메꾸었다. 5급 승진시험의 공통과목은 헌법, 행정법, 교육학이었고, 선택과목은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중에서 택 일하여 4과목을 응시했다. 1997년 1차 시험에서 난 평균 76점을 맞았으나 74점을 맞은 사람이 나를 따돌리고 보기 좋게 승진하였다. 모두들 참으로 괴상한 일이라 여기며 혀를 찼지만, 시험성적 70%와 근무성적 30%를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선학교에 근무한 나의 근무성적은 교육청에 근무한 그 사람보다 현저히 낮아 그것을 만회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그런 참담함을 경험하였고, 동료직원들 사이엔 나로 인하여 한바탕 소요가 일어났다. 그 뒤로 근무성적을 잘 받으려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현상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나는 눈 하나 까딱 않고 2차 시험을 준비했다. 사람들은 나를 따는 당상이라 하며 막강한 경쟁자로 여겼지만, 그해 유독 비슷한 점수대의 사람이 많이 몰려 또 승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의 온갖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은 하늘이 내게 기회주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며 한계를 느끼고 그만 승진시험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그 소문을 듣고 먼저 승진한 동기가 6월 어느 날 나를 찾아와 다시 공부를 해보라고 조용히 권했다. 평소 나와는 그리 친근한 사이도 아닌 그의 말이 자꾸 걸려 먼저 승진한 여성공무원인 백남이 사무관과 상담하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며 진즉에 그러고 싶어도 나의 완강함에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때서야 나는 엉뚱한 고집을 한풀 꺾고 시험을 불과 석 달 남겨놓고

벼락치기 공부를 시작했다. 갑자기 4과목을 한꺼번에 공부하려니 숨이 찰 정도로 마음이 바빴는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교육점수가 부족하니 교육에 다녀오라고 했다. 한시가 급한데 일주일을 교육 다녀오는 것은 큰 시간적인 손실이었다. 평소 자기관리 못한 탓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험 결과는 예상대로 나의 포부수준과 딱 일치하였다. 시험공부 시작 전에 '기호지세'란 사자성어를 가슴에 품고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과 싸워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과목당 2개 이상 틀리지 않기로 포부수준을 정하였다. 시험을 보고 난 뒤 시험에 대해 난 입도 뻥긋하지 않고 침묵만 지켰더니 내가 합격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느닷없이 인사팀장이 시험결과가 나오기 전에 근무조건이 양호한 학교로 옮겨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왔지만 거절하였다. 설사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현재의 학교에서 창피당하는 게 낫다면서 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다. 시험 잘 보았다고 큰소리치던 이는 겨우 턱걸이 점수로 합격하고 그해 나를 포함한 5명이 5급 승진의 꿈을 이루었다. 정말 3년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것도 평범한 문제에 선 틀리고 까다로운 문제는 맞추며 평균 92점을 받아 전국 최고점수라는 소문까지 났었다. 마음가짐은 이렇듯 중요한 것이란 것과 무엇을 간절히 원하면 이루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달았다. 1999년 9월 5급 사무관 승진시험에서 합격했고, 삼수 끝에 2000년 1월 1일에 새천년 사무관으로 임관되어 공직생활의 전성기에 접어들었다. 5급 사무관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져 일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나는 울산에서 두 번째로 탄생한 여성사무관이었지만 첫 기수인 사무관은 내가 승진하던 그해 3월 취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줄지에 내가 여성으로선 최고의 지위에 머물게 되었다. 늘 후배들이 거울이고 희망이며, 우상처럼 여기고 있

었기 때문에 언행을 매우 조심하였고 말은 일도 남보다 10%는 더 해내었다. 그것이 공직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나를 버티게 한 힘이었고 족쇄이기도 했지만. 혼자서는 제 아무리 잘 났어도 동반자가 필요했고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사명감 때문에 더욱 일벌레가 되어야 했던 것이었다.

새천년 사무관으로 초등교육과에서 2년, 교육정보화과에서 2년 8개월 근무하다 2004년 9월 강북교육청 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았다. 나에게 처음이란 수식어가 늘 따라 다녔고 보직을 받을 때마다 회자되곤 했다. 2005년 교육감 선거가 끝나자 2006년 1월 울산중앙여고로 좌천되어 학교에서 1년간 근무하다 다시 본청으로 불려갔다. 2007년 2월부터 혁신담당관실, 혁신기획과, 기획홍보과에서 기획담당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교육감님을 직접 보좌하였고, 업무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며 상하직원 모두에게 인정은 받았지만 승진에선 늘 밀려났다. 나를 밀어내려고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그것을 이용하는 야비한 동료남성들의 농간으로 본의 아니게 늘 피해를 보았다. 그러던 사이 후배들이 나를 앞질러 승진했지만 억울함을 어디에다 하소연할 길도 없었다. 2010년 6월 제6대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새로 부임한 교육감께서 전후사정을 아셨는지는 몰라도 그해 첫인사에서 9월 1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시켜주셨다. 내게는 정말 고마운 상사였고 그에 보답이라도 하듯 재직하는 동안 충성을 다해 울산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했다. 팀장에서 과장급인 감사담당관으로 연말까지 재직하다가 다음해 고급관리자과정 연수를 위해 중앙교육연수원으로 1년간 파견되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행복한 장기연수를 받는 행운도 누렸다.

2012년 1월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새로 조직개편으로 생겨난 정책관의 보직받아 수행하였다. 이전의 학교정책과와 기획홍보과를 통합하여 만든

신설 정책관은 교육청에서 최고의 선임부서가 되었고 내가 떠나올 땐 국장과 같은 직급으로 상향조정되기도 했다. 주3회 핵심간부회의에도 참석해야했고 전부서의 업무에 대해 넓은 안목으로 협의와 조정을 하는 core 역할을 하였다. 2013년 1월 강남교육청 행정지원국장을 거쳐서 2004년 1월 울산교육연수원 총무부장으로 짧은 기간 여러 곳에서 맛보기로 근무하다 2014년 12월 31일자 정년퇴직을 맞이했다.

공직생활 40여 년간 교육행정직으로 재직하는 동안 울산교육청 청사이전이 2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다행하게도 교육청에 몸담고 있던 때여서 청사이전 두 번 모두 참여한 산증인이기도 하다. 1978년 4월에 처음 교육청 청사를 북산동에서 신정동(울산시 남구 신정3동 193-1번지)으로 옮겼고, 두 번째로는 울산광역시 승격이후 부서와 직원이 늘어나 2004년 2월 신정동에서 유곡동(울산시 중구 유곡동 250번지)으로 청사를 옮겼다. 2번의 청사 이전 시마다 내 자신이 그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고, 울산교육청의 역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 남게 되어 참 뿌듯하였다. 평소 이름값 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이일 저일 가리지 않고 닦치는 대로 일했으며, 오히려 일을 찾아가며 해오다보니 남들의 시기와 질투도 많이 받았다. 그로 인해 서기관 승진에서 후배에게 밀리기도 했지만 일벌레라는 별칭도 얻었다. 일 많이 한다고 봉급 더 주는 것 아닌데 그냥 대충 일하라는 동료의 충고도 있었지만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하고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이왕 할 일이면 멋지게 하자는 나의 생활신조(멋지내)는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었기에 그냥 대강 철저히 일할 수는 없었다. 돌아보면 2000년을 정점으로 공직생활의 꽃을 피운 시간이었고 내 능력을 맘껏 발휘하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다.

2000년 사무관이 되어 초등교육과 학사담당을 맡았을 때 처음으로 부딪힌 문제로 심혈을 기울여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던 교원명퇴수당 반납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에 질의응답을 하고 심사숙고 끝에 자체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이를 계기로 법제화시키는데도 기여하였다. 교원자격과 관련하여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을 등에 업고 때를 쓰던 보건교사들과 대치하면서 부교육감께서 “담당자 소신대로 처리 하세요”란 말에 힘을 얻어 그들의 억지논리를 법적으로 대응하며 설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 취약하던 사립유치원원장 자격취득에 따른 허술한 관리감독체계도 정립해나갔다. 2002년 교육정보화담당을 했을 때는 정보화기기 보급에서 활용과 관리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교실에 처음으로 노트북 보급을 과감하게 시도했으며, 학교 급별 대응투자방식을 도입하여 정보화기기 예산 부담도 크게 줄여 나갔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현장에 안정화시키고, 교육기관 비정규직인력 통합 관리방안을 만들어 연차적으로 완성하는 계획도 수립하였다. 비정규직문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해마다 겪게 될 예산과 인력관리문제로 감당하기 버거워질 것이란 것을 직감하고 정말 수개월을 고심하면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계획안이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도 전에 교육부에서 이와 배치되는 엉뚱한 지침이 바로 시달되어 울산교육청에서 자체 수립한 중기계획은 무산이 되고 말았다. 이제 는 어차피 끝까지 안고 가야 할 비정규직 인력문제는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큰 부담과 고통을 안고 가야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업으로 굳혀져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2004년 강북교육청 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즉시 뜨거운 감자로 몇 년간 묵혀둔 단설유치원을 설립계획을 검토하고 난 뒤 동분서주하며 설립예정 부지를 가까스로 확보했고, 그해 예산까지 부랴부랴 반영하여 설립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다.

2006년 울산중앙여고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인 교실증축을 성사시켜놓고 학교를 떠나왔다. 돌아보면 내가 사무관 시절에 거침없이 일을 밀어붙이며 업무에 박차를 가하며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직급과 직책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무관이 되니까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다른 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용감했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공직생활의 전성기는 사무관시절이었던 것 같다. 내가 근무한 곳마다 남긴 업적은 많지만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먼저 해놓은 것들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되고 열정을 쏟았던 일이라면 혁신업무와 기획업무였다. 2007년 혁신업무는 나를 아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내 체질과도 딱 어울리는 일이라 여겼고, 나 또한 신명나게 일한 대가로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그로 인한 시기와 질투의 어두운 그림자도 남겼다. 당시 부교육감께서 나의 업무능력을 인정해주어 인사고과를 높이 준 걸 가지고 교육위원회 의장이 이를 문제 삼으며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시간에 폭로하자 외부에서는 이 일로 의장님과 사무관인 나를 동급으로 여겨 언론에 회자되어 결국 의장님의 권위가 크게 추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그로 인해 나를 포함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빌미로 삼아 승진의 발목을 여러 번 잡기도 했지만 말이다.

참으로 눈물겨운 시간이었고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었다. 2008년 기획업무를 맡았을 때는 나름대로 고안한 울산교육지표를 설정하여 울산교육을 자체 진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축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려 울산교육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시도교육청평가 결과도 만족스럽게 나왔다.

2012년에는 ‘On-Stop 학교시설단 운영’업무를 지식행정우수사례로

제출하여 대한민국지식대상 기관표창을 수상한 영광도 누렸다. 정책관 재임 시 때마침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그 시기에 아직 시도 해 본적도 없는 SNS를 도입 교육홍보의 새 장을 펼쳐 나갔으며, 업무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기획과 홍보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이 일에 치중하였다. 그간 여러 직책을 수행하면서 맡은 업무마다 나의 색깔과 향기를 넣어 새롭게 업무를 설계하며 혁신을 선도하였다. 답습하고 전례대로 하는 방식은 내 업무스타일이 아니어서 늘 고민하고 교육수요자를 먼저 생각하며 시민과의 소통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일하던 시절이 더 없이 행복했다.

직장생활을 접다

1975년 7월 18일 울산시교육청에 첫 발령을 받아 오직 울산교육을 위해 내 젊음과 열정을 여기에 다 쏟았다. 그리하여 40여년의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거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공부에 대한 포부가 많아 몇 개의 학과를 마쳐도 지칠 줄 몰랐다. 방송대학교에서 4번의 졸업, 대학원에서 한번 졸업했다. 입학과 졸업을 각각 5번씩 하였으니 자연스럽게 내게 붙여진 별명은 공부벌레였고 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일벌레라는 별칭도 얻었다. 둘 다 그리 싫지 않는 말이었으며 나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였다. 공부할 기회를 처음으로 박탈당한 중학교 2학년 때의 아픈 기억이 어찌면 나를 평생토록 공부하게 한 셈이었다. 할머니는 밤에 전등을 켜 놓으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불을 꺼버려 책을 볼 수가 없었고,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고 공부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였다. 그러면 난 내 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지내면서 몰래 밤중에 촛불을 켜고 공부하곤 했다. 지금도 난 공부를 하는 게 싫지가 않다. 단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력을 쏟으며 몰입할 수가 없는

쳐져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했지만 나는 그 모두를 놓친 바보였고 고집불통이었다. 첫 번째의 기회는 삼촌이 교육대학에 보내주겠다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고, 두 번째의 기회는 결혼인데 지금의 남편과 연애할 때 중학교 동창생이 동생을 통해 결혼하자고 청했으나 거절했던 일이고, 세 번째의 기회는 직장에서의 마지막 찬스를 포기한 것이다. 교육감께서 마지막 임지로 보내기 직전에 기관장을 한번 맡아보라는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나로 인해 상처 받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담담하게 양보를 한 것이며, 마음속으로는 나 자신이 아직 마지막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 그것이 기회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B와 D사이에는 C가 있다고 하지 않던가? 선택은 그만큼 중요한 전환점이고 인생진로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찬스이기도 하나 난 이 3개의 찬스 모두를 놓친 것 같아 참 씁쓸해진다. 이것이 잘 살아온 것인지 잘 못 살아온 것인지는 가늠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년을 코앞에 두니 더 일할 기회가 없어 하지 못한 사업들도 많지만 내 청춘을 다 바친 직장에서 물러나니 반영할 길도 없고 힘도 없어 이제 무관심한 채로 교육청 일과는 결별하며 지낸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열정은 남아 있지만 이를 활용할 길도 없고 멀리서 지켜만 볼 뿐이다. 그렇게 남은 에너지는 사회에서 인생 제3막을 위해 얼마든지 꽃 피울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년을 조금 앞두고 있을 무렵 사회에 나가 어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도 뚜렷한 목표도 정하지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세월이 떠밀려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쓰레기가 치워지듯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으며 참으로 기분이 더럽고 서러웠다. 하루아침에 철저히 나

를 버렸던 직장이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밟고 질주하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전복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다. 그 때의 서글픔과 허망함은 무엇으로도 달랠 수가 없었다. 내가 근무했던 곳마다 추억이 서려 있고 업적도 남아 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자나 깨나 일 밖에 모르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나 자신이 바보스러웠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미안했다. 밤도 모르고 휴일도 잇은 채 온통 일에만 몰입해 있던 그때가 그나마 만족감과 성취감으로 나를 그렇게 작동시켜 온 것 같다. 지금은 후배들에게 나처럼 일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가끔 자신과 가족을 생각하면서 적절히 휴식하고 에너지를 충전시키면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라는 말한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직장에서 그다지 쓸모가 없었고, 직장에서 배운 실력과 노하우가 사회에서 적용할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공직생활 40년 동안 딱 일 년을 양산에서 외도했을 뿐 고향보다 오래 살아온 울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고 마무리했다.

누구보다 울산을 사랑했고 울산 땅에서 결혼하고 자식들도 두었으며, 난 여전히 울산사람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울산을 떠날 생각은 없다. 울산은 내 청춘을 불사르던 축복의 땅이고 은혜로운 곳이다. 울산중앙여고, 울산여고, 울산남고, 명덕여중, 신정초, 태화여중 행정실을 두루 거치며 직원으로 행정실장으로 내 소임을 다하며 일하였다. 2000년 5급으로 승진하면서 본청과 지원청, 사업소까지 두루 거치면서 팀장으로 과장으로 국장으로 부장으로 여러 직책을 맡으며 다채로운 공직생활의 이력을 남겼다. 마지막 임지였던 울산교육연수원에서의 6개월 동안의 근무경험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었고, 그간 지친 심신까지 잘 달래주었다. 그곳의 자연과 사람들, 바람과 바다, 나무와

풀들이 나를 평화롭게 안정되게 가라앉혀주고 사회에서의 연착륙을 도운 것 같다. 딱 6개월의 근무기간을 남겨두고 유례가 없던 인사발령으로 모두가 놀랐고 나도 놀랐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였다. 내게 한 번도 몸 담아 보지 못한 사업소에 근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교육감님께 당당히 말하였다. 또 해가 지는 쪽이 아닌 해가 뜨는 동쪽으로, 울산에 있는 관공서 중에 최고의 경관을 지닌 울기등대 바다가 있는 곳으로 보내준 것이 얼마나 행운이냐고 반문했더니 모두 의아해했다. 화나고 불쾌하고 우울해야 할 내가 오히려 밝은 표정이니 말이다. 이게 전 화위복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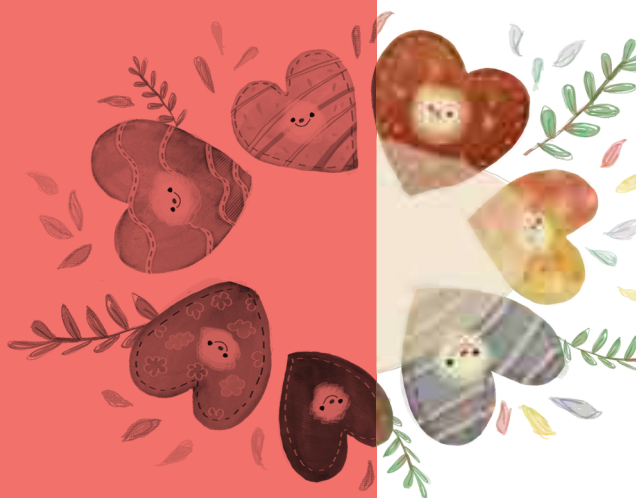
▶ 이 글은 우진숙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2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일과 나의 삶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평범한 공직자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장기연 | 강남도서관_서울

도시락 6개를 들고 출근하다.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느라 종종 배가 쓰린 증상에 대해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1997년 11월 8일(토)에 시간을 내서 집 근처의 이관우 내과에서 위 내시경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위암이 의심되니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아보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잘못된 검사이기를 기대하면서 삼성강남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다. 11월 25일, 나의 바람과는 달리 위암판정을 받았다. 입원을 하겠다고 원무과에 가서 말하니 15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다행히 대학원동문인 권윤수 선배님의 도움으로 며칠 후 특실에 입원할 수 있었다. 수술 전 종합검사를 끝내고 수술날짜를 잡기로 한 날 아내가 “생명이 달린 문제이니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날 밤 아내는 출석하던 교회에서 알게 된 서울대학병원 교수인 최윤식 장로님께 눈물로 호소를 했다. 다행히 장로님의 배려로 12월

1일(월) 퇴근 후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이 미뤄져서 5일과 6일 외출허가를 받고 출근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유지매각대금의 타 지구 사용에 관한 정책회의자료'를 만들어 담당에게 줬다.

12월 7일 오전에 다시 입원하여 이튿날 위를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위암관정을 받은 후 우리 네 식구는 함께 모여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잘못을 회개했다. 우리부부는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아침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나의 일생에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은 없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 마음에 와 닿을 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다. 교회와 직장, 초등학교, 대학원동창은 물론 아내의 직장동료까지 70여명이 병문안을 해주었다. 입원 후 19일 만에 퇴원을 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는 중인데 뉴스에서는 연일 외환위기에 따라 공직사회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 이란 불길한 소식뿐이었다. 집에서 편히 쉬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듬해 1월 7일에 도시락 6개를 싸서 다시 출근했다. 전기밥솥을 가져다 책상 밑에 두고 2시간 마다 밥을 먹으며 일했다. 그러나 사무실 분위기는 수술 전과는 사뭇 달랐다. 과장님은 종종 나에게 알아서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좋겠다는 암시를 했다.

▶ 이 글은 장기연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에게 인생을 묻는다.



03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일과 나의 삶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카푸치노와 녹차라떼

박경화 | 강서구립우장산숲속도서관_서울

칼바람

학교는 카리스마있고 혁신적인 여교장으로 인해 축대밭이 되가고 있었다. 원어민교사도 쓰고 새로운 컴퓨터를 들여오고 NIE수업도 시도하며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발전적인 면이 있었다. 하지만 급진적으로 학교를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무리가 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의 수급문제였다. 일단 나이많은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과목이 줄면서 교사가 남으니 좀 있다 그만뒀라”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불러 말했다. 학생들의 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연금 탈 수 있는 20년만 채우고 나가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유예기간을 1년이나 2년쯤 주었다. 이런일이 암묵적으로 몇 건 일어나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누가 불러가서 사표를 썼다는 등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 나돌았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주산과 타자 같은 실기과목 교사들을 치기 시작했다. 2년제를 나온 실기교사들을 대상으로 실기 과목이 없어지니 그만두라는 식이었다. 그 선생님들이 4년제 공부를 하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해도 가차가 없었다. 5명 중 3명만 남기겠다는 식이었다. 그 2명도 잠시 후면 쫓겨나는 그 교사들과 같은 신세가 될지라도 일단은 살아남고 또 어떻게 변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교사들은 뭉치지 못했다. 단합해서 따지고 권리를 주장하고 노조처럼 대항하지 않고 ‘나는 흑시나’하는 생각으로 쫓겨나는 동료들을 그냥 모르는 척 했다.

모든 교사가 마찬가지로였다. 칼바람의 서막이 불었는데 ‘나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강념어 불보듯이 쫓겨나가는 사람을 마음 아프지만 외면했다.

주산교사 여자 2명이 맥을 못추고 나갔다. 타자교사 여자 4명과 남자 한 명 중 여자 세 명이 나가게 되었다.

수시로 직원회의가 열렸다. 교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과목들은 없애야하고 자격이 없는 교사들은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구의 인격이라든가 배려라든가 그런거는 없었다. 타자교사들을 해임시켜버렸다. 쫓겨나가는 여교사들 중에 직원회의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중의 한 여교사는 출근을 했다. 직원회의 시간에 여교장은 “우리학교 교사가 아닌 사람은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몇몇 교사들을 시켜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교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교사들의 분위기는 암울하고 답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억울한 교사들을 두둔하거나 뭉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도 교장실로 불려갔다. 교장실에 들어가니 여자 상업교사 한 명과 남자 영어교사 한 명이 불려와 있었다. 이사장 딸인 교장은 “학생들 반응이 안 좋습니다”라고 했다. 각 학급에서 학생들을 몇 명씩 뽑아서 교사평가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다. 지금이야 교사평가제가 있지만 그때는 거의 없었는데 앞서가는 거였다. 그런데 격려차원이 아니라 교사를 내보내는 수단이었다. 나는 “아. 이런 거구나”하며 그동안 짐작하던 교장실 안에서서의 분위기를 실감했다. 주눅이 확 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장은 옆에 있는 남자 영어교사에게는 “선생님처럼 하다가는 회사같은데 벌써 잘렸어요!”라며 심하게 몰아붙였다. 그 교사는 한 가정의 가장일텐데 꺾소리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은 발버둥쳤고 생존경쟁이 심했다.

강제사표

주산과 타자같은 실기교사에서 끝나는게 아니었다. 단지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여교장은 인문계교등학교를 세워서 한 운동장에 두 학교가 있게 되었다.

여교장은 이사장 할머니가 좋아하는 여자교감을 쳤다. 하루 아침에 책상을 뺀 것이다. 그 여자교감은 출근 투쟁을 했다. 책상이 없어졌는데 교무실에 출근해서 다른 사람의 의자에 함께 앉아있었다. 누군가 등받이도 없는 동그란 의자를 갖다 주었다. 교감선생님이라고 대우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책상도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혼자이기에 투쟁을 하거나 재판을 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조금 몸부림 치다가 며칠 후 그냥 원한을 품은 채 사라졌다.

학교는 예전에 학급이 많을 때 20학급이 15학급으로, 12학급이 10학급으로, 다시 6학급이 되가고 있었다. 앞으로 학생수가 줄 것에 대비해서 학급을 줄여야 한다는 거였지만 그보다는 인문계 학교를 만들며 상업학교 교사를 줄이는 것이고 상업과목 교사들이 점점 감축의 대상이 되가고 있었다. 120명이던 교사들도 차츰 줄어가고 있었다. 인문계과목 교사들은 공립으로 보내기도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부딪힘이 일어났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우를 하고 상업학교 학생들은 무시를 하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미술시간에 이젤을 사용하지만 상업학교 학생들은 못 썼다.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된 좋은 컴퓨터로 꾸며진 컴퓨터실을 인문계 학생들이 사용했다.

그리고 교장은 양쪽 학교의 교장을 하면서 인문계 학생들은 대우를 하고 상업계 학생들에게는 ‘새대가리, 신세계 뒷골목 여자’라는 말을 쓰면서 폭력을 쓰기도 했다. 학생들 사이에도 불만이 일어나며 학교 분위기가 뒤숭해졌다.

1997년 2월 11일 대청소시간이었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가 교장이 부른다고 했다. 그때 교장은 교장실도 없애고 선생님들과 함께 한다며 교무실 한편에 칸막이를 하고 교장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교장에게 가니 여자 상업교사 두 명과 남자 상업교사 한 명이 있었다. 교장은 A4용지를 한장씩 주더니 “앞으로 1년 후에 그만두겠다는 사표를 쓰라”고 했다. 상과선생이 과원이니 “사표를 쓰지 않으면 이번에 과목을 배정 안 하겠다”는 거였다. 교장은 여기 부른 사람들은 학생들 평가가 낮다며 기선을 제압했다.

선배 여자 상업 교사인 김 선생님은 “평가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 못 쓰겠다”고 나가버렸다.

교장은 남은 사람들에게 볼펜을 쥐어주면서 빨리 쓰라고 했다. 나가버린 김선생님을 따라서 못 나가고 한참을 시달렸다. 교장은 안 쓰면 과목을 안 주고 해임을 시키겠다고 했다. 남은 사람들은 나중에 쓰겠다고 나왔다.

이제 내 차례가 왔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표를 쓰고 1년을 다닐 게 아니라 당장 그만두고 싶었다. 이렇게 교직이 끝이 나는 건가 싶었다. “정우가 어리니 그만두고 살림을 해도 될까?”하며 일말의 믿는 구석도 있었다.

남편과 엄마에게 전화걸었다. 남편 입에서 “당장 그만둬”라는 말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남편은 “그냥 써주고 1년 더 하라”고 했다.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나혼자의 생각이었다. 친정엄마도 “그냥 그만 두는 것 보다 1년이라도 더 하는게 낫지”라고 했다.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었다.

‘동냥그릇’이라는 명상을 다룬 책에 나오는 내용이 생각났다. 양들의 무리가 있는데 매일 주인이 한마리씩 양을 데려가 죽이는데 남은 양들은 “나는 사자니까”하는 최면에 걸려 “나만은 아니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차례가 되어 나간다는 거다.

학교 현실이 그랬다 “나만은...”하며 남의 일보듯하다 내 차례가 된 것이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닭장 속의 닭들이 상처가 있는 닭을 보면 모든 닭들이 달려들어 상처를 찌고 결국 죽인다”는 말이 있었다. 인간사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약점을 감싸주기보다는 약점을 짓밟고 못살게 군다. 학교의 현실도 그랬다. 나이 많은 여자나 약한 남자들을 우선적으로 쫓아내는 대상으로 삼았다.

함께 사표강요 당한 남자 선생님은 결혼 한지 얼마 안된 상태였다. 교장은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몸도 약하고 애들 반응도 좋지 않으니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며 사표를 강요했다. 시달림을 받는 과정에서 그 분은 얼굴이 백짓장처럼 하얗게 됐고 정신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나는 ‘안 쓰면 된다’는 제3의 방법은 생각을 못했다. 그저 교장이 제시한 ‘사표를 쓰고 1년을 다닐 건가, 해임될 건가?’ 두 가지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좁은 세계에서 살았다.

1년 후 그만둔다는 사표를 쓰지 않으면 과목을 안주고 해임시킨다는 협박에 과목이 없이 혼자 해임당한다면 창피하고 대처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았다.

김 선생님을 빼고 다 1년후 그만두겠다는 사표를 썼다. 학교에서는 김 선생님을 과목을 안 주겠다고 했다. 분열작전이었다. 상업교사중에 사표를 종용받지 않은 젊은 남자교사가 더럽다고 하며 그만두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은 가르칠 과목이 생겼다.

새로 시작한 학년은 괴롭기 한이 없었다. ‘1년 더 하자고 내 자존심을 버렸다’는 생각에 수업하기도 싫었다. 스스로가 비겁하게 여겨져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 차라리 ‘그만 뒤 버릴 걸’하는 후회도 들었지만 그만두면 도와주는 길이니 진퇴양난이었다.

1997년 4월 한보에 부정대출해준 제일은행 상무가 청문회 진술후 자살을 했다. 유서에 ‘살아도 죽은 목숨’이라는 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나도 ‘학교를 다녀도 다니는 것 같지 않은’생각이 들며 그 문구가 이해가 갔다.

‘그만두면 가정경제는 어떻게 되나?’스트레스가 쌓여갔다. 집의 아이들 세 명은 커가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다. 둘이 벌어도 모자랄 지경에 모든 것이 답답했다. 좁은 집에서 친정엄마의 간섭을 받는 것도 숨막혔다.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거기 묶여 살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훌훌 벗어 던지고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동백꽃, 지리산 산수유, 섬진강 매화를보고 싶었다. 여러군데 다니며 보고 느끼고 싶었다. ‘2000년이 되기전에 영국으로 부터 반환된다는 홍콩’도 가보고 싶었다.

여행이 궁극의 목적이라기보다 도피적 요소가 큰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자연 속에서 혼자서 마냥 조용하게 있으면 편할 것 같았다.

내 성격도 분석해보고 싶었다.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공감가는 글도 쓰고 싶었다. 모든 것이 허망하고 팝송가사처럼 ‘dust in the wind’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교 교리 공부도 해보고 싶었다. 책을 읽을 때 ‘언제 다 읽나?’하며 때로 지루하기도 하고 빨리 읽고싶기도 하다. 대단한 내용이 있을까 기대하다 책장이 하나 하나 넘겨지며 끝 장을 덮을땐 아쉽다. 인생도 그런건가? 무슨 일이 있을 듯 기대로 가득하고 아쉬워하고 힘겨워 하다가 어느 순간 끝을 맞으면 ‘아무것도 아니다’싶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교장은 직원회의에서 ‘앞으로는 학생수도 줄고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계속 주장을 했다. 그리고 “여 선생님들은 애들 과외비 벌려고 학교 나오는 거냐?”라며 여교사들을 타겟으로 삼아 ‘애들 반응이 어떠니’를 무기 삼아 선생들을 계속 쳤다.

1997년 5월 30일 토요일에 젊은 여교장이 조회시간에 “Y여상이 3년 안에 없어진다”고 하며 학생들에게 “이사 갈래? 안 갈래?”라고 했다. 새로 설립한 인문계고등학교가 이사를 갈 예정이었던 것이다.

학생들은 교장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는 말을 듣는 등 온갖 수모를 겪으며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였다. 인문계고와의 차별대우, 학교가 운영하는 연수원에서 해마다 낸 돈에 비해 질 낮은 대우를 받은 것, 교사들이 사표강요 받았다는 것도 불만인데 학교까지 없어진다니 폭발직전이었다.

분위기가 뒤숭숭하니 교장은 반장들을 불러놓고 설문조사를 한 후 “Y여상 없어지지 않는다. 이사가지 않는다”를 선포를 했다. 그리고 학년별로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 놓고 설득을 하려했다.

우선 3학년을 강당으로 불렀다. 교사들도 다 강당으로 갔다 학생들이 교장에게 여러 질문을 해댔다. 궁지에 몰린 교장이 발뺌하고 내려가려고 하자 학생들은 교장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막으며 저지했다. 전학년이 다 모여들어 교장에게 따지고 답변에 단체로 불만을 표시했다.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왔다. 오전에 시작한 그 모임은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교장은 “학교 안 없앤다. 이전 안한다. 선생들이 너희를 이용해서 남으려고 선동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면 너희 취업에 지장있다. 마스크 타면 불리하다”라고 했다.

그날 KBS뉴스에 “영등포여상 학생들이 학급감축에 따른 불만으로 시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장 이모씨는 상업학교 감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라고 방송이 나왔다. 그렇게 학생들 소요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그 후에 몇 차례 시위를 했고 ‘학교에 대한 비리와 학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위를 했다. 언론기관에서 취재를 왔다. 시위를 하는 중에 교장의 남편이 학생을 때렸다. 흥분한 학생들은 교장실로 몰려갔고 밀고 밀리는 중에 유리창이 깨질정도였다.

1997년 7월 5일자 일간신문에 ‘영상미디어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났다. 사표를 강요당한 교사중 여자 선생님이 직원회의시간에 그 기사를 교사들에게 돌렸다. 여교장은 교무실에 들어와 “저의가 뭐냐?”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 여교장은 어머니인 할머니까지 합세를 시켜 난리를 치는 가운데 당하던 교사는 옷 단추까지 풀어졌다. 그 여교사가 뿌리치며 나오자 교장은 “왜 도망가냐?”며 소리치고 “애들 선동시키지 말라”고 했고 해임을 시켜버렸다.

교장은 나를 포함해서 사표 강요당한 여자 상업교사 네 명을 ‘학생 시위 선동’으로 형사고발했다. 학교에서 서류를 작성했을 때 다른 교사들의 사인을 받았다. 다들 처자식 먹여살리기 위해 동료교사들을 불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교장의 하수인으로 앞장섰던 남교사들이 나중에 암에 걸려 일찍 세상을 뜨기도 했는데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이다. 나를 포함한 네명의 여자 상업교사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후에 해임되었다.

1997년 IMF로 사회가 뒤숭숭하고 제일은행도 인원감축으로 그만둔 은행원들이 떠나며 이야기를 남기는 장면을 찍은 ‘눈물의 비디오’도 나오던 때였다. 학교가 기업은 아니었지만 그 학교는 기업못지 않게 냉혹했다. 그때 불명예상태로 학교를 쫓겨나니 죽음을 예비로 경험한 듯했다.

해직

1997년 가을부터 나는 학교를 못나가게 됐고 17년간의 교직 생활이 끝났다. 20년이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이 안 됐고 퇴직금은 받았다.

시위주동으로 해임된 것이니 억울하고 불명예였지만 정우가 2살이니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점에서는 좋았다. 정연이는 초등학교 1학년, 주연이는 5학년이었다. 아이들이 한참 자랄때여서 엄마가 집에서 살림하며 돌보는 것도 괜찮았다. 내가 자의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쫓겨났다는 것이 우울하게 여겨졌고 남편 혼자 직장생활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긴축해야 한다는 것도 긴장이 되었다.

10년간 도와주던 과출부 아줌마도 안 오게 되었다. 나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게 되어 주부로서의 위치를 찾게 되었다.

주연이와 정연이가 학교가면 나는 정우를 데리고 놀이터로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주연이 학원을 마중가기도 했고 가정생활은 안정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생각이 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답답하고 무력하게 당했다는 느낌으로 화가 치솟았다.

그만둔 선생님들끼리 모이게 되었다. 사표강요에 굴하지 않았던 김 선생님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당한 것을 교육청에 제소하게 되었다.

다섯명의 여교사들은 학교측으로부터 부당 해임을 당했다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 진행이 더디어 우리는 교육청을 찾아갔다. 교육청 회의실로 들어가려는데 1층에서 저지를 당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가려니 우리가 걸어가는 사이에 셔터가 내려졌다. 이제 교사신분도 아니고 쫓겨난 교사

로서 교육청에서 거부당하는 한심한 신세였다.

우리는 시의원의 도움으로 회의장 앞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사연을 들은 교육위원의 도움으로 회의장에 두명이 대표로 들어가서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김선생님은 수많은 교육위원들 앞에서 그동안의 해임된 경위와 억울한 사건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밝혔다. 교장도 그 자리에서 자기 입장을 주장했다.

교육청에서는 몇 달 후에 “학교는 해임교사들을 복직시키라”고 했으나 사립학교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복직이 안 되었다. 다시 김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사재판을 하게 되었다. 다함께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여겨졌다. 우리는 전교조의 도움을 받게 되어 인권 변호사님을 소개 받게 되었다. 예전에 교사출신이었던 그 분은 억울한 처지의

친할머니와 정우와 외할머니



선생님들을 정의롭게 변호해왔었다. 우리도 도움을 청했다. 많은 증거자료들이 필요했다. 김선생님이 자료 준비에 애를 많이 쓰셨다. 그만둔 선생님들도 경위서를 써주고 협조를 해주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학교측은 우리 다섯 명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해 시위를 주동했으므로 해임시켰다”고 했다. 증인으로 함께 근무했던 교사 두 명이 나왔다. 남자교사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여자교사는 우리가 “학생들 앞에서 선동을 했고 울면서 자극을 했다”고 했다.

직장을 유지하려고 그 자리에 선 것이었지만 한때 동료였던 선생들을 자기가 살기 위해 무자비하게 밟고 있었다. 이 교장도 재판에 나왔다. 재판정문 앞에서 교장과 우리가 마주쳤을 때 교장의 얼굴이 벌개졌었다. 이 교장이 법정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주장 할때는 피가 거꾸로 솟으며 억울했다. 사표를 쓰라며 힘을 휘둘렀고 쫓아냈고 법정에서 누르고 있었다. 두 번 죽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억울하게 진다면 ‘세상에 정의가 있나?’ 의심스럽고 갑질에 눌리는 상황이어서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았다.

몇번의 재판이 진행되며 시간이 흘렀다. 몇 달 간격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 사이에 다섯 선생님들과 만나며 힘도 합쳤는데 결과가 불투명해서 지쳐가기도 했다. 다섯 명 모두의 문제였지만 김선생님이 고군분투하셨고 나머지 교사들은 따라가는 형국이었다.

친정엄마는 내가 학교를 다닐때와 마찬가지로 언니집과 우리집을 정확하게 오가고 계셨다. 어머니는 정우가 어리니 언니네보다 우리집이 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오시는 것 같았다. 그때 어머니 나이 77세였고 정우를 극진하게 봐주셨다. 목동아파트 7단지 산책로에서 유모차를 많이 밀고 다니시며 도와주셔서 고마웠다.

하지만 어둡고 좁은 집이 답답해서 어머니에게 어렵게 말을 꺼낸적이었

다. “내가 집에 있으니까 예전처럼 오래계시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일주일에 5일을 계시는 것을 줄이지를 않았다. “너랑 같이 있으면 더 좋지”라고하셨다.

1997년 해임되고 2년여가 흘러가고 있었다. 남편 혼자 벌게 되어 긴축을 해야했다.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가끔 욱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었다. 남편도 혼자 가정경제를 부담하는게 힘들었던 것 같다.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였지만 이겨서 다시 복직을 하면 좋겠다는게 간절해졌다. 살림을 하며 애들과 지내는 것도 좋았지만 다시 직장생활을 하고 싶었다. 어느날 슈퍼에 갔을때 어떤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는데 수학선생이라는 말을 들었다. 부러웠다. 나도 다시 교직에 서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들었다.

▶ 이 글은 박경화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4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일과 나의 삶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오랜 기다림 끝에 소박한 꿈이 두 톨의 알곡으로 짝 채웠다

문홍일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_울산

샌드위치 시스템과 주 5일제 근무는 나에게 시간의 여유가 주어졌다

내가 근무하는 울산공대의 학사 운영은 영국의 공과대학 학사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채택하여 운영하였다. 그것이 샌드위치 시스템이다. 1학년 교양과 2학년과정에서 기초전공을 이수한 뒤 3학년 1학기에 전공에 접하고 3학년 2학기는 현장에서 실습으로 한 학기를 이수하고 4학년에 종합 과정을 마치는 학사 시스템으로 4년의 학사시스템이다. 이러한 학사운영은 내가 사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잠재적 의식이 현실 상황적인 기회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먼저 잠재적 의식에는 그림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된 이후 예술적 잠재 재능이 되살아난 것이다. 다음은 직장에서의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밑바탕에 깔렸었다. 그것은 내가 근무하는 울산 공대의 수

업형태가 국내에서 독특한 수업 진행이었다. 모든 과정에 있어 토요일은 수업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주 5일제 수업 편성으로 진행되는 학사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은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거나 각자의 취미활동으로 여가를 보냈다. 내가 취미로 사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나는 사진과도 약간은 인연이 있었다. 중학교 시절 우리 집에는 Cannon GIII라는 연동식 카메라가 하나있었다. 따라서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 시절 친구들 모습을 흑백사진으로 찍어주곤 하였던 추억이 있다. 결국, 초등학교 시절 그림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생각하여오던 미래의 예술세계와 중학교 시절 카메라를 들고 다니던 추억은 이제 사진작품의 길로 접어들면서 마음 한편으로 즐겁고 희망찬 사진예술 활동으로 한 세대를 건너뛰어 재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사진작품 활동은 쉽 없이 지치는 줄 모르고 지속하였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카메라 가방을 메고 밖으로 출사하는 일정이 많았다. 어떤 때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 일정의 출사도 거의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작품 활동은 지속하였다. 남보다 촬영의 기회가 많았던 것이 지금까지고 있는 옛 추억의 사진원고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직장과 여가생활

당시 토요일이 휴무인 직장은 우리 학교 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연히 사진을 취미로 하는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고 만족스러운 직장이었다. 직장과 여가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주변의 여러 사람이 한 번쯤 묻는 대화의 한 대목을 회상하면 사진을 취미 하려면 돈이 많

이 들지 않느냐? 이것이 일반인에게 듣는 대화의 단골메뉴였다. 그래요! 돈이 많이 들려면 끝이 없지만, 사진취미의 기본은 카메라인 관계로 기본적인 카메라만 소유하고 있다면 적절히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임을 살며시 알려준다. 장비에 많은 욕심을 버리고 기본 장비만 있으면 절제할 수 있는 촬영의 범위가 중요한 대안임을 추가로 알려준다.

카메라 장비는 기본 장비가 가장 중요하며 값비싼 렌즈와 악세사리는 동호회 회원 간에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기본 장비로 촬영을 잘할 수 있는 작가가 진정한 작가임을 알고 뒤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어떤 특수한 환경과 특별한 사진작품을 위해서는 피사체를 넘기어 버리면 될 일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어떠한 경우에만 컷의 작품을 위하여 많은 돈을 투자하여 준비한 장비도 있다. 그러한 장비는 거의 일회성으로 쉬는 기간이 늘어 놀리는 시간이 많아 과다한 경비를 투자하여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실속이 없음을 알고 있다.

IMF는 직장인에게 자기 개발과 재충전을 권장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0년에 혹하게 불어 닥친 IMF는 국민들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 대다수 엘리트 직장에게 불어 닥친 명예퇴직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대한 기사가 있다. 2000년 3월 7일 조선일보 13면『샐러리맨 신 풍속도③』의 헤드라인은 “지금 직장은 부업일 뿐”이란 내용의 신문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 상류직종의 5년차 이내의 젊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80%이상이 현재의 직장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고 하는 것으

로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부업과 2nd. job을 준비하고 살라는 양상을 다양한 사례로 당시의 사회상이다.

이것은 누구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요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뜻이 담겨있다. 내가 사진을 하는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나에게 사진작품 활동은 일상생활의 자기개발이며 도시의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재충전의 기회로 살아왔다. 우리 사회에 웃는 이야기로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나태해진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특별한 취미와 그 취미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추천 하고자 한다. 사진의 취미는 자녀와 주변의 여러 사람에게 권장하고 싶은 취미이다. 이러한 일상의 자기개발과 재충전은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함을 느낀다.

▶ 이 글은 문홍일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에게 인생을 묻는다.



05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일과 나의 삶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구름 걷힌 파란 하늘 아래에서

오원정 | 전주시립완산도서관_전북

2004년 둘째 출산과 동시에 제과점을 폐업한 남편은 청소와 소독업의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 업은 가장 더운 8월과 가장 추운 1~2월에는 일이 없어 월급도 없다. 막상 닦쳐보니 참 막막했다. 남편은 이런 저런 궁리 끝에 제과점하면서 모아 두었던 자금을 불리고자 주식에 손을 댔다. 급기야 나보고 집에서 해 보라는 거다. 나는 주식에 관심도 없고, 돈을 모으는 방식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어느 때부터인지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낮빛이 좋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랬다. 나는 뭔가 이상해서 물어 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며칠 후, 겨우 입을 열었다.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이천만원을 까먹었다고 했다. 나는 너무도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잘 먹지도, 잘 사지도 않고 아끼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다. 그러는 한편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에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의기소침 하였다.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눈치를 채시고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셨다. 그때서야 자초지종을 말씀 드렸다. 그 해 가을, 햇곡식이라고 쌀을 보내 주셨다. 어려운 때 받으니 너무나 감사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시어머님께서 “겨울에는 양식하고, 김치만 있으면 끄떡없다”고 하셨다. 정말 쌀하고, 김치가 있으니 든든했다. 겨울을 거뜬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처럼 시어머님은 힘들고, 어려운 때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힘 안에서 도움을 주셨다. 그리고 항상 겸허한 분이시다.

시아버님께서서는 6·25 사변 당시 청력을 잃으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 오셨다. 오직 일만 하셨다. 설, 추석 명절 때는 일을 하지 않는 대신 텔레비전을 많이 보셨다. 잘 들을 수 없으므로 보기만 하는 거였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셔서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다. 그러면 시어머님은 시아버님한테 편잔을 준다. 그렇더라도 명절 음식 중 전이나 잡채가 완성되면 시어머님은 제일 먼저 접시에 담아 시아버님부터 꼭 챙겨 드린다. 그런 섬기는 시어머님의 모습에 나는 숙연해진다. 때로 나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남편을 챙기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다가도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시어머님처럼 남편의 몫을 꼭 챙겨준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님이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명절 아침이면 시댁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 후 시어머님은 아랫집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모셔 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 나에게도 이와 비슷한 풍경이 기억에 있다. 내가 어릴 적 살던 곳에서는 먹을 것이 있으면 옆집과 나눠먹고, 같이 먹었었다. 지금 아파트 문화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정겨운 모습이다. 시어머님은 늘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이웃

과 나누는 따뜻함을 말없이 실천하셨다.

둘째 출산 직전 남편은 경영하던 빵가게 문을 닫았다. 근 4년 동안 거의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빵가게에서 살다시피 했다. 너무 애써서 넉넉잡아 일 년 정도 쉬었으면 했다. 남편은 석 달 정도를 놀더니 지인의 소개로 청소 업체에 이사 겸 직원으로 취직을 했다. 그러면서 빵가게를 하며 자신을 위해서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두었던 자금을 불러보고자 지인에게 빌려주고, 주식에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빌려줬던 돈은 회수가 원활하지 않았고, 주식투자는 실패로 끝났다. 그 여파가 가정에 미쳤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점차 생겼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퇴근 후, 나와 비슷한 연령의 관리사무소 경리들에 대해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았다.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다섯 살도 채 안된 둘째를 위탁기관에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나에게 있어서 관리사무소 경리라는 직업이 생소하기만 했다. 그러나 그것도 종종 듣다보니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혼 초까지 다니던 예수병원을 퇴직한지가 육 년 정도 될 때였다. 그 동안 나는 집안일과 육아에 매여 집에 있다 보니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듯한 삶이라 돌과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재취업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취득했던 자격증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 만약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부터 다시 취득해야 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줄 몰랐다.

남편 등에 떠밀려 ‘뭔가를 해야 하나’ 생각하니, 눈에 띄는 것이 재취업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전에는 무심코 흘려버렸던 전단지, 플래카드, 공공계시판 등이 눈에 확확 들어왔다. 유독 ‘○○직업전문훈련학교’라는 광고문

구가 눈에 쏘였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자격증별로 훈련시켜 취업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또한 구직등록이 되어 있으면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도 있었다. 나는 2008년에 둘째가 다섯 살이 되어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구직등록을 한 후 '○○직업전문훈련학교'에 다녔다. 그곳은 학생시절보다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훈련생의 훈련비용과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차비정도의 보조금을 고용노동부에 청구해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훈련생의 연령층은 20대에서 50대로 다양했다. 훈련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다들 각자 도시락을 싸와서 먹었다. 그렇다보니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신나기도 했다. 모두들 하나같이 열심히 배웠다. 나는 타자자격증을 땀던 가락이 있어, 워드1급 실기는 문제도 아니었다. 대학 3학년 때 엑셀을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이 컴퓨터활용능력2급 실기 시험을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워드와 컴퓨터활용능력은 이론시험이 문제였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버스를 타고 오가는 시간에도 공부를 했다. 다행히 이론에 합격했다. 실기시험을 위해서 혼자 시간을 재가며 연습을 하였다. 사진과 사진, 사진과 문자를 합성해 하나의 광고 포스터나 디자인, 합성사진 등을 만들어 내는 포토샵은 컴퓨터에서 직접 연습하는 시간만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나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둘째를 받아야 해서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다보니 꼼꼼한 성격이라 손이 느린 데다 연습량이 턱없이 부족했다. 훈련기간이 끝나갈 무렵 자격증 시험을 하나 둘 보기 시작했다. 나는 ITQ 워드1급과 컴퓨터활용능력2급 자격증을 거머쥐게 되었다. 오랜만에 무엇인가에 도전해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결

과물을 얻은 성취감에 뿌듯했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연습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포토샵은 떨어졌다. 분명 실력이 되지 않아 떨어진 것이지만 그래도 서운했다. 훈련기간이 끝났으므로 취업을 해야 했다. 나는 남편의 권유대로 관리사무소 경리 자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직업학교에서는 언제 취업하느냐 한 달에 한 번 꼴로 전화를 해오는 거였다. 처음 두세 차례는 상냥하게 받았으나 그 이상은 빛 독촉 전화를 받는 듯 몹시 불편했고 시달렸다. 불편함은 해야 할 것에 대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가 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취업포털사이트에 희망하는 관리사무소 경리를 구하는 공고가 올라왔다. 집 근처여서 안성맞춤이었다. 부랴부랴 이력서와 자격증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본사에 제출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과 일차 면접을 했다. 회계학과를 졸업한 것이 플러스요인이 되었다.

대학 졸업한 것을 어디에 써 먹나 했더니 이렇게 활용될 줄은 몰랐다. 다행스러웠다. 최종 면접은 사장님하고 했다. 나는 사장님 낙하산이고, 다른 사람은 본사 팀장 낙하산이었다고 한다. 사장님 낙하산인 내가 당연히 출근하게 되었고, 나는 직업학교에 취업했다고 당당하게 전화를 걸었다.

직장 다니던 이년 여의 기간 동안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었다. 일단,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났다. 숨통이 크게 트인 것은 아니었지만 알뜰살뜰하게 생활하면서 청약저축을 꾸준히 부었다. 이것으로 2011년도에 덕진구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입주를 포기했고, 분양권을 팔아 남편 사업에 필요한 트럭을 구입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직장생활에 위기가 닥쳐와 남편은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된 거였다. 그렇게 자금을 마련해서 같은 업종으로 개업을 하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나도 퇴직했다.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이라 옆에 있어야겠다는 이유

에서다. 그래서 우리의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도 각자의 계획대로 움직였다. 남편의 사업은 외근에 따른 근거로 서류들이 필요했다. 남편 때문에 억지로 시작한 나의 일들-자격증 취득, 경리이력-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다.

사실, 그렇게 경리로 일하는 동안 나는 첫째와 둘째를 돌봐줄 시간이 없었다. 둘째의 성장에 중요한 다섯 살부터 일곱 살까지 아이를 돌보는 것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또 첫째의 손을 빌려야 했다. 나는 퇴근하면 아이들보다 집안일에 미친 듯 목을 뺐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는 증가하여 짜증과 화를 남편과 아이들에게 풀었다.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데 남편은 오히려 무신경하게 반응해서 더욱 속상했다. 내가 직장 다니는 동안 바쁘게 생활하니 아이들도 쫓기듯 자라왔다.

▶ 이 글은 오원정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에게 인생을 묻는다.



06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일과 나의 삶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나의 미완성 연주곡

최귀윤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_울산

남편과, 새로운 세계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은 밤에 환자가 많았다. 특히 날씨가 흐린 새벽에는 연탄가스 중독 환자가 많이 실려 왔다. 연탄가스 중독 환자가 많이 내원할 때는 응급실에 비치된 침대차가 모자랐다. 보조 직원은 다른 병동 특히 응급실 옆에 있는 신경외과 병동에서 침대차를 빌려왔다. 밤새도록 화장실에 갈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쁜 날이 많았다. 그런 날에도 응급실 근무는 매력적이었다. 처음 입사했을 나는 응급실을 지원했고, 경쟁을 뚫고 응급실에 발령받았다. 넓고 긴 응급실을 총총걸음으로 다녔다.

어느 날 밤에는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안면이 있던 인턴인 이 선생님과 함께 근무했다. 우리는 간식 시간에 라면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우연히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선생님은 친구 '홍'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 선생님은 친구를 나에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 당시

남자나 결혼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석사과정 공부와 응급실 근무를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거절하기도 민망하여서 이 선생님의 친구를 한번 만나보는 것은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 선생님 친구를 만나기로 한 전날 밤에도 응급실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나는 응급실 밤 근무를 마치고 이 선생님과 함께 '녹향' 음악다방에 갔다. 높은 통굽 샌들과 폭넓은 바지의 편한 복장으로, 아침 세수도 안한 부스스한 얼굴로 흥과 첫 대면을 했다. 다부진 체격에 빙그레 웃는 그는 모범생 청년으로 보였다. 우리는 모닝커피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유쾌하게 했다. 잠을 자고 다시 밤번 근무를 해야 하므로 아쉬움을 안고 그와 헤어졌다. 바쁜 병원 일과 석사과정 1학기의 숨 가쁜 날들을 보내는 중에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첫 만남 이후 1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나는 '이 남자를 계속 만나볼까'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두 번째 그를 만났다. 그와 대구 동성로 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홍은 인연이다'라고 생각했다. 홍도 나를 '인연'으로 생각했다고 나중에 말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중에 주사바늘에 손가락이 찢린 사고가 일어났다. 그 당시 응급실에는 뇌수막염 등 감염성 질환이 있는 소아 환자가 많았다. 나는 뇌수막염이 있는 아동이 사용한 주사바늘에 찢렸다. 찢린 왼쪽 손가락에 지지대를 대고 근무하였다. 왼쪽 손으로 겨우 보조하며 오른손으로 주사를 놓는 등 업무를 하는 것은 환자와 나에게 위험한 행위였다.

나는 임파선 결핵을 진단받았다. 체계적인 병가 규정이 없던 시기라서 병가를 받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었다. 병원에 근무하는 대학 선배들의 노력으로 나는 1개월의 유급 병가를 받았다. 병원에서 우리는 선구자 역할을 많이 하였다.

병기는 받았으나 몸이 많이 피곤하였고 회복의 기미가 없었다. 결핵약을 복용하는 것도 고역이었다. 나는 요양을 위하여, 가천의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갔다.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방을 나왔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였다. 한참 더듬거리며 절 마당 사이로 흐르는 도랑을 기다시피 건너서 겨우 화장실을 다녀왔다. 다음날에 친구 명란이가 찾아왔다. 캄캄한 밤에 화장실을 다닐 자신이 없어서 친구와 함께 하루 만에 절에서 나왔다.

나에게 결혼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한 남자가 어두운 감옥 같은 곳에 있는 나에게로 걸어온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와서 그 남자를 따라갔다. 그 남자는 보이지 않고 도랑을 타고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배를 타고 있었다. 배가 도달한 곳은 높은 산이었다. 노아의 방주인가? 저 멀리 보이는 곳에 큰 나무가 서 있다. 나무줄기에 영롱한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영롱한 보석들이 반짝거린다. 아름답다. 내 인생도 보석처럼 빛나는 것 같다’

꿈이었다.

지금도 꿈에서 보았던 보석들이 눈에 선하다.

결혼 후에 우리는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하였다. 남편은 대전에 있는 ADD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월요일마다 아침, 4시에 남편은 집에서 출발하여 대전행 기차를 타기 위하여 동대구역으로 갔다. 늘 남편이 집에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병원 근무에 집중했다.

결혼하면서 마련한 대구 효목동 아파트는 구조가 특이하였다. 싱크대 옆의 마루뚜껑 밑에 안방을 덮히는 보일러용 연탄아궁이가 있었다. 작은 방을 위한 연탄아궁이는 복도에 있었다. 집안 벽에 붙어있는 벽난로 같은 양철 뚜껑을 열고, 타고 난 연탄을 밀어 넣으면 연탄은 ‘쿵’하고 아래로 떨어

졌다. 그 당시 우리 아파트의 연탄재를 버리는 방식이었다.

남편의 유학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효목동 전세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서, 복현동에 있는 16평 주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시부모님은 사시던 집을 600만원에 팔아서 그 돈을 남편 유학비용으로 주셨다. 시부모님과 두 시누이와 함께 복현동 아파트에서 1년 정도를 살았다. 살림은 시어머니가 도맡아 하셨다. 나는 입덧이 심하여 밥을 먹고 양치질하는 것이 힘들고 자극적인 냄새를 맡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배속의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다.

1985년 가을에 남편은 미국 텍사스주 A&M 대학교에서 석박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하여 한국을 떠났다. 나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미국에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1986년 1월 18일, 아들 정민은 이 세상에 우리의 아들로 왔다. 정민과 처음 만난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 온 몸으로 번졌다. 분만 휴가는 1개월이었다. 젖을 계속 먹이고 싶었으나 1개월 후에 병원에 복귀해야하므로 보름정도 젖을 먹이고 젖 분비를 조절해야 했다.

미국 갈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을 정리하면서 경북의대 간호학과 동창 회보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다. SNS 문자와 전자메일 등이 보편화된 지금과는 대조적인 시절이었다. 친구와 남편에게 편지를 쓰고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편지 <1986년 1월 31일 경북의대 간호학과 동창회보 제2호>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머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유치환님의 ‘행복’시 구절을 떠올린다.

편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이나 설렘, 궁금증 등은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보낸 이의 이름을 보고 그의 얼굴을 그려보거나 내용을 읽기 전에 앞으로 펼쳐질 사연들을 상상해 보는 것도 편지가 줄 수 있는 즐거움이다. 그 중에는 슬픔을 전달해 주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예외이다.

연말연시에는 편지를 잘 안 쓰는 사람도 카드 한 장쯤은 쓰게 된다. 그러나 편지의 중후감과 모미에는 미칠 바가 못 된다. 거의 매일 얼굴을 대하는 친구에게도 때로는 편지를 쓰고 싶을 때가 있고, 또 그런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을 때는 새로워지고 친구의 정을 더 느끼게 된다.

나에게도 해마다 12월이면 카드와 편지를 보내오는 친구가 있다. 그것도 1년에 꼭 한번이다. 보헤미안 기질이 다분한 이 친구, 전문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졸업 후 어느 회사에 들어가 1년가량 지내더니 있을 곳이 못된다며 광주까지 가서 4년제 대학에 편입해서 전공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이제는 대구로 돌아오겠지 하고 짐작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의 모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지난 12월에 소식을 전해왔다.

친구가 해마다 그려서 보내준 카드와 편지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 얼굴을 안 본지는 3년이 넘었다. 그래도 편지 한통으로 그녀의 모든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의 정은 더 깊어간다. 나이 탓일까?

연말에 수첩을 꺼내놓고 주소록을 정리하다 보면 해마다 이름들이 줄어든다.

신중히 고려해서 지워버리지만 마음 저변에서는 서글픔이 번진다. 내 양팔로 안을 수 없는 이들을 추방하는 것 같아서 아픔과 죄책감을 느낀다. 내년에는 내 수첩에서 지워버릴 이름들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나와 함께 있을 이름들이니까.

해마다 12월이며 기다려지는 편지들이 더 많아진다. 작년에 보내온 카드나 편지의 주인 이름들이 다시 또 나타나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게임도 즐겁다.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게임.

또 김남조 시인은 '편지'에서 이렇게 읊고 있다.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 준 이가 없었다.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내가면 글썽이는 눈매의 내가 있다. 나의 시작이다"

이렇게 편지 쓰는 시간은 나를 되돌아보는 순간이기도하다. 피곤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는 누구에게나 편지를 쓴다. 그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편지를 다 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치 빗자루로 낙엽을 쓸어 내듯 마음의 잔재들을 토해내고 나면 다시 채울 공간이 생기게 되고 무언가가 다시 시작할 힘이 살아난다.

전화의 신속하고 편리함 점도 있지만 때로는 편지 쓰는 느낌보 같은 여유도 가지면 조금은 삶의 묘미가 달라지리라 생각한다. 또 한통의 편지를 써야겠다.

1986년 3월 말에 경북대병원을 퇴직했다. 두 번째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당한 상태였다. 아들과 나의 짐은 미국으로 부친 상태였고 계획된 일정대로 퇴직 처리는 마무리되었다. 3월말에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다. 4월 1일자로 새로운 간호사가 발령받을 수 있도록 3월 말에 퇴직을 했다. 세 번째 비자 발급 위한 신청은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가능했다.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조금 불안했다. 첫 번째 비자

발급 거절 이유는 잔고 부족이었다. 두 번째 비자 발급 거절 이유는 ‘직업이 간호사라서 미국에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비자 발급 신청을 위하여 한 달간 기도하며 준비하셨다. 비자 발급 성공을 위한 전략은 잔고 증명은 5천만원 넘도록 만들고 ‘간호사’임을 드러내지 않고, 비자 인터뷰에서 부유하게 보이도록 치장을 하는 것이었다. 병원 선배들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통장에는 5천만원 이상을 1주일간 들어있도록 한 후에 잔고 증명을 발급받았다. 비자 준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의 약속을 했다. ‘미국가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 이 글은 최귀운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사람, 그리고 사랑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할머니는 착해

류금옥 | 강서구립우장산숲속도서관_서울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일

시어머니께서는 66년 전 정씨 가문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다. 시집 온 이후로 시어른을 모시고 사셨고 고모님과 삼촌을 결혼시키는 일까지 주도하셔야 했다. 그리고 당신 자녀 6남매를 출가시켰으며 지금껏 제사를 모시고 사셨는데 내년 추석부터 우리가 모시기로 했다. 떠돌이 생활을 하는 맏이가 미덥지 않아 지금까지 떠안고 계시다가 비로소 그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

어머니는 진주시 근교 부근에 있는 대농가의 맏딸로 태어나셨다. 공부를 잘해 일신학교의 입시에 지망하려고 하셨다. 막내 외삼촌이 태어나 외할머니를 도와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입시를 포기했어야 했다. 그 때부터 집안일과 농사짓는 법을 익히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인생 향로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시아버님은 평범한 농가의 맏이로 태어나셨다. 증조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고집이 세고 통제가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되었다. 아버님은 초등학교를 나오시고 집에서 한학을 익힌 정도였다. 농사일은 머슴이 하니까 하는 일없이 지내던 중에 6·25가 났다. 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지면서 서울대학교도 부산에 와서 자리잡게 되었다. 학생들이 전쟁에 끌려갔거나 자원입대로 또는 피난으로 흩어지고 없었기 때문에 무작위로 학생을 모집했다. 아버님은 어떤 연유로 정보를 듣고 서울대에 다니게 되었는데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께 배우게 되셨다.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서울대에 다녔다는 소문만 남았다.

어머니가 스무 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이었다. 신대 부락 옆 동례리에 사는 분이 어머니의 동네에 자주 드나들며 일을 보시는 분이 중매를 썼다. 술을 좋아하시던 시외할아버지와 중매를 선 사람이 주점에서 불과해진 상태로 그 혼인이 결정되었다. 어머니는 시집을 와서야 비로소 서울대에 들어가게 된 얘기도 들었고 할아버지의 이중생활도 알게 되셨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불화가 어머니의 시집살이를 힘들게 했고 아버님의 괴팍한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아셨다. 한편 할아버지께서 친척에게 빚보증을 해주셨다가 전답이 날아가기도 했다.

어머니가 시집을 오자마자 아버님은 철도 경찰에 취직이 되셨다. 어머니께서는 시댁에 남고 아버님만 정읍으로 떠나시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빨치산이 경찰초소를 습격하여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아버님은 총상을 입고 진주 도립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 손 엄지손가락을 잃으셨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이 온전할 리가 있었을까. 아버님의 성격은 어머니의 일상생활을 늘 힘들게 하셨다.

아버님은 책임감이 전혀 없었다. 농번기에 강가에 나가 앉아 낚시줄이나 던져 놓고 시간을 보내셨다. 그런가 하면 수확기에 접어들면 진주 개천에 술제에 남보다 한 발 앞섰다고 했다. 밥이 질면 질다고 반찬이 입에 안 맞으면 맛없다고 밥상을 마당으로 내던지기 일쑤였다. 옷이 제대로 손질이 안 되었으면 입다가 벗어서 구정물통(쌀을 씻은 물이나 음식찌꺼기를 모아 두었다가 소죽을 끓일 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 두는 통)에 던져 버리기도 하셨다.

어머니는 ‘6남매를 중학교라도 보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으로 우울증에 걸리셨다. 무당이 집으로 와서 굿을 했고 그래도 효험이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낫는다고 하여 교회도 가보셨다. 그 때마다 아버님은 쓸 데 없는 짓을 한다고 호통만 쳤지 어머니를 도와주지는 않으셨다. 재안이 아버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동레리 앞을 지날 때 길가에 거적때기가 덮인 것을 봤다. 사람 시체라고 주변에서 수군거리자기 어머니가 아닐까하는 생각에 집으로 뛰어 와서 확인한 적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저 에린 기 얼마나 놀랬을꼬!” 하셨다.

7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어머니는 자생력이 있었는지 차츰 회복하면서 더욱 강인해지셨다. 자식들이 점점 자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학비를 대기가 힘들어졌다. 다행히 자식들은 공부를 잘해 남의 부러움은 샀지만, 동네 집집마다 돈을 꾸러 다니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을 하지않기 때문에 가을 벼 수확을 해야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실정이라 돈을 꾸 주는 사람도 한계가 있었다.

궁리 끝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답 일부를 팔았다. 그 돈으로 기름을 짜는 기계를 샀다. 농사만 짓던 분이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자식의 학비를 위해 농사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5일장마

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는 일을 하여 현금을 만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교도 보낼 수 있었고 결혼도 시켰다.

92년 봄에 아버님과 어머니가 대전으로 막 이사 온 우리 집에 다니러 오셨다. 아버님께서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니들이나 잘 살거라” 하고 가신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급한 전화가 시누이한테서 왔다. 해질녘에 어머니가 밭에서 리어카를 끌고 오시다가 과속한 오토바이와 맞부딪혔다. 어머니는 나뭇굴면서 구렁에 떨어지셨다. 뒷날 급하게 병원으로 가니까 어머니의 두 다리가 천정에 매달려 있었다. 두 허벅지가 골절이 되셨던 것이다. 어머니의 연세가 예순인데 골절상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될지 불구가 되지 지나 않을까 참담한 광경이었다.

그래도 복합골절이 아니어서 뼈 속에 철심만 박고 재활치료를 하셨다. 출가한 자식들은 멀리 있어서 가끔 간병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다. 직장이 가까운 창원이었고 미혼이던 진숙이 아가씨의 도움이 컸다. 자주 들락거리며 어머니의 외로움을 덜어드려서 쾌차가 빠르지 않았나 싶었다. 1년 만에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하셨다. 그리고 음력 12월 17일에 두 개의 목발을 짚고 동네 사람을 초대해서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했다. 집 마당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노래를 잘 하는 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청춘아 내 청춘아’라며 목청을 돋워 부르는 소리가 동네를 울렸다. 그에 덩달아 아버님은 옆에 서서 “니가 죽었으면 우찌 됐겠노!” 하시며 춤을 덩실덩실 추셨다.

아버님은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500평의 논과 200평의 밭에 배나무를 심으셨다. 그 묘목이 자라고 어머니가 의지했던 목밭도 하나로 줄다가 나중에는 목밭없이 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리의 뼈가 붙으면서 길이 차이가 생겨 절면서 견게 되었다. 기름들은 팔고 두 분이 티격태격 하면서 배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재안이 기숙사비도 대주셨고 당신들의 노

후자금도 마련하셨다. 상품이 안 되는 것을 집집마다 보내주셔서 우리들은 포식을 했다.

아버님과 어머니는 자식들이 자립한 후라 당신들이 노력하여 얻어진 수익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쌓여갔다. 그래서 그런지 보람을 느끼면서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다니러 가면 안 주던 차비도 주시고 명절에는 먹을거리를 푸짐하게 준비하시곤 했다. 자식 앞에서 뿌듯해하시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어머니께서 “좀 일찍부터 부지런히 서둘러서 농사일 말고 다른 데로 눈을 돌렸으면 자식들 고생을 덜 시켰을 텐데”하면서 아버님께 악다구니했다. 듣고 있던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처럼 살면 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당신도 늦게 깨달은 것을 후회하시는 듯 했다.

아버님과 어머니께서는 15년 남짓 배 농사를 지으시다가 논의 것은 포기를 하고 밭에 있던 나무만 관리 하셨다. 당신들도 힘이 드는 것이 느껴지고 자식들의 성화도 있고 해서 그 농사를 줄이셨는데 밭에 몇 그루만 재배 하셨다. 그것마저 못하게 했더니 어머니께서 “니들이 시골 내려오면 먹이기 있어야 안 되겠나” 하시면서 정성을 쏟았다.

그렇게 한지가 이삼 년이 지났을 쯤, 봄에 어머니께서 백내장 수술을 해서 한 쪽 눈에 안대를 하고 계셨다. 막 배꽃이 피어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뿌려야 할 시점이 되었다. 어머니께서 눈은 아프지, 농약 뿌릴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이지 안달이 나셨다. 같이 거들어서해야 할 일을 혼자하시겠다고 나서는 아버님께 “혼자 하겠소?” 하시자 “하모 혼자 못할 끼 머있노”하고 어머니께 할 수 있다며 못을 박아 놓고 밭으로 나가셨다.

잠시 후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님은 마루에 걸터앉으면서 “오다 생각해보니 농약이 아니고 제초제를 뿌린 것 같다” 하시자 “아이구, 영감 죽

을라고 환장했소” 하면서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듯 소리를 질렀다. 초겨울에 밀겨름을 하고 겨우내 가지치기를 해서 초봄에 꽃이 피면 농사를 받은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공수표가 된 꼴이었다. 제초제는 모든 식물을 말살시켜 버리는 약제다.

결혼해서 창원에 살고 있던 진숙이 시누이가 그 무렵에 친절으로 다니러 왔다. 어머니는 아버님의 실수에 속상했던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가 그 딸에게 털어 놓으셨다. “아버지! 아버지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 한 일 이요”라고 아버님께 칭찬 아닌 칭찬을 했다. 배나무가 다 죽어버렸으니 어머니가 하실 일도 사라졌다. 진숙이는 어머니가 평생을 고생하셨던 것이 마음 아파왔던 모양이었다. 두 분은 “허허” 웃으셨다.

진주남강유등축제 때 시부모님



올봄에도 봄나물이 우리 집으로 배달되었다. 어머니는 초봄부터 집주위에 나는 나물을 캐서 차례로 보내신다. 맨 먼저 돌아나는 머윗잎이 오백 원 짜리 동전 크기만 하면 캐기 시작해서 잎사귀가 싹 싸먹기 좋을 만큼 자랄 때까지 몇 차례 보내셨다. 그리고 취나물, 두릅, 엄나무순, 가죽나무순, 죽순을 차례로 보냈다. 간장, 된장, 멸치젓갈, 매실 액기스를 손수 담그셔서 주시기도 했다.

어머니는 내가 시장에서 봄나물을 만날 때나 양념이 떨어져 아쉬울 때 어머니가 생각나도록 알뜰하게 챙겨주셨다. 나는 며느리로서 해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정성에 따라갈 수가 없다. 그저 부모님에게 걱정 끼칠 일만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래도 부모님은 앞으나 서나 우리 걱정을 하셨을 텐데, 그리하고 보면 아무 것도 해드린 것이 없다. 다행히 지금껏 살아 계셔서 자식이 효도할 시간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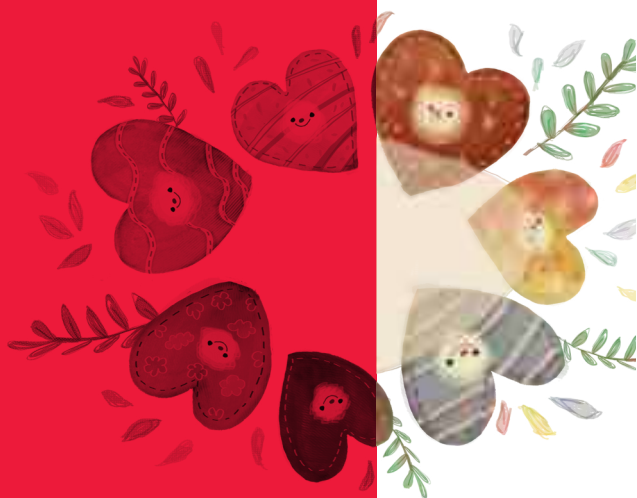
▶ 이 글은 류금옥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2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사람, 그리고 사랑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서로에게 꽃인 것을

정영애 | 강서구립우장산숲속도서관_서울

서로에게 꽃인 것을

딸이 민화 ‘모란도’를 두 점 그려서 선물했다. 흰 창호지에 정성스레 쓴 그림을 풀어보니 은은한 한지에 활짝 핀 밝고 큰 꽃들이 환히 웃는다. 예로부터 부귀를 상징한 모란꽃을 소재로 한 민간에 흔한 그림이란다.

“두 그림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라고 묻는 딸의 말에 언뜻 두 그림을 보니 밝고 큰 꽃이 그려진 그림에 더 눈이 갔다. 이유를 묻는다.

“언뜻 보니 이쪽 꽃 그림은 화면 가운데 붉고 화사한 큰 꽃이 있고 그 곁에 꽃봉오리도 자연스럽게 있어서 생동감이 넘치고 강조의 미가 있네, 그래서 더 내 마음을 끄나 봐, 반면에 저쪽은 조금 더 작은 흰 꽃과 연분홍 꽃의 파스텔 톤으로 은은한 꽃들이 규칙적 정돈 되어 있네”

라고 대답했다.



저실 중앙에 두 그림을 놓고 바라보노라면 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져서 한참을 들여다보게 된다. 유화와 달리 한지에 그려진 이 꽃들은 언제 봐도 은은한 모습 그대로다. 꽃 색 하나하나가 그렇게 고울 수가 없다. 홀 양귀비 꽃잎 같다. 딸아이에게 물으니 한 번 칠하고 다 마른 다음에 다시 칠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게 고운 꽃잎이 되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딸아이가 손목이 아픈데도 정성껏 그림을 그려서 완성시킨 꽃송이를 보는 내 마음이 아려온다.

처음에 눈길을 끈 화려한 색깔의 꽃그림은 밝고 외향적인 친구를 연상시킨다.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이며 사교적이어서 먼저 상냥하게 다가온 그녀는 언 몸을 확 풀어주는 장작불 같은 존재였다. 내가 기죽어 있을 때 단번에 멋진 곳으로 데려가 기분을 풀어주었다.

자꾸 들여다보니 밝고 눈을 끌던 그림보다 파스텔 톤의 연분홍색, 흰색과 청색의 정연한 그림에 더 마음이 갔다. 차분한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진 않지만 만나다 보면 겸손하고 속이 깊어 따뜻함을 더 느끼게 해주었다. 마음이 양털코트처럼 따스하고 보드라운 사람, 내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담담하고 진중한 자태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내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해주는 어느 스승님이 떠오른다.

딸아이는 차분하고 은은한 향을 풍긴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다. 그런 예쁜 딸아이가 나에게로 와서 내 생애 내내 가장 경이로운 선물이 되어주었다. 딸이 내게 오던 날은 파아란 하늘에 커다란 나무에 활짝 핀 벚꽃들이 나를 내려다 봐서 눈이 부시던 태몽을 꾸었다. 나는 매일 거실에 앉아 딸이 그려준 그림을 쳐다보면서 딸아이를 생각하며 뿌듯하게 차오르는 즐거움을 만끽한다. 또 나에게 꽃이 되어준 지인들과 또 나로 인해 꽃 같은 시간을 함께 나눈 이들을 떠올려본다. 우리 모두 마주하는 순간 서로에게 꽃인 것을.

외손자와 보낸 벽찬 날들

안방 창문 밖으로 잎을 다 떨군 나무에 매달린 진홍빛감이 꽃처럼 곱다.
마구 흔들고 가는 매운바람에도 보석처럼 빛난다. 그 자리에 서서
“저게 감이란다.”

내가 가리키는 창밖의 작은 열매를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던 아기 외손자
아파트 뜰에 피어난 진달래꽃을 신기해하고 여름엔 분수에서 폼어져 나오
는 물줄기에 고사리 손을 내밀면서 팔짱거리며 좋아하던 모습도 눈에 선
하다. 가을이면 낙엽더미를 그 작은 발로 밟으며 까르르 웃어대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하얗게 쌓인 흰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드느라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 고운 기억들을 갖게 해준 아이가 태어나기 까지 딸은 참 힘들어했었다. 임신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딸이 “엄마 나 소화가 안 돼”하는 전화를 하더니 몇 달이 지난 후에는 조산기가 있어서 이대목동병원 산모응급실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 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고난 앞에 딸은 기진맥진했고 엄마인 나는 놀랜 채 그런 딸을 달래느라 내 모든 시간을 쏟아야만 했다.

딸은 결혼한 지 2년째인 2007년 10월 24일, 코가 꼭 제 아버지를 닮은 가름한 얼굴을 한 2.8 kg의 아기를 임신 9개월 만에 낳았다. 신혼 초 상암동 아파트에 살던 딸이 힘든지 엄마가 살고 있는 이 낡은 목동아파트로 이사를 와버렸다.

첫손자를 보아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된 시어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커다란 장난감을 들고 병실대며 아기를 보러 분당에서 목동아파트 4단지로 달려오시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장난감 상자를 가슴에 안고는 뒤따라 내리던 할머니가 미처 한 발을 빼지 못한 것을 모른 채 급히 자동차문을 닫아버렸다. 할머니는 그 날 이후 꼼짝없이 다리에 기브스를 한 채 여섯 달을 실내에서 지내야만 했다.

그런 할아버지의 사랑을 아기는 낮가림으로 애를 태우게 했다.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이 준비한 장난감을 아무리 눈앞에서 흔들어도 아기는 울기를 그치질 않는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시집식구의 사진을 확대해서 실제 얼굴인양 벽에다 붙여놓고 ‘여긴 할아버지 이쪽은 할머니’ 하며 틈만 나면 가르쳤건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아기가 기기 시작할 무렵, 유난히 쫓긋 귀를 세우고 현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듯하면 재빠르게 한달음에 그쪽으로 기어가는 한 팔로 마루를 치면서 흔들며 환영 인사를 해댔다. 대학원 공부하느라 하루종일 집을 비운 제 엄마가 돌아온 줄은 용케도 알았다.

오크 중탕기가 끓는 소리에 아기가 기어가서는 어느새 그 연한 팔이 데 이기도 하고 잠시 눈을 옆으로 돌린 사이에 유모차에서 떨어지는 순간에는 내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 했다. 조금 더 자라서 간신히 소파에 기어오르게 되고부터는 스위치마다 건드려서 환히 전등불을 밝히는 것을 그리도 좋아했다. 퇴근한 사위는 그 어린 것 뒤쫓아 불 끄기 바쁘고 그것을 멈추게 해서 잠을 재우는 것은 커다란 행사였다.

해질녘 고사리 손을 잡고 걸을 때면 비죽이 얼굴을 내민 달을 쳐다보면서 방금 읽어준 동화를 기억 했는지 “달님 안녕!”하고 종알거렸다. 그 어린 아이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 어른들의 시간도 흘러갔다.

단답형인 외할아버지는 외손자가 좋아하는 외국 만화영화를 틀어 놓고 설명을 해주었다. 산을 좋아하는 우리부부는 틈만 나면 아기를 데리고 봉제산에 가서 소나무 숲에 머무르곤 했다.

분당에 사는 할아버지는 손자와 매일 전화 통화를 하며 할아버지 된 기쁨을 만끽했다. 해외 무역을 하느라 바빠 외국각지를 다니며 젊은 날을 보낸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무궁무진한 듯 했다 “오늘은 외할아버지랑 봉제산에 가서 솔방울도 보고 외할머니랑 시장에 가서 계를 봤어요”라는 손자의 상기된 전화목소리에 할아버지는 솔방울에 대한 것들 한 시간 이상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외손자가 7살이 되던 해에 할아버지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좋으면서 강남 대치동으로 떠났다.

이 자그마한 아이의 출현은 우리의 시선을 그 아이의 시선에 멈추게 하고 그 아이의 맑은 경탄의 환호성은 우리 어른들의 영혼을 맑게해준다. 아기를 씻겨서 그 자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예술품은 없는 듯하다. 조그만 선홍색의 입술이며 어떤 동화의 나라로 오가는 꿈을

꾸는 지 새근대는 저 숨소리, 아이는 그 존재 만으로도 어른의 만병통치,
그야말로 시름을 잊게 하는 명약이다. 우리들 삶의 흘러가는 소리를 듣게
해 주는 아이 그 아이의 천진함, 그것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고 삶의 원동
력이 되곤 한다. 영혼의 낙원으로 우리를 회귀하게 하는 보물이다.

창밖을 내다보면 아이가 나와 함께한 잔영들이 수시로 나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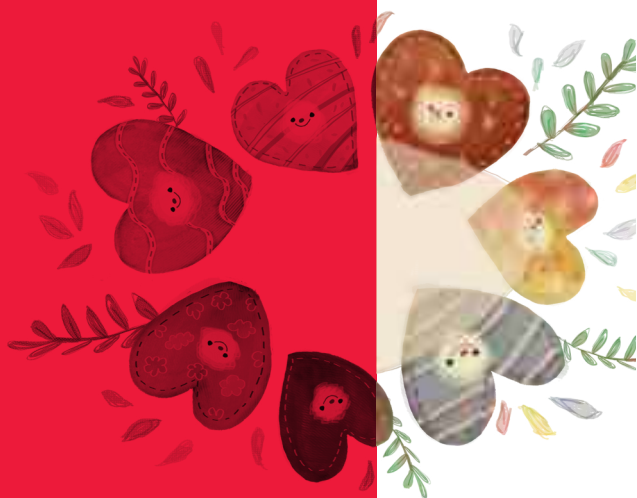
▶ 이 글은 정영애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3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사람, 그리고 사랑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오늘보다 아름다운 내일 II

김명욱 | 광진정보도서관_서울

나윤이와 독서 이야기

아이돌보미가 책 읽어 주기

2돌이 되기 전에 아이돌보미가 하루 4시간씩 봐주러 왔다. 아이돌보미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돌보았다. 나하고 있다가 아이돌보미가 오면 인계를 한다. 인계할 때마다 나에게서 안 떨어지려고해서 애를 먹었다. 아이돌보미가 4시간 동안 할 일을 주어야 한다. 나윤이 방에서 책을 읽어 달라고 하였다.

「초록빛 높이높이」 책을 읽어주어 아이돌보미와 친하게 되었다. 유아의 책들은 그림은 많고 글은 적어서 그림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책속의 그림을 보고 무엇이 있는지 묻고 다 보았어? 하고 읽어주게 하였다. 아이돌보미는 내가 부탁한 대로 나윤이에게 아주 잘 해주었다. 나중에 내가 읽어주면 어디에 나비, 도마뱀 등 무엇이 있다고 손으로 가리킨다. 그 때마

다 칭찬을 해 주곤 했다.

나운이 26개월 때 5월에 코엑스에서 유아전과 도서전이 열려서 「무지개 물고기」와 「아까비」 책을 사왔다. 연령에 알맞은 책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무지개 물고기」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남에게 주는 양보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었다. 「아까비」는 처음 본 바나나를 가족들이 관찰하며 숫자(0~10까지)를 이해하고 더하기, 빼기, 0의 의미를 넣어 주는데 참 재미있게 엮었다.

「입이 큰 개구리」는 이웃집에서 준 책인데 처음 만나는 이에게 자기소개와 대화로 접근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었다. 한 번 읽어주면 몇 번은 반복해 읽어 주어야 했다. 나운이가 제일 좋아했던 책은 「입이 큰 개구리」와 「무지개 물고기」, 「아까비」이다. “책을 읽자” 하면 책꽂이에서 꼭 그 책을 가져 온다. 이 책들은 한 번 읽으면 3번 이상은 반복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삽화가 나오면 손으로 가리키며 신이 난다.

3살 되던 크리스마스 날에 선물로 「이솝 이야기」를 사주었다. 한 권으로 읽는 슬기로운 우화 50편이다. 매일 1~2편씩 읽어주었다. 나운이가 잘 이해하고 좋아했다. 첫 번째 이야기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읽어 주었다. 재미 있는지 또 처음부터 읽어 달란다.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한다. 원작자 이솝의 이야기는 의인화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교훈적으로 전달해 어린이 마음을 잘 움직이게 한다.

동물 중에는 여우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솝 이야기」책 속에 여우와 두루미, 여우와 포도, 꼬 많은 여우, 여우와 까마귀 4편의 이야기가 있다.

나운이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지 “여우는 꺾는 많지만 남을 속이는 나쁜 여우”라고 말한다. 이솝 이야기는 오랜 세월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책으로 나운이도 참 좋아 했다.

4살 때 5월에 「이솝 이야기」의 다음 책으로 「안데르센」과 「매일 매일 들려주는 참 훌륭한 위인」이라는 책을 샀다. 「안데르센」은 이솝 이야기와 같은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다.

원작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쓴 책으로 동화작가로 세계 어린이에게 꿈과 용기와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다. 어린 나운이에게는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골라 먼저 읽어 주었다. 삽화가 무섭거나 싫어하는 것은 나중에 읽어 주었다. 첫 이야기인 벌거벗은 임금님은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좋아했다.

「매일 매일 들려주는 참 훌륭한 위인」이라는 책을 읽어 주었다. 첫 위인으로 세계 최고의 발명왕 에디슨이다. 읽어주는 동안 꽤 관심있게 듣고 좋아했다.

책 속에 삽화를 보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들어 주었다. 책을 읽어주기 전에 준비로 삽화를 보게 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늘 읽어 주었다. 그래야 관심이 커진다.

삽화 속에는 에디슨의 대표적인 발명품이 있고 그 이름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예상 외로 발명품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었다. 몇 번 반복해서 읽어 달라고 해서 읽어 주었더니 자기도 발명을 해야지 한다. 가끔 종이를 구겨 가지고 와서는 자기가 만든 발명품이란다. 참으로 귀엽고 기특하다.

에디슨의 다음 위인으로 뉴턴 이야기이다. 또 삽화를 먼저 보게 하고 호기심을 갖게 했다. 읽어 줄 때는 대화하듯이 실감나게 읽어 주었다. 「만유

인력의 법칙」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질까요? 그건 땅이 사과를 더 세게 당기기 때문이죠” 하고 읽어 주었다.

뉴턴 글에 이런 글이 나온다. ‘뉴턴이 이런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일을 깊게 생각했기 때문이야. 한 가지 생각에 푹 빠지면 지금이 아침인지 밤인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까맣게 잊곤 했다. 달 같을 삶으려다 시계를 삶은 적이 있다지 뭐야?’하는 대목을 읽을 때면 신기한 듯이 “정말 웃기지 않아? 시계를 삶았대”하며 큰 소리로 말하며 좋아한다.

나운이에게 참 훌륭한 위인 책에서 가장 기억되는 것이 뉴턴이고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시계를 삶은 것’이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인가보다. 「매일 매일 들려주는 참 훌륭한 위인」을 읽어줄게 하면 “뉴턴”하며 읽어 달란다.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 위인을 읽어 주었다. 몇 번 반복해서 읽어 달래서 읽어주었다. 베토벤은 ‘뽀뽀뽀 뽀!’하고 천둥처럼 시작되는 〈운명 교향곡〉도 만들고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엘리제를 위하여〉도 만들었다고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피아노 앞에 앉더니 갑자기 나를 보고 엘리제를 위하여 쳐 달라고 한다. 엘리제를 위하여 곡의 느낌이 좋았나 보다. 또 어느 날은 피아노 앞에 앉아 피아노를 신나게 치더니 할머니께 동영상으로 찍어 달란다. 손가락을 바쁘게 건반을 치면서 어깨까지 들먹이며 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고 가족 모두 웃었다. 악보도 없이 제 멋대로 치는 모습이 귀엽다.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를 읽어 주었다. 하늘을 나는 라이트 형제 모습의 삽화를 보고는 관심이 많아졌다. 라이트 형제 덕분에 비행기를 타고

괘과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갔다 왔지? 하며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졌다.

코타키나발루 바다에서 보트를 탔었는데 배 타는 것을 무서워하고 무척 싫다고 한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세월호 사건을 우연히 TV뉴스에서 보고 받은 트라우마가 아닌가 한다. 간접적인 인지와 경험의 결과이다. 어려서는 좋은 인지와 경험을 주는 것이 인성을 형성하는데 필요하다.

2016년 8월 2일 나운이와 같이 서점을 찾았다. 서점이 익숙해져서 여기 저기 혼자 찾아다니더니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을 먼저 집어 든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뜻을 알고 자기가 배워야 할 4세 한글 공부책을 두 권 골라서 나에게 주며 사 달란다.

내가 책을 골라서 「한국을 빛낸 위인」을 보여 주며 “한국을 빛 낸 위인이 책 어때?”하고 물으니 좋다고 한다. 역사 인물 23편의 이야기를 실은 책으로 샀다. 그리고 많은 서적을 의도적으로 둘러보고 집으로 가져가 했더니, 내 손을 잡아 끌고 문방구 쪽으로 간다. 여러 가지 채소, 과일 모양과 자동차, 배, 비행기 등 모양의 스티커를 꼭 사고 싶었던다. 스티커 모양이 다양하게 많아서 놀랐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세대가 유아 세대였다.

「한국을 빛낸 위인」책에 첫 인물로 고구려 땅을 넓힌 광개토대왕 이야기이다. 만 4세, 52개월인 나운이에게는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읽는 동안 자꾸 묻는다. 글 속에 “원수를 갚으러 가자!” 읽을 때 “원수가 뭐야?”하고 물어 온다.

고구려, 후연, 궁궐, 도읍 등 어려운 낱말들이 이해가 어렵지만, 삽화를 보며 이해가 가는 듯 반복해서 또 읽어 달란다. 신사임당 이야기를 읽어 줄 때 신사임당의 남편 이름이 이원수가 나오니깐 헛갈리는가보다. 또 신사임당이 초충도를 잘 그렸고, 훌륭한 아들 이이를 잘 길러 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 신사임당이야?”한다.

「매일 매일 들려주는 참 훌륭한 위인」책과 「한국을 빛 낸 위인」책의 위인이 중복되어 나오면 알고 있어 이해가 빨랐다.

요즘 말의 어휘와 뜻을 바르게 알고 싶어 한다. 「날았다, 매미와 병균이의 여행 이야기」책을 배우고 “세균은 무엇이고 병균은 무엇이나?”하고 묻는다. 어휘력이 점점 늘어 가는 것이 대견스럽다.

나운이가 첫 작사 작곡한 〈코코 초코〉 노래 두 돌을 지나고 해피 어린이 집을 다니던 5월에는 노래 가사를 지어 가지고 흥얼거리며 노래를 하고 다닌다. 이 노래는 나운이가 작사 작곡한 노래이다.

코코 초코

- 김나운

코코 한 마리가

가방을 메고

해피 어린이집을

갑니다.

멍멍

초코 한 마리가

가방을 메고

해피 어린이집을

갑니다.

멍멍

이렇게 부르고 나서 “웃기지 않아?”한다. 코코와 초코가 어린이집 간다고 생각한 것이 자기도 웃긴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윤이가 첫돌이 되기 전에 엷은 분홍색과 아이보리색 강아지 인형 두 개를 아빠가 사 주었는데 무척 좋아 하며 밤에는 베고 잔다. 또 먼 길 자동차로 외출 할 때 늘 갖고 다닌다. 어린이집에 갈 때만 집에 두고 간다.

즐려서 잠을 재울 때, 늘 동요를 들려주었다. 동요 가사를 많이 외워 부르며 흥얼거렸다. 어느 날 우리 아파트 스티시티 쇼핑몰 들어가는 입구에 빨강, 주황, 노란, 파랑, 흰색, 초록색의 둥근모양의 등불을 설치해서 일부러 밤에 내려가서 구경하였다.

“참예쁘다”하고서는 작은 별 노래를 부른다.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를 불러서 깜짝 놀랐다.

노래를 잘 한다고 칭찬을 했더니, 그 후 손녀는 밤에 집으로 데려다 줄 때 꼭 그 곳으로 가자고 조른다. 그 곳에서 차를 멈추고 등불을 보면서 손녀가 작은 별 노래를 한 두 번 부르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나윤이가 싫어하는 동요는 섬집아기이다. 동요가 나오면 끄라고 한다. 왜 그럴까? 아기가 혼자 남는 것이 싫은가보다.

노래를 부를 때면 꼭 가사를 바꿔 부르기를 좋아했다. ‘하늘 나라 선녀님들이 송이송이 하얀 솜을 자꾸자꾸 뿌려줍니다’하면 ‘선녀님들’을 꼭 ‘선생님들’로 바꾸어 부르기 좋아했다.

▶ 이 글은 김명옥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4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사람, 그리고 사랑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나비의 꿈

오안교 | 구로주민전용도서관_서울

육아전쟁

상돈이가 태어날 당시 남편은 41세였고 나는 38세였다. 평소 단정하고
얌전한 편인 남편은 좋아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친가와 처가에 전화
하기 바빴다.

더구나 병원에선 7개월쯤 되었을 때 딸이라고 얘기해줘서 다소 실망해
있던 중이라 그 기쁨이 더 컸던 것 같다. 남편은 곧 잘 아는 한학자를 찾아
가 이름을 지어왔다. 다음 날 출생신고를 하니 담당직원이 일어나 인사하
며 축하를 해주었다고 주민등록표를 내보이며 감격스러워 했다.

육아는 고교 때의 친구 엄마가 해주기로 해서 우리 동네에 방을 얻어 드
렸다. 아들과 둘이 어렵게 살던 그 분은 아기가 왔다 갔다 하면 안 좋다고
데리고 자겠다고 하셨다.

평일엔 퇴근 후 나만 가서 잠깐 들여다보고 주말에 데려와 같이 지냈다.
그 점이 지금까지도 무척 후회스럽다. 아이는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육아

의 기본을 처음부터 도외시하고 어른들의 편의 위주로 키운 것 같아 미안한 마음 그지없다. 설상가상으로 그 모자는 아기를 옆에 뉘어 놓고 담배를 피워 방안에 연기 가득했다. 이 같은 상황을 몇 번 목격한 우리는 좌 불안이었다.

말은 못했지만 나쁜 환경 탓인지 상돈이의 표정은 사랑 충만한 밝은 표정이 아니었다.

고심 끝에 10개월 된 아들의 육아를 같은 동네의 젊은 아주머니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 집에도 어린 아이들이 2명 있어 같이 잘 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침에 데려다 주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고개를 이리 저리 돌리는 아이를 억지로 떼어 놓고 돌아서는 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다.

하루는 퇴근 후 데리러 가니 아이 얼굴이 깨지고 붓고 멍들고 엉망이었다. 아주머니는 집 앞 골목에서 동네 아이들이 데리고 노는 상돈이를 잇은 채 다른 아주머니들과의 수다에 열중하고 있었다고 한다. 상돈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에 돌아보니 아이들이 상돈이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놀다가 순간 없어졌고 이때 상돈이는 그만 보도블럭 위로 떨어져 얼굴을 심하게 다친 것이다. 상황은 이미 끝났고 아주머니는 미안해서 찢찢매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 얼굴을 하고 잠이 든 아들이 너무 불쌍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으나 그럴 형편이 안 되니 안타깝기만 할 뿐이었다. 어떻게 그 날 밤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그 즈음 우리 집 앞에 놀이방이 생겼다. 무책임한 아주머니 보다는 전적으로 아이 돌보는 것을 업으로 하는 놀이방이 차라리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옮겼다.

딸은 너무 어렸기에 시골 큰 동서에게 막무가내로 육아를 부탁했었다. 그러다가 1992년 3살이 되었을 때 데려 와 둘을 같이 동네 교회에서 운영

하는 놀이방에 보내게 되었다. 나의 출근 준비도 바쁘는데 아이들을 깨워서 씻겨 데리고 가는 일은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상돈이 혼자일 때는 잠이 덜 깬으면 업어다 주면 되었으나 두 명이다 보니 억지로 걸려서 가는 일은 피차간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월요일 힘들게 출근하여 내 자리에 앉으면 일주일의 1/6을 해냈구나! 하고 휴~ 한 숨을 내쉬었다. 화요일은 1/3, 수요일은 1/2, 토요일이면 이렇게 4번만 더 하면 한 달이구나,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4번만 더 하면 방학이지? 이러면서 방학만 손꼽아 기다렸다.

보통은 지난 추억은 아름답게 기억되는데 이 시절의 기억만큼은 다시금 생각해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려 진다. 육아가 아니라 사육된 것 같아 너무나 가슴 아프다.

아들의 효심

아들 상돈이는 아기 때부터 잘 울지도 않고 순해서 이 정도면 한꺼번에 다섯 명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5,6세 무렵의 상돈이는 말도 귀엽게 잘하면서 인정이 많았다.

한번은 수학여행 인솔 후 귀가하여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어린이 집에서 돌아온 5살의 상돈이가 머리맡에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다가 반색을 한다. 그리곤 나를 일으켜 앉혀놓고 넙죽 큰절을 하던 그 자그마한 등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느 날은 우리의 결혼사진을 같이 보다가 무심코 '너는 이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물으니 우주 속의 먼지로 있었는데 엄마가 자기를 끌어왔다고 대답해서 우리를 한바탕 웃게 만들기도 했다.

재미있어서 크면서까지 가끔 이 문답을 하곤 했는데 대답에 살이 좀더

붙었다. 자기는 이건희 할아버지네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억지로 끌어다 엄마 배에 집어넣었다고 억살스런 표정으로 대답을 했다.

그럼 난 또 알아듣건 말건 설명을 해주었다. 부모가 자식을 끌어온 게 아니고 자식이 먼지로 우주를 떠돌다가 자신과 인연이 닿는 부모를 스스로 선택해서 온 것이니 이다음에 왜 날 낳으셨냐고 원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다.

동생과 놀다가도 내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리면 반사적으로 즉각 뛰어나와 괜찮은지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 놀곤 했다.

그러나 딸은 미동도 않고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으니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야 하나 은근 걱정도 되었다. 아마도 아기 때 큰 집에서 자랐기에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탓 같았으나 지금은 나의 둘도 없는 좋은 친구다. 때론 돌이 밤새 이야기 하다가 아침이 거의 되어 잠깐 눈을 붙일 때도 있으니 엄마에겐 딸이 꼭 필요한 모양이다.

아이들이 2학년인 1997년 4월 초였다. 신학기의 바쁜 탓 때문이었는데 몸살 기운으로 퇴근 후 꼼짝 못 하고 누워 있었다. 아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머리도 만져보며 어떻게 아픈지 물어 보았다. 귀찮은 듯 대충 대답하고 그대로 누워 있었는데 얼마 후 약 한 봉지와 물을 가져와 먹으라고 일으켜 앉혔다. 웬 약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저금통에 천원 밖에 없어 그걸 가지고 약국에 가서 엄마 나이와 아픈 증상을 얘기하고 천원 어치를 달라고 해서 한 봉지를 지어 왔다고 한다. 가슴이 뭉클했다. 약을 먹었더니 이제 수건을 가져다 식은땀을 닦아주기까지 한다. 잠시 후 재건축 회의가 있어 힘겹게 일어서려는데 재빨리 옷을 가져다 입혀주고 회의 장소까지 부축해서 같이 가 주었다.

이 날의 감격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 같다. 아들의 효도는 평생 이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곤 앞으로 아들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욕심도 다 내려놓겠다고 스스로를 채근했다.

그리고 2002년 4월 아들이 중1 때였나 보다. 6촌 오빠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대전에 내려가 아버지와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피로연에서 음식을 담으려고 줄 서있는 나를 흐뭇한 표정으로 유심히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의식되었다. 친정집에 돌아와 아들과 셋이 있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한마디 하셨다.

‘넌 어떻게 된 일인지 50이 넘으니까 오히려 피부도 뽀얀 게 한 인물 나는 것 같구나. 결혼할 때도 솔직히 나이 들어 보이고 못생겼었는데 말이다. 지금 네 나이에 너 정도의 인물도 드물 것이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고슴도치 사랑 같은 말씀이었지만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은 좋았다. 아마도 나의 일생 중 심신이 가장 편한 시기였으니 여유로운 표정이었을 것이고 수입에 맞춰 비싼 부띠끄 옷을 입은 탓일 게다.

아들이 생글거리며 말을 받았다.

‘외할아버지! 그건 우리 아빠가 엄마 속 썩이지 않고 잘 해줘서 그래요. 얼굴은 나이 먹으면서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아들도 이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다.

이제 아들의 나이 28세! 이만큼 키웠으니 어서 좋은 여자가 나타나 잘 데려가 주기만 바랄 뿐이다.

그리고 아들이! 너의 그 효심만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잘 간직하마!

늙은 엄마의 비애

상돈이는 말을 겨우 하기 시작한 3살 경 재우려고 이불을 덮어줄라치면 예쁘게 덮어달라고 주문하여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해줘야 만족해했다. 아침에 어린이 집에 갈 때는 자신이 맘에 드는 옷을 직접 골라 입고, 셔츠는 단추를 풀어 헤치는 일 없이 다 채워 입었다. 조금 더 크니 내가 옷이나 구두를 새로 사면 ‘참 예쁘다’를 연발하며 퇴근하고 오면 ‘친구 선생님들도 예쁘다고 했느냐’고 꼭 물어보곤 했다. 그 때마다 그 표정과 말투가 얼마나 귀엽던지 피로가 다 풀리는 듯 했다.

1995년 7세 때 여의도로 이사해서 유치원에 다녔는데 초등학교 주변인 탓인지 이웃에 같은 또래들이 많았다. 엄마들끼리 인사하고 있으면 아들이 끼어든다. ‘우리 엄마는 44살 늙은 엄마예요’라고 하면서 말이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그 점을 꼭 강조하니 미안도 하고 약도 올라 난 어정쩡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1학년 입학 후 1달이 되던 3월 말일 담임선생님의 호출을 받았다. 미술 시간에 선생님 그리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예쁘게 그려달라고 했나 보다. 그러자 아들이 ‘늙어서 미운데 어떻게 예쁘게 그려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속이 상한 선생님이 ‘너희 엄마는 젊어서 예쁜가 보구나.’라고 했으면서 속상해 했다. 난 곧 학교로 달려가 늙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며 머리를 조아리고 선생님을 안심시켜야 했다.

집에 와서 아들에게 ‘엄마도 늙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서 선생님을 속상하게 했느냐’고 물으니 대답이 걸작이다. ‘얼굴은 화장으로 가릴 수 있지만 목과 손은 못 가려서 쭈글쭈글 하니까 미운데 어떻게 가짜로 그리겠냐?’고 말이다.

2학년에 진급한 후에는 출근길에 담임선생님께 인사를 하고자 아이들과

같이 등교했다. 기분 좋게 건물 입구까지 갔는데 엄마와 헤어질 것으로 생각했는지 인사를 하면서 ‘엄마 늦지 않게 빨리 가라’고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걸 무시하고 교실에 같이 들어가 담임을 만나니 다소 입이 부어 있었다. 이 눈치 없는 엄마는 자상한 아들이 엄마가 출근 시간 늦을까봐 걱정을 한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 그래서 그 신통한 얘기를 아빠 앞에서 다시 듣고 싶어, 저녁식사를 하며 아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의외의 대답이 나를 절망스럽게 했다. 엄마가 늙어서 창피해서 그랬다나? 남편은 민망한 미소만 띄웠고 난 할 말을 잃었다.

늙은 엄마이다 보니 다른 엄마들은 나를 같은 학부형이기 보다는 선생으로 대접을 하려해서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아이들 기준으로 하면 엄마들과의 나이 차가 10살 이상 나고, 우리 친구들 기준으로 하면 아이들이 초등생과 고등학생 정도로 차이가 나니 이래 저래 교육에 관한 말이 통하지 않았다. 고교 시절 친한 친구는 사위를 보았는데 난 아이들 받아쓰기 공부나 시키고 있었으니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그러나 늙은 엄마의 좋은 점을 억지로 만들어내 합리화하며 살고 있다. 친구들이 할머니 소리들을 때 난 어린 아들, 딸과 젊게 살 수 있어 좋고, 떠느리는 시어머니와 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이니 아들의 결혼조건도 좋아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이다.

〈아이들의 진로〉 연년생인 아들과 딸을 직장생활을 겸하며 혼자 키우기가 무척 힘들 것 같아 딸의 출생신고를 앞당겨 초등학교를 같이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딸의 출생신고를 5개월 앞당겼다. 학급도 같은 반 배정을 요구하여 숙제 및 준비물도 같이 해결할 수 있었다.

딸 윤주는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했다. 어린이집에서 매일 하원

할 때마다 선생님께 그림 그린 것을 편지라고 주고 왔으며, 집에 와서는 자기 방 책상에 앉아 인형을 마주 놓고 대화하고 있었다. 인형은 선생님이었고 그날그날 선생님과 얘기했던 것을 일인극하듯 했다.

학교에 입학해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려 너무 지나치다는 선생님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글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아 항상 일기장 검사를 하며 맞춤법을 교정해 주었는데 2학년 때의 어느 날은 인사 안 받는 선생님들의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2페이지의 글을 빼곡히 써 놓아 나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지금도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똑똑한 딸이다. 우려와 달리 사회성도 좋아 교우관계가 원만했으며 중고등시절에는 학급의 정부반장에 늘 선출되기도 하였다.

아들 상돈이는 어려서 부터 끈기와 집중력이 부족해 레고놀이를 해도 처음 시작만 했지 완성을 하지 못하고 다른 장난감으로 관심을 돌려 버리곤 했다. 6살에 <계몽편>을 교재삼아 아빠가 한문교육을 시도했다. 1년여 동안 책이 닳도록 몇 번을 반복했지만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어린이 영화 및 박물관, 미술관 등에 데려가 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편안한 환경에서 양육되지 못해 정서불안정 및 애정결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음악치료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주 1회, 회당 30만원씩 주고 음악치료를 1년 이상 받도록 하기도 했다.

중학교도 같은 학교에 진학하고 보니 우리 아이들의 관계를 아름아름아는 학생들이 많았나 보다. 당시 학생회장이 딸을 좋아했는데 우리 아들이 지나가면 다른 아이들이 그 회장한테 '너의 처남 간다'고 놀리기도하고, 딸한테는 짓궂은 아들 친구들이 '너의 오빠 친구이니 우리에게도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속상해 하기도 했다.

시험을 보면 성적이 둘 다 비슷하게 나왔다. 성적 차이도 없으니 피차 공부에 욕심내지 않았다. 개인과외 및 3, 4명의 소그룹 학원 수업 등 거액의 비용을 들여 공부시켜 보았건만 결과는 시원치 않았다.

공부에 관심도 욕심도 없는 것을 인지하니 앞으로의 진로가 은근히 걱정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을 닦달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의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자기의 장점을 살려 자기 몫의 인생을 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야구방망이로 이를 쭈실 수 없고, 천체망원경으로 곰팡이를 들여다볼 수도 없으며, 천리마가 쥐를 잡을 수도 없다. 저마다 사는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위협에 직면했을 때 새는 날아서 피하고, 생쥐는 구멍 파고 들어간다. 불행은 생쥐가 날고 싶어 하고, 새가 땅속에 숨고 싶어 할때 생기는 것이 아닐까?

지금은 아들은 희망대로 무역학을, 딸은 서양화를 전공하여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 이 글은 오안교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5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사람, 그리고 사랑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내 영혼의 노래

서금순 | 인천광역시울목도서관_인천

숨 막히던 나의 첫사랑

대입 학력고사를 마치고 입학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다. 동창모임에 나왔던 그는 누나와 같이 지내던 친구 선종이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다. 선종이의 권유로 누님 댁에서 같이 저녁식사를 하게되었는데, 나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수저만 딸그락 거리고 있었다.

“아작”

아빨싸, 설상가상 돌까지 씹다니!

민망한 마음에 저녁밥은 어디로 먹었는지…….

후, 고문의 시간이었다.

“데려다 줄게.”

인천 지리도 잘 모르면서 쫓아 나온 그는 버스정류장에 같이 서서 내가 타고 갈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를 타야 함에도 나는 무작정 걷기를 시도했

다. 정작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한 마디도 못하고 학력고사는 잘 치렀는지, 인천엔 언제까지 있을 건지 고작 두어 마디만 나누었을 뿐……. 까만 어둠처럼 우리 사이엔 적막이 흐르고 있었다.

불빛이 환하지 않은 밤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내일 전화할게.”

그와 헤어지고 돌아온 밤, 창문으로 침입한 환한 달빛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 잠이 샅뽀이 들었을 때 “따르릉!” 전화 소리에 놀라 단번에 일어나 받았더니 언니를 찾는 전화였다. 어쩔 수 없이 바꿔주면서 언니에게 빨리 끊으라고 노력하며 온갖 손짓 발짓을 했다.

언니가 전화를 끊자마자, 아예 전화통 앞에 붙어 앉았다.

“일 번지 다방 앞에서 만나자!”

드디어 둘만의 첫 데이트!

중 2때 나는 인천으로, 그는 천안으로 전학을 간 후 친구들을 통해서만 소식을 전해 듣다가 중 3 겨울 고등학교를 배정받고서야 그는 첫 편지를 보내왔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편지로만 교재가 이어지다 처음 만나게 된 것이었다.

설레임에 한껏 모양은 냈으나 비람머리에 체크무늬 바지, 처음 입어보는 자켓의 부자연스럽고 촌스러운 모습에 신흥동에서 동인천까지 가는 길에 몇 번이나 돌아갈까 망설이다 연락할 방법이 딱히 없어 약속 장소로 향했다.

떡라면을 시켜놓고 오늘은 젓가락만 끼적끼적, 라면 발을 들어 올리자니 국물이 튀면 어찌나, 소리가 나면 어찌나, 떡이나 먹을까 집으려 하니 미끄러워 잡히질 않았다.

“이 다음에 돈 별면 맛있는 거 사줄게. 지금은 학생 신분이라 이것 밖에…….”

미안해하는 그의 말에 '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자유공원을 걸으며 좋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집안 사정 때문에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지 못하고 4년 장학생에 지원금을 받는 캠퍼스를 선택했노라며 그는 아쉬운 듯 말꼬리를 흐렸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공부한 그와는 달리 예비고사 성적만 믿고 지원했던 교대도, 국문학과도 떨어지고 후기도 포기한 채 장학금을 준다는 전문대 간호학과를 선택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초라하기만 했다.

그렇게 새내기 대학생으로 출발하면서 다시 만난 나의 첫사랑.

우린 천안과 인천을 오가며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에야 터미널로 가던 철로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사이에 두고 겨우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림자도 밟기 어려웠던 사람, 감히 똑바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슬그머니 훑쳐보듯 쳐다봐야 했던 사람.

그의 한마디에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잃었던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곤 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내려가 버리면 영~영 오지않을 것 같아 터미널 다방에서 몇 번이고 차표를 물리며 결국엔 막차로 보내야 했던 사람.

만나는 날이면 비는 왜 그리도 오는지, 가지 말라는 말 대신 빗물처럼 흐르던 눈물…….

내가 천안에 내려갔을 때는 기차역까지 데려다준다고 나왔다가 같이 기차를 타고 인천까지 온 적도 있었다.

징하게 애가 끊게 사모하여 한번 만나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멍하게 여운처럼 남은 그의 자취를 더듬다 겨우 정신을 차려 낮에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밤이 되면 장문의 편지로 그리움을 달래며 촛불을 밝혔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체통을 들춰 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그 시절…….

목소리가 듣고 싶은 날에는 동전을 잔뜩 바꿔 놓았다가 나의 하교시간에 맞추어 우체국 교환원이 바꿔주는 전화로 동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전화 통에 매달려 ‘끊는다’를 수없이 하고서야 수화기를 놓았던 그리운 사람.

초등학교 1학년 짝꿍부터 오랜 시간 푹푹 곰삭은 것갈처럼 정이 들어 수 차례 이별의 순간에도 돌아서기 힘들었던 사람.

피 끓는 청춘, 애답던 우리의 사랑,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
. .
. .
. .

“드르렁~ 푸~ 크억,”

반백의 머리에 잔주름이 제법 꽤인 얼굴에 내 옆에 잠들어 있다. 그 시절엔 애잔한 그리움으로 잠 못 들게 하더니 지금은 그 추억을 회상함으로 잠 못 이루게 하는군요.

현충사에서 수줍게 한 컷



그대가 오지 않는 밤에도

그대가 오지 않는 밤에도

나의 창가에 불을 밝혀 둡니다.

혹여

그대 왔다가 그냥 지나치실까 봐.

아니 올 줄 알면서

새어 나온 불빛 밝고 그대 오시려나.

그대가 오지 않는 밤에도

빗장을 열어 놓습니다.

혹여

그대 왔다가 발길을 돌리실까 봐

아니 올 줄 알면서도

흔들리는 문소리로 그대 오시려나

- 나의 그대를 기다리며 썼던 시입니다.

남편의 선물

나의 남친은 매우 똑똑하고 공부 잘 하는 휴머니스트였다. 형편이 어려워 4년 장학생에 생활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단대 campus를 선택했다.

‘내 고향 칠월은 /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남친은 그간의 생활비를 조금씩 모아서 내 생일에 맞추어 근사한 선물을 사주려고 올라오던 중, 기차 안에서 그만 소매치기를 당하고 말았다. 생일을 챙겨주는 것은 고사하고 돌아갈 차비조차 없어진 남친, 신호등에 멧쩍게 서 있는 그를 보는 순간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 마음만 받으면 족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으며 좋으련만 “어휴, 못 말려. 이럴거면 오지나 말지.” 속상한 마음에 팽 토라져서 오히려 화를 내고 말았다.

그날, 동기보다 결과를 중요시한 내 모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몹시 후회가 된다.

1984년 2월 그간의 실수도 만회할 겸 파도가 밀려 오는 바닷가에서 사랑을 나누던 남녀가 선전하던 ‘마리안느’ 시계를 졸업선물로 받았다.

금빛으로 반짝이는 가느다랗고 얇상한 문양의 예쁜 손목시계.

안경·시계점에서 일하던 동생이 특별히 골라 준 것이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시간이 1분씩, 1시간씩 점점 느려지더니 급기야 어느 날엔가 아예 멈추고 말았다.

나는 왜 그 시계를 교환하거나 고쳐달라고 청하지 못했을까?

인천과 천안이라는 거리도 있었고, 선물한 시계가 그렇게 금방 망가진 것을 알면 속상해 할 것 같아 내색하기 싫었던 것 같다. 어쩌면 그 때로 시간을 멈추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그래도 잊지 못할 생일선물이 있었다.



영종 갯개 바닷가에서

결혼 8년에 접어든 해, 남편에게서 “퇴근 후 주안역에서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올망졸망 세 아이를 친정엄마께 맡기고, 모처럼 처녀 때 심정이 되어 지하상가 계단 앞에서 머리를 숙 빼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장미 33송이를 든 남편이 쭈뼛거리며 축스러운 듯 나타났다. 순간 나는 나의 눈을 의심했다. 천하에 뻗뻗한 사람이 화원에 들러 포장을 부탁하고, 서울에서부터 전철을 타고 내려오는 내내 꽃을 들고 있으려니 얼마나 화끈 거렸을까?

잔순이 주부였던 나는 “뭐하려고 이런 걸 사왔어! 돈 아깝게! 지고 나면 그만일걸!!!”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날만큼은 ‘서른 세송이의 장미’가 너무 예뻐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경양식집 돈까스 밖에 없는 줄 아는 남편과 단 둘이 오붓한 식사를 했다.

고교 졸업 후 처음 만나 떡라면을 사주면서 “돈 별면 더 맛있는 거 사줄게!”한 약속을 지키기라도 한듯 조금은 상기된 모습이였다.

남편은 알고 있을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어린 시절 내 마음으로 성큼 성큼 걸어 들어온 까까머리 어린아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 이 글은 서금순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6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사람, 그리고 사랑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노을이 그린 그림

이인희 | 인천광역시율목도서관_인천

내면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다

결혼하던 해 겨울이었다.

겨울이라 남편이 귀가할 때는 밤이 어두웠다. 그래도 신혼이라 돌아올 때가 되면 나가서 기다리곤 했다. 유독 춥던 날이었다. 그날도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에서 내려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둥글넓적한 것을 팔에 끼고 오다가 나를 보자 기분 좋은 듯 내밀었다.

“날이 춥기에 하나 샀지.”

꾸러미 옆으로 빨간색 앙고라 스웨터 자락이 비쳤다.

색깔은 이게 뭐냐. 비싸게 샀다…….

사다준 공은 없고 타박만 했다.

정작 내면의 마음을 읽을 줄 몰랐다. 철이 없었다.

노래방에 가면 남편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진짜 애처롭게 느끼기는 하는 건지.

남들에게 하는 걸 보면 아버님은 정이 많으셨다. 그 정을 베푸느라 미처 감당하지 못한 집안일을 어머니 혼자 하느라 힘이 많이 드셨다. 아버님이 젊어선 직장일로 집을 떠나 계셔, 어머니 홀로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키우면서 젖소 키우랴, 농사일하랴 쉴 틈 없이 일하셔야 했다. 나이 들어선 남의 굶은일 돌봐주러 분주하게 다니던 아버님 덕택에 집 지키느라 제대로 된 외출 한번 못해보고 일만 하다 돌아가셨다.

‘피는 속이지 못한다.’ 남편이 그걸 닦았다. 길 가다 할머니가 늦도록 야채를 펼쳐놓고 팔고 있는걸 보면 다 사가지고 온다. 먹을 수 있던 없던 양이 많던 적던 개의치 않고. 또 약방의 감초처럼 가서 끼는 곳이 많다. 없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고 불러 대서…….

활동 범위가 넓다 보니 늘 바쁘다. 그러다보니 집안일은 내 차지다. 그래 놓고 젖은 손이 애처롭다는 노래는 꼭 부른다.

뒷방울 저수지로 낚시를 갔다.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따라 갔는데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 순간 풋풋한 풀과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잔잔하게 흔들리는 저수지의 물은 햇빛을 받는 대로 반짝였는데, 투명한 비닐을 깔아놓은 듯한 수면이 잔잔하게 흔들리며 일렁거리는 모습이 아주 평화스러웠다.

‘참 맑다!’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다.

‘이 느낌이 좋아서 낚시를 다니나?’

즐거 낚시 다니는 마음을 읽어보려 했다. 가져온 짐을 정리하고 먹을 것을 준비했다. 그동안 아이들은 막대기로 땅에 낙서를 하기도 하고, 작은 돌

멩이를 물 위로 던져 물수제비를 뜨며 놀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아이들과 텐트로 들어가 누웠다. 편히 쉬고 있는데 남편이 우리를 불러댔다.

“여보! 애들아! 이리 와 봐!”

나가보니 팔뚝만한 미꾸라지 한 마리를 보여주며 잡았다고 좋아라했다. 양동이에 물을 담고 넣어 놓기에, 위에 뭘 덮어놓으라고 하고 우리는 먼저 잤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미꾸라지가 없어졌다. 튀어 올라 달아난 모양이다.

“어휴, 덮어 놓으랬잖아요!”

순간 잔소리가 나갔다.

돌아오는 내내 잡은 물고기보다 놓친 물고기 탓만 했다. ‘귀가 얼마나 따가웠을까?’

“장래 희망이 뭐니?”

초등학교시절엔 묻는 사람이 더러 있었는데, 그 후 대학교 진학을 위해 입학원서를 쓸 때까지 그걸 물어온 사람이 별로 없었다. 여자는 학교를 졸업하면 조신하게 있다 시집가서 잘 사는 것이 본분인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다. 고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친구가 성모병원에서 근무하다 결혼하면서 일을 접고, 숙대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한 친구도 구청에서 근무하다 결혼하고 일을 접었다. 스튜어디스를 하던 친구도 은행에 근무하던 친구도 결혼하면서 하던 일을 접었다. 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딸만 일곱인 집의 맏이여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이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 둘 시집을 갈 때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직장과 교회에만 열심히 다녔다. 그게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여기며…….

스물여섯 살 되던 해였다.

연년생인 동생이 혼기가 되자 사귀던 사람을 데리고 왔다. 어머니는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는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단호함이 내 의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오히려 부모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미처 몰랐다. 마음을 고쳐먹자 사방에서 선 자리를 주선했다. 결혼 조건으로 우선 종교를 내세웠다.

살아온 환경이나 생김새가 달라도 한 가지 모아지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였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격을 보기로 했다. 그 당시 고모님을 따라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활동하던 지금의 남편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 데이트 할 때 모두 남매같이 닮았다고들 했다. 그래서 천생연분인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고기보다 채식을 좋아하고, 잘 익은 김치보다 방금 버무린 겉절이를 좋아하고, 순한 국을 즐겨 먹던 나와 달리 남편은 칼칼한 찌개를 좋아했다. 나는 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야 하는데 남편은 겨울에도 냉수를 즐겨 먹을 정도로 시원한 걸 좋아했으며, 피난 나와 단출하게 지내던 우리 집과 달리 시댁은 아주 변화한 집안으로 모임이 잦고 친척들끼리도 어울림을 즐겨 생활양식도 달랐다.

순종을 미덕으로 알고 맞추어 나갔다. 맞추어 나가다 보니 포기해야 할 것이 생겼다. 맞추려고만 말고 바꾸어 보려고 시도해 봤더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들.

그러다보니 나를 위한 시간이 별로 없었다.

이제와 찾아보려고 하니 너무 나이를 먹었다.

그래도 남편은 보석 같은 두 딸과 손자 손녀를 만날 수 있게 해준 동반자
존재 자체로 안도감을 안겨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다.

알게 모르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이인희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7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사람, 그리고 사랑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삶의 향기

봄에 | 전주시립완산도서관_전북

삶의 향기

나는 일 년 정도의 연애기간을 끝으로 1990년 1월 2일 눈이 내리는 날, 결혼식을 올렸다. 그 당시 결혼식은 당일 아침에 덕진 공원에서 비디오촬영을 마치고 결혼식장으로 가는 것이 수순이었다. 눈이 오는 한 겨울바람은 매서웠다. 눈보라 속을 거닐며 ‘오들오들’ 떨면서 비디오촬영을 무사히 마쳤다. 간단하게 화장을 수정하고 작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웨딩마치에 맞추어 하객들이 있는 결혼식장으로 신부입장을 하였다. 입장을 하고 있는데 신랑 측 하객들이 소근 소근 거리기 시작했다.

“신랑 인물이 아깝다 아까워.”

여기저기서 인물평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를 두고 하는 소리인 줄 몰랐다. 결혼식은 삼십 분 만에 끝이 났고 우린 부부가 되었다. 결혼 전에는 둘이 같은 공간에 있기로 해도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결혼을 했다. 결혼 후 펼쳐질 아름다운 꽃길만을 상상했다. 결혼이란 꽃길만을 상상할 수 없고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장 둘이 살 신혼집은 좁디 좁은 보증금 5백만 원짜리 단칸방이었다. 결혼 전 내가 살던 자취집보다도 작았다. 남편은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공무원 월급은 박봉을 면치 못했다. 저축은 생각도 못했고 둘이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어느 날 남편은 보험회사 연금보험증서를 들고 왔다. 빠듯한 살림에 연금을 넣을 처지가 안되는데도 일방적으로 월급의 10%를 가입해가지고 왔다.

부족한 생활비에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계속해야했다. 90년대에는 여직원이 결혼과 동시에 퇴직하는 것이 사회 통념이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실직상태가 되어 전업주부가 되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니던 회사에서는 임신 전까지는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

남편은 가난한 집의 장남이었다. 시댁은 살고 있는 집과 전답이 모두 남의 것이었다. 자가 소유는 얼마 되지 않았다. 생활이 이처럼 궁핍한 줄 알았다면 결혼을 고려해 보았을 텐데 연애결혼이라 잘 몰랐었다. 크게 문제 삼아 보지 않았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 보내드린 예물 예단 값까지 보태서 우리가 살 전셋집을 얻어주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던 나는 또다시 가난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희망을 안고 출발한 결혼은 또 다른 절망의 늪으로 가고 있었다.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날마다 만취한 상태로 귀가를 했다. 신혼생활부터 나를 지치게 했다. 매일같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왔다. 남편에 대한 기대가 절망적으로 바뀌어갔다. 결혼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그 환상은 일찌감치 깨져가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남편은 집밖에

서는 마치 독신처럼 행동을 하였다. 부인은 염두에도 없었다. 무책임한 남편을 볼 때마다 실망만 커졌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다.

결혼 한지 한 달이 지날 무렵이었다. 남편은 나와는 의논도 없이 고3 시동생을 데리고 온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희망도 없는 남편을 믿고 살까 말까하는 기로에서 시동생까지 데리고 왔다. 그야말로 진흙탕 속으로 빠져가는 느낌이었다. 신혼집이 단칸방이라 시동생을 근처 고시원에 묵게하고 아침밥과 도시락을 챙겨주라고 했다. 시동생은 2학년까지 본가에서 통학을 했었다. 신혼의 단 꿈을 느끼기도 전에 슬꾼이 되어버린 남편과 불편한 시동생과의 동고동락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밤잠을 설쳐가면서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시동생 새벽밥과 도시락 2개를 챙겨 등교를 시켰다. 바쁜 아침에 남편 해장국까지 따로 챙겨야하는 신세였다.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매정한 현실이었다.

지금처럼 따뜻한 실내주방도 아니었고 수도시설만 되어있는 재래식 부엌구조였다. 추운 겨울날 두꺼운 잠바를 입고 수도꼭지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설거지를 해야만 했다. 한참동안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다리가 저려와 바로 일어설 수가 없었다. 한참을 기다렸다가 일어나곤 했다.

재래식 부엌엔 연탄불이 있었고 연탄불이 피어오르면 밥과 찌개를 끓였다. 저녁에는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한 후에도 편한 복장으로 쉬지도 못하고 두 남자를 기다렸다. 기다리는 남편은 자정이 넘어서도 돌아오지 않았고, 시동생은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정확한 시간에 왔다.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시동생과 형수는 결코 편한 사이일수는 없었다. 시동생은 간식을 준비해 주면 모두 비우고서야 자정 무렵에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매일 같이 격식을 차려야 되는 시집식구는 친정식구보다는 몇 배가 불편한 존재였다. 그때까지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2월의 밤공기는 너무도 차가웠다. 찬바람을 맞으며 시동생이 놓고 간 밥풀이 말라붙은 두 개의 양은 도시락을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씻어놓고 방으로 들어왔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 되어서야 하루 일과가 끝이 났다.

이 늦은 시간까지도 남편은 밖에서 하이에나처럼 방황을 하는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아침밥을 지으려고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날 때면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로 돕고 금슬 좋은 부부를 상상했었으나 남편은 거리가 멀어보였다. 나도 아침이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는 커녕 출근 직전까지 밥상 옆에서 ‘쿨쿨’ 늦잠만 자고 있었다.

연속되는 수면부족과 스트레스로 과로에 시달리게 되었다. 체력이 버티질 못해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결혼하고 9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시동생이 오면서부터 생활비는 두 배로 늘었으나 시어머니는 쌀과 김치만 보내주시고 생활비는 지원을 해 주지 않으셨다. 남편 혼자 벌이로는 시동생 도시락 반찬값도 충당하기 힘들었다. 시댁은 신혼부부인 우리에게 과중한 짐을 지어주었다. 일 년 동안 밤잠을 설치며 뒷바라지한 시동생은 대학입시에 실패를 하였고 재수를 했다. 내 공은 물거품이 되었다.

올해 딸 쌍둥이가 고3이다. 입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히려 내 딸들은 밤늦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만다. 나는 잠자는 일정 시간을 넘기면 불면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을 잔다. 신혼 초에 시동생한테는 시댁식구라는 이유로 그럴 수가 없었다. 서로의 배려가 아쉬웠던 신혼시절이었다. 남편은 항상 내 말이라면 무조건 압력행사부터 하려고 했고, 의사소통은 모두가 일방통행이었다.

불통부부로 살아 온지도 벌써 2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마치 올 여름 무더위를 참아 낸 것처럼 우리부부의 불꽃 튀는 삶도 이제는 잠잠해져 갔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과욕을 버리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름을 인정하기로 다짐했다. 그동안의 감정싸움도 모두 부질없다는 생각을 해 본다. 부부란 미운정 고운정이 쌓여 서로가 이해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끝이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

‘소중한 인연과 진정한 부부란 무엇일까?’를 되새겨 보았다. 서로의 믿음을 전제로 믿어주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부부가 진정한 부부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남편을 믿어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도 웃음이 찾아왔고, 가정에도 활기가 넘쳐났다. 앞으로는 남편의 장점만을 골라서 칭찬을 해야겠다. 장점을 찾아보니 단점보다 많았다. 예쁜 두 딸을 갖게 한 일, 내가 아플 때 위로해 주기, 무거운 짐 들어주기, 김장 도와주기, 반찬투정 하지 않기, 새벽에 밭에 나가 유기농 채소를 공급해주기, 생활용품 쓰레기 치워주기, 여행할 때 운전 해주기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특히 세상에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는 말까지 립 서비스를 해 주는 남편이 오늘 따라 사랑스럽다.

“덕 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덕을 보게 하는 마음이라면 손해 볼 것도 없고 갈등도 없게 되니 원활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다. 결혼에 임할 때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고 베풀어주려는 마음이라면 평생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는 법륜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 번 새겨본다. 그 말씀 덕분에 결혼해서 덕을 보려고 했던 나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로 마음을 정하면서 행복지수가 높아졌다.

나는 결혼 삼 년차에 부동산사무소를 개업하였다. 개업하자마자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다. 하루일과가 끝나는 저녁이 되면 과감치가 되었다. 일을 할 때는 불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줄 알았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머지 임신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다.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서 마음은 편했다. 시간은 쏠살같이 ‘홀쩍 홀쩍’ 지나갔다. 경제적인 형편은 날로 좋아졌다.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는 만큼 기쁨도 배가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아이가 없는 허전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조금 늦어질 뿐, 남들처럼 자연임신이 잘 될 줄 알았다. 무슨 일인지 해가 바뀌어도 임신소식은 없었다. 나보다 십 개월이나 늦게 결혼한 올케언니는 허니문베이비라는 임신소식이 들렸고, 친구들도 결혼하기 바쁘게 바로바로 임신소식이 들려왔다.

나도 드디어 삼 년 만에 임신이 되었다. 뿔 듯이 기뻐다. 기쁜 마음도 잠시 계류유산이라는 아픔이 찾아왔다. 태아가 이미 안에서 죽어있다고 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만 했다. 그 후로도 한참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다.

서른이 넘어가자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불임의 원인이 무엇일 까하고 불임클리닉으로 유명한 서울 C병원과 M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했다. 두 병원 모두 시험관 기술을 권했다. 부부가 딱히 불임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왕이면 젊었을 때 해야 성공률이 높다고 해서 C병원에서 시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약을 하고 왔다.

1995년 6월 29일 예약 날짜가 되어 시험관 기술을 하러가는 날이었다. 병원이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고속버스를 이용했다. 부푼 기대를 안고 고속버스에 올랐다.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날이었다. 백화점 안은 수백 명의 쇼핑객들로 붐볐던 곳이라 중상자와 사망자가 많았다. 전국에서 출

동된 119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구조를 하고 있었다.

전쟁처럼 참혹한 광경을 더 이상 차마 바라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매일 매일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생존자를 구출하는 광경이 이어졌다. 백화점건물이 붕괴되어 500여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고 937명이 중경상을 입은 엄청난 대형 참사였다. 붕괴 17일 만에 건물더미 속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구출되는 기적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생존자는 없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월호 사건처럼 대형 사고였다. 온 국민이 집단우울증에 걸렸다. 나라가 한 달 내내 초상집이었다. 이 상태에서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다. 시도는 했으나 결과는 실패였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서울 병원 인근에서 며칠씩 숙박을 해야 했고, 배란을 유도하여 다시 수정란을 자궁 내에 넣어줄 때까지 서울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온갖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하는 시술이었다. 시술하고 집에 도착해서도 착상할 때까지 부동자세로 조심조심해야 했다. 온갖 정성을 다들여도 성공의 길은 멀기만 했다.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자신감은 떨어졌고 미래가 보이질 않았다. 계속되는 시술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경비마련도 쉽지 않았다. 일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였다. 임신하고 싶은 간절함에 상상임신도 했다.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마지막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남편 모르게 무속신앙에까지 손을 대어보았다. 모든 게 잘 되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포기할 무렵이었다. 남편은 입양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다. 애가 타는 우리부부를 보고 주위에서는 말들이 많았다. ‘부부금슬이 너무 좋아서 삼신할미가 아기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려왔다. 임신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는 더해만 갔다. 임신한 친구

들을 보면 죄인처럼 숨기 바빴고, 백일과 돌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가고 싶지 않았다. 정말 죽을 맛이였다. 임신에 대한 강박관념은 갈수록 더해만 갔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며 남편은 입양을 서두르고 시술은 그만 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시술을 반복했다. 입양도 말처럼 쉽지 않았다. 부모직업과 나이, 재산정도를 꼼꼼히 따져 물었다. 적합성 부적합성을 가리는 질문에 남편은 이미 비위가 상해있었다. 무슨 절차가 이렇게 까다롭냐면서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절망이라는 단어밖에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임신도 입양도 쉽지 않았다.

몸을 추스르기 위해 1년 동안 쉬기로 했다. 쉬면서 그동안 하고 싶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나는 서른두 살 남편은 서른여섯 살의 늦깎이로 부동산학과에 나란히 입학하게 되었다. 남편은 공무원인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둘이는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주경야독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다. 우리는 밤 깊은 줄 모르고 토론과 과제를 함께 나누었다. 임신얘기만 빼면 걱정이 없는 부부였다.

즐거웠던 1학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 2학기가 되면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가 없었다. 시댁의 눈치가 보였다. 손자도 못 낳는 며느리가 고울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결혼해서 내 손으로 직접 시부모님 집을 지어드렸으니 밥값은 충분히 했다고 나는 생각했었다. 하지만 밥값은 대를 잇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철없던 며느리였나 싶다. 애타는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재차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또한 나와 같은 처지였다. 친구가 소개해줘서 익산에 있는 J산부인과를 찾아갔다. 가까운 거리여서 일단은 편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 운이 좋게도 두 번째

시술에서 쌍 태아가 임신이 되었다. 다행이었다. 수많은 노력 끝에 결혼한 지 7년 7개월 7일 만에 기적처럼 임신이 된 거였다. 마치 행운이 내게 찾아온 것처럼 낱짜 조합도 ‘칠’이 이어졌던 것이다!

임신을 하자마자 부동산 사무실을 접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음악으로 전적으로 태교에만 전념을 하고 싶었다. 일을 하다가 임신이 되어 무료하게 지내기에는 하루가 길었다. 임신초기에는 움직이면 안 되어서 극도로 조심했다. 안정이 되어갈 무렵 대학원은 논문기간이었다.

도서관에서 참고문헌을 빌려다가 하루 종일 방에 틀어 박혀서 참고문헌을 정리했다. 70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책과 씨름을 해야 했기에 임신 동안 책 속에 파묻혀 살았다. 임신초기부터 입덧이 심해서 시덥에서 시어머니 신세를 졌다. 나의 임신소식에 동네사람들은 기뻐 해주었다. 시골아주머니들은 맛있는 음식을 해 왔다. 친정엄마의 손길처럼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이웃집 할머니가 해운 수수부꾸미였다. 수수부꾸미는 쫄득쫄득하고 들기름 냄새가 고소한 것이 어렸을 때 맛보았던 그리운 고향의 맛이였다. 얼마나 꿀맛이었는지 시부모님 몫도 남겨놓지 않고 부꾸미 3장을 정신없이 먹어버렸다.

태교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종일 앉았다 누웠다는 반복하면서 논문 준비를 하였다. 임신 중에 한 일은 오로지 논문 한편을 완성하는 데 그쳤다. 임신하면 동화와 동시를 읽어주면서 태교에만 집중하고 싶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지금 논문을 완성하지 못하면 기약할 수가 없어서 무리수를 두어야만 했다. 쌍둥이를 돌보면서 논문을 완성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임신 초에 유산을 방지하려고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논문준비에 도움이 되었다.

임산부와 태아를 염려해 주시던 시어머니는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다. 태아 생각해서 쉬엄쉬엄하라고 감시를 하셨다.

임신 12주에서 20주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더욱더 조심을 했다. 그런데 명절 하루 전 날이었다. 갑자기 유산기가 느껴지면서 심한 복통과 하혈이 시작되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생각이 스쳐갔다. 또 아이를 잃을까 속이 시꺼멓게 탔다. 정신없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다. 명절연휴 전이라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인턴과 레지던트로 보이는 젊은 의사선생님만 가득했다.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니까 내과 의사가 다가와 진찰을 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아닌 듯 했다. 시간이 지체되면 태아와 산모가 위험할 것 같은 생각에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시술했던 익산 J산부인과 홍원장님께 전화를 걸어 참을 수 없는 통증을 호소했다. 원장님께서서는 내 말만 듣고 수술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J산부인과로 오라 했다. 추석하루 전날이라 개인병원은 휴진이었다. 그런데도 수술을 해주시겠다고 했다. 너무나도 고마웠다. 입원했던 대학병원에 퇴원을 요청했지만 퇴원 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만류했다. 이후에 벌어질 불미스러운 모든 일을 환자가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서 겨우 퇴원수속을 밟을 수 있었다,

J산부인과에 도착하여 초음파를 했더니 역시나 과 배란을 유도하면서 호르몬제 과다투여로 난소하나가 심한 염증을 일으켜 적출수술을 해야만 했다. 시급을 다투는 수술이었다. 동의서에 무조건 사인을 하고 나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다. 임신 중에 하는 수술이어서 마취도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진통제만을 사용한 채 개복수술을 하였다. 태아와 산모 중 어느 한쪽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조건 속에서 수술을 강행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개복수술을 하고 난소 적출수술을 마쳤다. 나는 수술 중에도 통증을 참으

면서 오직 태아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의 힘은 쌍태아와 나를 무사히 지켜주었다. 수술을 마치고나서 남편 손을 잡고 평평 올었다.

태아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그동안 긴장했던 근육들이 풀리면서 힘이 갑자기 썩 빠져버렸다. 그리고는 죽은 듯이 잠이 들었다.

수술 후 임신부가 한동안 깨어나지 않자 남편은 또다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얼마나 애가 탔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만큼이나 남편도 마음 고생이 많았던 것 같다.

한차례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별 탈 없이 임신 9개월이 되어 쌍둥이를 출산하였다. 쌍둥이 만삭 때는 내 몸무게가 21kg이 늘어 76kg이 나갔다. 만삭일 때 배는 마지막까지 부풀어 오른 팽팽한 풍선 같았다. 결혼한 지 8년 4개월 만에 귀한 딸 쌍둥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 사랑스런 딸들을 얻기까지 8년 동안의 노력과 상처로 점철된 지난 날들이 스쳐가면서 눈시울이 또다시 앞을 가렸다.

쌍둥이 중 큰 아이는 2.5kg, 작은 아이는 2.7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출생 당시 2.5kg 이하면 미숙아로 분류되어 보육기에 들어가야 했다. 다행히도 2.5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서 아기들은 출생 다음 날 집으로 왔다.

그 즈음 내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 되었다. 마침내 몸으로 낳은 두 딸과 머리로 낳은 논문집이 같이 탄생되었다. 둘 다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과 같은 존재이다. 두 딸은 백일 한복을 입고 우리 부부의 졸업을 기꺼이 축하 해주었다. 그 어떤 축하보다도 값진 축하였고 흐뭇했다. 우리부부가 늦깎이로 같은 과를 나란히 졸업하게 되었고, 쌍둥이 출산까지의 일들이 당시 일간지에 기사화 되었었다.

쌍둥이를 처음 안아보았을 때 아이들의 새까맣고 많은 머리숱이 나를 또 한 번 행복하게 했다. 엄마의 곱슬 머리카락을 닮지 않아서 정말로 다행이었다. 나는 제왕 절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사흘 후 퇴원을 했다. 퇴원하자마자 두 아이를 안아보았다.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에 세상이 모두 아름다워 보였다. ‘엄마’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수없이 먼 길을 돌아왔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다. 쌍둥이를 나란히 방바닥에 눕혀 놓고 바라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내가 낳은 아이라는 실감이 나질 않았다. 아이가 주는 미소하나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아이들 커가는 과정을 모두 사진으로 담았다. 두 아이는 언제나 같이 웃고 같이 울었다. 먹는 것도 같이 먹으려고만 했다. 모든 것이 세트로 움직였다.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9개월 만에 태어난 두 딸은 몸이 허약했던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병치레를 했다. 나머지 면역력이 약해져서 세 명 모두가 번갈아 가면서 병원으로 출근을 했다. 특히 예방접종 하러 갈 때는 주위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 신혼 때 밥을 해준 막둥이 시동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둘 중 한 명이 갑자기 아파 병원을 가야하는 응급상황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명은 재워놓거나 그냥 눕혀놓고 아픈 아이만 들쳐 안고 병원을 다녔다. 아이들이 제 발로 걷기 시작할 때 까지는 엄마 혼자서 쌍둥이를 돌본다는 것은 사실 무리였다. 그러나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들이 어느새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곤 했다. 마치 아이들은 우리를 활짝 웃게 하는 예쁜 꽃과 같았다. 바라보고만 있어도 늘 행복했다.

큰 아이는 감기가 들면 편도가 곧잘 부어 고열이 났다. 해열제를 냉장고에 비치해 놓고 해열제가 보약인 줄 알고 늘 먹였다. 위험한 행동이었다. 훗날,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임신 마지막 한 달 동안 늦게 완성되는 부분이 바로 폐 기능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일까 아이들은 유독 감기를 달고 살았다.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병원 가는 횟수가 조금씩 줄었다. 이제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올 해 고등학교 삼학년이다. 그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딸 지현이, 지수야. 너희는 엄마 아빠의 희망이란다.

▶ 이 글은 봄에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8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사람, 그리고 사랑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선물

윤명선 | 강서구립우장산숲속도서관_서울

아들아! 민우야!

응답하라! 1997!

유명한 인기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그 해 1997년 9월6일(음력8월 5일)토요일 낮 12시 54분에 수유동 빨래 골 이운산부인과에서 엄마는 제왕 절개 수술을 했고, 민우가 태어났지. 외할머니의 단골 보살님이 잡아준 날 짜에 수술을 하고 소가 오전에 일하고,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난시를 받았다. 그 시간이 좋다고 하는데 이유야 살다 보면 알게 되겠지, 용기와 결심이 필요했단다. 엄마는 해냈다. 드디어 건강한 네가 태어났기에 어깨에 힘 팍 주고 자신 있게 살 수 있었다. 잠든 네 뒤 모습만 봐도 흐뭇해 절로 미소를 띠게 되더구나! 네가 태어나고 외할머니께서 한 달 동안 오셔서 엄마와 너를 보살펴 주셨지, 할머니가 그때는 검암동에 밭이 있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마침 추수철이라 더 계실 수가 없었단다.

엄마는 할머니 가시는 것을 몹시 서운해 했지, 하지만 두 아이의 엄마로 씩씩하게 살아보려고 다짐을 했다. 누나 유치원 문제로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유치원 근처에 집을 장만하니 그곳이 빨래골이었다. 궁녀들이 빨래를 하러 나온 계곡이 그곳에 있었단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불려졌다고 하더구나. 누나 유치원 데려다줘야하고 아직은 한 달밖엔 안 된 너를 업고 가기도 하고, 유치원 끝나고 데리러 갈 때는 네가 잠들어 있으면 잠든 너를 재워두고 나갔다 오면 울음소리가 빌라 1층에서부터 들리곤 했지 너에게 미안하고, 안절부절 하며 사연 많은 날들 속에 너는 잘 커가고 있었지만 잦은 감기로 병원에도 자주 다녔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는 누나와 너를 잘 데리고 놀아주었지, 아마도 아빠에게도 너는 존재가 무한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백일잔치를 집에서 치르고 아빠는 IMF 정리해고로 회사를 그만두시고 아빠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생활은 최악이었다. 너의 돌이 돌아올 무렵 아빠는 새로운 길을 찾았고, 너의 돌잔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에서 사촌 친척들과 조출하게 치루었다.

늘 미안하다. 연필을 잡고 쌀 주발에 꽃으며 놀았는데 그것이 너의 돌잡이였다. 성격이 무척이나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는데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서 가끔 울 아들이 바뀌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 철이 들면서 민우는 아주 진득하고 조용하고 점잖아졌다. 빨래골 에서 4년을 살고 다시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 아빠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인천으로 온 것이고, 누나의 학교와도 가까워서 희망촌 이라 곳에 살았다. 그곳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온 곳이 이곳 내발산동이다. 유치원을 졸업하기 전에 이사를 했다. 이사 온지 두 달 만에 너의 교통사고로 수술과 입원으로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휠체어를 타고 가야 했다. 축스러움을 많이 타고 행동은 민첩한 네가 그만 슈퍼마켓에 다녀나오다가 달려오는 다마스 승

합차에 치어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지, 마취가 깨고 그날 수퍼에서 사가지온 나온 과자를 찾았다. 힘든 4개월의 병원생활을 하면서도 잘 견뎌주었고 힘들었을 초등학교 1학년을 보냈다. 친구들의 놀림도 많았는데 속이 깊은 민우는 참아내고 엄마에겐 이야기도 안했지. 사춘기도 살짝 겪으며 네가 스물 살이 되었구나! 너의 20년이라는 역사가 그렇게 지났고, 지금부터는 네 인생의 꽃인 청춘시절이다.

엄마는 지나고 보니 그때가 좋았을 때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보니 참 좋았던 시절이었다. 누구나 다 있었던 청춘! 인생 전체를 두고 가장 소중한 시절이었지만 찰나의 시간이니 그 아쉬움을 표현할 길이없다.

민우야 너에게 지금이 어찌 보면 황금기 같은 삶의 금쪽같은 시간이다. 인간은 좋을 때 좋은 것을 모르고 산다. 지나 보면 후회하니까 인간이다. 하지만 인생을 먼저 살아본 이들이 후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면 지금의 시간을 아까워하는 거란다. 그래서 잔소리도 심해지는 것이고, 네게 잔소리를 많이 해주는 사람일 수록 너를 아끼는 사람인 것이다. 엄마의 청춘을 되돌아보니 더 잔소리가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참아본다. 너도 알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니까. 엄마의 청춘은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따르고, 그래도 행복하게 해결하면서 인생의 주인으로 다 해냈다. 아마도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도 그때가 그리운 것은 아직도 그때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두려워 말고 도전하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렴. 해야 할 일도 물론 다 해내야겠지. 책임져야 할 일들도 점점 많아지지만 그런 일들을 다 자신감 있게 해 낼 수 있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도 청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때는 당연히 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는 삶을 추천한다. 엄마는 청춘에 가치관을 세웠었다.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물론 직장에서도 일은 확실하게 했고, 직장은 청춘을 보람있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였다. 돈을 벌어야 그런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었으니까. 삶의 의미 가치관을 갖으면 청춘이 더 즐거울 수 있을 거야. 대학생화에 만족하는 너를 보면 엄마는 너의 진로를 존중하길 잘 했다고 생각한다.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할 때와 진정한 네가 하고 싶은 학업을 하는 너는 너무 대견하다. 너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잠시 마음의 병이 들어 너에게 아픈 말을 하기도 했지만 부모니까 그런 말을 한거야. 이해하지. 학업 군대 취업 너를 조이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것을 부담스러워 말고, 즐기며 하면 청춘이 아깝다는 생각을 훗날 좀 덜하게 되지 않을까. 너의 미래도 엄마는 늘 축복한다. 이상은 엄마의 조용한 잔소리였다.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



민우20살 생일



보들이 민주야!

너를 키우면서 엄마는 행복했다.

할아버지의 태몽과 아빠의 태몽으로 엄마의 궁에서 10달을 잘 채우고, 2005년 11월 3일 발산동 미즈메디 병원에서 엄마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다. 수술은 세 번째라 엄마는 편안한 맘으로 수술실에 들어갔고 너와 만날 시간을 기대했다. 임옥룡 담당선생님은 편안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헤드셋으로 나오는 클래식을 들으며 척추마취만 하고 수술을 해서 회복이 빨랐다. 너와 금방 만날 수 있었고, 그 모습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다. 너를 만나 행복했다. 세상 어디에 그런 행복이 있을까? 너의 백일잔치와 돌잔치는 공항 웨딩홀 뷔페에서 했다.

언니 오빠는 다 집에서 했는데 너에겐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 멀리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고 외가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의 백일을 축하했다. 그리고 돌잔치에는 한복도 입고 드레스도 입고 엄마는 돌잔치에 의자에 기대어 서는 정도였는데 민주는 얼마나 잘 걷고, 뛰고 오는 손님들 따라 다니며 인사도 하고, 아주 귀여운 모습과 대견함을 함께 보여 주었지. 돌잡이를 할 때 무엇을 잡을까 오신 손님들이 다 궁금해 하는데, 잠깐 뜸들이더니 너는 마이크를 잡았지.

그런 네가 쑥스러움을 많이 타 아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잘 안하니 좀 걱정스럽다. 그런데 걱정 안하려고, 엄마 아빠의 피를 받았으니 말은 누구보다 잘 할 것이고 심성도 바르고 고우니 우린 민주는 아마도 돌잡이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네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11살 생일을 이제 얼마 안 남겨 두고 있다. 너의 생일이 다가 오면 올해는 어떤 이벤트로 너를 즐겁게 해줄까 하고 고민도 했는데 올해는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

중 이다. 한번도 안 해본 경험을 위해 열심히 찾고 있다. 사춘기가 오고 있는 너를 이해한다.

보들이 넌 말야 뭐든 아무지게 잘하지. 종이접기를 이렇게 오래하는 아이는 별로 없을 꺼야 이제 몇 달 후면 최고의 급수까지 취득하게 될 것이고, 가야금도 꾸준히 하는 것 보면 아마도 훗날 너에게 음악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 플루트를 비롯 모든 부는 악기는 다 잘 불고 오케스트라 활동도 꾸준히 하니깐 꾸준히 노력하는 속에 너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속이 깊지. 꿈이 있으니 그것을 해낼 힘이 네게 충분히 있어. 엄마는 그걸 알아 인라인 배울 때, 자전거 배울 때 기억나니? 힘들어도 울면서 해내고 때론 잠깐 포기했다가도 다시 시도하고 어느 날 자전거에 탄 네가 멀리멀리 쓰러지고 앉고 달려가던 것 기억하지? 너와 나 함께 기뻐했지 민주당! 넌 마음먹은 대로 잘 하고 있어 맘도 착한 민주당 도와주어야 할 때는 정기후원도 망설이지 않고, 한턱 낼 때는 용돈도 척척 내놓고, 엄마 생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



2015년 민주당 만든 꽃 송편





자전거 혼자 타기 성공한 날

일 선물도 꼭 챙겨주는 착한 민주, 공부도 다 잘하지. 수학만 좀 어려워하는데 그것도 여름방학에 좀 노력하고 오빠가 도와주니 좋아지고 있지. 부족한 것은 노력을 더 많이 하면 해낼 수 있다. 외할머니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마음먹고 도전하면 다 할 수 있으니 사람이라고 말이야.

5학년이 되어 네 꿈이 베를린 오테스트라 단원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해서 엄마는 깜짝 놀랐지. 네가 엄마 모르게 꿈을 꾸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네게 진작에 못 사준 것 미안해 실은 엄마도 고양이 굉장히 좋아했어. 물론 요즘 댐 보니까 고양이가 더 좋아지더라. 네가 나에게 온 날부터 엄마는 더 행복했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너의 잉태소식에 그 기쁜 마음은 무엇과 비교 할 수 없었다.



고양이 아리다리와 함께



강화펜션 수영장, 주말농장

너를 위한 태교에도 엄마는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았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명상을 하며 너의 건강을 기도했고, 먹는 거, 앉는 것, 음악과 책 모든 것에 신경을 썼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힘들어하면 오빠가 곁에서 많이 도와주었고, 아빠는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 엄마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다. 외할머니는 출산을 많이 걱정했지만 세 아이 중 제일 쉬운 출산을 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수술실에서 너의 출산을 바로 볼 수 있었고 분만 후 바로 말도 할 수 있어 외할머니의 걱정을 날려 버렸지. 크면서 내성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염려 되었는데 그도 이젠 걱정 안한다.

민주의 꿈이 바뀔 수도 있고 꿈에 꿈을 플러스 하게 될 수도 있고, 네가 하고 싶은 일에 첫 번째 후견인이 되도록 늘 대기한다. 늘 건강하고, 즐겁

고 밝고 행복하길 바란다. 엄마의 늦둥이로 태어나 친척중엔 너의 또래가 없어 친척을 만나면 심심해 했는데 그래도 외사촌 동생이 있어 1년에 두 세 번은 함께 몇일 씩 지낼 수 있어서 즐겁지?

다해도 너를 많이 좋아하고 잘 따르니 엄마는 더욱 기쁘다. 동생처럼 친구처럼 언제까지나 잘 지내기를 바란다. 엄마는 여자 형제가 없어 늘 외로웠다. 민주와 다혜가 오래도록 서로 의지 하며 잘 지낼 것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은 언니와는 더 없이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 글은 윤명선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내 삶의 즐거움, 나의 비타민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바른 삶이 가져다 준 행복

김재걸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_울산

고향 마을 전원주택 신축

고등학교 때부터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했다.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살고 있으니 틈만 나면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고향사람들을 만났다. 낯익은 어른들을 만나면 부모같이 반갑게 정을 나누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도 나이가 들어 정년을 하면 어디에 살까? 고민도 해 보았다. 부모님은 고향에 오지 말고, 객지에서 터 잡아 살기를 원했다. 옛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가 산지가 10년을 넘기면 고향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짐작 하건데 10년 넘게 타향에 살다보면 고향에 적응하는 것이 힘이 들고 부담되는 부분을 말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내가 사는 큰말은 동래정씨 집성촌이다. 타성을 가진 집은 우리 집을 제외하고는 한 집뿐이었다. 우리 집은 김해 김가이다. 나의 직계 선조들은

청도 자계서원이 있는 백곡마을에서 살았다. 그 뒤에 청도 매전면 맹대리에서 살다가 밀양의 산내면 가인리 화평부락에 8대조까지 사셨다. 조부 때 경주의 서악으로 이주하기 위해 가다가 조부의 여동생이 살고 있었던 새말에 사시다가, 못안 큰 마을에 안주하여 지금껏 살게 되었다고 했다. 그 여동생 집이 새말에서 제일 부자였던 오부자 집이었다. 아버지 형제 4형제 중 세분은 모두 객지로 나가고, 막내인 아버지 혼자 고향에 남아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씨족 중심의 시골 마을은 집안끼리의 인화가 잘되며 결속력도 좋았다. 집성촌은 반대로 횡포가 심했다. 마을 회의에서 협의된 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술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 야밤에 행패를 부린 경우가 많았다. 씨족중심의 마을은 협의나 타협이 부족하고 발전도 느렸다. 같은 씨족끼리도 폭력적인 싸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나의 부모님은 객지에 나간지가 10년을 넘어 고향을 찾으면 해롭다는 옛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 고향 마을에 살게 하기 싫었던 것이었다.

나는 고향에는 선산도 있고 자연도 사람도 눈에 익어 노후에 들어와 살고 싶었다. 30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가사를 정리하라고 하셨다. 골새 밭도 처분했으면 했다. 그래도 나는 골새 밭에 나무도 심고 울타리도 해서 다양한 꽃도 심었다.

콘테이너도 갖다 놓고 그 속에 방과 부엌, 화장실도 만들어 생활할 수 여건을 만들었다. 부산에서 휴일 고향에 어머니도 뵙고, 밭에 와서 채소도 가꾸고 땀을 흘리는 것이 즐거웠다. 한 달에 2~3번은 시골로 와서 밭을 가꾸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갔다. 부산에서 언양으로 이사를 하면서 한결 시골가는 것이 쉬워졌고, 밭에 미래를 구상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구체화 할 수 있었다.



나의 못안 전원주택

500여 평의 못안 큰말 골새 밭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주위에 축대를 쌓고, 건축설계도 확정했다. 퇴임 6개월 전에 건축업자를 선정하여 2011년 11월 초에 전원주택 신축에 들어갔다.

좋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이미 지어진 모델주택을 구하기 위해 전국을 통해 답사도 많이 했다. 한옥, 철근콘크리트, 목조, 판넬 등의 주택자재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친환경적인 목구조 주택을 짓기로 결정했다. 건축을 시작하여 8개월여 만에 퇴직과 거의 동시에 집을 완성할 수 있었다.

집만 지었지 출입구 포장, 담장, 조경, 발작물의 배치 등 해야 할 일이 계속하여 이어졌다. 황토방의 땀감을 마련하는 것, 장작 쌓아둘 곳, 각종 농·작업도구 구입, 이를 활용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 등 할 일이 끝이 없었다. 1년 넘게 정리를 하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언양 주위의 소호리, 배내골, 두동 만화리, 은편리, 상북면 거리 등에서 도시 사람들이 전원생활을 꿈꾸고 귀촌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귀농·귀촌

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3년 전후로 다시 이촌향도(離村向都)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60이 넘는 나이에 귀촌한 사람들은 들어 올 때는 큰 꿈을 가졌으나,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더불어 사는 도시생활이 그리워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외손, 예준 하윤

큰말 친환경 오리벼 재배

2012년 8월 29일 정년 퇴임식을 했다. 39년 6개월 교직에 근무했다. 젊었을 때는 50대 중반쯤 명퇴를 하기로 작정을 했다. 세월이 흐르고 승진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직관을 펼쳐보고 싶었다. 사람의 마음은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정상인가 보다. 그렇게 지루하고 퇴직하는 것이 기대되었는데 막상 퇴직하는 날이 가까이 오면서 퇴직 후가 걱정되었다.

나는 2012년 4월 퇴직 준비를 위한 연수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받았다. 그곳에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직종의 공무원이 같이 연수를 받았다. 저마다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들과 연수를 받으면서 서로의 계획들에 대해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나는 시골에서 전원생활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을 자신 있게 여러 사람들 앞에 발표도 했다.

2012년 8월말로 비로소 생의 내 젊음을 받친 교직에서 퇴임을 했다. 처음 얼마간은 갈 곳이 없는 구심점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한 마음을 메울 방법은 없었다. 선배들이 “현직이 꽃방석이다”고 한 말이 실감이 났다.

언양집에서 7분 거리인 못안 전원주택을 오가며 미진한 마무리 공사를 차근차근 해 나갔다. 주차장을 만드는 일, 대문 진입로 포장 공사, 건축물 바로 앞 화단 석축 다시 쌓기, 화단의 꽃과 나무 심기, 마당의 잔디심기 등 하루 종일 바쁘기만 했다. 발작물의 가을견이를 마치고, 엔진 톱을 준비하여 산으로 화목을 구하러 갔다. 지난겨울 화장산에 불이 나서 나무를 구하기가 쉬웠다. 승용차 뒤 트렁크에 가득 실어 날랐다. 주위의 화물차를 빌려 나무를 실어 나르기도 했다. 해온 나무를 톱으로 잘라 장작을 쌓는 재미도 좋았다. 그 장작을 황토방 부엌에 군불을 넣을 때는 흐뭇했다. 황토로 만

든 구들, 황토 벽돌의 벽채, 편백나무로 만든 천정, 한옥의 문살 등으로 구성된 황토방에서 잠을 자고 나니 몸이 더욱 건강해 진 것 같았다.

고향 마을 큰말은 이미 수년전부터 울주군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벼농사를 하고 있었다. 울주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친환경 오리농법 벼농사」단지를 지정하고, 여러 가지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었다. 블록마다 오리 막사를 지었고, 종자를 소독하고, 친환경 배양균을 만들고, 수확한 벼는 전량 농협에서 좋은 가격으로 수매를 했다. 남은 농사를 짓고 있던 논을 내가 직접 짓기로 했다. 작목반에서 종자소독, 배양균 살포 등을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 매일 가구별로 영농일지를 작성하여 농협에 제출했다. 오리가 먹을 사료를 지원받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리 모이를 주러 다녔다. 비오는 장마철 모이를 매일 주는 것이 힘이 들었다. 오리 막사에 냄새가 고약했으며, 저녁에는 오리를 막사에 가두고, 아침에는 오리를 논으로 내어 놓아 잡초나 병충해를 잡아먹도록 했다. 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비료는 주위사람들 보다 1/3로 줄여서 사용했다. 수확량은 적더라도 친환경 벼 재배 규정을 철저히 이행했다.

농사를 지어면서 가장 힘든 과정은 제초제를 뿌리지 않아서 모 심은 2주일 후에 벼 심은 논에서 모자리처럼 피가 새파랗게 돌아났다. 피를 뽑는데 7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제 피는 다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중간 중간 피가 벼보다 더 많이 자라 속아 주었다. 벼가 익어 갈 무렵, 더 많은 피가 피어나서 3일 정도 피를 뽑았다. 농민들이 제초제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제초제 없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정말 힘들음을 새삼 깨달았다.

첫 벼 재배로 수확하는 기쁨이 컸다. 600평 한 블록에 벼 10섬이 수확되었다. 나는 수확한 벼를 1가마도 매상을 하지 않았다. 가족은 물론 친척들

과 나누어 먹고 싶었다. 벼를 트랙터로 수확한 트랙터 주인이 집 마당까지 실어다 주었다. 마대 적은 것 4포대가 한 섬이다. 40포대를 마당에 쌓아 놓고, 다시 햇빛 좋은 날 마당에서 말렸다. 일조량이 좋으면 3일정도이다. 한 번에 말릴 수 있는 량이 3섬 정도이다. 10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11월 늦 가을 비라도 내리면, 다시 마대에 담아 쌓아 놓아야 했다.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이나 학창시절에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면 옆에서 도와 드렸다. 농사를 직접지어 보니 힘든 과정을 알게 되었고, 많은 농사를 지으면서 힘든 과정을 새삼 이해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아버지의 힘듦을 잘 모르고 지난 것 같았다. 벼 도정과정도 우리 집 방아로 직접 하였다. 20키로 한 포대씩 포장하여 택배로 자식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부쳤다. 받는 사람은 몰라도 농사지은 나는 흐뭇한 보람을 느껴보기도 했다. 텃밭에서 채소나 과일을 재배해 보지만, 논에서 재배하는 벼농사는 힘이 들었다. 요 즘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등의 기계로 농사를 지어도 사람의 정성과 노력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야 했다. 식탁에 오르는 쌀 한 톨 채소 한 잎이라도 가벼이 할 수 없는 이유다.

▶ 이 글은 김재걸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2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내 삶의 즐거움, 나의 비타민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미완의 행복 스케치

도재환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_울산

자전거로 배우는 인생

주말이면 친구나 동호인들과 함께 주변의 산과 강변을 따라 자전거 라이딩을 하게 된 지도 벌써 4년이나 되었다.

자전거에 관심을 가진 것은 4대강 사업에 따른 국토종주 자전거 붐에 따른 영향이 크다. 무릎에 통증이 재발하여 좋아하던 등산도 피하고 있을 때, 한 선배가 “아침저녁으로 자전거를 탔더니 건강이 매우 좋아졌다”며 권유를 받은 영향도 있다.

그 선배는 하산할 때 평지에서 걷는 것보다 자기 체중보다 몇 배의 하중을 받기에 무릎이 안 좋다면 자전거를 타 보라고 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안장이 체중을 받쳐 주기 때문에 등산보다 하중을 덜 받고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원심력에 의한 페달 회전으로 다리근육 강화에도 도움 된다고 했다.

최근 회사에서 퇴직한 초등학교 동기가 자전거를 함께 타자고했다. 마침 선배로부터 권유를 받고 있던 터라 그러자고 했다. 큰마음 먹고 중고 MTB 자전거와 헬멧, 신발, 자전거의류 등 필요한 자전거용품을 구입하였다.

자전거 코스는 주로 내가 살고 있는 태화강 상류에서 하루까지 왕복 30여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체력을 다졌다. 자신이 조금씩 붙으니까 무룡산 고갯길을 비롯한 주변의 산길과 강변길, 또 멀리는 영천 보문산, 낙동강 종주 길을 구간별로 나눠 당일치기로 다녀오곤 했다. 지난해 하계휴가 때는 동해안 자전거 길을 다녀왔고, 금년 1월에는 제주도 환상 자전거 길을 완주했다.

자전거와 함께라면 평탄한 길은 평탄한대로, 산길은 산길대로, 강변길은 강변길대로, 해변 길은 해변 길대로 그 나름의 묘미가 있다. 계절 따라 피고 지는 산야의 아름다운 꽃이며, 호수와 강에 이르면 철새들의 군무와 석양의 눈부신 장관을 볼 수 있다. 계곡을 따라 산길에 들어서면 맑은 솔향기와 청량한 바람을 있어 좋다. 끝없이 펼쳐지는 해안 길에서는 푸른 바다와 백사장을 적시는 하얀 파도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려면 생활용, 산악용, 로드용 등의 용도에 따라 기어 변속과 라이딩 요령을 터득해야한다. 산악용 자전거의 경우 내리막길에서는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고 두 다리로 힘주어 무게중심을 뒤쪽에 두어야한다. 커브 길에서는 안쪽 페달을 밟은 다리는 꼬부리고 바깥쪽 다리는 쪽 펴서 탈선을 방지해야한다. 아차 싶어 브레이크를 황급히 당기면 앞으로 고꾸라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다. 브레이크를 당길 때는 경사도, 속력, 회전방향을 고려하여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에 적당히 안배해야한다. 오르막길에서는 핸들은 꼭 쥐고 무게중심을 가급적 앞쪽으로 당겨서 원운동의 페달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전거 여행은 삶의 여정과 비유되기도 한다. 인생길처럼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도 있다. 초행길은 망설여지기도 한다. 길을 잘못 들어서면 한동안 해매거나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비포장의 험한 산길이나 가파른 길을 오를 때는 숨이 차고 페달을 밟기도 힘이 든다. 내리막길은 스키장의 활강처럼 페달을 밟지 않아도 쉽게 달릴 수 있다. 급경사의 길은 포장도로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천 보문산 길을 라이딩한 적이 있었다.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의 완만한 길이 아닌 가파른 지름길을 택했다. 산길을 몇 번 타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가파른 길은 처음이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땀이 나고 떨려 두려웠다. 조금만 방심해도 쏜살같은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웠다. 라이딩 요령에 따라 주의를 집중하니 어느새 입구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 정말 스틸 만점이었다. 이처럼 어려운 난국에서도 만반의 준비로 대처한다면 인생도 스틸 있는 여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동해안의 평탄한 자전거 길에서 순간의 방심으로 여행 기분을 망친 적이 있다. 정동진 해변도로를 달리면서 한손으로 마스크를 고쳐 맨다는 것이 앞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모르고 지나치는 순간 자전거와 함께 나뒹굴어져 손목을 크게 뺀 적이 있다. 아무리 평탄한 길이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사고를 당하기 쉬운 것이 자전거 라이딩이고, 인생길이다.

제주도 환상 자전거길인 대정읍에서 김녕읍 해변길까지 달린 적이 있다. 성산일출봉을 지날 때 이미 짧은 겨울 해는 지고, 김녕 해변의 풍력발전소 부근을 지날 때는 칠혹 같은 밤이었다. 풍차에 의해 가속을 받은 매서운 북풍이 자전거를 흔들어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었다. 우리 일행은 기러기 떼가 이동하는 것처럼 교대로 선두에서 이끌고 나머지는 뒤에 밀착해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사회생활에서도 혼

자서는 버거운 일이라도 여럿이 협력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수가 있다.

곳은 날씨에 비바람마저 앞을 가로 막을 때는 페달을 힘껏 밟아도 잘 나가지 않는다. 날씨 좋은 날에는 바람이 동행을 하거나 등을 밀어주기도 해 힘들이지 않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인생 또한 그러하다. 남의 도움으로 운 좋게 승진하거나 사업에 성공할 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우리는 종종 남 탓하기에는 바쁘지만, 그 도움은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

자전거를 타고 일상 속을 달릴 때가 있다. 가끔은 자전거와 멀리 떠나는 동반자가 되어 기수와 경주마처럼 일심동체가 되어 달린다. 달리는 그 자체에 몰입하면 된다. 친구랑 둘이서 나란히 달리거나 여럿이 줄지어 달리면 함께 하면 더 좋은 것이 자전거 라이딩이다. 천천히 달려도 좋고, 빨리 달려도 좋다. 달릴 때는 힘이 들지만 완주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바람을 가르며 달려가는 그 상쾌함을 만끽할 수 있어 더욱 좋다.

퇴직 유감

평생을 직장에 근무한 대가로 금년 1월부터 공로연수로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어 취미활동을 해볼까하여 책상 의자와 노트북을 새로 구입하였다. 밤늦게 책상 앞에 앉아 책을 보거나 글을 쓰고 있노라면 아내는 “돈도 안 되는 공부는 뭐하러 하느냐”며 비아냥거린다. 낮에도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지니까 나에게 “세탁물 널어라 바닥 청소하라”는 등의 부탁 아닌 지시가 늘어간다. 그럴 때면 은근히 퇴직자의 신세를 실감하게 된다.

오늘 아침에도 직장 출근한 아내로부터 “까뚝”하면서 문자메시지가 왔다. 열어보니, “여보 카드비 모자람. 송금해줘”라는 내용이었다. 집에 놓고 있는 마당에 아내의 송금요청 문자에 톨을 달지도 못하고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뱅킹앱을 열었다. 이체서비스에 이체금액과 계좌번호 등 입금정보를 입력하니 생전 처음 보는 문자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사고등록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영업점에 직접 가서 해결하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은행 전산시스템으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퇴직자들에게 일제히 보낸 메시지이겠지만, 그 동안 아무런 예고나 안내도 없이 은행거래가 중지된 것이다.

때마침 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도 왔다. 불쾌했다. 정년퇴직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안 그래도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이 오늘 입금된다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은행에 나가 대출금을 상환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이야. “퇴직하고 보니 은행부터 안면을 몰수 하더라”는 직장 선배의 말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은행에 나가서 지점장을 만났다. 조금 전에 나랑 같이 퇴직한 모 국장으로부터 “너거들! 정말 그래 할래? 요새 은행은 예금자보다 대출자를 우수 고객으로 모시는데 정년퇴직 축하는 못해 줄망정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동결 조치하는 버릇은 어디에서 배웠냐!”며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렇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은행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고객님 사랑합니다’라는 감동의 전화멘트도 모자라 직원 친절교육이다, 고객만족도 평가 등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던데, 이제 퇴직자는 고객도 아니란 말인가?

직장근무 때 금고계약 등 금융 관련 업무에 협조해 왔던 나로서도 섭섭했다. 그래서 지점장에게 “있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에게 섭섭지 않게 하는 것이 고객관리에도 중요하다”며 퇴직 고객들에게도 신경을 좀 쓰도록 하라며 충고를 하고 은행 문을 나섰다.

서운한 감정은 이것뿐만 아니다. 며칠 전에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정부 훈포장 전수식이 있었다. 엿그제 담당자로부터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한통 딸랑 왔을 때, 식장은 접견실이라고 했다. 접견실은 수상자, 간부들과 진행요원들이야 들어갈 수 있지만 수상자 가족까지 와서 함께 하기에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가족들에게 그 사정을 들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공로연수로 그냥 나왔던 터라 훈포장 수상과 정년퇴직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내가 모처럼 휴가를 받아 딸아이와 함께 꽃을 주문하고 식장에 입고나갈 옷을 고르는 등 준비를 나 몰래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다, 오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어찌 공직자 한 사람만의 공이었겠는가 말없이 내조해온 배우자나 가족들도 같이 축하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요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전과 주요 행사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검소하게 치러지는 추세다. 그렇다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정신은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날 행사는 접견실에서 훈포장을 전수하고 차한 잔 나누자는 정도로 진행되었다. 기념 플래카드도 없어 간소하다고 하기에는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보니 나도 수년 전 이 업무를 총괄했을 때 제대로 정립시키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때 퇴직한 선배와 그 가족들도 말은 안했지만 아마 서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오버랩 되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퇴직으로 인한 섭섭한 심기의 발로는 아니런가.

퇴직하면 돈 쓸 일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동안 연락이 없던 퇴직자들의 모임에도 나오라는 연락이 오고, 스크린 골프도 자주 치자는 연락이 왔다. 또 고향 향우회에서 회장할 사람 없으니 꼭 맡아 달라고 해 바쁘다는 핑계를 더 이상 댈 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맡기로 했

다. 현직에 있을 때는 아플 여가도 없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병원에 갈일도 자주 생기는 것 같다. 친구와 직장동료들의 자녀 결혼 축의금도 이만 저만 나가는게 아니다. 그동안 받던 봉급보다 대폭 쪼그라든 연금으로 생활을 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보니, 기술이 있는 사람은 관련 회사에 재취직하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아파트 관리요원이나 주차장관리요원으로도 일을 하고 있었다. 또 어떤 선배들은 귀농 귀촌 교육을 받는다.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들처럼 귀농 귀촌이나 재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찾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무슨 일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공직 관련 일뿐인데, ‘관피아’ 문제로 그런 직장에 재취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늘도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궁리를 해보지만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다.

▶ 이 글은 도재환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3

II. 일화: 그대 그런 일이 있었네

내 삶의 즐거움, 나의 비타민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꿈을 향한 새로운 길

신준식 | 전주시립완산도서관_전북

꿈을 향한 새로운 길

초등학교 사, 오학년 때의 일이다. 평소에는 동네 앞 돌 다리를 건너서 학교에 가야한다. 비가 많이 오면 냇물이 많아져 도저히 돌다리로는 건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좁고 어설픈 산길로 돌아가야 했다. 1.5킬로미터 정도 하류 쪽으로 걸어가면 신작로에 견고한 시멘트 다리가 있었다. 그 다리로 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야 했다. 아마 복숭아가 익어가는 7월 중순 쯤 되었을 것이다. 전날 비가 많이 와서 학교를 갈 때, 그리로 돌아서 가야 했다. 당연히 하교 길에도 그렇게 돌아와야 했다. 냇가 옆에 잇는 길을 가다 보면 산과 논밭도 있었다. 그 중에 복숭아밭이 있었다. 걷다보면 정말 배가 고팠다. 복숭아밭을 지날 때 탐스런 복숭아가 눈에 띄었다. 손이 저절로 복숭아한테 갔다. 막 복숭아를 따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호통 치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이 재빠르게 달려오는 게 아닌가. 몹시 꾸중을 들은 것 같

은데 그 다음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수줍고 순박했었다. 아마도 좁 겁에 질려 울먹이면서 용서를 빌었을 것이다. 그 사건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가지게 했다. 그 후부터는 그 밭을 지날 때마다 그 놀랍고 당황했던 기억이 떠올라 아예 복숭아를 바라보지도 않고 피해 다녔다. 나는 형편없이 쪼그라드는 듯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배가 출출했고, 분홍빛 복숭아는 너무나 탐스러웠다. 하지만 따먹지도 못하고 손만 뻗었던 그때, 한 번도 누군가에게 호되게 당한 일이 없던 나에게서는 너무나 큰 자극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때 일 덕분에 그 뒤, 나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우리 집 가훈을 성실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큰 뜻을 품자는 의미로 '성실(誠實)·대지(大志)'로 한 것도 초등학교 사학년 때 그 일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가족 그룹 카카오 톡 대문에도 이 말을 키워드로 올려놓았다.

또 하나, 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초등학교 오학년 때의 일일 것이다. 한동네 사는 친한 친구 세 명이 있었는데 그때 두 명에서 한 명을 얼음 속에 묻었다. 얼음 구덩이 속에 밭을 넣고는 계속 눈을 끼얹었다.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있었다. 우리 둘이는 그런 꼴이 재미있어서 그 아이의 밭이 시릴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즐겼다. 생각해보면 잔인했다. 아마도 그 친구는 우리보다 생활 살이가 좀 못해서 눈치를 본 듯도 했다. 우리는 뭔가 먹을 것이 생기면 그 친구한테 주곤 했던 것이다. 같이 장난을 치던 친구 어머니는 포목상을 운영해서 그 집도 먹고 살만 했다.

세월이 아주 많이 지난 후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에 가서 우리는 그 친구에게 우리가 했던 짓을 기억하며 정말 그때 몹쓸 짓을 했다고 소근 거렸다. 그런데도 진작은 그 친구한테 직접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정말 미

안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문제는 실컷 그렇게 할 때는 몰랐다는 거였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당하고 있는 친구를 뚫어주는 것이 재미있었다. 우리는 정말 철이 없었다. 이렇게 글로 용서를 빈다. 미안하다, 친구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야하는데 내가 살던 곳 주위에는 중학교가 없었다. 담임선생님은 내가 전주에 있는 유명한 중학교에 갈 수 있는 실력이라고 우리 부모님을 설득했다. 그때 우리 선생님은 무척 친척적인 성격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화학 실험을 함께 하도록 하셨다. 우리는 사이다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그것을 공개수업 시간에 발표하기로 했다. 선생님이 나를 지목해서, 나는 앞에 나가서 발표를 도맡아 했다. 발표는 성공적으로 잘 했다. 이영수 선생님은 내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그때 받은 칭찬으로 나는 살아오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영수 선생님이 추천하신대로 나는 그 학교에 원서를 내서 합격을 했다. 그 학교에는 우리 초등학교에서 단 세 명이 입학했는데 한명은 보결생 자리가 있어서 입학했다. 그 아이 집은 당시 정미소를 했다. 이른바 부자 집 외아들이었다. 나 말고 다른 한 명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에 다니다가 도중 하차를 했다.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당당하게 합격해서 끝까지 다녔다는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었다. 만약 이영수 선생님이 나를 적극 추천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를 일이었다. 선생님이 복돋아준 희망과 격려는 두고두고 내게 큰 힘이 되곤 했다. 이후 나는 성인이 되어서도 선생님이 작고하실 때까지 몇 번 찾아가서 뵈곤 하였다.

전주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거처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의 집 문 칸 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 작은 단칸방에서 나와 형님 고모 집 형제 네 명이서 함께 어울려 자취생활을 했다. 작은 아버지는 딸이 많아서인지 유독 남자조카들을 좋아하고 많이 보살펴 주셨다. 나는 그 당시 작은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혜택을 많이 받았다. 말씀 한 마디를 건네도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를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런데 막상 내가 자라서는 조카들한테 작은 아버지처럼 인자하게 못하고 있다. 작은 아버지한테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거처하는 방에는 겨울에도 난방을 할 방법이 없었다. 겨우 유담프(더운물을 조그마한 용기에 담아서 베로 싸 놓은 것)을 쓰거나 고다쓰(전구를 켜서 그 열을 이용하는 작은 나무통)를 이불 속에 넣고 발밑만 따스하게 유지하는 게 다였다. 겨울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 위의 잉크병의 잉크가 얼어 있을 때도 많았다. 밥은 석유곤로로 하고 반찬은 김치에다 시골에서 갖고 온 된장이 전부였다. 여름에는 낚싯대를 가지고 전주 천으로 가서 피라미를 잡아서 시래기를 넣고 찌개를 끓여 먹었다. 그 당시 우리에게 유일한 고기반찬이었다. 그래서 시래기만 건져먹고는 다시 고기는 그대로 두고 또 몇 번이고 시래기를 또 넣어서 끓여 먹곤 했다.

우리가 살던 바로 앞집은 빵공장이었다. 빵을 손질하고 남은 빵의 테두리 부분을 우리에게 거저 줄 때도 있었다.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다. 가끔은 그걸 돈을 주고 사먹기도 했다. 빵공장에서 나는 향긋하고 구수한 냄새는 입 안에 군침이 돌고, 그 냄새는 지금도 생생하다. 식수로 작두샘물을 길러 먹었다. 일식가옥으로 된 뜰에 있었다. 먼저 마중물을 넣고 한참 작두질을 하면 그런대로 물이 잘 올라 왔다. 어떤 때는 하얀 새우 같은 것이 올라오곤 했다. 마치 동굴에 가면 볼 수 있는 수심이 깊은 데서 사는 수

중 생물로 생각된다. 그 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다. 끓이지도 않고 한 사발씩 시원하게 마실 때도 있었다. 수질 오염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물이어서 그대로 마신다는 것은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때는 별탈이 없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며 형제들 하고도 오손도손 잘 지냈다. 다들 체력을 열심히 단련했다. 그 당시에는 6·25 전쟁을 막 끝낸 때라 힘센 놈이 최고라는 인식이 팽배해질 때였다. 사회가 불안하니, 체력을 길러야한다는 것이 대세였다. 집집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한 간단한 도구들이 있었다.

6·25 전쟁때를 잠시 더듬어보면 우리 집은 다행히도 큰 피해가 없었다. 반공호를 파서 대피하긴 했지만, 따로 피난을 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울 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꽤 있었다. 나는 곤봉이며 시멘트와 현 양동으로 직접 제작한 역기 아령 등으로 부지런히 체력을 단련시켰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 제법 근육이 울퉁불퉁 생기기도 했다. 방학 때 고향에 돌아가면 어른들이 누구 팔뚝은 계집애들 허벅지만하다고 수근 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곤 했다.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던 시절이었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 최고로 멋지고 자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일까, 나는 좀 엉뚱한 도전을 해보았다.

고등학교 일학년 때의 일이다. 자전거를 타고 진안에서 전주까지 온 것이다. 그 때만해도 자전거는 흔하지 않았다. 숙부님께서 면 진료소 소장으로 계실 때였다. 원조구호물품이 진료소에 보급이 되었는데, 그 중에 자전거가 있었다. 숙부님께 내가 용감하게도 버스도 잘 다니지 않고 하니 자전거로 전주까지 가겠다고 말씀 드리니, 마지못해 그러라고 하셨다. 주위에 서는 다들 말렸다. 자전거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험한 길이라는 거였다. 그때는 지금처럼 포장된 곳이 별로 없었다. 아예 비포장인 흙길로 가야 했

다. 전주까지 가려면 재를 두개나 넘어야 했지만, 관촌에서 전주까지는 연속 내리막길이어서 내 깜냥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때 자전거는 기어는 요즘처럼 다단기어가 아니었다. 오로지 한 단의 기어만 장착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오르막길일 때는 내려서 힘들게 끌고 올라가야 했다. 첫 번째 재는 그런대로 넘었다. 두 번째 재에 이르러 자전거를 끌고 올라간 다음,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도중에는 너무 빨리 달려서인지 체인이 바퀴에서 벗겨지고 말았다. 그렇게 한 번 벗겨진 체인은 제자리에 갖다 놓아도 계속 또 벗겨지고 말았다. 할 수 없이 관촌에 와서 자전거포에 들렀다. 다시 고쳐서 전주까지 가는 동안에도 몇 번인가 체인이 벗겨져 내려서 다시 제자리에 놓곤 하였다.

결국 나는 해낸 것이다. 전주까지 자전거로 간 것이다. 그것은 순전히 오기였다. 한번 한다면 하고 말겠다는 결의 같은 것이 나를 이끌게 했다. 그 다음에는 고향에서 익산까지 가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한번 그렇게 하고나니 다른 것들이 별로 고생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하면 세상에 그다지 못할 일이 없어 보였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그 자전거는 못쓰게 되었을 것이다. 멀쩡한 자전거도 주저앉을 정도니 그 길이 험난한 길이긴 했다. 나에게서는 평생 못 잊을 크나큰 모험이고, 멋진 경험이었다.

역시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일이다. 우리 형제들은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때는 시골에 돌아가서 농사일도 돕고 숙제도 하곤 했다. 그렇게 복작거리며 활발하게 놀던 우리 형제의 행동을 그윽하게 바라보던 어머니의 흡족해 하시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어머니의 얼굴 가득 흐뭇한 미소가 번져있었다. 시골에 오 일마다 장이 섰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거든 농산물을 바리바리 싸서 머리에 이고는 이 킬로미터가 넘는 먼 거리를 걸어가셨

다. 그것을 팔아서 다음 모내기 때를 준비하며 일꾼들 먹거리 반찬을 사오는 거였다. 그렇게 간갈치나 간고등어를 사가지고 오셨다. 그때에 맞춰 꼭 빠지않고 사오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내가 좋아하는 물오징어를 사가지고 오시는 거였다. 장에 다녀온 어머니는 물오징어와 무를 넣고 국을 끓이셨다. 너무나 맛있었다. 나는 요사이도 가끔 물오징어와 무를 넣고 국을 끓여 먹는다. 그때 마다 그 시절의 어머니가 떠오르곤 한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속스러운 듯 몇 마디 말을 털어 놓으셨다. 그 당시 장에 가면 먹고 싶은 것들이 즐비한데도 참고가지고 간 물건을 팔려고 내놓고 지키고 있다고 하셨다. 점심때가 되어서 너무나 배가 고프면, 인근 상점에 쫓아 들어가서 물 한 그릇을 얻어먹는 게 다였다고 한다. 그렇게 주린 배를 안고 먼 길을 걸어가서는 또 올 때도 머리에 잔뜩 땀을 이고서 시장을 다녀오셨다는 거였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아렸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할 수 있는 한,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하면서 정작 당신은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셨던 것이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 그래도 자식들 먹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하셨으리라.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짝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사랑을 절대 따라할 수가 없다. 나는 어머니한테 받은 만큼 자식들한테 주지 못했던 것 같다. 어머니는 셋째 아들인 나를 제일 좋아하셨다. 그런데 나는 늘 불효자식이었다. 특히 임종 무렵 나를 찾으셨다는데 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뵈지도 못하였다. 일이 바쁜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리라고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다. 금년부터 기일이 되면, 원불교 회관에서 기일제를 지내기로 했다. 어머니는 생전에 원불교를 믿으셨는데, 돌아가실 무렵에 기도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어떤 직위(백타원)를 받으셨다. 그동안 우리가 틈틈

이 준 용돈으로 단 한 번도 풍족하게 쓰지 않으시고, 오로지 자식들 복 받으라고 기도하면서 법당에 헌금을 하셨던 거였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생전에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말을 이 글에서라도 해 봅니다.” 지금 내가 손자, 손녀까지 둔 나이에 이르러 어머니를 다시 떠올려본다. 지금 나는 자식들이 제 살기 바빠서 자식들, 자기 가족들만 챙기는 것 같아서 가끔씩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 그런데 나 역시도 그랬다. 결혼한 뒤로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어머니의 나이가 되니 이제야 어머니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 어머니 역시 섭섭한 마음이드셨겠지만, 단 한 번도 우리 형제들에게 그러한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 어머니를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 이제 나는 자식들이 그저 자기들끼리 어울려 건강하게 살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여기고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행복한 모습이 바로 내 행복인 것이다. 게다가 나는 이제 홀로 깨끗하게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그렇게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

▶ 이 글은 신준식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4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내 삶의 즐거움, 나의 비타민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무지개 빛 고백

서금옥 | 인천광역시율목도서관_인천

반짝반짝 빛나는 내 삶

나의 멋

나는 촌스러운 여인이다.

똑같은 옷을 입어도 친구는 명품 같은데, 나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품이 나지 않는다. 신경을 써서 화장을 하면 내 모습에 놀라기도 한다. 미장원 원장이 파마를 세련되게 귀티 나게 해주어도 하루 지나면 촌스러워진다.

막내딸에게 넌 무엇을 해도, 어떤 옷을 입어도, 멋지고 세련미가 넘쳐서 부럽다고 했더니, 딸은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는 화장을 한 듯 안한 듯 루즈만 발라도 환하니 멋있단다. 70세가 되었는데도 피부가 뽀얗고 미소가 예쁜데, 그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멋이란다. 또 누구와도 소통을 잘하고 음식을 맛있게 잘하는 멋도 가지고 있단다. 샘물처럼 투명한 사랑을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는 멋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멋이란다.

“와, 그럼 난 몇 부자네!”
 나는 두 딸의 말을 언제나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살면서 나이에 부끄럽지 않는 할망구가 되어 향기 나는 멋을 간직하며 살고
 싶다.

제비처럼 날던 그때 그 시절

7살에서 8살

난 초등학교에서 고무줄을 뛰어나게 잘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고무줄, 그네뛰기는 200번씩 했다.
 팔을 높이 들어 줄이 아무리 높아도
 제비처럼 날아서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착지를 했다.
 옛날에는 마른 사람을 ‘개미 허리’, ‘갈비’라 했다.
 친구들은 나를 ‘막대기’, ‘개미 허리’라고 불렀다.
 그래도 난 달리기를 잘해서 운동회 때는 릴레이를 했다.
 고무줄 줄넘기는 선수였다.
 지금은 60kg의 몸무게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속상하지만, 3남매 엄마가
 되었으니 만족한다.

팔 범벅

나는 강화 교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릴 때는 ‘간식’이란 단어도 모르고 살았다. 들과 산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아
 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딸기, 머루, 싱아를 따 먹었다. 여름에는 들에 참외, 무,
 토마토 등 먹을 것이 많아서 좋았다. 겨울에는 고무마를 삶아먹거나 난룻불

에 구워서 먹었는데, 달달한 맛에 반해 배가 불러도 바구니에 담긴 고구마가 없어질 때까지 먹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억나는 음식은 여름 장맛비가 며칠씩 올 때 엄마가 해주던 구수하고 쫄쫄한 팔 범벅이다.

팔 범벅은 황해도가 고향인 엄마의 별미였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수제비보다 크게 떼어서 솥에 넣고 팔을 뿌리고, 또 수제비를 떼어 놓고 팔을 솔솔 얹어 익으면 뒤집어 가면서 신화당 물을 솔솔 뿌렸다가 뜸이 들면 먹었다.

익는 냄새가 나면 이웃 아줌마들이 엄마의 범벅 솥씨를 알고 하나, 둘 모여 들었다. 오이지를 한 양푼 썰어서 구수한 범벅을 먹으면 씨끌씨끌 온 집안이 떠들썩했다. 난 먹지 않아도 기분이 너무 좋았다. 엄마가 자랑스럽고, 엄마가 산타할머니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보였다.

지금은 맛있는 떡, 빵, 피자가 있지만 팔 범벅 맛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이면, 저 세상에 계신 엄마가 보고 싶어 가슴이 먹먹하다. 어린 시절 그때가 그립다.

▶ 이 글은 서금옥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5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내 삶의 즐거움, 나의 비타민



II. 일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네

삶의 여백이 주는 행복

최교상 | 인천광역시율목도서관_인천

중년에 시작한 취미생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나이가 들어 할 수 없게 되자, 조금씩 해왔던 주식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기로 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대우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실시하는 홈트레이딩 교육을 받았다. 2주일간의 투자자교육에 참석하며 여성단체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투자자들과 채팅을 통해 정보 교환도 하고 홈트레이딩을 하면서 전국 투자자교육 1기에서 만난 박영식, 임정숙(현 아키아연대대표)와 서울 여성단체 아키아연대(아줌마가 키우는 아줌마 연대)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한때는 열심히 활동했지만 서울까지 다니며 활동하는 것이 그림 그리는 시간에 지장이 되어 활동을 줄이고 요즘은 일 년에 몇 번씩 행사에만 참석하고 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던 나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중년 건강교실에 다니며 그동안 못했던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때 난생 처음 건강수기 “열심히 살다보

니 행복해요”를 써서 상과 함께 부상으로 건강 검진권을 받아 남편에게 선물했다. 아무튼 이렇게 활동하다보니 중구에 사는 많은 중년 여성들을 알게 되었고 생활체육 여성위원회 팀장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중구 백여 명의 여성들과 매달 1회 모여 5년간 운동을 했고 매년 1회 체육대회도 개최했다. 지금은 지원금이 끊겨 잠시 쉬고 있지만 임원들끼리 하는 모임은 아직 갖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하나 둘 활동범위도 넓어져 갔다. 2005년부터 틈틈이 하던 녹색교통봉사단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센터 월디기자단을 거쳐 지금은 안전모니터봉사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때는 자원봉사와 함께 성화 봉송도 하며 잊지 못할 추억도 남겼다. 지금까지 1800여 시간 넘는 봉사를 해 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뿌듯한 보람도 많이 느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자서전에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다. 집안에서 살림만 하던 내가 문밖에 나왔을 때 정말 그랬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너무 많았다.

하지만 봉사도 좋지만 뭔가 나만의 개성이 담긴 의미 있는 일,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고 싶었다. 정희 친구와 여성회관에 다니면서 채색화를 했는데 문화센터는 몇 년 다녔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



다. 여러 명이 한데 모여서 수업을 하다 보니 시간도 부족하지만 분위기도 산만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삼영 선생님의 화실에 다니며 수채화부터 차근차근 배우다가, 문득 우리나라 전통 수묵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통수묵화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싫었고 현대적인 선 구성법으로 멋지게 그리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 작품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고심도 많이 한다. 어느 때 “내가 왜 늦게 되지도 않는 그림을 그리느냐고 스트레스를 받나. 재미있는 일들도 많은데”라고 낚두리를 하면 선생님께서는 “그래, 그만두고 재미난 일 해” 하신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해온 세월이 얼마데 억울해서 못 그만두지요”라고 대답한다.

다른 그림도 어렵지만 한국화는 재료 특성상 선을 잘못 쓰면 수정을 할 수가 없다. 반면 맘먹은 대로 작품이 잘 나오면 큰 성취감도 맛볼 수 있어서 좋다.

2010년 나는 한국화가로 정식 입문했다

나는 2002년부터 인천사생회에 가입해 한 달에 두 번은 야외사생을 가고,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장거리 연수도 다니면서 사계절 따라 아름답게 변하는 자연의 색상과 모습을 스케치도 하고 작품으로 완성해 왔다.

한국미술협회에 2010년에 가입해 정식으로 화가 입문 과정도 거쳤다. 한국미협회원이 되려면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은 9년을 쉬지 않고 단체전에 출품해서 서류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뒤부터 지금까지 내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다음으

로 중요한 문제는 화실에서 작업을 하는 일이었다. 일주일에 두 번 화, 목요일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화실에 가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 한국서화협회에서도 운영위원으로 사무 실명함까지 찍어줬다. 나름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다.

그동안 나는 개인전 4번을 했고 단체전은 123회 참여했다. 그 중에는 해외 초청전도 여러 번 있었다. 하와이 교류전, 중국 심양 한화회전에 참가했고 인도네시아 반둥전시회 초대받아 참가했다. 단순한 여행만이 아니고 초대받아 전시회 오픈식에도 참가해서 다른 나라 회원들의 작품 감상도 하고 초청국가 회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여행도 하면서 스케치도 함께 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그림으로 소통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비록 부족한 작품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록 속의 내 작품과 만나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무엇보다 남편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화가가 된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흐뭇해하며 지지해 주는 것이 큰 보람이다. 첫 개인전을 했을 때 작은 아들 진호는 도록을 정성스레 포장해서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림이 너무 좋다. 너의 어머님 화가시냐? 어머님 정말 멋지시다” 라고 했다며 좋아했다.

모든 예술이 그렇겠지만 그림도 깊이를 알아가면서 창작을 하려고 하면, 하면 할수록 어렵다. 느지막이 시작한 일이니 지나친 욕심을 부리기보다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내가 만족하는 작품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며 하루하루 곱게 나이가 들어갔으면 한다.

“조석원 씨, 나의 동반자이자 열정적인 나의 조력자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가족 모두 서로 사랑하며 건강하게 각자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소망한다.



Hawaii Honolulu



외암리에서 스승님과 사생을 하면서



Hawaii Waikiki



인도네시아 반등전시 오픈식



중국심양 전시장 오픈식



Indonesia Band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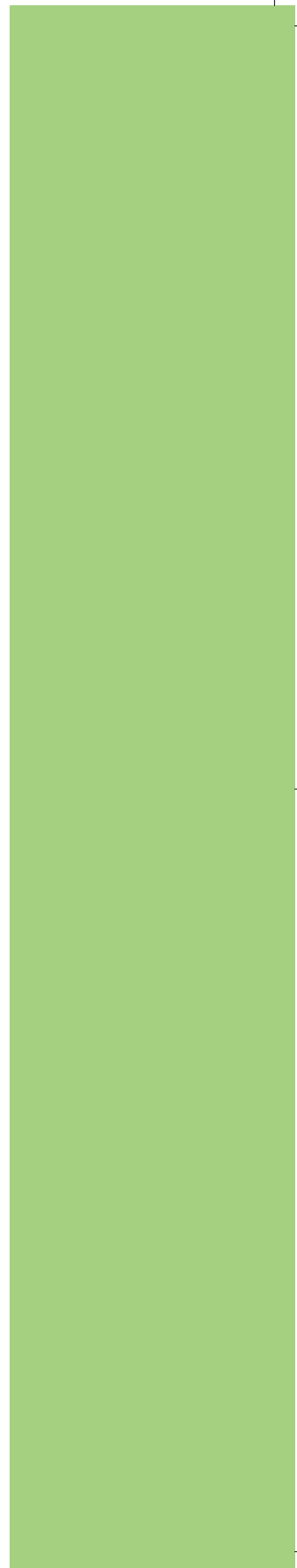
작가와의 대화(동방중학교 학생들)

▶ 이 글은 최고상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에게 인생을 묻는다.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자서전 쓰기 모임집



구술 : 아들 딸이 쓴 우리의 이야기

- 01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 02 노을이 그린 그림
- 03 파란만장 인생기
- 04 도박과 여행의 아들
- 05 인천에서 목포까지
- 06 두 번 가장이 된 나
- 07 20년 된 글러브에 담긴 이야기
- 08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 09 수없이 쓰러져도 일어서는 오뎅이처럼

III. 구술 : 아들 딸이 쓴 우리의 이야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김홍대 | 인천광역시유물도서관_인천

01



나의 아버지

지난 달 직장에서 연수가 있어 모처럼 고향인 부산에 갔다.

1주일간의 교육이 끝나는 마지막 날, 서울 가는 기차시간에서 몇 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어,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오기 전까지 살았던 곳을 가보기로 하였다. 비라도 뿌릴 듯 한 흐린 날씨에 버스를 갈아타고 내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가물거려 할 수 없이 남은 구간은 택시를 타고 가야만 했다.

드디어 도착한 그곳은 부산의 어느 변두리, 멀리 미군부대가 내려다보이는 동네 뒷동산 높이만큼의 언덕 위에 있는 낡은 아파트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 아파트는 퇴색된 회색빛 페인트가 다 벗겨진 채 예전의 낡은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 곧 시행되는 재개발 정비 공사로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고, 군데군데 수북이 쌓인 쓰레기와 벽면에는 붉은색 락카 뿔칠의 낙서가 어지럽게 휘갈겨져 있어 무척이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아파트는 철거 직전 흉물스러운 풍경 속에 홀로 서서 마치 오래 전부터 나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말없이 나를 반겨주는 듯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군대를 제대하고 서울로 가기 전까지 꽤 오랜 기간을 이곳에서 보내야만 했다. 처음엔 좁은 방에 5식구가 살았지만, 형들이 직장을 찾아 서울로 간 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 이렇게 3식구가 살았다.

그곳에서 살 때, 우리 집의 가세는 기울어질 때로 기울어져 바닥을 치고 있었다.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매일 술을 들며 쇠잔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지내야 했다. 어렸던 나는 그러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수용하기가 어려워 혼자 속앓이를 해야 했다. 그럴 때마다 유일한 은신처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아버지 몰래 집어온 몇 개비 담배를 피우며 마음을 달래곤 하였다. 결국 아버지는 내가 서울로 올라가 직장에 다닌 지 1년 만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경주 김 씨 문중의 장손이었는데 아래로 동생이 5명이나 있었고, 할아버지는 당시 동래부에서 벼슬을 하는 유지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부산의 전통 있는 명문고인 동래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미술을 전공으로 공부를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마을 행사의 운동경기 중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학을 포기하고 세무서에 취직하여 집안의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돌보아야만 하였다.

아버지는 동생들을 대학까지 다 졸업시키고, 해방 후에 세무서를 나와 사업을 했다. 돈을 잘 벌어서 한동안 무척 부유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태어날 쯤, 하던 사업이 점점 곤란해지면서 집안 형편이 어렵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몇 번의 사업을 새로 시도하였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마침내 우리 가족은 그곳 변두리 아파트에까지 밀려오게 된 것이다.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아버지는 유교 집안의 장손으로 항상 근엄하시고 예의와 법도를 중시하는 학자 같은 선비였다. 우리에게 언제나 어른에게 인사하기, 식사예절을 당부하셨다. 특히 제사예절은 그 무엇보다 양보 없는 규칙 준수를 강조하였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겨울밤을 대청마루에서 떨며 아버지의 제사 축문 읽는 소리와 곡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 형님이 지금도 제사만큼은 잘 챙기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때 배운 교육 탓이리라.

그러나 그보다 사업 실패로 드시는 술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도 이에 못지않았다. 타협을 모르는 꿈은 성품과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신 아버지에게 사업은 애당초 맞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거듭되는 실패는 친지들에게도 금전적으로 폐를 끼치게 되어 날로 주위의 원성이 높아졌고, 이것은 바로 우리 가족의 생활 궁핍으로 이어져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을 것이다.

말년에 아버지는 형들이 모두 직장을 찾아 서울로 올라가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술을 드시면 영탄조의 시조를 잘 읊으시고 한문 글씨와 그림에도 능해 서예와 그림을 곧잘 하곤 하셨다. 본인 생을 알았는지 나중에는 문중의 족보를 모두 정리하여 새로 제작한 다음, 책자로 만들어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작년 겨울, 부산에 살고 있는 사촌형님들과 오랜만에 만난 술자리에서 아버지께 대한 얘기를 들었다.

“야, 너는 어려서 모르겠지만 너희 아버지가 진짜 멋쟁이 신사였다 아이가. 동래고보 시절에는 악대부에서 트롬본이라는 긴 나팔을 불었는데, 아마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악기를 처음 불어본 사람일 까라. 할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니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되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하셨다.

나는 문득 오래전 옛날 앨범 안에 있던, 누렇게 빛이 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학창시절의 아버지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얼마 전 벽장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에는 아버지가 펜으로 그린 풍경화와 인물들 그림이 틈틈이 지은 글들과 함께 있었다. 그 시절의 정취와 예술적 감수성이 물씬 느껴지는 작품들이었다.

그 곳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곧 비가 내릴 듯이 빗방울이 한 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길을 따라 내려와 멀리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추억이 묻어 있던 그 아파트를 다시 한 번 바라보았다. 아파트는 묵묵히 서서 지나온 시간 속에 품고 있던 많은 사연과 아픔을 따뜻하게 녹이며 얽은 미소로 내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곧 철거되어 없어질 낡은 아파트를 오늘 무엇인가에 끌리듯 와서 이렇게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막내인 내가 어느덧 60의 나이에 접어들어 장성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 이 곳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지나간 추억을 생각해 보니 아버지는 나에게 다시 한 번 우리 집안에서 나의 자리를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삶의 방향을 얘기해 주려는 것 같았다.

조금씩 내리는 빗속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엄마의 말이 생각나 웃음이 나왔다. “걱정마라! 너는 괜찮을 끼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역 책을 다 풀이해 보고 막내인 니가 나중에 제일 잘 될 끼다”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

나는 힘들 때마다 떠올리던 이 말을 생각하며 속으로 나즈막이 “아버지……!”라고 불러 보고 서울로 가는 역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강인함을 물려주신 어머니

엄마는 93세, 지금 강릉 누나네 근처의 요양원에 계신다. 십 년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누님 집에 있다가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그동안 누님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친정어머니까지 모시느라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리 집안이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것은 어지신 누님의 이런 희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양원에서 엄마는 이런저런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는 부랴 부랴 찾아가 우리에게 배고프다며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시곤 하였다. 내가 자라면서 보아온 그 많은 힘든 일들을 굳건히 버티며 살아 오신 탓일까? 엄마는 ‘이정신’이란 이름 그대로 강인한 정신력을 지니신 것 같았다.

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해서 처음에는 피아노가 있는 큰 저택의 부자 집 마님으로 부유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막내인 내가 태어나고 점점 기울어져 가던 가세 때문에 5남매의 생활고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가 되자, 엄마는 하루하루를 억척스럽게 살아가야만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성당에 나가며 어려운 현실을 오로지 기도 생활로 이겨 나갔다.

생각해 보면 엄마는 아무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항상 웃으며 낙천적으로 살았고, 인정이 많아 주위 분들을 잘 챙겨서인지 어딜 가나 친구 분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 계신 요양원에서도 간식거리라도 있으면 꼭 한분 한분씩 다 나누어 주곤 해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어르신 대우를 받고 계시는 듯 했다.

나는 부산에서 올라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곳에서, 이권 개입의 구설수가 항상 뒤따르는 기술부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때로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힘으로 고비를 잘 넘겨 왔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마도 어머니의 강한 정신력과 밝은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독실한 신앙생활을 잘 물려받은 덕분인 것 같았다.

나는 내년이면 30년간 일해 온 직장생활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요즘 경조사로 상가 집이나 예식장을 찾을 때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연로한 어머니가 생각나, 내 퇴직 후에 돌아가시면 '집안의 큰일을 어떻게 치러야 하나?' 하는 현실적인 생각에 마음 한 편이 무거워져 온다.

어머니는 노래를 잘 하였는데, 특히 일본 노래를 잘 부르셨다. 노래방에 가면 젊은 시절부터 불렀던 '키미 코이시(연인이여)'란 옛날 노래를 나와 함께 곧잘 부르곤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나 혼자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날 것 같다. 이번 주말에는 오랫동안 가지 못한 강릉에 꼭 가 보아야겠다. 살아계실 때 어머니 얼굴을 한번이라도 더 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러...

▶ 이 글은 김홍대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II. 구술 :아들 딸이 쓴 우리의 이야기

노을이 그린 그림

이인희 | 인천광역시유물도서관_인천

02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사랑

‘후두둑 후두둑’

아궁이에 군불 지피는 소리에 눈이 떠지면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온기가 따뜻해서 좋았다.

‘쑤-욱, 쑤-’ 요강을 부시는 소리. ‘사각 사각 사각’ 싸리비로 마당을 쓰는 소리. 이른 아침마다 들려오던 할머니의 기척이다.

아궁이에서 수돗가를 거쳐 마당을 돌아 방에 들어온 할머니는 경대 앞에 앉아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성경책을 펼쳐 드셨다. 할머니는 부지런하셨다. 가만히 계시지 않고 늘 무엇인가를 하고 계셨다.

‘퍽퍽 퍽퍽’ 우물가에 가 방망이로 빨래를 두들겨 빨기도 하고, ‘따뚝 따뚝’ 마루에 앉아 다듬이 방망이로 옷감을 두드려 펴기도 하며, 밤에는 골무를 끼고 바느질도 하셨다. 워낙 깔끔하셔서 당신 것은 당신이 해야만 마음을 놓으셨다. 1960년대 겨울은 추웠다. 만두를 빚어 채반에 받쳐 마루에 내놓으면 땡땡 얼어붙을 정도였다. 그런 날도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움직이셨다.

‘부웅- 붕-’ 초등학교 4학년 봄, 할머니의 짐을 실은 차가 떠나자 눈물이 났다. 공장 일을 맡으신 할아버지를 따라 할머니가 구로동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다. 할머니가 없으니 방이 텅 빈 것 같았다.

방학이 되면 할머니 댁에 놀러갔는데 돌아올 때면 항상 눈물이 났다. 구로동에서 인천으로 오려면 시외버스를 타야 했는데 배웅을 나온 할머니는 버스가 떠나고 나서도 한참동안 그 자리에서 계셨다. 손을 흔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곤 했다.

나는 돌이 되기 전부터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연년생으로 동생이 생기자 할머니가 돌봐주게 된 것이다. 젓을 떼고 연유를 먹이는 데 잘 먹지 않고 울며

보채서 애를 먹고, 울고 보채니까 잘 때까지 업어주며 키웠단다. 그렇게 키워준 할머니와 정이 들어서인지 헤어질 때마다 아쉬움이 컸다.

명절이면 할머니는 솜씨를 발휘하셨다.

맷돌에 콩을 갈아 간수를 넣어 두부를 만들고,
엿을 녹여 땅콩이나 들깨를 섞어 강정을 만들며,
밥알을 동동 떠운 달콤한 식혜와 생강과 계피 향내가 살짝 나는 수정과도 만들고, 찹쌀을 시루에 찌서 절구에 넣고 찼은 뒤 콩가루를 발라 인절미도 만드셨다. 허드렛일은 하지 않으셔도 손맛을 자랑하는 일은 잘 하셨다.

할머니는 내가 낳은 딸 돌도 돌봐주셨다.

결혼하여 출산하자 산후조리를 해주며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루에 미역국을 여섯 번이나 끓여주셨다. 직장을 그만 두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아이를 키워준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다닐 수 있었다. 당신이 배우지 못해 집안일만 하신 것이 한이 되어 내겐 집안일에 얽매어 살지 말고 하던 일을 그대로 하라고 하셨다. 퇴근 후 돌아와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곤 하셨다. 여든이 넘어 힘드셨을 나이에 도 나를 어린애 다루듯이 보살피려고 하셨다.

“내가 애들 초등학교 입학하는 걸 보고 죽어야 할 텐데…….”

첫 아이 낳고 몸조리 할 때 할머니가 했던 말이다. 건강이 걱정되셨던 모양이다. 다행히 할머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다니는 걸 보고 돌아가셨다. 내가 삼십 팔세, 할머니가 구십 사세 되던 해였다.

벌써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이십 년도 더 지났다. 내가 할머니가 되어 보니, 할머니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이 컸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말없이 당신의 자리를 지키시다

회갑이 되던 해였다. 딸과 사위들이 플래카드를 만들어 걸고 축하를 해 주었다. 여행을 다녀오라고 용돈도 챙겨 주었는데,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돌아 해외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강원도 쪽으로 다녀오게 되었다.

인천을 벗어나 양평을 지나면서부터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녹색의 물결이 감동을 안겨주었다.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며 서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니 아버지 생각이 났다.

‘나무들은 죽은 듯이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가도 다시 무성한 자태를 드러내며 소생하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잔해 지다가 가는구나…….’

문득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에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지금 내 나이에 돌아가신 것이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봄이면 새 잎이 돋아나고, 여름이면 무성한 자태를 뽐내며, 가을이면 알록달록 단풍 든 잎을 자랑하고, 겨울이면 죽은 듯 앙상한 가지를 들어내다 다시 잎이 돋아나고 무성한 자태를 드러내며 단풍든 잎들을 자랑하기를 반복할 수 있는 나무들이 부러웠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시간에 돌아오곤 하셨다. 겨울이면 종이봉투에 담겨진 군밤이나 호떡을 사가지고 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고 있는 방으로 살며시 넣어 주곤 했다. 더운 여름날 하얀 런닝과 인견바지를 입으시고 마루에 앉아 책을 펼쳐놓고 열중하시던 모습과 얼마 후 금반지를 상으로 타서 할머니를 갖다 드린 일이 떠오른다. 대회에 나가 상을 타 오셨던 게



다. 할머니는 금반지를 끼고 동네방네 다니며 자랑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손에서 반지를 빼지 않으셨다. 닳아 좀 만질만질해졌지만, 반지는 내가 물려받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황금색 빛을 발할 뿐 언제나 넣어 둔 채로 제 자리에 있는 반지를 볼 때마다 언제나 말없이 당신의 자리를 지키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말은 없으셔도 당신의 자리에 성실하게 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오늘도 나를 응원하네

‘드르 드르륵’

재봉틀에 앉아 옷을 만들던 어머니는 늘 분주하셨다. 겨울이면 저녁상을 물리고 털실 바구니를 꺼내놓고 뜨개질을 하셨다. 남편과 일곱 딸들의 스웨터도 뜨고 조끼도 뜨 입히셨다. 아홉 식구들 뒤풀이꺼리가 여간 많은 게 아니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챙기는 일이며 머리 손질 등 그 시절 웬만한 일은 다 집에서 손수 해결했다. 세탁기나 청소기도 없던 시절 집안일을 손수 혼자 다 하면서도 힘든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부엌에 가려면 신발을 신고 나가야 했다. 방에서 나와 마루를 거쳐 댓돌 위의 신발을 신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의 부뚜막엔 가마솥을 걸고 장작을 지퍼 밥이나 탕을 끓이던 아궁이와 연탄을 넣어 방을 덥게 하던 아궁이가 있었다. 날이 선선해지면 연탄아궁이 위에 건 솔에 물을 채워 놓고, 덥혀지면 그걸 펴서 쓰곤 했다. 어머니는 데워진 물을 떠 주며 딸 일곱을 차례대로 씻게 했다. 씻은 물은 버리지 않고 넓은 다라에 모았다가

입었던 옷들을 담가 빨래를 하곤 하셨다. 그런데 일 년에 두 번 설날과 추석에 돌아오면 동네 목욕탕에 가 몸을 불리고 때를 밀어 주셨다. 때를 밀기 위해 탕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손과 발이 쪼글쪼글하게 변했던 기억이 난다. 때를 밀어야 한다고 한참을 담그고 있어서…….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학교에서 돌아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이모와 외숙모가 마루에 앉아 계셨다. 두 분의 표정이 어두웠다. 병원에서 2개월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했다며 이모가 탄식하듯 말했다. 아침에도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 줘서 먹고 나갔다 돌아온 터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며칠 전 하혈을 해 병원엘 다녀왔는데 검사 결과가 자궁암으로 나왔다고 했다. 오진이길 바라고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역시 같은 진단이 나왔는데 수술도 할 수 없을 만큼 진행이 많이 되었다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학교만 다녔지 집안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던 내가 집안일을 하게 되었는데 겨우 밥이랑 국만 끓일 수가 있었다. 반찬은 외가에서 해다 줬다.

어머니는 서울 원자력병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때로 수혈도 했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린 2개월을 지나 방사선 치료의 한계인 6개월까지 무사히 넘기셨다.

‘암 환자는 고통이 심하다던데…….’

가족들은 날마다 어머니의 동태를 살폈으나, 어머니는 병원을 다녀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셨다. 그 후로 내가 직장생활을 하자 다시 집안일을 하면서 8년을 더 사시고, 내가 결혼식을 치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암 환자는 고통스러워한다는데 어머니는 방사선치료를 받으러 다닐 때 좀 피곤해 한 것 외에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살다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삼십 년도 더 지났건만 말없이 먹거리 준비와 빨래, 입을 것 장만으로 실 틈 없이 일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머니는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늘 알아서 챙겨 주곤 했다. 모든 걸 털어 놓을 수 있어 든든했던 분. 때로 지치고 힘이 없어질 때면 어머니 생각이 난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 떠오른다. 그렇게 어머니는 오늘도 내 가슴에 남아 나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 이 글은 이인희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II. 구술 :아들 딸이 쓴 우리의 이야기

파란만장 인생기

문대정 | 목포공공도서관_전남

03



우리 집안의 본관은 남평(南平)이다. 목화씨로 유명한 문익점 공의 후손이다. 문익점 공의 자는 일신이고 호는 삼우당이다. 충신 문익점의 공덕을 기리는 서원이 강성 서원이다.

나는 1967년 2월 27일에 전남 장흥군 유치면 늑용리 39번지에서 태어났다. 문삼숙씨의 자로 6남매중 5째로 태어났으며, 300년 된 대대로 물려온 전통 한옥과 집 앞 밭에는 300년 된 호두나무가 있고 좌우에는 대나무 밭과 마당 앞에는 큰 연못과 좌우에는 버들나무 두 그루가 머리 길게 빗어 물속에 잠겨 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여러 버들잎을 잡고 그네 타던 일이 엇그제 같다. 태어났을 때 나는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심장수술 받기 전까지 정말 어려운 학교 생활을 했다.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는 비포장 도로를 30~40분 걸어서 등, 하교를 했다. 학교 도착할 때쯤은 이미 1교시 끝날 때쯤이기 일쑤였다. 학교에 도착할 때쯤은 내 얼굴에 핏기도 없고 거친 숨소리를 쉬며 입술이 파래졌다. 나는 허약한 몸 때문에 선생님이나 전교생이 다 나를 알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옛 생각 그때 그 시절로 돌아보면 지금은 제2인생을 살고 있다. 그 때 초등시절 1, 2학년 때 막내 여동생이 나의 손, 발이 되어주었는데 등, 하교 시에는 항상 조금만 키에 별명이 '콩례'였다. 우리 동생은 똑 부러지고 영리했고 다른 형제들과의 사이도 좋았다. 동생은 책가방을 내 것까지 두 개나 메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였는데 병으로 앓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에 슬펐던 감정도 미비했던 시기라 그냥 넘어가는 듯 했다. 그런데 내 동생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잘 챙겨주던 바로 내 동생이 그날 밤 집

에서 떡을 먹고 급체로 세상을 떠났다. 의료 시설이 부족했던 시기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 버리고 말았다. 그때 또한 어릴 때라 실감은 안 났지만 옆집 할머니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맨날 옆에 있던 동생이 없어져버리니 상실감이 매우 컸다. 생각해보면 그때는 실감이 안 났지만 지금은 정말 해 줄 말도 많고 미안한 것도 많다. 그 무렵에 내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더 잘해 줬을 건데 못 챙겨줘서 마음이 아프다.

몸이 아프고 숨은 차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6년 졸업때까지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학교가 좋았고 친구들이 좋았다. 몸은 아프지만 보이스카우트 활동, 체육행사만 제외하고 활동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림에 소질을 보여 여러 상도 받았다. 나의 꿈은 화가였다. 몸이 아파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연필이었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면 우체국 다닌 형님이 자전거로 태워줬고 소풍갈 때는 선생님이 나한테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나는 가고 싶었다. 2시간 이 넘는 거리에도 걸어서 가기도하고 자전거 얻어 타기도하고 선생님께 업혀 가기도 했다. 몸이 힘들었지만 항상 노력하려고 했던 이유에는 ‘나’는 참석하는 것과 사람들과 지내는 게 좋았고 행복했기에 힘들어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술해서 건강하지만 그 당시에 선천성 심장병 환자는 스무 살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시골친구도 같은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지만, 수술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나는 어머니 때문에 제2인생을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70~80년대 심장병 수술 할 수 있는 병원도 많지 않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의사도 많지 않았다. 하물며,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당시 수술비가 3,000만원이라는 거금 때문에 엄두도 못 냈다.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만든 새세대 심장센터 재단이 만들어 졌고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가 운영할 때 어머니가 청와대로 편지를 써서 접수가 되었다. 수술번호가 지금도 생각한다. 3360번. 또한 수술을 기다리려면 스무 살이 넘어야 했다. 마침 서울 반포에 살던 이모부가 이순자 여사와 학교 동창이어서 바로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주어서 한 달 후에 서울 한양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심장 병명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치료를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빨리 완치된 후 몸이 건강해져서 그 전에 마음 편히 못했던 운동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인생의 고비와 전환점 된 고등학교 3년

나의 인생 전환점은 고교시절이다. 전환점의 시작은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이상 걸린 등하교길에 있었다. 옛날 비포장도로와 산길이 험해 버스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께선 학교 근처에 공부 할 수 있는 방과 그림 그릴만한 방을 구해주셨다. 나는 미술을 좋아했다. 다른 활동들도 하기 힘들었기에 나에게 맞는 활동인 미술이 좋았다. 자취방에서 화실은 가까웠다. 미술부에 들어가서 나의 꿈은 화가가 되어 그림 그리며 일생을 살자는 길로 구체화되었다. 전공은 동양화. 한국화를 선택해 열심히 그리자 대학교 선배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셨다. 각 지역 대회도 많이 나가고 입상도 많이 했다. 선, 후배간 갤러리 전시회도 매년 열어 작품 활동에 전념했다.

3학년이 되면서 대학진로 선택을 정하고 열심히 했지만, 고배를 마셔야 했다. 꿈을 포기 할 수 없어 홍익대 앞의 미술학원에 등록해 재수를 준비했다. 하지만, 재수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너무 컸다. 어찌다 내 방에 찾아오신 큰형님과 어머니가 하루에 라면 한 끼 먹어가면서 쪽방에 사는 내 모습을 보고 한탄했다.

“그림 그리는 사람치고 부자 되는 사람 없다는디 어쩔라고 이러냐”
 가정여건 때문에 포기한 미술에 대해 아직도 미련이 남고 아쉽다.
 큰형님이 너는 옛날부터 집에 고장 난 물건들을 고치는 것을 보아하니 손재주가 있으니까 기술 분야로 배워 보는 게 어떨지 조용히 물으셨다. 나는 고민이 컸다. 나는 결국 그림을 포기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꿈을 포기하기로 하고 기술 분야로 마음을 돌려 먹었다. 전과사에서 신설동의 TV학원을 거쳐 삼성서비스센터에 입사해 전문적으로 기술을 습득했다.

도전

나의 첫 직업은 서울 종로구 관찰동 삼성출판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세일즈였다.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세일즈는 암담한 콘크리트 벽과 같았다. 조직사회 벽. 공동체의 벽. 사람과 사람의 벽이 나에게서는 도전이었다. 선배를 따라 가판(가정판매), 빌판(빌딩판매), 구판매(구역판매)등 모든 것이 나에게서는 도전이었고 경험이었다. 출판사 근무하면서 첫 회식자리에서 처음으로 술과 담배를 경험하기도 했다. 입사 후 넉 달 만에 신인상도 받고 금일봉도 받았다.

하지만 2년 6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사람의 벽이 나에게서는 너무 높았을까? 두 번째 직업은 면목동에 있는 전자제품 판매장이었다. 기술과 판매상술을 발판삼아 미아동에 있는 삼성가전 대리점 (주)삼웅전자 대표 정태웅 사장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덕분에 오늘에 있기까지 그 분한테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사실 입사할 때 내가 원하는 분야는 서비스였다. 대표 정태웅사장님이 나의 근면함을 인정해서 전시장 판매과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렇게 공무원연금매점과 직원채용 교육 및 서비스 판매까지 총괄 업무를 맡게 되었다. 각 구청,

금강제화, 신라호텔, 안기부 등 판매 인맥을 맺으면서 나의 꿈은 실현되고 있었다.

▶ 이 글은 문대정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글을 쓴 문대정은.....

나는 행복한 미소를 곁들인 울음과 함께 목포에서 태어났다. 나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어릴 적 일이 한 가지 있다. 4살 때 우리 집은 2층 주택으로 1층에서는 어머니께서 마트를 운영하고 계셨다. 나는 2층 엄마 방에서 엄마와 함께 자곤 했었다. 어릴 때 나는 가위를 많이 놀렸기에 혼자서는 무서워서 잠을 편히 잘 수 없었다. 어느 날도 어김없이 엄마와 함께 잠에 들었다. 그리고 중간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그런데 엄마가 내 옆에 없는 것이다. 별 걱정 없이 거실도 둘러보았다. 진짜 안 보이는 것이다. 순간 무섭고 외로운 느낌이 들어 아래 층의 아빠라도 보려고 했다. 불도 켜지지 않아 어두웠던 계단을 조심조심히 내려가 아빠를 불렀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우리 집에 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공포감에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다. 아빠와 엄마를 기다리며 굳게 닫힌 마트 셔터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우리 엄마와 아빠는 동네 사람들과 술자리를 잠깐 나갔던 것이었다.

그때 엄마는 나를 한참이나 달래주셨는데도 이토록 뚜렷이 내 기억에 남아있는 걸 보면 그때 나는 아주 무서웠던 것 같다. 그때 기억 때문인지 나는 외로운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현재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좋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한 내 유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유치원 때도 장난치기를 좋아했던 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이 좋게

지내고 있는 친구도 있다. 지금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함께 재미있게 놀던 형누나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기회가 되어 연락이 된다면 어렸을 때 얘기가 나뉘보고 싶다.

또 초등학교 때는 소심한 면이 있던 내 성격에 부모님께서 나를 웅변학원에 보내주셨다. 웅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대회도 많이 나갔는데 긴장도 되긴 했지만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기분이 워낙 좋았다. 그렇게 트로피도 부상으로 받아 학교로 전해지다 보니 학교에서는 나에게 시낭송 대회도 권해보았다. 많은 대회를 경험하고 상을 받아 뿌듯함도 느끼게 되면서 용기를 가지고 많은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친구들과 운동도 하며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해 전교1등도 여러 번 차지했으며 방과 후도 컴퓨터나 한자를 배우는 등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시간은 흘러 길던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름 공부로 소문난 명문학교로 가게 되면서 긴장을 했지만 반배치에서는 전교 4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같이 게임도 하고 놀러도 다니면서 성적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때 조금만 더 편하게 살고 중학교 때는 조금만 더 공부를 해놓을 걸 후회가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꿈과 진로에 관한 책자들과 교육이 많다. 나에게 맞는 길은 무엇일까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인 것 같다. 그러던 중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 있어 했던 컴퓨터를 바탕으로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해보았다. 그 중 화이트해커와 블랙해커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컴퓨터 관련 직업은 나에게 멋지기도 하고 앞으로 주목받을만한 직업이라는 점이 내 맘에 들었다. 그런 마음에

직접 책을 구입해 공부하고 있던 도중 엄마가 신문에서 목포대학교에서 모집하던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운 좋게 발견해 나와 함께 의논 후 신청서를 보내 현재 격주로 수강중이다. 학교공부와 진로공부에 관한 고민이 한창인 요즘이지만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봐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현재 내 꿈이자 목표이다.

남들보다 도전 정신이 강하고 다양한 활동을 좋아하는 나이기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로써 꼭 큰 사람이 되어겠다.



III. 구술 :아들 딸이 쓴 우리의 이야기

도박과 여행의 아들

반영진 | 목포공공도서관_전남

04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린 나

육체적 노동을 좋아했던 나에게 중장비 일은 적성에 맞았다. 중장비 기계를 작동 시키며 일할 때 느끼는 역동성과 수십 명의 노동자가 해야 할 일을 단숨에 해치우는 그 힘이 아주 좋았다. 나는 아무래도 현장 체질인 것 같았다.

그렇지만 중장비 일이 나의 평생 직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어머니가 어려운 형편이라도 학업을 포기하면 안 된다며 독려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옛날 분이 시라 8대 장손인 아들이 몸 쓰는 일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한마디로 선비처럼 공부하는 직업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그런 자식들을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 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드디어 전남대학교에 합격했다. 대학 등록금의 마련이 어려워서 무작정 입대를 했다.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였다. 군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하기 전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막노동 일을 했다. 열심히 일을 한 결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여 복학했으며, 그 후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마쳤다. 졸업 후, 한 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이로 취직하게 되었다.

교사가 되어 조금 안정이 되자 내 나이가 서른 살이 됐다. 그 무렵 동료 교사의 추천으로 다른 학교의 교사였던 '이윤주'를 만나게 되었다. 처음 보았을 때 내 눈에 이윤주 선생은 아주 사납고도 푹푹해 보였다. 나는 이윤주 선생에게 목포에서 제일 사나운 여자라는 별명을 붙이고 연애를 시작했다. 그리고 5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다. 그 후로 결혼한 지 23년이 지났고 2남 1녀라는 자식을 얻게 됐다. 큰 딸인 유정이는 대학교 4학년, 큰 아들인 기범이는 대학교 1학년으로 공군에 입대하였고, 막내아들인 영진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제까지 교사 생활로 벌어들인 돈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부모 양육비, 레저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평범히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의 여유로운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어릴 적의 꿈을 실행해 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하기를 좋아했다. 그랬던 나는 감수성이 풍부했던 21살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15일간 전국 무전여행을 떠났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 무전여행은 당연히 힘들 것이라 마음먹고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지 않았다. 다만 혼자 하는 여행이라 외롭고 고독하긴 했다. 그래도 그 외로움이 나한테 다양한 자연경관을 깊이 느끼게 했다. 삶의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때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 후 28살이 됐을 때, 교사라는 직업이 과연 나의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평생 직업으로써 교사를 선택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때는 7일 간 제주도 도보 무전여행을 떠났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지만, 역시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행에서 찾기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자는 교훈을 얻었다. 여행 도중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의 관계는 지속되지 못했지만, 그분들에 대한 은혜에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보다 운택한 삶을 살고 싶기에 여행을 통한 행복하고 뿌듯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나의 삶 속 기쁜 일과 슬픈 일

항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에 대한 집착만 있었을 뿐 여자에 관심을 가질 시간조차 없었다. 그렇기에 여자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 숫기가 없어 연애를 못해봤던 나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어여쁜 이윤주 씨를 만나게 되었다. '목포에서 가장 사나운 여자'라는 애칭은 나의 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다. 좋은 사람을 만나니 내 자신이 완성된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준 사람을 만난 게 몹시 기뻐다. 또한 어려웠던 집안 경제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점차 안정된 일도 기뻐다. 내가 직접 번 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릴 수 있

는 것에 감사했다. 그래도 가장 감격스러운 일은 역시 자식을 가졌을 때이다. 큰 딸, 둘째 아들, 막내이들을 낳을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다. 그런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늘 기쁜 마음을 가졌다.

행복한 일들과 함께 슬픈 일들도 없지는 않았다. 결혼 후 아내의 요청으로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초기 암이었다. 나를 이끌어 주신 어머니의 암 수술로 잠시 걱정이 컸으나 지금은 완쾌하셨기에 별 걱정이 없다.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여자를 군 제대 후 본 적이 있다. 그때 웬지 모를 처량함과 함께 슬픔이 내게 다가왔다. 그래도 추억은 추억이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지나간 첫사랑은 붙잡지 않음으로 첫사랑 일 수 있다던가. 그렇게 떠나보냈기에 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의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다.

그러저럭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자식들을 잘 키우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몇 해 전, 둘째 아들인 기범의 반항기가 시작됐다. 이제까지 잘 키워왔던 기범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늦은 사춘기가 찾아왔던 것이다. 나는 당황했다. 그렇기에 기범과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 다행히 기범도 큰 고비 없이 사춘기를 넘겼다. 지금 세 자식은 부모의 말을 잘 따라주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함으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 닿고자 하는 세상을 향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이제까지 기쁜 일들, 슬픈 일들이 많았으나 기쁜 일만 생각날 뿐 슬픈 일은 모두 극복 가능했기에 지금은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역시 어머니이다.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신 뒤 어머니는 어떻게든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려 하셨다. 고등학교 때 돈이 없었을 때도 어머니가 직접 식당일을 하시며 버신 돈으로 나를 공부 시키셨다. 어머니는 나한테 인생이 화려함보다는 끈질긴 생명력임을 알 수 있게 해준 영웅이셨

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을 교육시키려는 어머니의 일념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이다.

나의 삶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나는 교사라는 정신적인 직업보다는 노동적인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이따끔 든다는 점이다. 한 시절 중장비를 움직일 때의 그 역동적인 감각이 떠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것이 내 삶에서 자부할만한 일이다. 자녀들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을 배려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 나는 교사로서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기에 여생도 지금처럼 무난히 이어졌으면 좋겠다. 퇴직한 뒤에는 여행을 다니고 봉사를 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내 인생이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믿음을 알리고 싶다.

▶ 이 글은 반영진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글을 쓴 반영진은.....

2000년 9월 22일 태어난 나는, 보통 아기들과 달리 4.16kg의 우량아였다. 그런 나에게 참되고 진실되게 살아가라는 의미로 반영진이라는 이름을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 나에게서는 누나와 형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활발하고 밝았던 나머지 형과 누나랑 함께 놀 때면 코가 깨지고 턱이 찢어지고 머리를 다치는 등 나의 어린 시절은 위험천만했다. 우리 누나는 나와 6살 차이로 지금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이고 형은 나와 4살 차이로 성균관대 경제학과 1학년이다. 하지만 우리 형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올해 공군으로 입대하였다. 우리 형과 누나는 공부를 항상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첫째와 둘째가 공부

를 잘했기에 막내인 나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다. 비록 지금까지 밝게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는 있지만, 너무나도 잘난 우리 누나와 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 그렇기에 나는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배드민턴, 탁구, 축구 등 많은 운동에 재능이 있어서 즐겨하지만 특히 요즘은 농구에 빠져 살고 있다. 당연히 좋아하는 만큼 잘하기도 한다.

지금 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 번은 기숙사 친구들끼리 누가 가장 인격이 좋지 않은지에 대해 투표한 적이 있다. 예상치 못하게도 내가 바로 가장 인격이 좋지 않은 친구로 선정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샤워를 20분 동안 한다는 이유 그리고 과자를 뺏어먹는다는 이유 등 이상한 이유들이 난발했다. 비록 내가 인격이 좋지 않은 친구로 뽑혔지만 행복하다. 인격이 좋지 못한 내게 친구들은 항상 밝고 착하게 대해주기 때문이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들에게 굉장히 고맙다.

최근 한 가지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물론 내가 잘생기기는 했지만 이에 비해 내 첫인상이 무섭다는 것이다. 몇 주 전에 있던 리더십 캠프에서 알게 된 친구가 말해주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무섭게 생겼는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며칠 전에 친구 할머니께서 내게 착하게 생겼다고 말해주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섭게 생겼다는 나의 고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나의 꿈은 육군 장교가 되는 것이다. 사실 약간 두렵기도 하다. 올해 있었던 사관학교 시험이 최고로 많은 수가 응시했고 앞으로 경쟁률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한다. 그렇기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나의 꿈을 이루기 힘들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부터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상상할 것이다, 30년이 지난 후에 육군 장교로서 위대한 리더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III. 구술 :아들 딸이 쓴 우리의 이야기

인천에서 목포까지

이광민 | 목포공공도서관_전남

05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외갓집과 친가를 가게 되었을 때, 친척들은 모두 인천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는 먼 길을 가야 했다. 처음 가는 길이어서 헛갈리는 곳도 많았다. 길을 잘못 들어 고생한 적도 있었다. 지금은 익숙해져 있다. 지금도 그때 잘못 들었던 길을 지나가면 그 일이 생각나서 아찔하다.

첫 명절을 끝내고 집에 왔을 때,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충격에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고, 바로 남편과 인천으로 갔다.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면 슬프다. 더 슬픈 것은 내 아버지가 많은 손자와 손녀 중에 맏손녀인 지수밖에 못 보고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한동안 나는 충격에서 헤어 나올 수 없었다.

그렇게 힘든 나에게서는 고민이 하나 더 있었다.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고민 끝에 나는 지수를 학교에 보내고 광민이랑 같이 유치원에 출근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냈다. 그렇게 나는 내 꿈인 유치원 교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아들 광민이가 일곱 살이 되면서 유치원을 바꿔 보내게 되었다. 집근처에 있는 삼호서초등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에 보냈다. 광민이가 병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두 달이나 됐을까, 어느 날 병설 유치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은 내가 유치원 교사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 병설 유치원 환경관 제작을 같이 해주지 않겠냐고 물어 왔다. 나는 그 선생님의 제의를 수락하고 병설 유치원의 환경관을 같이 만들었다.

내가 일을 잘했는지 환경관 제작이 끝난 뒤 유치원의 원감 선생님께서 병설 유치원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의를 해왔다. 나는 내 직장인 어린이집 일도 있었고, 몸이 힘들어서 조심스럽게 제의를 거절했다. 제의를 거절하기는 했지만 같이 일을 하자는 그 제안은 내 생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기분이 좋았다. 내가 내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 광민이가 8살이 되던 해 우리는 첫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를 하게 되면서 다니던 어린이집과 거리가 멀어졌다. 나는 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먼 직장에 다니기가 어려웠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이사를 간 곳은 남악 신도시였다. 목포에서는 가장 개발된 곳이라고 알고 있던 나는 그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남악이 지금은 완전한 신도시가 됐지만, 우리가 이사 할 때만 해도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주변에 갈대들만 무성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창밖에 갈대만 무성한 아파트에서 집 주변이 개발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하루 하루 지나다 보니 어느덧 나의 삶은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일을 그만 두었더니 몸이 근질근질 했다. 아무리 굶어도 시원해지지 않는 마음의 근질거림이었다. 나는 그 근질거림을 참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모임을 갖기도 하였지만, 인생이 허전했다. 일을 하고 싶었다. 나는 일감을 찾기 시작했다. 온갖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중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영암에서 했던 F1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VIP 객실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일 또한 단기간 아르바이트여서 금방 끝났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러 갔던 회사에서 계속 나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 때 나를 불러준 회사를 나는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다.

어느덧 지수가 스무 살이 되면서 대학교를 가게 되었다. 순천대학교였다. 집이 있는 목포에서 학교가 있는 순천까지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무리가 있다. 우리는 지수를 대학교 기숙사에 지내게 하기로 결정했다. 지수가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자 우리 가족은 3인 가족이 된 듯 집안이 허전해졌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광민이도 기숙사에 들어갔다. 광민이는 제 누나가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광민이만큼은 기숙사에 들여보내고 싶지 않았다. 나 혼자 집에 있는 것이

걱정되어서였다. 하지만 보내달라고 하니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광민이까지 기숙사에 보내고 나니, 나와 남편만이 집을 지키게 되었다. 남편의 일은 출장이 많고, 어떤 출장은 몇 날이 걸리기도 했다. 나는 집에서 혼자 있는 일이 많아졌다. 4인 가족으로 지내왔다가 딸이 멀리가고, 아들은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면서 나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대폭 늘었다. 네 명의 식구가 저마다 열심히 살게 되면서 식구들이 같이 지낼 시간은 오히려 적어졌다. 나 혼자 있는 일이 걱정스럽고 무섭긴 하지만, 어느덧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대견하다는 생각도 든다.

어느 날 광민이가 배드민턴을 하겠다면서 라켓을 사달라고 했다. 한창 공부해야 할 때 라켓을 사달라고 하니, 걱정스러웠다. 딴 생각 말고 공부나 해!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이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았다. 누구나 하고 싶은 걸 해 볼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엄마라도 공부나 하라고 야단치는 건 옳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아들이 잘 할거라 믿으면서 라켓을 사주었다. 역시나 우리 광민이는 엄마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공부를 하면서 배드민턴을 취미로만 했다.

나는 배드민턴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주위에 배드민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렸다. TV를 켜면 건강운동으로 소개되고 있고, 내 주위에서 배드민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렸다. TV를 켜면 건강운동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 주위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많이 했다. 내 신경이 온통 배드민턴에 쏠린 것이다. 그렇게 좋아하게 된 배드민턴을 나는 남편이랑 함께 하기로 결심 했다. 다시 남편과 운동을 함께 하게 되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결혼하고 처음 운동을 했을 때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위해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집에서 혼자 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곳으로 바뀌었고, 취미삼아 시작했던 배드민턴은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되어있다. 나는 이러한 생활이 만족스럽다. 지금 내가 제일 바라는 일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어쩌다 식구가 모이면 완벽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사람의 삶은 늘 불안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런 불안과 불완전함을 채워 주는 사람이 가족인 것 같다. 가족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다.

▶ 이 글은 이광민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글을 쓴 이광민은.....

나는 이 자서전의 대필자 이광민이다. 나는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남에 대해 잘 알고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고 이 글을 쓰기 전에 나에게 대해 먼저 알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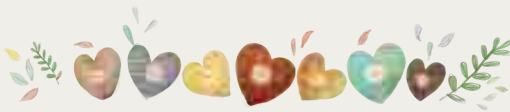
내 성격은 원래 소심하고 부끄럼이 많은 성격이었다. 하지만 현재 나의 성격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차분한 성격이다. 이러한 성격 덕분에 자서전 쓰기를 할 때 자서전의 주인공 말을 잘 듣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풍부한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

내 취미는 운동이다. 발로 하는 운동은 흔히 “개 발” 이라고 할 정도로 발을 쓰는 운동을 잘 못한다, 하지만 손으로 하는 운동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잘한다. 자서전 내용에 보면, 내가 배드민턴 라켓을 사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고 내가 운동을 좋아하고, 그 중에 손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덕분인지, 현재 우리 가족은 모두 운동을 취미

로 하나씩 갖고 있다.

내 장점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에디슨도 어렸을 때 바보취급을 당했지만, 훗날 세계를 뒤바꾼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나도 어렸을 때 국어를 모르냐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주변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해서 남을 설득하는 것을 잘한다. 그래서 나는 리더십 또한 좋다. 화려한 말솜씨로 팀원들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것을 잘하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 또한 잘한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든 리더가 되려고 한다. 이러한 장점 때문인지, 나는 말이 많다. 처음 간 곳이나, 어색한 분위기에서는 한없이 조용하지만, 분위기가 좋고 친한 친구랑 같이 있으면, 끝없이 말이 많아진다. 그래서 가끔은 입 좀 가만히 있으라고 혼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 혼나는 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말솜씨가 늘어나는 것은 계속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에는 고등학생이어서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공부를 해야 할 나이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지만, 나는 훗날 내가 좋아하고, 장점을 덧붙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날을 생각하면서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다.



III. 구술 :아들 딸이 쓴 우리의 이야기

두 번 가장이 된 나

이인호 | 목포공공도서관_전남

06



나도 꿈이 내 전문 분야를 가르치는 강사였지만 이루기 힘들었던 나 대신 동생이 이뤄줘서 기쁘고 한편으론 부러웠다. 나의 하나뿐인 남동생 해운이는 축구를 잘해서 나처럼 학교에서 선수제외가 들어왔다. 하지만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라, 부모님은 어린나이에 기숙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며 반대하셨다. 해운이는 올림픽 축구경기를 보며 장난식으로 “아, 내가 저기에서 있을 수도 있었는데”라고 말하곤 한다. 그 때마다 가족들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함께 추억 속에 잠긴다.

그 무렵 해운이와 놀다가 큰 일 날뻔한 적이 있다. 해운이가 갑자기 내 등에 올라타는 바람에 나는 앞으로 쓰러져 얼굴을 바닥에 ‘쿵’하고 박았다. 바닥에는 이빨이 떨어져 있었고 그건 바로 내 이빨이었다. 너무 놀랐고, 당황스러웠다. 이빨이 부러진 이 큰 일을 어머니한테 숨길 수도 없어서 나와 해운이는 어머니한테 심하게 혼났다.

우리 집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 부모님은 시골 장에 다니며 옷가지 장사를 하셨다. 짐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에 싣고 다니셨다. 가까운 장에 가실 때면 나도 같이 가기도 했는데 아버지의 일부 짐을 들어주기도 했고 짐을 풀거나 정리하기도 했다. 그렇게 같이 아버지와 다니는 게 좋았고 장에서 봉어빵, 호떡을 사주실 때 맛있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장사를 열심히 했지만 우리 집 형편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생 때 꿈은 연구기술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능 올림픽대회 준비를 위해 2년 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실습했다. 그러던 도중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우리가족은 꽤 오래 힘든 시간을 지냈다. 아버지의 부재는 경제적으로나 마음으로도 아주 힘든 일이었다. 더구나 장남인 나한테는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생겼다. 나는 꿈을 포기하게 되었다.

어머니를 도와 집안을 책임지게 된 가장으로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공장에 취직했다. 공고생들은 3학년 2학기가 되면 실습 겸 취직을 할 수 있었다. 고향에서 떨어진 서울에서 1시간 30분을 걸려 출퇴근 하며 한 달 19만원을 벌었다. 열심히 일하여 받은 첫 월급 19만원을 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갔다. 동대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컸다. 가게도 셀 수 없이 많았다. 나는 시장구경을 한참 하다가 어머니께 드릴 빨간 내복과 동생들에게 줄 조그마한 선물을 샀다. 나한테 19만원은 큰돈이었지만 동대문 시장에서 내가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을 만큼 거액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가 번 돈으로 가족들의 선물을 살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뿌듯하고 기뻐다. 어른이 된 것 같고, 진짜 가장이 된 것 같았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고향 가까이 와서 목포역 근처의 공장에 취직했다. 모든 일을 열심히 배우며 일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계 부품 제작 중 마무리하기 위해 사포로 작업하고 있었다. 회전하는 작업 시에는 장갑을 끼고 하면 안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잠깐 무시하고 방심했던가. 사포와 장갑이 기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급하게 봉합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때 의사와 주고받은 말이 기억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손가락 절단은 하지 말아 주세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다. 그 사고로 일을 쉬어야 했다. 쉬고 있으려니 고등학생 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던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의논했다.

그 무렵 어머니도 저희를 책임지시느라 몹시 힘드셨는데 내게 공부하라고 말 씀해 주셨다. 뒷바라지 해주시겠다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덕분에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 때 나는 강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건에 맞지 않아 그나마 자신 있는 기계부문의 공장 자동화에 관심을 갖고 공부했다. 대학 졸업 후 ‘신일 선풍기’ 공장에 취업했다. 사람이 힘든 일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하

거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기계를 개발하는 일이 아주 재밌었다.

그러나 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그리웠다. 고민 끝에 고향으로 내려와 현대삼호중공업에 취직하였다. 회사에서는 선박의 외장설계를 담당했다. 설계 작업은 비교적 어려운 작업이었다. 하지만 내가 접해 본 여러 분야의 직업과 경험이 도움이 됐다. 그 동안 해온 여러 작업들이 공간 감각을 발달시켜준 덕분에 어렵지 않게 설계를 할 수 있었다.

그 실력을 바탕으로 20년간 일을 하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내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입사 동기의 여자 친구의 친구였다. 입사 동기 간의 모임이 자주 있어서 가끔 아내를 볼 수 있었는데 참 좋아 보였다. 그 때 아내는 한국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계속 맘에 두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친구한테 소개해 달라고 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길지 않은 연애 기간을 거친 뒤 12월 27일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도중 너무 긴장한 탓에 신부를 데리러 내려 가야 하는데 멍하니 보고 만 있었다. 주례사가 “얼른 신부 데리러 가지 뭐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에 예식장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요란한 웃음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신부를 맞이하였고 무난히 하루를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행복한 날이 시작 되었다.

내게 첫 번째 아기 시원이가 찾아왔다. 첫째 딸 시원이가 태어난 그 순간 너무나 기뻐고 나는 아빠로서 또 한 번의 가장이 되었다. 기쁨도 있었지만 그만큼 부담감도 생겼다. 책임감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 조그만 생명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그로부터 2년 뒤 내 생에 두 번째 아기 인호가 찾아왔다. 인호는 아들이었다. 그렇게 나는 1남1녀의 소중한 두 자녀를 갖게 되었고 “내 아이들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켜야 되겠다”고 다시 다짐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과 같이 여행가서 찍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모으기 시작하며 행복한 나날이 계속 되었다.

회사일로 이탈리아에 있는 제작공장 견학 방문을 하게 되었다.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담당자인데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하였다. 처음 가보는 공항, 처음 타보는 비행기, 모든 것들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파리를 거쳐 16시간 만에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공항에 도착했는데 화물로 보냈던 짐이 도착하지 않았다.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동료의 짐만 찾을 수 있었다. 영어도 못하는데 화물 분실 신고를 해야 했다. 평소애 영어를 좀 할 걸 늦은 후회를 했다. 어찌 어찌 분실 신고를 하고 공항밖에 나와 보니 너무 늦은 시간이라 시내로 가는 교통편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다. 기사에게 얼마냐고 물어보니 19달러라고 했다. 탑승 후 한참을 달려 로마 시내에 있는 미리 예약한 호텔 앞에 도착했다. 택시 기사에게 19달러를 주었더니 아니라고 했다. 19달러가 아니라 90달러라는 것이었다. 호텔 매니저에게 90달러가 맞냐고 했더니 90달러가 맞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도 사기를 당했던 것 같다. 영어를 잘못해서 당한 사기였던 것이다.

다음날 로마 시내와 바티칸을 구경 후 3시간 떨어진 공장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한국과 별 차이 없는 정겨운 시골 풍경이었다. 지역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사의 사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백야 현상으로 인해 밤 10시가 넘었는데 밝이 환했다. 그래서 잠들기가 어려웠다. 공장 방문이 끝나고 다시 로마 숙소로 도착해 보니 분실되었던 짐이 도착해 있었다. 어찌 이리 반가울 수가! 짐을 풀고 가방에 있던 소주를 꺼내 동료와 한잔하고 나자 잠이 저절로 왔다. 이튿날부터 남은 관광을 하기로 했다. 관광 후 식사를 마치고 시내를 걷던 중 집시에게 동료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해하는 우리를 보고 한국 유학생이 경찰서에 신고해 주었다. 어렵게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했지만 집시들이 이미 카드를 사용한 후였다. 너무 황당한 일이라 당황해서 생각이 나지 않았다.

▶ 이 글은 이인호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글을 쓴 이인호는.....

나는 1년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1년 전만 해도 이 글을 쓰고 있 으리라곤 상상 할 수도 없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게임을 시작하여 중학교 3학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게임과 TV가 없으면 입에 가시가 돋 을 것 같았던 나는 PC방을 밥 먹듯이 갔다.

책을 펴고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가려고 부모님께 울며 떼를 써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 다. 이렇게 철이 없던 내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항해사라는 직업을 꿈꿨기 때 문이다. 항해사라는 직업의 매력에 한눈에 반해버렸다. 물론 앞으로 꿈이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지만 나의 소중한 첫 꿈이 나를 바꿔 놓았다.

내가 이렇게 갑작스레 바뀐 후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고등학교 이야기를 하 다보면 내가 하는 말을 전혀 믿지 못한다. 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이야기를 하 면 반 친구들이 믿지 못한다. 참 어이없고도 웃음이 난다. 그 만큼 많이 바뀌었 고 달라졌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다.

나는 한 곳에만 집중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특징이 있다. 게임에도 모든 것을 쏟 아부듯듯이 공부에도 쏟아부었다. 이 특징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 지만 앞으로는 장점으로 바꿀 것이다. 앞으로의 2년 반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 친구들은 성적이 낫다고 한다. 하지만 “이 령게 하다보면 언젠가는 놀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순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이 글을 20년이나 30년 후에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 참 궁금하다. 앞으로는 또 내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고, 미래의 내 직업도 궁금하다. 요즘은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III. 구술 :아들 딸이 쓴 우리의 이야기

20년 된 글러브에 담긴 이야기

최윤녕 | 목포공공도서관_전남

07



기쁜 일, 슬픈 일

내가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은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을 때, 사랑하는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현재의 종교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중 내 큰아들 윤녕이가 태어날 때 기억은 참 새롭다. 나는 그 당시 부산에서 목포로 발령이 나서 임신한 아내를 두고 목포로 내려왔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다. 애가 태어날지 몰랐으므로 나는 과음을 하여 맨 정신이 아니었다. 그때 병원으로부터 산모가 진통을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과음을 해서 운전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새벽까지 기다려 첫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그 밤에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얼마나 초조하고 걱정이 되던지. 의사는 전화로 산모가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나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었다. 내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전화로 자연분만에 성공을 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왔다. 나는 결국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보지 못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아들과 아내에게 미안하고 혼자서 고통을 잘 견뎌준 아내에게 감사하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기 마련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드시면 돌아가시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여기면서도 부모님을 잃는 슬픔을 겪었다. 부모님을 잃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과 충격은 막내 동생을 잃었을 때이다. 그중 가슴 아픈 기억은 막내 동생이다.

나의 막내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기념으로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며 놀고 있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술이 떨어지자 친구와 함께 슈퍼로 갔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발을 잘못 헛디딤서 그만 논두렁으로 떨어졌다. 동생 친구는 운 좋게도 눈에 있는 물에 떨어

저서 다치지 않았는데, 동생은 불행하게도 돌에 머리를 부딪쳐서 그만 세상을 떠났다. 그 어린 나이에, 그것도 성인이 되어 꿈도 펼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동생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다. 막내 동생이 떠오르면 지금도 쓰라리고 아프다.

20년 야구사랑

현재 나의 취미활동이자 꽤 잘하는 것은 야구이다. 야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내가 부산에서 근무할 때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다. 내게는 낡은 검은색 글러브가 있다. 내가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산 글러브이다. 20년 나의 야구 인생이 그 글러브에 담겨있다. 내게는 참 소중한 것이다. 지금은 내게 새 글러브가 생겨서 그 낡은 글러브를 아들에게 주었다. 글러브를 주면서 나는 아들한테 글러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못했다. 말로하기가 쑥스러운 것 같다. 야구 경기가 사람의 인생과 닮았다는 그런 철학과 애정을 아들한테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아들이 그것을 소중히 다루어주었으면 싶었다.

내 아들 윤녕이는 그 글러브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나는 야구를 매우 좋아한다. 여느 40대 아저씨들과 같이 야구 방송을 보는 것을 즐긴다. 또 직접 하는 야구를 좋아한다. 나의 야구 사랑이 어느 정도이냐면 큰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도 나는 주말마다 야구하러 나갔다. 내가 주말마다 야구를 하러 나가는 걸 아내는 싫어했다. 아내는 화를 내며 야구를 하러 가려면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였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내가 경기를 하는 동안은 아이를 돌봐줄 수가 없었다. 나의 포지션은 투수이다. 내가 공을 던지려고 하면 윤녕이가 울면서 그라운드로 달려왔다. 고마운(?) 나의 아들 덕분에 경기는 1시간씩 중단되곤 했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나의 아들은 울보였다. 특하면 우는 철부지였다. 그런 나의 큰아들이 어느새 부쩍 커서 고등학생이 된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고마울 뿐이다. 또 나의 딸, 막내아들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움을 느낀다. 나의 아내는 부산을 떠나 목포로 와준 것 자체가 고맙다. 타지에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잘 생활해준 것도 고맙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참고 견디어 주어서 고마움을 느낀다. 언젠가 나의 이런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이 되어 사람들에게 읽힐 것이다.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적극적으로 살아라. 주위를 조금 더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내 주위의 가족들이 최고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나는 앞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고, 현재의 내 삶에 만족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나의 아내 애란씨, 큰아들 윤녕이, 둘째 딸 윤서, 그리고 막내아들 우솔 이런 우리 가족을 다른 사람들은 식구가 너무 많다고도 하는데 나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단다. 아기였던 큰아들이 어느덧 고등학생이고, 딸도 벌써 중학교 2학년이고, 막내도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 된 걸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한지 모른단다. 아무 탈 없이 커주고 뼈딱하지 않고 올곧게 크는 너희들을 보면 감사함을 느낀단다.

또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준 나의 아내 애란씨, 많이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식구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면서 다 같이 열심히 살아가자.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한다.”

▶ 이 글은 최윤녕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글을 쓴 최윤영은.....

나는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학년이다.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직장이 목포로 옮기게 되어서 지금까지 목포에서 살고 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별났다고 한다. 우리는 빌라에서 살았는데 나와 동생이 옥상에 올라가 이웃집 자동차로 벽돌을 던졌다. 이웃집 자동차는 손상을 크게 입었고 부모님께 매우 혼났다. 또 아버지의 차 트렁크에 매달려 있다가 아버지가 나를 못 봤는지 그대로 출발해서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나의 철없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나의 성격은 지금도 고쳐야 할 문제이지만 낯을 가리고 남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 긴장을 하면 말을 더듬는 등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나는 이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나의 취미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다. 손재주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만들기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서 좋은 것 같다. 나는 그 중에서도 자동차, 비행기, 배와 같은 탈것들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몇 달 전에 타이타닉호라는 배를 만들어보았다. 그것을 다 만든 뒤 내가 그곳에 탄다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나의 장래희망은 항해사이다. 나는 커서 누구에게나 존경 받는 선장이 되어서 이 세상 이곳저곳을 항해하고 싶다.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을 직접 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나의 작은 바램이다.

지금의 '나'는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작은 일부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III. 구술 :아들 딸이 쓴 우리의 이야기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최재준 | 목포공공도서관_전남

08



일촉즉발의 서부전선을 가다

1976년 11월 나는 친구들보다 뒤늦게 군대를 가게 됐다. 논산훈련소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입영자들 기를 꺾어 놓겠다는 심산인지 ‘앉아’, ‘일어서’ ‘뒤로 취침’, ‘오리걸음’ 등 반말과 욕설이 난무했다. 비로소 육군 훈련병이 된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손, 발 마디마디가 얼어붙는 속에서도 구보, 봉체조, 각계 전투 등 수없이 반복되는 고된 교육을 받았으며 내가 훈련병이었던 70년대 후반은 무척이나 배가 고팠던 시절이었다.

PX(군대매점)에서 파는 빵을 사 화장실에서 몰래 먹으며 배고픔을 달래기도 하였다. 6주간 기본교육을 마치고 군수병과를 부여 받았다. 보급품이 담긴 군용 가방을 어깨에 메고 군용 열차를 타고 대전 병참학교에서 6주간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마친 후, 한국전쟁 시 평양으로 가장 먼저 입성하였다 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전진 부대란 명칭을 내렸던 1사단에서 머무르면서 자대 배치를 기다렸다. 기다리던 중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최전방 서부전선 관문점 철책선 중화기 중대 배치를 받게 되어 매서운 강추위가 휘몰아치는 속에서 GOP(전방철책초소) 철책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하루일과는 경계근무, 작업, 취침으로 8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여름에는 제초 작업, 장마기간에는 초소 물골 작업, 겨울에는 제설 작업 등을 하며 하루 일과를 보냈다. 여름에는 모기와 사투를 벌이며, 겨울에는 영하 10-20도 돼 난방을 위해 지뢰가 매설된 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벌목을 하기도 하며, 벌목 중 지뢰를 밟아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 되 후송되는 전우를 보기도 했다. 근무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며 철책선을 따라 1.5km에서 2km 책임구역 끝까지 순찰을 했다. 참으로 지겨웠던 초소 근무가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되돌아온다.

GOP근무는 1년 근무를 하고 후방부대와 교체되며 자기 책임 근무만 서다보니 선임들의 괴롭힘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훈련은 없었으나 상급부대에서 자주 순찰을 하기 때문에 초소, 막사 등을 직접도록 청소한 기억이 난다. 동절기 어려웠던 것은 눈이 많이 오면 보급로가 막히기 때문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온종일 치우는 제설작업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33개월의 병역의무를 마치고 79년 8월 만기 제대를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의 젊음을 아끼지 않은 우리 같은 군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튼튼한 국방태세 아래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해상 주권수호의 선봉에 서다

바다는 세계를 이어주는 끈이다. 세계 각국이 우호를 다지는 교량 역할을 하지만 나라 경계 및 분쟁을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터다. 서해바다에서 조금만 멀리 나가면 배타적 경제수역 분위기는 초긴장 상태다. 바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때문이다. 그들은 잠정조치수역(한중공동관리수역)에 머물다 경비 함정의 눈을 피해 어느 순간 우리 어장에 불법으로 침범해 물고기들을 싹쓸이 해간다. 불법 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갑선을 타고 오거나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흥기 등을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흥기에 맞아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중국 어선 단속과정에서 2명이 숨지고 80여 명의 경찰관이 다쳤다. 우리는 이런 불법 어선을 소탕하기 위해 8박 9일간 단 한 번의 정박도 없이 9일 내내 바다에서 생활하며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있다.

2013년 10월 7일 이른 새벽 신안군 가거도 서방해역은 한치 앞도 보이

지 않은 칠혹이었다. 바다에는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다. 1500톤급인 대형 경비함정 조차 실 새 없이 요동쳤다. 뭐라도 붙잡지 않으면 제 자리에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거친 파도 사이로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조업하고 있었다. 중국 어선들은 기상이 나쁘면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더 활개쳤다. 겨울철 단속은 그야말로 ‘악전고투’였다.

해경 단속반원은 거친 파도와도 싸우며 쇠파이프, 쇠꼬챙이, 가스통으로 무장한 중국 어선에 대응해야 했다. 서해 바다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고무보트로 중국어선에 접근하자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어선 현측에는 단속반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30센티 간격으로 쇠꼬챙이가 촘촘히 꽂혀있다. 빠르게 달리는 고무보트위에서 중국 선원의 저항을 뚫고 중국어선에 뛰어 오르는 것은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다. 해상주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관이 없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1시간여 사투 끝에 붙잡은 중국 어선 어창에는 어획물이 가득했다. 1척이 나포되자 그제야 어선들은 뱃머리를 돌리며 도주했다. 동녘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해, 우리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40척을 나포함으로써 전국 최다 함정으로 선정되는 명예를 안았다.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명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서 해상특수기동대에서 중국어 통역요원으로 근무하는 최유란 경장이 불법 침범한 중국 어선 나포 유공으로 1계급 특진하였고 상금 2천만원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하다 희생된 박경조 경위와 이창호 경사 유가족에게 전달한 바 있다. 제복은 책임감의 징표다. 제복은 국민을 위해 땀범벅일 때 가장 향기롭고, 구겨졌더라도 가장 명예로울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인명구조

2013년 1월 14일 신안군 가거도 서방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중국 어선 영해침범대비 영해 해상순찰을 하던 중 150톤급 중국어선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중이라는 긴급 구조요청을 상황실로 받고 사고해역으로 전속 향진하기 시작했다. 칠혹 같은 어둠과 험한 파도 속에서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기관실 일부에 해수가 유입돼 침수된 상태였다.

희미한 랜턴 불빛에 의지하여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기관실에 들어가 침수부위를 찾아야 한다. 1분 1초를 다투는 절박감에 자신의 안위는 고려할 겨를이 없다. 파이프 파공으로 인해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해수 유입차단을 위해 뿔기 작업등을 실시해 추가적인 해수 유입을 막고 3시간여 동안 배수펌프 등을 이용 배수 작업을 벌여 선원 14명 전원을 구조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신속히 구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 다져진 강인한 체력과 민첩성, 그리고, 일사불란한 팀워크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바다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지만 무서움을 주기도 한다.

다음날, 중국 정부로부터 국경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한 감사서한문을 받았고 국제해사기구에 ‘바다의 의인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바다의 의인상은 국제 해사기구가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를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이다.

제 2막 인생을 위하여

2015년 12월, 36년의 공직 생활을 마쳤다. 36년간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며 가족들이 준비한 퇴직 파티는 15박 17일의 유럽여행이었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스위스, 프랑스, 독일로 마무리하는 여행은 순조로웠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내 전체가 유물과 유적지인 로마,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스위스,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프랑스를 보면서 멀리만 느껴졌던 유럽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행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오랜 세월동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늘 빈자리를 남겨 두어야 했던 부족한 나에게 혼자 속앓이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힘이 되어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지금까지 못해 주었던 일들 이제 든든한 남편으로 보답해주고 싶다.

퇴직 전 기술행정사와 일반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공직 중에서의 경험과 내가 가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업인들에게 멘토 역할도 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료봉사 해주는 것이 나의 조그만 소망이다. 낯설지만 새로운 도전, 그 도전을 위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내 던는 것, 거기서부터 제 2막의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 이 글은 최재준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글을 쓴 최재준은.....

저는 산과 바다 그리고 작지만 큰 산을 품고 있는 예향의 도시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에는 마흔 살이었습니다. 당시 엄마는 출산시기 보다 무려 3주나 지나 저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3주나 늦게 태어났는지, 몸집이 커서 제왕절개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상태도 위독하고 저도 위독했지만 엄마의 꾸준한 기도를 통해 둘 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아들이라 무척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저는 첫째 누나, 둘째 누나와 각각 17살, 15살 차이가 납니다. 제 둘째 누나는 부모님께서 남자인줄 알고 낳았지만 태어나서 보니 건강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 때 만약 여자인걸 알았더라면 아이를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누나는 두 명 다 결혼을 했으며 매형 둘 다 저에게 누나만큼이나 든든합니다.

처음으로 유치원에 갔을 때 저는 아이들과 비교해서 키가 무려 십 센티에서 많으면 이십 센티나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이들과 서툰고 말을 걸기가 어려웠지만 먼저 다가와준 친구들 덕분에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몇 주 동안 토와 설사를 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심한 복통으로 광주기독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혈당 수치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주사를 맞는 게 두렵기도 하며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주사를 맞는 두려움 때문에 소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병을 안 좋게만 보지 않고 제 인생의 반환점이라고 생각하며 중학교에 올라와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좀 더 활기차고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 건강을 위해 탁구를 배우게 되었고 제가 즐겨하는 운동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본 중간고사 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음 기말고사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영어에 치달린 나머지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약 2.3등급을 끝으로 1학기를 마쳤습니다. 방학 중에 부족했던 국어와 수학을 보완을 하면서 2학기에는 꼭 2등급 내로 들어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1.5등급으로 제 목표인 교대에 가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제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으며 제 꿈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III. 구술 : 아들 딸이 쓴 우리의 이야기

수없이 쓰러져도 일어서는 오뎅이처럼

서태준 | 목포공공도서관_전남

09



무서운 아버지와 혼식 장려

1967년 6월 22일 담양군 담주리에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다른 형제보다 더 좋아해줬다고 한다. 그건 내가 엄마를 그 누구보다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교적 엄마에겐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만큼은 달랐다.

아버지는 매우 엄격 하였고, 정직한 분이셨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이 많이 났다.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께 배운 교훈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정직이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에게 정직하지 않거나 거짓을 고했을 때 우리를 마구마구 때리셨다. 그렇기 때문인지 아버지를 편하게 대하지 못했다. 물론 아버지와 편하게 대화를 나눠 본 기억도 거의 없다.

내가 8살이 되었을 때 나는 담양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그 때 우리 동네는 농촌이어서 공부보다는 언제나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깡통을 던지면서 놀거나 공을 차며 놀았다. 거기에 구슬치기도 빠지지 않았다.

학교에선 1교시나 2교시 때쯤에는 많이 배고파 몰래 도시락을 까먹는 일이 많았다. 물론 선생님께 들키면 많이 맞았다. 그리고 도시락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때 했던 혼식 장려가 떠오른다. 점심시간 때면 밥을 먹기 전에 선생님들은 매의 눈으로 밥에 보리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여 없는 애들은 엄청나게 혼을 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면 밥을 먹기 전에 양은 도시락 통을 난로 위에 올려놓았다. 그 중에 선반 자리가 부족하여 선반 아래쪽에 도시락을 놔두는 아이는 그날 형편없는 식사를 하였다.

방향한 시간들

공만 차면서 놀았던 초등시절이 지나고 중학생이 되었다. 중학생이 되자 그 이전과는 다른 맘이 생겼다. 지금처럼 자율학습도 없고 학원도 없었지만 교실에 남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중 내가 공부 의지를 포기 할 뻔한 일이 생겼다.

중학교 3학년 때였다. 담임이 체육선생님이셨는데 나에게 진지하게 사이클 선수로서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사이클 선수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들은 나도 솔직히 그 말이 솔깃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듣자마자 길길이 날뛰시면서 반대를 했다. 내 꿈은 몇 초도 되지 않아 접었다. 다시 공부를 붙잡을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광주에 있는 동신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다. 그때 까지 만해도 나는 공부 잘하는 애라고 생각하여 당당하게 입학하였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만의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시골 출신이라 도시 아이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떨어졌던 거다.

공부할 맘이 사라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다 포기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방황하게 된 게.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는 중에 좋은 친구를 알게 됐다. 친구 중에 POP음악을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덕에 음악에 푹 빠져 지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영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영어만은 성적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성적이 떨어지던 초반과는 다르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쨌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성적은 공부를 잘하는 큰형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성

적은 되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워낙에 가난하셔서 나는 대학교를 바로 가지 않고 취업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어머니가 반대 하셨다.

“아들아, 대학교는 반드시 가야 한다.”

어머니는 나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찌나 간곡히 부탁하던지 나는 다시 대학 가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큰 형이 추천한 전남대 법대를 들어가게 됐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당시 대학교에는 데모 시위가 많아 공부하고 있으면 창문에서 최루탄이 날아왔다. 정말 그건 지독한 경험이었다. 그래서 대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고 차라리 그럴 바엔 군대에 일찍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군대를 일찍 가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육군에 입대하려고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많았는지 사람이 많아 순번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사람이 없는 해병대에 가겠다고 도장을 꽂, 찍었다.

▶ 이 글은 서태준 님의 자서전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글을 쓴 서태준은.....

2003년 4월 11일 오전 8시 20분 35초 경에 태어났다. 내 고향은 목포이다. 연세 병원에서 태어났다. 성격은 다혈질이 강하고 기분 나쁜 말을 잘하고 말이 많다. 뒤끝이 강하다. 언제나 문제가 났을 때 남의 조언을 들으려는 경향이 있다. 적극적이긴 하나 목표 의식이 떨어진다. 이것보다 내 성격은 더 많겠지만 이 정도만 쓸 것이다.

집안은 평범한 공무원 집안이다. 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하나 확실한 건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좋아하는 개는 콜리종이고, 동물은 나니아에 나오는 사자이다.

졸업 학력은 친구사이 어린이집, 씬머힐 유치원, 목포용해초등학교 등을 졸업했고 졸업 앨범은 실종되어서 안타깝게도 나에 관한 옛날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고 현재 홍일 중학교를 다닌다. 컴돌이라는 직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에 떨어야 한다. (왜냐하면 날 쫓아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전교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색은 검은색이고 싫어하는 색은 빨간색이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아직 감이 없다. 그리고 난 앞으로 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편지쓰기

나에게 인생을 묻는다.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자서전 쓰기 모음집

이영남(임상역사가, 한신대 초빙교수)

우응순(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사업 기획위원)

자서전의 의미에 대해

이영남(임상역사가, 한신대 초빙교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자서전 작업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살아온 시간을 다시 이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다.

쓴다는 것은 누구를, 어떤 일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그 동안 외면하고 살았는가를 기록하는 것이다. 찬찬히 정리하면서 자기 삶을 성찰해보는 게 자서전의 의미이지 않을까.

이번에 자서전을 여러 편 읽으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한번 쭉 써 보았느냐는 점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간여행을 했는지, 중간에 빠뜨린 곳은 없는지, 갔으나 보는 척만 했는지 등을 살폈다. 잔치가 성립되려면 우선 누군가는 초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점 때문이었다. 이번 자서전 작가들은 생애 처음으로 자서전을 썼다고 한다. 처음 쓸 때는 우선 마음에 맞는 동무들을 초대하는 게 좋다. 그렇게 내 인생의 의미를 던져준 사람들을 다시 만나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동안 내가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았음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음 어딘가에 늘 있

있을 것이다. 그 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이런 저런 일을 겪을 때면 보이지 않게 도왔을 것이다. 자서전 시간은 사는 게 바쁘다며 외면했던 삶을 대면하는 시간이다. 마라톤은 완주가 중요하다고 한다. 완주는 잘할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못한 것, 감추고 싶은 것, 좌절했던 것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서전 작업도 한번 쪽 써보는 완주를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

세상은 혼자 살아오지 않았다. 누구나 자서전 작가가 되어 자기 생을 글과 대화 속에 담다보면 깨닫는 사실이다. 함께 살았던 시간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 수용하면서부터 자서전 이후의 시간이 보인다. 삶의 연속성은 자신이 추구했던 것을 달라진 상황을 고려하면서 계속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추구했던 시간이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있게 해 준 가족, 친구들과 동료들,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준 교사와 악몽 같았던 교사, 연인과 헤어진 연인이 함께 만든 시간이었음에도 있다. 자서전 시간은 내가 살아온 시간이 내 삶에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던 시간이었음을 기록하는 점이라서 중요할 것 같다.

이번 자서전 작가들은 글을 처음 쓴다면서 겸손해했다. 그럴까? 자서전을 읽으면서 사실은 내면에서는 계속 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작가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서전을 쓰기 전의 자기보다는 잘 쓰지 않았을까. 글은 기법이기보다는 자기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에서 좌우된다. 이번 자서전 작가들의 글을 만나면서 이런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 자서전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 근처 도서관에서 자서전 작가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삶 근처에 있는 도서관을 통해 함께 성찰적인 삶을 나누며 살기를.

자서전 쓰기의 의미

나의 삶이 역사가 되는 시대

우응순(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사업 기획위원)

2016년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사업을 통해 전국 12개 도서관에서 진행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고, 그 중의 일부 글들을 『나에게 인생을 묻는다』로 묶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수강생, 지도교사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소소한 기억들을 불러내고, 사진, 메모와 같은 오래 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순서를 잡아 글을 쓰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의 굳센 의지와 도서관의 자서전 쓰기 수업이 이런 상생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시대를 살았다고 하지만 각기 다른 지역과 다른 경험이 생생하게 복원된 여러 분들의 자서전을 읽어가면서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듣고 자서전 형식으로 정리한 글들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족, 세대 간의 갈등을 우려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글쓰기는 그 자체만으로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술의 역사, 구술사이기도 하지요.

흔히 우리 모두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을 받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뢰밭을 걸어가듯 조심스럽게 나날을 살아야만 하는 고난의 주인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이런저런 후회와 아픔이 항상 남기 마련입니다. 이런 삶의 궤적을 나의 힘으로 정리하고 방대한 분량의 옮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서전 쓰기가 힘든 일이지만 그 이상의 성취감을 주고,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자서전 쓰기에 도전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서전은 주로 처칠 같은 정치가나 간디와 같은 위대한 분들이 남기셨습니다. 역사에 이름이 남을 만한 큰일을 성취한 사람들이 자신이 주도한 일들, 사건의 이면에 대한 기록을 역사의 일부분으로 남기려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역사학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평범한 개인의 삶, 일상에 대한 기록, 자서전의 가치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역사책으로 정리되어 있는 인류의 역사는 정치 지도자의 통치, 전쟁 영웅의 무용담, 재난의 연대기에 대한 방대한 기록입니다. 이러한 거대사(대문자 역사)에는 그 시대를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의 생로병사의 일생, 일상의 구체성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출산을 했고, 연애, 결혼식은 어떠했는지? 친가, 외가, 처가와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지금은 이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당대의 역사를 재구하는 미시사(소문자 역사)의 시대입니다.

나의 인생이 바로 당대의 역사가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더 많이 자서전을 써 주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차분히 써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부부, 형제, 친구와 같이 도서관 자서전 쓰기 수업을 듣고 서로 격려하면서 각자의 삶을 자서전으로 남겨 주십시오. 21세기 시민문화는 시민의 힘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인생을 묻는다.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자서전 쓰기 모음집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044-203-2617

www.mcst.go.kr

한국도서관협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02-535-4868

www.libraryonroad.kr

디자인·제작 PWK

02-717-0131

www.pwkdesign.com

ISBN 978-89-7820-859-8 93020

· 이 책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무단 전재와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